

ISSN 3022-1471

2022

서울시정신건강지표

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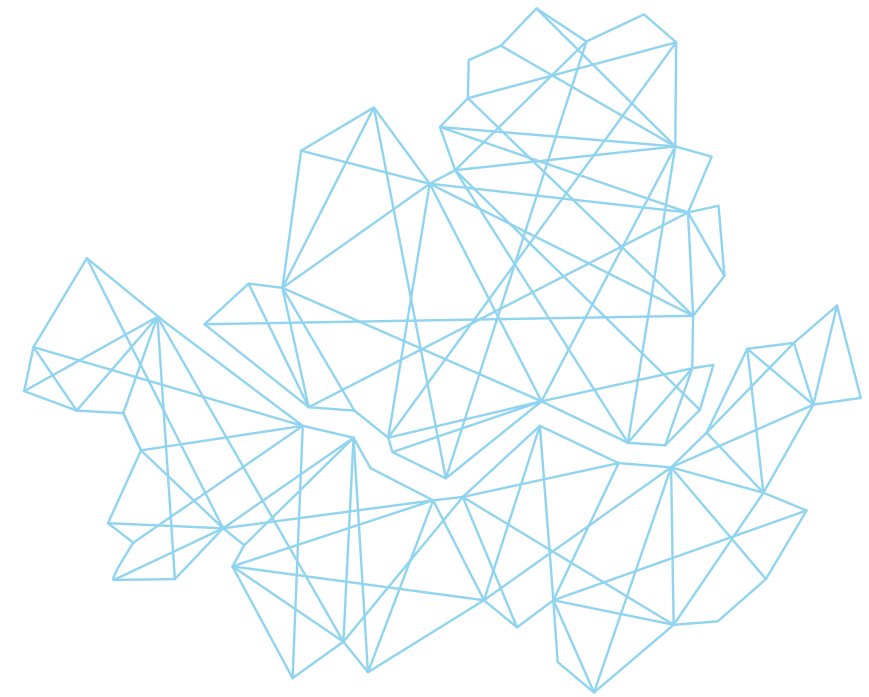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2022

서울시정신건강지표

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동행·매력
특별서울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케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발간사

근거 중심의 객관적 기준은 공공서비스의 필수적 조건인 형평성, 접근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잣대로 활용됩니다. 지표는 서울시 정신건강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신건강 사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해볼 수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해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변화되는 정신건강 환경을 반영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이러한 지표 생산 체계나 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재원이나 인력의 규모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을 점검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산출물이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정신건강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은 서울시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 서울시정신건강지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거중심의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발간하였습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표산출 및 평가와 함께 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이 해 우



1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개요

01. 지표 소개	16
02. 영역별 지표 추이	18

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01. 행정구역	22
02. 인구	23
03. 예산	36

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01. 정신건강지표 한눈에 보기		44
02. 정신건강자원		
Indicator 01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46
Indicator 0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연간 지출	48
Indicator 03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	50
Indicator 04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	52
Indicator 05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54
Indicator 06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56
03.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Indicator 07	서울시민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58
Indicator 08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60
Indicator 09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62
04. 정신건강문제		
Indicator 10	우울감 경험률	64
Indicator 11	스트레스 인지도	66
Indicator 12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68
Indicator 13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70
05. 정신질환치료		
Indicator 14	비자의 입원율	72
Indicator 15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	74
06. 정신건강서비스		
Indicator 16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76
Indicator 17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78
Indicator 18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	80
Indicator 19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82
Indicator 20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취업률	84

4

정신건강 관련 현황

01. 정신건강자원	88
02.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112
03. 정신건강문제	124
04. 정신질환치료	161
05. 정신건강서비스	175

5

부록: 참고자료

부록:참고자료	194
---------	-----

표 목차

표 1.	서울시 자치구별 행정구역 현황(2022)	22
표 2.	서울시 인구 추이(2018~2022)	23
표 3.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현황(2022)	24
표 4.	서울시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추이(2018~2022)	26
표 5.	서울시 자치구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현황(2022)	27
표 6.	서울시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추이(2018~2022)	28
표 7.	서울시 자치구별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현황(2022)	29
표 8.	서울시 1인가구, 다문화가구, 한부모가구 추이(2018~2022)	30
표 9.	서울시 자치구별 1인가구, 다문화가구 현황(2022)	31
표 10.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2020~2021)	32
표 11.	서울시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21)	33
표 12.	서울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추이(2020~2022)	34
표 13.	서울시 장애유형별 연령 현황(2022)	35
표 14.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추이(2018~2022)	36
표 15.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 추이(2017~2021)	38
표 16.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보건 예산액 추이(2017~2021)	40
표 17.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2021)	79
표 18.	서울시 정신건강 예산 추이(2018~2022)	88
표 19.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추이(2017~2022)	89
표 20.	서울시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출 추이(2017~2022)	90
표 21.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2017~2022)	90
표 22.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2022)	91
표 23.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재활시설 정원(2022)	92
표 24.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현황(2022)	93
표 25.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전문인력 추이(2017~2022)	94
표 26.	서울시 직종별 정신건강전문인력 추이(2017~2022)	95
표 27.	서울시 자치구별 기관유형별 정신건강전문인력 현황(2022)	96
표 28.	시도별 정신건강 예산 추이(2018~2021)	98
표 29.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추이(2018~2021)	99
표 30.	국내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추이(2017~2021)	100
표 31.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2018~2021)	101
표 32.	시도별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2021)	101
표 33.	시도별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원 현황(2021)	102
표 34.	국내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추이(2017~2021)	103
표 35.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현황(2021)	103
표 36.	국내 정신건강인력 추이(2018~2021)	104
표 37.	시도별 정신건강인력 현황(2021)	105
표 38.	OECD 국가별 인구 1인당 보건 지출 현황(2019)	106
표 39.	WHO 지역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지출 현황(2020)	107
표 40.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시설 현황(2020)	108
표 41.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의료기관 현황(2020)	109
표 42.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상 현황(2020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109

표 43.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인력 현황(2020)	110
표 44.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인력 추이(2014~2020)	111
표 45.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7~2021)	112
표 46.	서울시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추이(2017~2021)	113
표 47.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이용 의향 긍정응답률 추이(2011~2021)	114
표 48.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 현황(2021)	114
표 49.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 추이(2017~2021)	115
표 50.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 추이(2017~2021)	115
표 51.	국민의 평소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6~2022)	116
표 52.	지역별 평소 정신건강 상태(2022)	116
표 53.	국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추이(2016~2022)	117
표 54.	시도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2022)	118
표 55.	국민의 평소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 여부 추이(2016~2022)	119
표 56.	지역별 평소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 여부(2022)	119
표 57.	국민의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2022)	120
표 58.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 추이(2016~2022)	121
표 59.	지역별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2022)	122
표 60.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 현황(2021)	123
표 61.	서울시 자치구별 우울감 경험률(2022)	124
표 62.	서울시 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율(2022)	126
표 63.	서울시 자치구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2022)	128
표 64.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2014~2021)	130
표 65.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성별 분포 추이(2014~2021)	132
표 66.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연령별 분포 추이(2014~2021)	132
표 67.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추이(2009~2022)	133
표 68.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2022)	134
표 69.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2022)	136
표 70.	시도별 스트레스 인지율(2022)	138
표 71.	시도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2022)	140
표 72.	전국 및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2014~2021)	142
표 73.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성별 분포 추이(2014~2021)	143
표 74.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연령별 분포 추이(2014~2021)	143
표 75.	국내 정신장애 진단별 유병률 현황(2021)	144
표 76.	국내 정신장애 유병률 사회인구학적 분포 현황(2021)	145
표 77.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현황(2022)	146
표 78.	국내 자살 관련 행동 현황(2021)	148
표 79.	국가별 우울증 유병률 현황(2019)	149
표 80.	국가별 불안장애 유병률 현황(2019)	150
표 81.	OECD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추이(2010~2020)	151
표 82.	OECD 국가별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현황(2020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152
표 83.	WHO 지역별 정신장애 유병률 현황(2019)	153
표 84.	WHO 성별 정신장애 유병률 현황(2019)	154

그림 목차

표 85.	OECD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 추이(2010~2020)	155
표 86.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 현황(2020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156
표 87.	OECD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19)	157
표 88.	OECD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19)	158
표 89.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 추이(2013~2019)	159
표 90.	OECD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 추이(2010~2020)	159
표 91.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현황(2020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160
표 92.	서울시 정신질환 진료 연령별 비율 추이(2018~2022)	161
표 93.	서울시 진단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진료 수진자 추이(2019~2021)	161
표 94.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현황(2021)	162
표 95.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별 현황 및 비자의 입원을 추이(2018~2022)	163
표 96.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 방문 및 동일병원 재입원을 추이(2014~2020)	164
표 97.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분포 추이(2010~2021)	164
표 98.	국내 정신질환 진료 연령별 비율 추이(2018~2022)	165
표 99.	국내 진단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진료 수진자 추이(2018~2021)	165
표 100.	시도별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현황(2021)	166
표 101.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별 현황 및 비자의 입원을 추이(2018~2021)	167
표 102.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 방문 및 동일병원 재입원을 추이(2018~2021)	168
표 103.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분포 추이(2010~2021)	168
표 104.	WHO 지역별 정신병원 재원 기간 중간값 현황(2020)	169
표 105.	OECD 국가별 진단별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 현황(2021)	170
표 106.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진단별 퇴원 환자 현황(2020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172
표 107.	OECD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18)	173
표 108.	OECD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18)	174
표 109.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유형별 등록자 추이(2010~2022)	175
표 110.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현황(2022)	176
표 111.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령별 상담 현황(2022)	178
표 112.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문제 종류별 상담 현황(2022)	179
표 113.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 추이(2011~2022)	180
표 114.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추이(2013~2022)	182
표 115.	국내 정신장애 진단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현황(2021)	183
표 116.	국내 정신건강 관련 상담 경험률 현황(2021)	183
표 117.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 · 이용 · 입소자 현황(2021)	184
표 118.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현황(2021)	185
표 119.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2021)	186
표 120.	시도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현황(2021)	188
표 121.	WHO 지역별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비율 현황(2020)	189
표 122.	국가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현황(2021)	189
표 123.	WHO 지역별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최소 2개 이상 운영 비율 현황(2020)	190
표 124.	WHO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유형 현황(2020)	191

그림 1.	서울시 인구 추이(2018~2022)	23
그림 2.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현황(2022)	25
그림 3.	서울시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추이(2018~2022)	26
그림 4.	서울시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추이(2018~2022)	28
그림 5.	서울시 1인가구 연령별 추이(2018~2022)	30
그림 6.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2020~2021)	32
그림 7.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2022)	37
그림 8.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 현황(2021)	39
그림 9.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보건 예산액 현황(2021)	41
그림 10.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47
그림 11.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2022)	47
그림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연간 지출	49
그림 13.	서울시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출액 비중(2022)	49
그림 14.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	51
그림 15.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2022)	51
그림 16.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	53
그림 17.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2022)	53
그림 18.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55
그림 19.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2022)	55
그림 20.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57
그림 21.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2022)	57
그림 22.	서울시민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59
그림 23.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2021)	59
그림 24.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61
그림 25.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 현황	61
그림 26.	서울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63
그림 27.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2021)	63
그림 28.	우울감 경험률	65
그림 29.	서울시 자치구별 우울감 경험률(2022)	65
그림 30.	스트레스 인지도	67
그림 31.	서울시 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도(2022)	67
그림 32.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69
그림 33.	서울시 자치구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2022)	69
그림 34.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71
그림 35.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2022)	71
그림 36.	비자의 입원율	73
그림 37.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 현황(2022)	73
그림 38.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	75
그림 39.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2020)	75
그림 40.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77
그림 41.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2022)	77
그림 42.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79

그림 43.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	81
그림 44.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2022)	81
그림 45.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83
그림 46.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2022)	83
그림 47.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취업률	85
그림 48.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 등록회원 직업군 현황(2022)	85
그림 49.	서울시 정신건강 예산 추이(2018~2022)	88
그림 50.	서울시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출 추이(2017~2022)	90
그림 51.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전문인력 추이(2017~2022)	94
그림 52.	서울시 직종별 정신건강전문인력 추이(2017~2022)	95
그림 53.	서울시 자치구별 기관유형별 정신건강전문인력 현황(2022)	97
그림 54.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추이(2021)	99
그림 55.	국내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추이(2017~2021)	100
그림 56.	국내 정신건강인력 현황(2021)	104
그림 57.	WHO 지역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지출 현황(2020)	107
그림 58.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시설 현황(2020)	108
그림 59.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종사자 현황(2020)	110
그림 60.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인력 현황(2020)	111
그림 61.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7~2021)	112
그림 62.	서울시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추이(2017~2021)	113
그림 63.	국민의 평소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6~2022)	116
그림 64.	국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추이(2016~2022)	117
그림 65.	국민의 평소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 여부 추이(2016~2022)	119
그림 66.	서울시 자치구별 우울감 경험률(2022)	125
그림 67.	서울시 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율(2022)	127
그림 68.	서울시 자치구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2022)	129
그림 69.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 유병률(2021)	131
그림 70.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추이(2009~2022)	133
그림 71.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2022)	135
그림 72.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2022)	137
그림 73.	시도별 스트레스 인지율(2022)	139
그림 74.	시도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2022)	141
그림 75.	전국 및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2014~2021)	142
그림 76.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현황(2022)	147
그림 77.	OECD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추이(2010~2020)	151
그림 78.	WHO 지역별 정신장애 유병률 현황(2019)	153
그림 79.	WHO 성별 정신장애 유병률 현황(2019)	154
그림 80.	OECD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 추이(2010~2020)	155
그림 81.	OECD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19)	157
그림 82.	OECD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19)	158
그림 83.	OECD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 추이(2010~2020)	159
그림 84.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별 현황 및 비자의 입원율 추이(2018~2022)	163

그림 85.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별 현황 및 비자의 입원율 추이(2018~2021)	167
그림 86.	OECD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18)	173
그림 87.	OECD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18)	174
그림 88.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현황(2022)	177
그림 89.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령별 상담 현황(2022)	178
그림 90.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문제 종류별 상담 현황(2022)	179
그림 91.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 추이(2011~2022)	181
그림 92.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추이(2013~2022)	182
그림 93.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2021)	187
그림 94.	WHO 지역별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비율 현황(2020)	189
그림 95.	WHO 지역별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최소 2개 이상 운영 비율 현황(2020)	190

01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개요

1. 지표 소개
2. 영역별 지표 추이



지표 소개

가. 지표의의

- ▶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현황을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신건강 관련 정책 및 사업 수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신건강자원 및 서비스의 양적·질적 파악 그리고 현 정신건강 수준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표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나. 지표체계

- ▶ 서울시정신건강지표는 5개 영역별 총 20종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지표명
정신건강 자원	예산	1.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연간 지출
	기관	3.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
		4.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
		5.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인력	6.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7. 서울시민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8.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9.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율
정신건강 문제	우울	10.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11. 스트레스 인지율
	중독	12.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자살	13.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정신질환 치료	의료적서비스	14. 비자의 입원율
		15.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
정신건강 서비스	서비스제공	16.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17.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서비스결과	18.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
		19.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20.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취업률

다. 이용상 유의사항

-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지표 및 통계 데이터는 2022년 12월 31일 또는 연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자료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외 자료 활용의 한계로 일부 과거 통계를 활용하였습니다.
- ▶ 통계 수치의 단위 미만은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여, 세부 항목의 합이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지표 및 통계 데이터 산출 기준은 과거에 발간한 보고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과거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수치는 이번 보고서에서 정정한 것으로 과거 자료와 비교 시 활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 ▶ 본 보고서는 서울시 정신건강통계 홈페이지(<https://seoulmentalhealth.kr/>)에서 온라인 간행물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고서에 수록된 지표 및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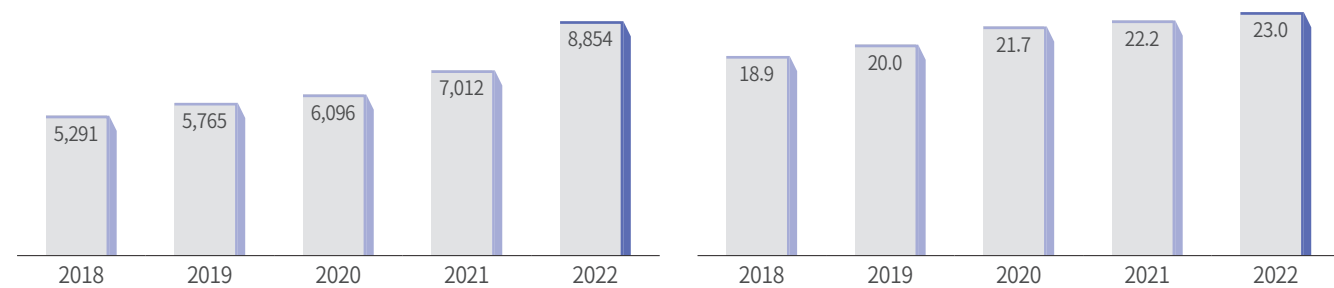
정신건강자원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단위: 원)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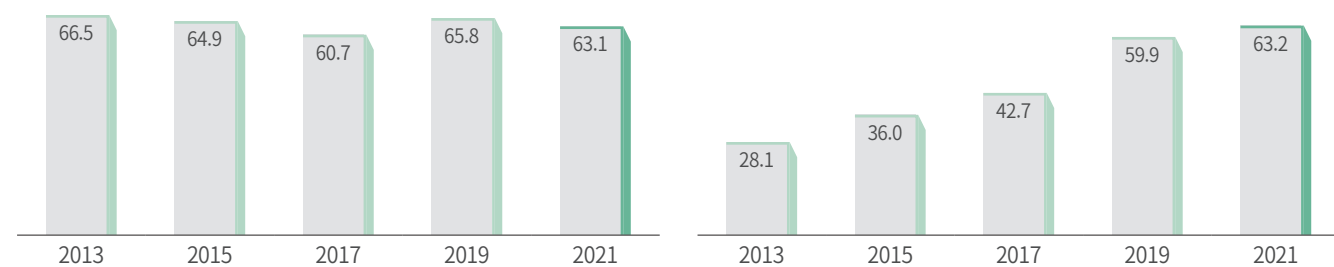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서울시민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단위: %)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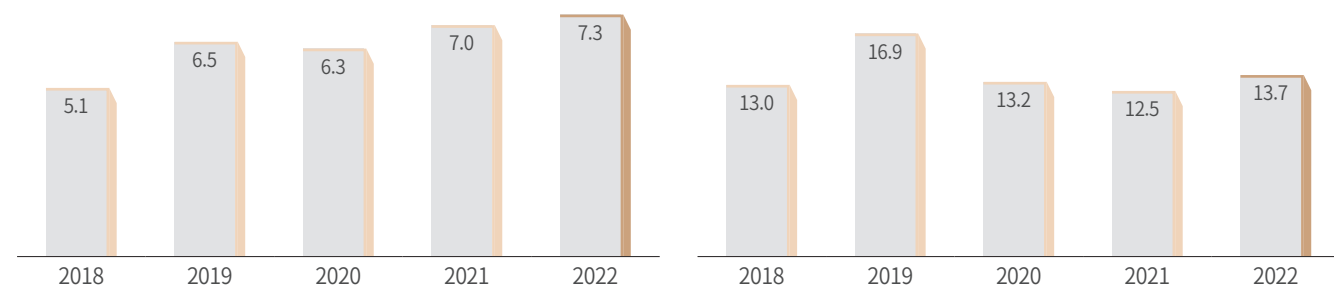
정신건강문제

우울감 경험률

(단위: %)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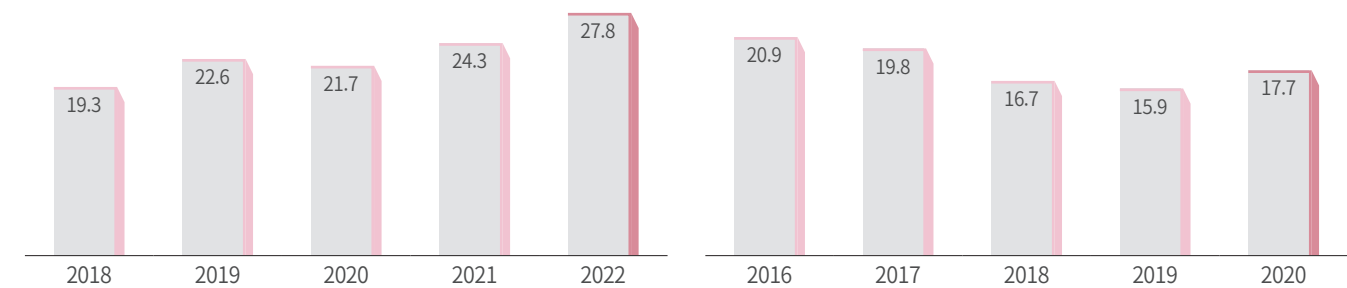
정신질환치료

비자의 입원율

(단위: %)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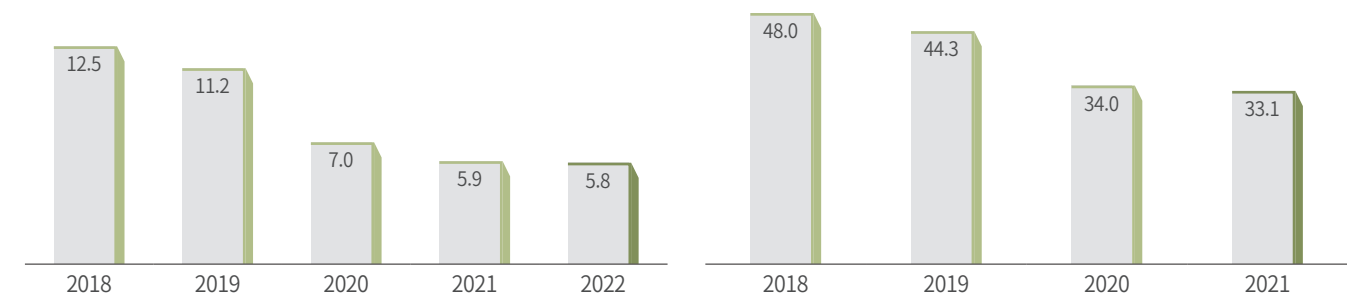
정신건강서비스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단위: %)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단위: 명)



0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1. 행정구역
2. 인구
3. 예산



01

행정구역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 면적은 605.21km²이며, 25개의 자치구와 467개의 법정동, 426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 서울시 자치구별 행정구역 현황(2022)

(단위: km², %, 개)

구분	면적	구성비	법정동 ¹	행정동 ²
서울시	605.21	100.00	467	426
종로구	23.91	3.95	87	17
중구	9.96	1.65	74	15
용산구	21.87	3.61	36	16
성동구	16.82	2.78	17	17
광진구	17.06	2.82	7	15
동대문구	14.22	2.35	10	14
중랑구	18.50	3.06	6	16
성북구	24.58	4.06	39	20
강북구	23.60	3.90	4	13
도봉구	20.65	3.41	4	14
노원구	35.44	5.86	5	19
은평구	29.71	4.91	11	16
서대문구	17.63	2.91	20	14
마포구	23.85	3.94	26	16
양천구	17.41	2.88	3	18
강서구	41.45	6.85	13	20
구로구	20.12	3.32	10	16
금천구	13.02	2.15	3	10
영등포구	24.55	4.06	34	18
동작구	16.36	2.70	9	15
관악구	29.57	4.89	3	21
서초구	46.97	7.76	10	18
강남구	39.50	6.53	14	22
송파구	33.88	5.60	13	27
강동구	24.59	4.06	9	19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1) 옛부터 전래되어온 동명으로 개인의 권리·의무 및 법률행위시 주소로 사용되는 동명칭
2)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와 인구를 기준으로 동주민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동명칭

02

인구

가. 총인구

- 서울시 총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남성의 비율은 매년 감소한 반면 여성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내국인의 비율은 2021년까지 증가 후 감소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비율은 2021년까지 감소 후 증가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서울시 총인구는 9,667,669명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4,675,560명(48.4%), 여성 4,992,109명(51.6%)으로 나타났으며, 국적으로 살펴보면 내국인 9,428,372명(97.5%), 외국인 239,297명(2.5%)으로 나타남.

표. 2 서울시 인구 추이(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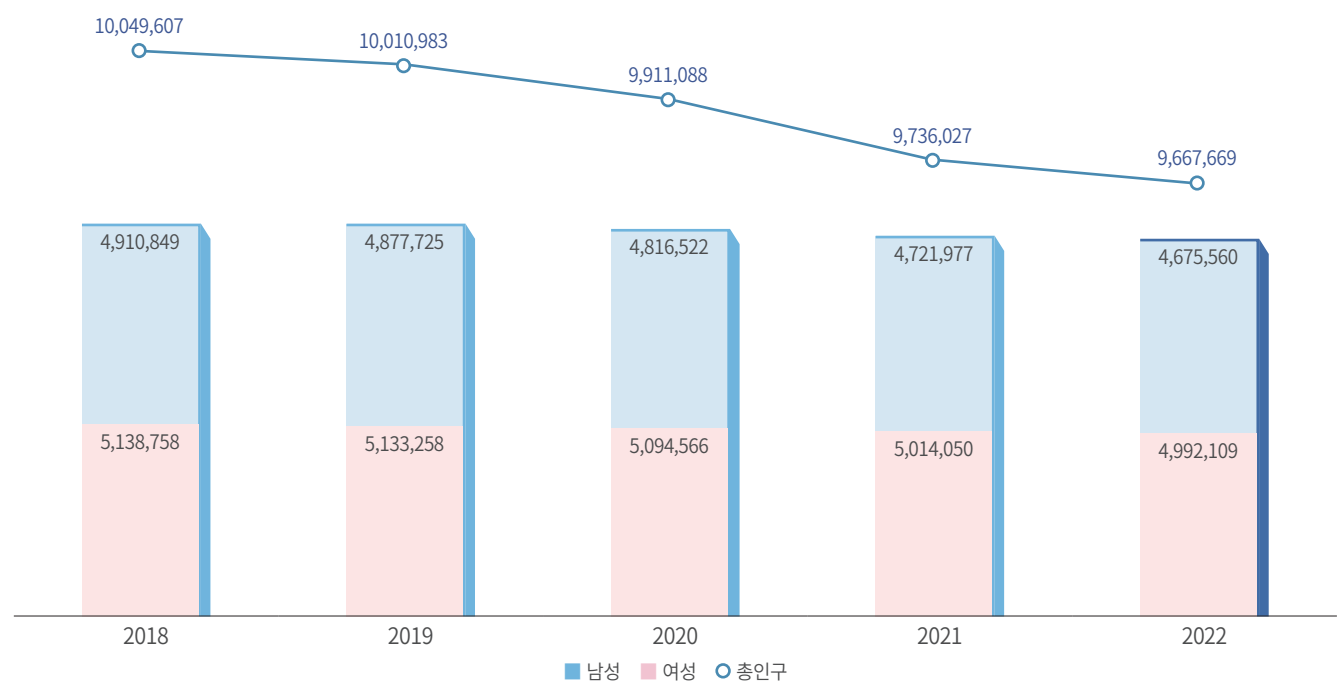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총인구	성별		국적	
		남성	여성	내국인	외국인
2018	10,049,607	4,910,849	5,138,758	9,765,623	283,984
2019	10,010,983	4,877,725	5,133,258	9,729,107	281,876
2020	9,911,088	4,816,522	5,094,566	9,668,465	242,623
2021	9,736,027	4,721,977	5,014,050	9,509,458	226,569
2022	9,667,669	4,675,560	4,992,109	9,428,372	239,297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그림. 1 서울시 인구 추이(2018~2022)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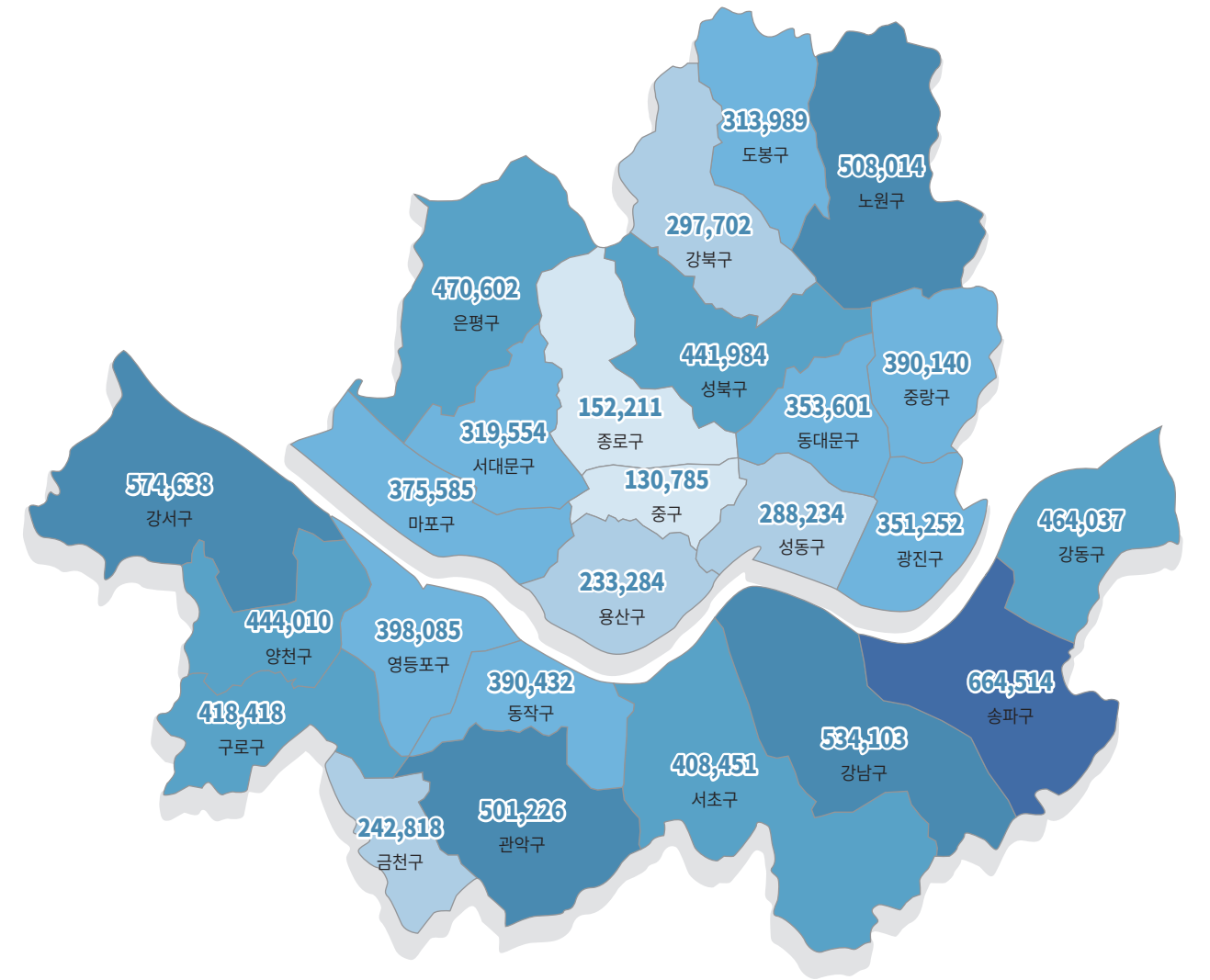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송파구가 664,51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서구 574,638명, 강남구 534,103명, 노원구 508,01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천구, 관악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적 현황을 살펴보면 내국인 대비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중구 7.9%이며 종로구 7.1%, 용산구 6.3%, 영등포구 5.6%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현황(2022) (단위: 명)

구분	총인구	성별		국적	
		남성	여성	내국인	외국인
서울시	9,667,669	4,675,560	4,992,109	9,428,372	239,297
종로구	152,211	72,980	79,231	141,379	10,832
중구	130,785	63,377	67,408	120,437	10,348
용산구	233,284	113,012	120,272	218,650	14,634
성동구	288,234	139,691	148,543	281,000	7,234
광진구	351,252	168,197	183,055	337,416	13,836
동대문구	353,601	171,903	181,698	336,644	16,957
종량구	390,140	191,422	198,718	385,318	4,822
성북구	441,984	211,246	230,738	430,397	11,587
강북구	297,702	144,037	153,665	293,660	4,042
도봉구	313,989	152,175	161,814	311,694	2,295
노원구	508,014	244,010	264,004	503,734	4,280
은평구	470,602	224,163	246,439	466,746	3,856
서대문구	319,554	150,094	169,460	306,337	13,217
마포구	375,585	175,006	200,579	364,638	10,947
양천구	444,010	216,975	227,035	440,881	3,129
강서구	574,638	275,585	299,053	569,166	5,472
구로구	418,418	206,632	211,786	395,315	23,103
금천구	242,818	122,775	120,043	229,642	13,176
영등포구	398,085	196,264	201,821	375,675	22,410
동작구	390,432	188,080	202,352	380,596	9,836
관악구	501,226	250,687	250,539	486,752	14,474
서초구	408,451	195,168	213,283	404,325	4,126
강남구	534,103	255,363	278,740	529,102	5,001
송파구	664,514	319,743	344,771	658,801	5,713
강동구	464,037	226,975	237,062	460,067	3,970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그림. 2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현황(2022) (단위: 명)



나. 연령별 인구

1)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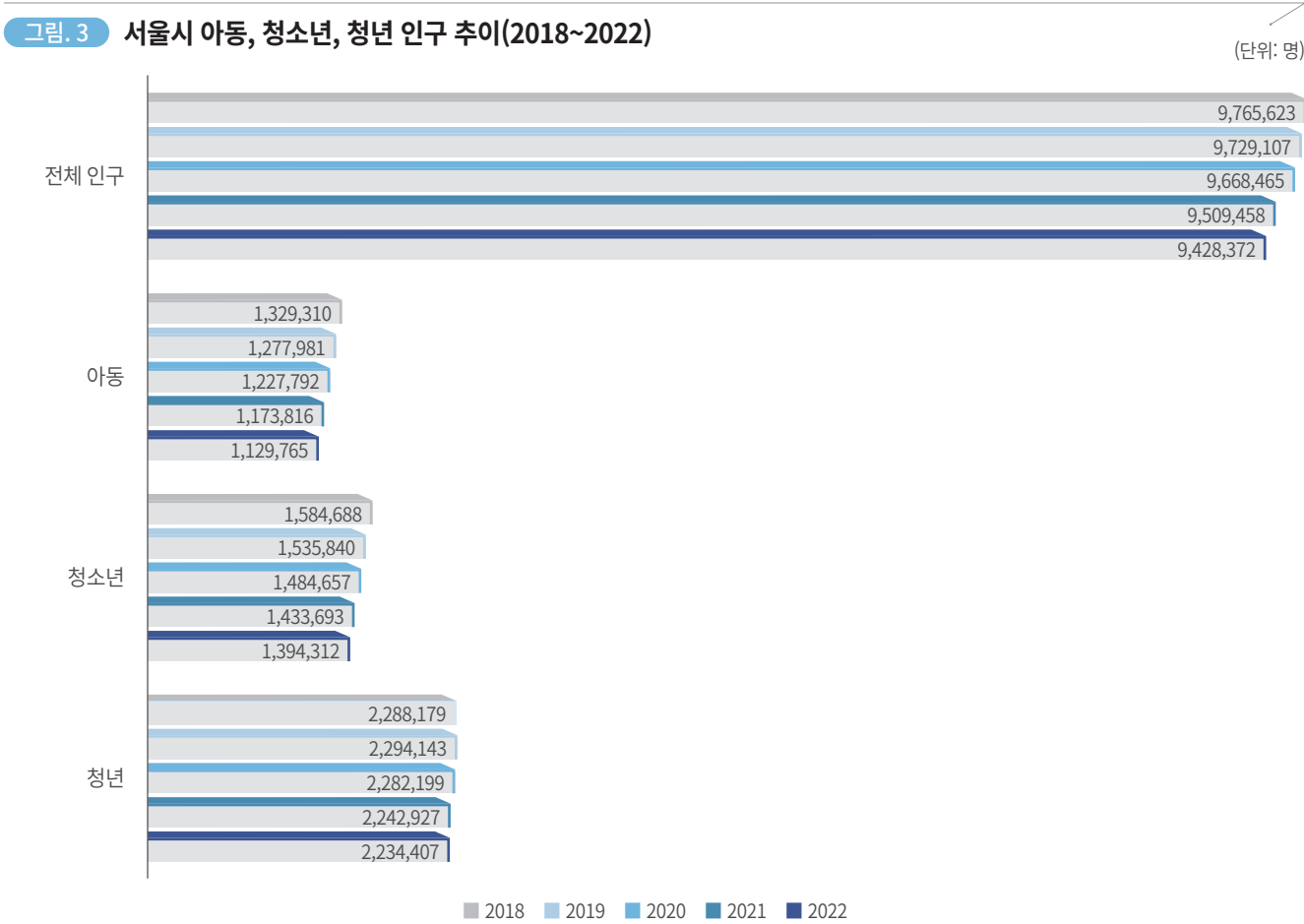
- ▶ 내국인 기준 전체 인구를 아동(18세 미만),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아동과 청소년의 인구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의 인구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2022년 기준, 아동(18세 미만) 인구는 1,129,765명(12.0%),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 인구는 1,394,312명(14.8%),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인구는 2,234,407명(23.7%)으로 나타남.

표. 4 서울시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추이(2018~2022)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내국인 기준)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2018	9,765,623	1,329,310	13.6	1,584,688	16.2	2,288,179	23.4
2019	9,729,107	1,277,981	13.1	1,535,840	15.8	2,294,143	23.6
2020	9,668,465	1,227,792	12.7	1,484,657	15.4	2,282,199	23.6
2021	9,509,458	1,173,816	12.3	1,433,693	15.1	2,242,927	23.6
2022	9,428,372	1,129,765	12.0	1,394,312	14.8	2,234,407	23.7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 ▶ 서울시 자치구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대비 아동(18세 미만)의 비율은 서초구에서 16.1%(64,98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구 15.2%(80,486명), 양천구 14.9%(65,899명), 송파구 14.1%(92,64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의 비율은 강남구에서 18.0%(95,07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천구 17.7%(78,252명), 서초구 17.6%(71,173명), 노원구 17.3%(87,29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비율은 관악구에서 34.4%(167,463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진구 27.8%(93,951명), 마포구 26.6%(96,881명), 동작구 26.4%(100,33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5 서울시 자치구별 아동, 청소년, 청년 인구 현황(2022)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내국인 기준)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서울시	9,428,372	1,129,765	12.0	1,394,312	14.8	2,234,407	23.7
종로구	141,379	14,170	10.0	20,477	14.5	34,081	24.1
중구	120,437	10,721	8.9	13,899	11.5	29,233	24.3
용산구	218,650	22,943	10.5	28,088	12.8	54,220	24.8
성동구	281,000	32,352	11.5	38,196	13.6	67,888	24.2
광진구	337,416	35,333	10.5	50,600	15.0	93,951	27.8
동대문구	336,644	35,942	10.7	50,464	15.0	84,776	25.2
중랑구	385,318	39,520	10.3	47,867	12.4	86,326	22.4
성북구	430,397	53,558	12.4	70,922	16.5	99,375	23.1
강북구	293,660	28,075	9.6	39,488	13.4	61,433	20.9
도봉구	311,694	33,628	10.8	43,126	13.8	61,968	19.9
노원구	503,734	65,901	13.1	87,296	17.3	105,558	21.0
은평구	466,746	54,064	11.6	66,215	14.2	101,823	21.8
서대문구	306,337	35,687	11.6	46,444	15.2	74,932	24.5
마포구	364,638	43,080	11.8	53,836	14.8	96,881	26.6
양천구	440,881	65,899	14.9	78,252	17.7	86,885	19.7
강서구	569,166	67,368	11.8	77,879	13.7	140,835	24.7
구로구	395,315	46,982	11.9	52,728	13.3	88,401	22.4
금천구	229,642	21,111	9.2	27,261	11.9	59,632	26.0
영등포구	375,675	41,993	11.2	46,668	12.4	98,837	26.3
동작구	380,596	41,743	11.0	55,257	14.5	100,332	26.4
관악구	486,752	37,742	7.8	66,062	13.6	167,463	34.4
서초구	404,325	64,987	16.1	71,173	17.6	82,608	20.4
강남구	529,102	80,486	15.2	95,070	18.0	112,630	21.3
송파구	658,801	92,641	14.1	99,963	15.2	147,472	22.4
강동구	460,067	63,839	13.9	67,081	14.6	96,867	21.1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2)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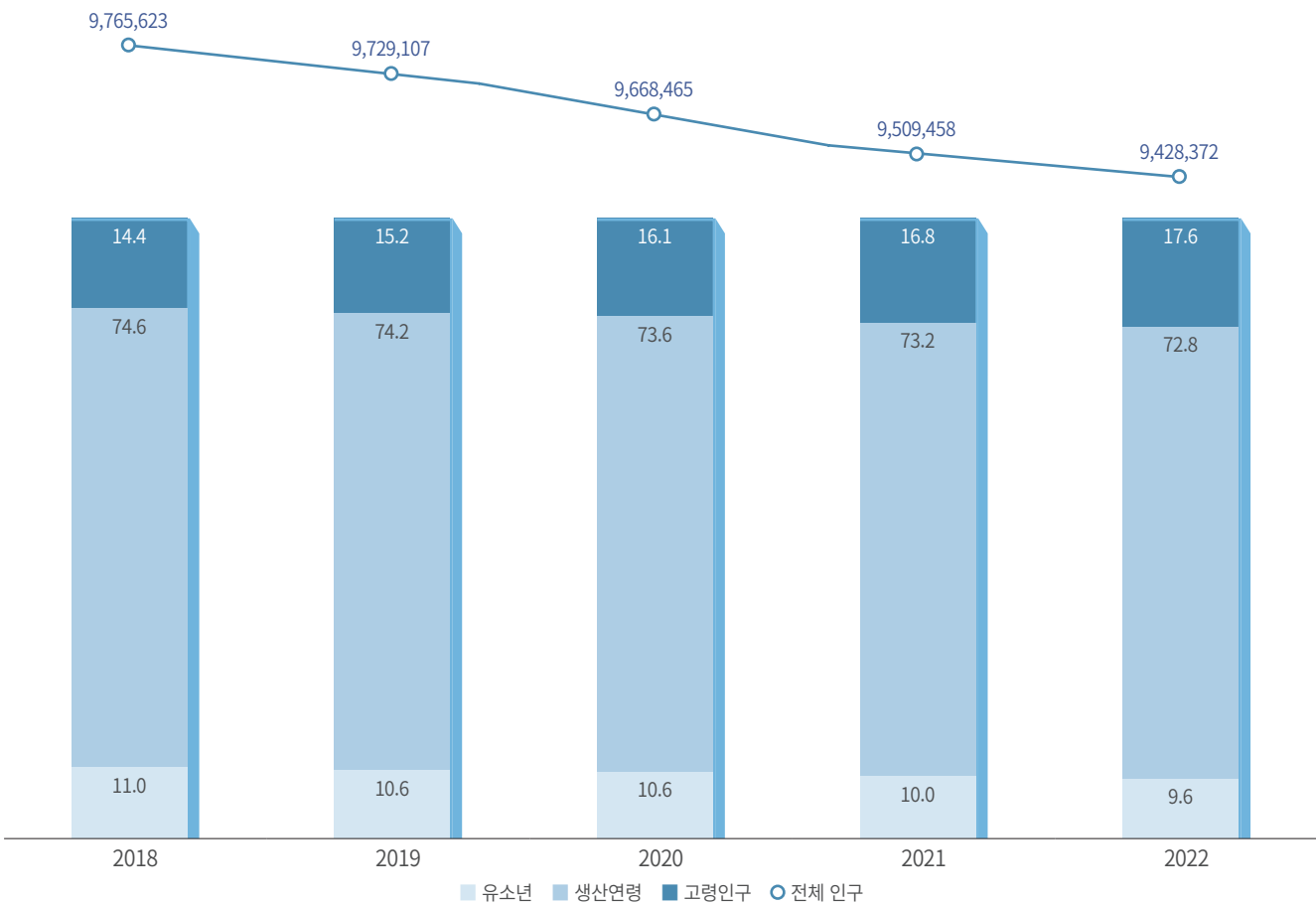
- ▶ 내국인 기준 전체 인구를 유소년인구(14세 이하),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 고령(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유소년인구 및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2022년 기준, 유소년인구(14세 이하) 907,819명(9.6%),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 6,862,346명(72.8%), 고령인구 1,658,207명(17.6%)으로 나타남.

표. 6 서울시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추이(2018~2022)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내국인 기준)	유소년인구 (14세 이하)		생산연령인구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령인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2018	9,765,623	1,070,734	11.0	7,284,592	74.6	1,410,297	14.4
2019	9,729,107	1,033,250	10.6	7,217,193	74.2	1,478,664	15.2
2020	9,668,465	995,397	10.6	7,111,929	73.6	1,561,139	16.1
2021	9,509,458	951,562	10.0	6,960,449	73.2	1,597,447	16.8
2022	9,428,372	907,819	9.6	6,862,346	72.8	1,658,207	17.6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그림. 4 서울시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추이(2018~2022) (단위: 명, %)



- ▶ 서울시 자치구별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인구(14세 이하) 비율은 송파구에서 8.3%(75,56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구 6.9%(62,278명), 강서구 6.0%(54,744명), 강동구 5.8%(52,54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 비율은 송파구에서 7.0%(479,87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서구 6.1%(417,542명), 강남구 5.6%(385,260명), 관악구 5.5%(374,94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은 송파구에서 6.2%(103,36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서구 5.8%(96,880명), 노원구 5.5%(91,946명), 은평구 5.4%(89,422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7 서울시 자치구별 유소년, 생산연령, 고령인구 현황(2022)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구 (내국인 기준)	유소년인구 (14세 이하)		생산연령인구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령인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서울시	9,428,372	907,819	100.0	6,862,346	100.0	1,658,207	100.0
종로구	141,379	11,121	1.2	102,554	1.5	27,704	1.7
중구	120,437	8,901	1.0	86,876	1.3	24,660	1.5
용산구	218,650	18,677	2.1	161,495	2.4	38,478	2.3
성동구	281,000	26,903	3.0	206,567	3.0	47,530	2.9
광진구	337,416	27,958	3.1	255,721	3.7	53,737	3.2
동대문구	336,644	29,476	3.2	242,913	3.5	64,255	3.9
중랑구	385,318	32,188	3.5	278,340	4.1	74,790	4.5
성북구	430,397	42,920	4.7	310,184	4.5	77,293	4.7
강북구	293,660	22,123	2.4	205,367	3.0	66,170	4.0
도봉구	311,694	26,616	2.9	218,136	3.2	66,942	4.0
노원구	503,734	50,770	5.6	361,018	5.3	91,946	5.5
은평구	466,746	42,981	4.7	334,343	4.9	89,422	5.4
서대문구	306,337	29,142	3.2	221,693	3.2	55,502	3.3
마포구	364,638	35,004	3.9	274,101	4.0	55,533	3.3
양천구	440,881	51,078	5.6	317,568	4.6	72,235	4.4
강서구	569,166	54,744	6.0	417,542	6.1	96,880	5.8
구로구	395,315	38,592	4.3	282,232	4.1	74,491	4.5
금천구	229,642	17,065	1.9	170,351	2.5	42,226	2.5
영등포구	375,675	35,239	3.9	277,087	4.0	63,349	3.8
동작구	380,596	34,036	3.7	278,688	4.1	67,872	4.1
관악구	486,752	29,963	3.3	374,941	5.5	81,848	4.9
서초구	404,325	51,932	5.7	290,165	4.2	62,228	3.8
강남구	529,102	62,278	6.9	385,260	5.6	81,564	4.9
송파구	658,801	75,568	8.3	479,872	7.0	103,361	6.2
강동구	460,067	52,544	5.8	329,332	4.8	78,191	4.7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다. 가구별 인구

1) 1인가구, 다문화가구, 한부모가구

서울시 가구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1인가구수와 다문화가구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부모가구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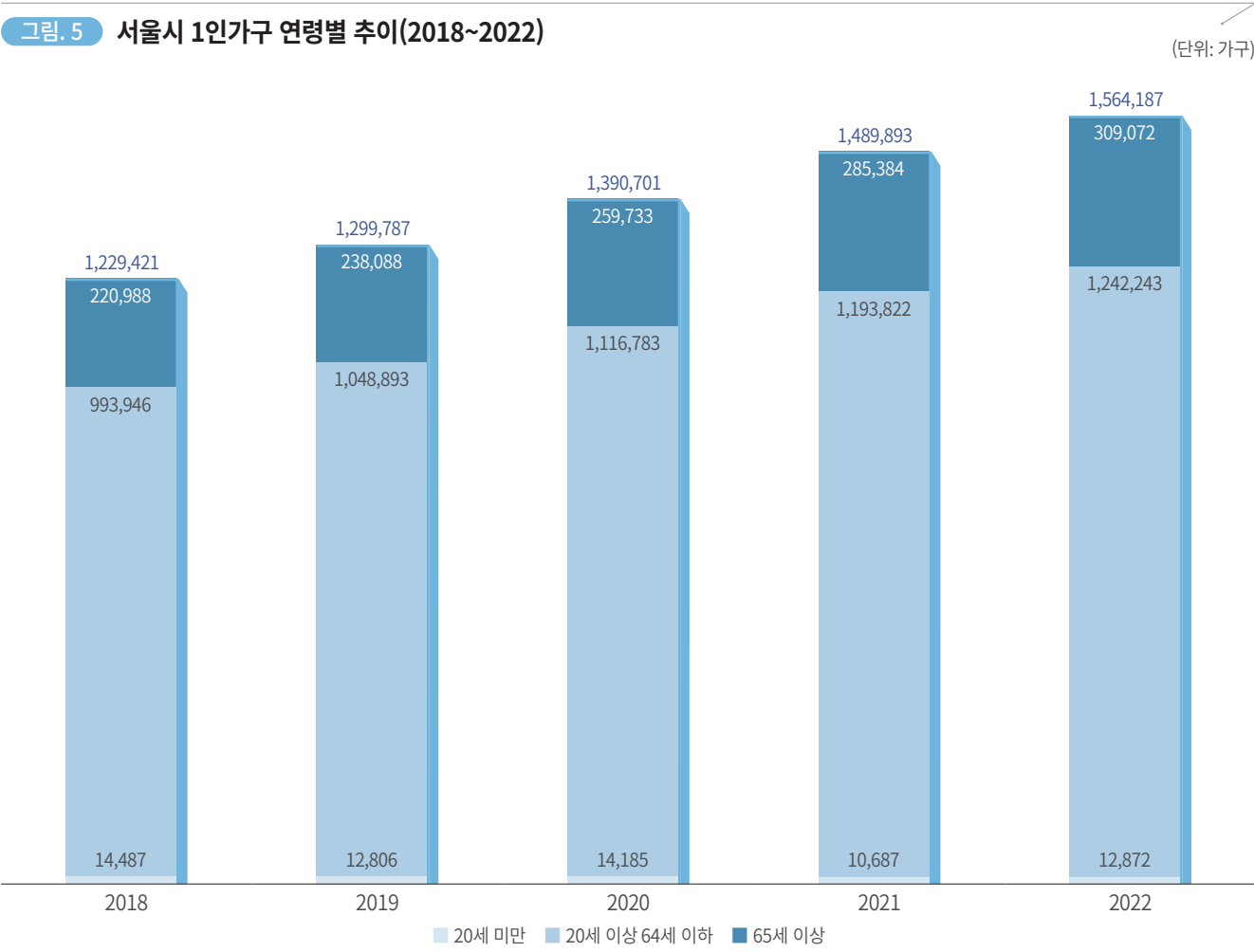
표. 8

서울시 1인가구, 다문화가구, 한부모가구 추이(2018~2022)

(단위: 가구, 명)

구분	전체가구	1인가구				다문화가구		한부모가구
		가구수	20세 미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65세 이상	가구수	가구원	
2018	3,839,766	1,229,421	14,487	993,946	220,988	67,790	183,149	306,902
2019	3,896,389	1,299,787	12,806	1,048,893	238,088	69,739	189,010	301,794
2020	3,982,290	1,390,701	14,185	1,116,783	259,733	69,790	187,239	298,389
2021	4,046,799	1,489,893	10,687	1,193,822	285,384	71,337	187,022	290,818
2022	4,098,818	1,564,187	12,872	1,242,243	309,072	72,949	190,458	285,878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 서울시 1인가구수는 1,564,187가구로 관악구가 145,433가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서구 100,695가구, 송파구 82,473가구, 영등포구 73,692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다문화가구수는 72,949가구로 구로구가 7,798가구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영등포구 6,520가구, 금천구 4,704가구, 관악구 4,466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9

서울시 자치구별 1인가구, 다문화가구 현황(2022)

(단위: 가구, 명)

구분	전체가구	1인가구				다문화가구	
		가구수	20세 미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65세 이상	가구수	가구원
서울시	4,098,818	1,564,187	12,872	1,242,243	309,072	72,949	190,458
종로구	64,422	28,424	503	22,420	5,501	1,178	3,067
중구	56,260	25,247	351	19,448	5,448	1,327	3,372
용산구	98,483	41,437	349	33,866	7,222	2,259	6,020
성동구	122,873	46,548	665	37,272	8,611	2,156	5,730
광진구	156,463	69,391	475	59,070	9,846	2,703	6,623
동대문구	155,912	68,169	1,368	53,891	12,910	2,495	6,448
종각구	170,544	64,334	213	48,209	15,912	2,620	7,096
성북구	183,972	67,222	1,788	51,543	13,891	2,376	6,682
강북구	131,275	51,134	326	35,849	14,959	2,062	5,675
도봉구	128,975	39,744	191	26,719	12,834	1,646	4,695
노원구	205,078	63,022	806	41,496	20,720	2,071	6,097
은평구	196,206	65,769	231	48,846	16,692	2,933	8,423
서대문구	136,043	54,288	857	43,159	10,272	2,014	5,605
마포구	165,603	70,030	609	59,517	9,904	2,342	6,354
양천구	169,344	45,502	145	32,146	13,211	2,619	7,289
강서구	254,540	100,695	255	80,680	19,760	3,924	10,460
구로구	169,228	58,977	211	45,614	13,152	7,798	18,320
금천구	110,689	50,528	112	41,222	9,194	4,704	11,034
영등포구	172,104	73,962	195	62,065	11,702	6,520	15,185
동작구	172,696	71,782	1,074	59,109	11,599	2,581	6,362
관악구	260,075	145,433	987	128,154	16,292	4,466	10,526
서초구	154,471	46,745	278	38,453	8,014	2,005	6,055
강남구	212,499	73,579	465	60,672	12,442	2,384	7,041
송파구	263,448	82,473	273	67,037	15,163	3,235	9,148
강동구	187,615	59,752	145	45,786	13,821	2,531	7,151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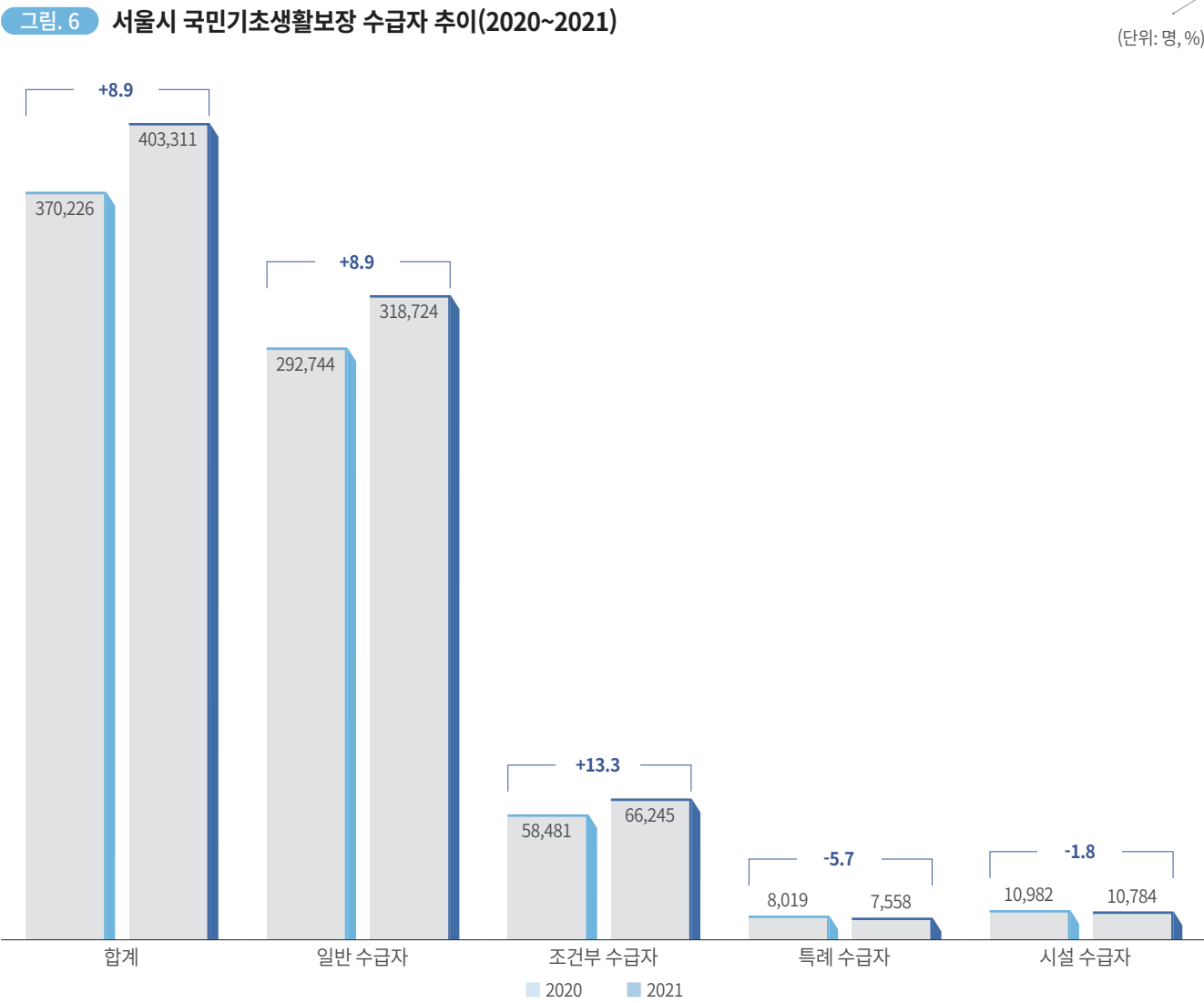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전체 수급자 인원은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수급자 8.9% 증가, 조건부 수급자 13.3% 증가, 특례 수급자 및 시설 수급자 각각 5.7%,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0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이(2020~2021)

(단위: 명, %)

구분	합계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	시설 수급자
2020	370,226	292,744	58,481	8,019	10,982
2021	403,311	318,724	66,245	7,558	10,784
증감	+8.9	+8.9	+13.3	-5.7	-1.8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급자 403,311명으로 일반수급자 318,724명(79.0%), 조건부 수급자 66,245명(16.4%), 특례 수급자 7,558명(1.9%), 시설 수급자 10,784명(2.7%)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노원구 32,553명, 강서구 31,000명, 중랑구 27,15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 서울시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합계	일반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 수급자	시설 수급자
서울시	403,311	318,724	66,245	7,558	10,784
종로구	5,559	4,221	593	195	550
중구	5,905	5,121	577	95	112
용산구	8,882	7,078	1,280	273	251
성동구	10,241	7,782	2,122	203	134
광진구	13,261	11,029	2,030	129	73
동대문구	16,190	13,658	1,800	564	168
중랑구	27,154	23,100	3,259	223	572
성북구	16,740	12,581	3,496	263	400
강북구	21,917	17,379	3,750	527	261
도봉구	15,373	12,363	2,599	128	283
노원구	32,553	25,042	6,619	223	669
은평구	25,438	19,192	4,259	378	1,609
서대문구	11,834	9,552	1,695	117	470
마포구	10,969	8,358	2,194	211	206
양천구	17,463	14,660	2,390	155	258
강서구	31,000	25,224	4,567	727	482
구로구	13,861	10,789	1,933	660	479
금천구	12,625	9,569	2,667	66	323
영등포구	11,828	8,923	2,226	190	489
동작구	13,202	10,647	2,149	71	335
관악구	22,941	17,976	3,926	653	386
서초구	7,418	6,143	1,066	54	155
강남구	15,840	11,557	2,883	797	603
송파구	17,769	13,732	3,331	325	381
강동구	16,669	13,048	2,834	331	456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마. 등록장애인

- ▶ 서울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수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지체, 시각, 뇌병변, 심장장애, 뇌전증 유형의 등록장애인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청각, 언어, 지적장애, 자폐성, 정신장애, 신장장애,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유형의 등록장애인 수는 증가하는 추이로 나타남.

표. 12

서울시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추이(2020~2022)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합계	394,190	392,123	391,859
지체	172,606	167,986	164,464
시각	41,624	41,220	40,991
청각	57,430	59,714	61,995
언어	3,414	3,416	3,421
지적장애	27,084	27,330	27,634
뇌병변	40,905	40,299	39,859
자폐성	6,415	6,855	7,491
정신장애	16,525	16,600	16,546
신장장애	17,895	18,301	18,883
심장장애	1,040	1,008	998
호흡기	2,125	2,143	2,156
간	2,597	2,663	2,715
안면	378	381	385
장루·요루	2,901	2,959	3,087
뇌전증	1,251	1,248	1,234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 ▶ 2022년 기준, 서울시 장애인 수는 391,859명으로 19세 이하 13,719명(3.5%), 20세 이상 30세 미만 15,433명(3.9%), 30세 이상 40세 미만 18,270명(4.7%), 40세 이상 50세 미만 31,236명(8.0%), 50세 이상 60세 미만 57,177명(14.6%), 60세 이상 70세 미만 91,504명(23.4%), 70세 이상 80세 미만 90,442명(23.1%), 80세 이상 74,078명(18.9%)으로 나타남.
- ▶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 164,464명, 청각장애 61,995명, 시각장애 40,99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는 16,546명으로 나타남.
- ▶ 정신장애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연령대는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60세 이상 7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3

서울시 장애유형별 연령 현황(2022)

(단위: 명)

구분	합계	19세 이하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80세 이상
합계	391,859	13,719	15,433	18,270	31,236	57,177	91,504	90,442	74,078
지체	164,464	569	2,048	4,569	12,034	26,743	46,735	42,802	28,964
시각	40,991	418	1,149	2,122	3,940	6,513	9,502	9,932	7,415
청각	61,995	688	932	1,039	1,773	3,894	10,021	18,065	25,583
언어	3,421	520	83	111	280	537	815	730	345
지적장애	27,634	5,564	6,851	5,392	4,373	3,104	1,779	446	125
뇌병변	39,859	1,695	1,215	1,277	2,496	4,975	9,703	10,595	7,903
자폐성	7,491	3,994	2,197	1,107	167	22	4	-	-
정신장애	16,546	9	429	1,467	3,418	5,634	4,227	1,168	194
신장장애	18,883	37	214	768	1,999	4,065	5,555	4,026	2,219
심장장애	998	54	110	83	67	111	211	236	126
호흡기	2,156	7	14	26	75	225	722	808	279
간	2,715	74	68	73	201	636	1,066	546	51
안면	385	7	16	44	78	82	93	53	12
장루·요루	3,087	28	24	63	96	296	761	969	850
뇌전증	1,234	55	83	129	239	340	310	66	12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가.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함.
-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 기준 76.3%로 전국 45.3%보다 31.0%p 높은 자립수준을 보임.
- 2022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원구가 16.7%로 가장 낮게 나타나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수준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표. 14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추이(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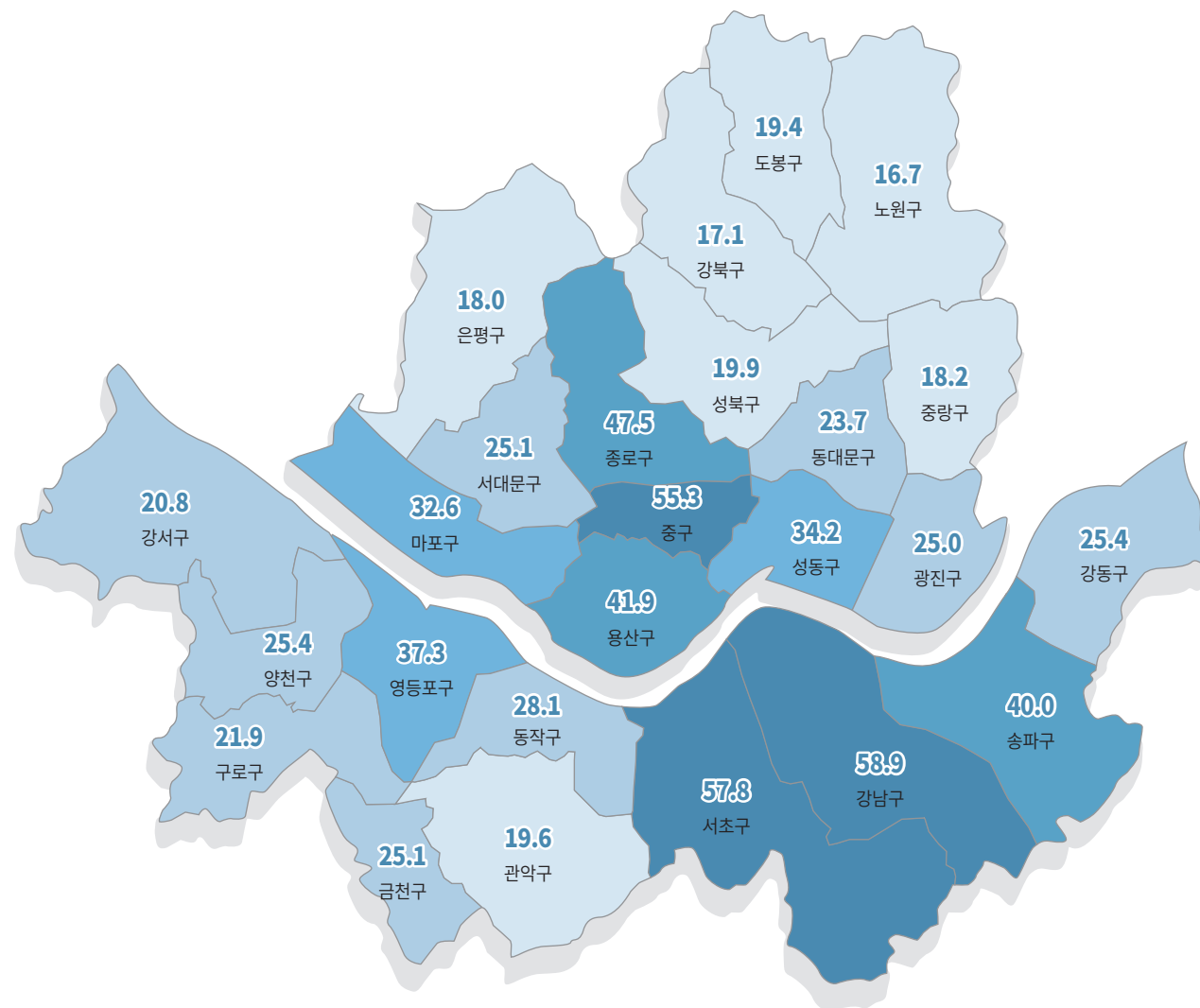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시	79.2	76.5	76.1	75.6	76.3
종로구	47.4	47.4	47.0	47.2	47.5
중구	53.4	54.9	53.5	55.3	55.3
용산구	41.1	39.2	39.3	41.7	41.9
성동구	34.1	32.5	32.7	33.2	34.2
광진구	27.1	26.7	26.2	26.1	25.0
동대문구	25.6	23.8	23.2	24.5	23.7
종량구	19.0	18.1	17.5	18.2	18.2
성북구	19.6	19.6	20.0	20.6	19.9
강북구	17.6	16.8	16.8	17.2	17.1
도봉구	18.5	17.8	18.4	18.9	19.4
노원구	15.6	15.4	15.8	15.9	16.7
은평구	18.0	17.5	17.9	18.4	18.0
서대문구	25.4	24.1	23.4	23.5	25.1
마포구	31.5	30.7	31.6	32.0	32.6
양천구	26.8	24.5	25.2	25.2	25.4
강서구	21.5	19.7	21.1	21.9	20.8
구로구	22.5	21.8	22.2	22.5	21.9
금천구	25.6	25.3	24.7	26.3	25.1
영등포구	37.9	35.7	36.0	36.5	37.3
동작구	26.8	26.0	26.4	29.1	28.1
관악구	19.4	18.7	19.3	19.7	19.6
서초구	53.4	53.3	54.7	58.2	57.8
강남구	53.3	54.4	52.3	54.9	58.9
송파구	39.0	38.4	37.6	39.8	40.0
강동구	31.0	22.2	26.3	26.7	25.4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그림. 7 서울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2022)

(단위: %)



나. 사회복지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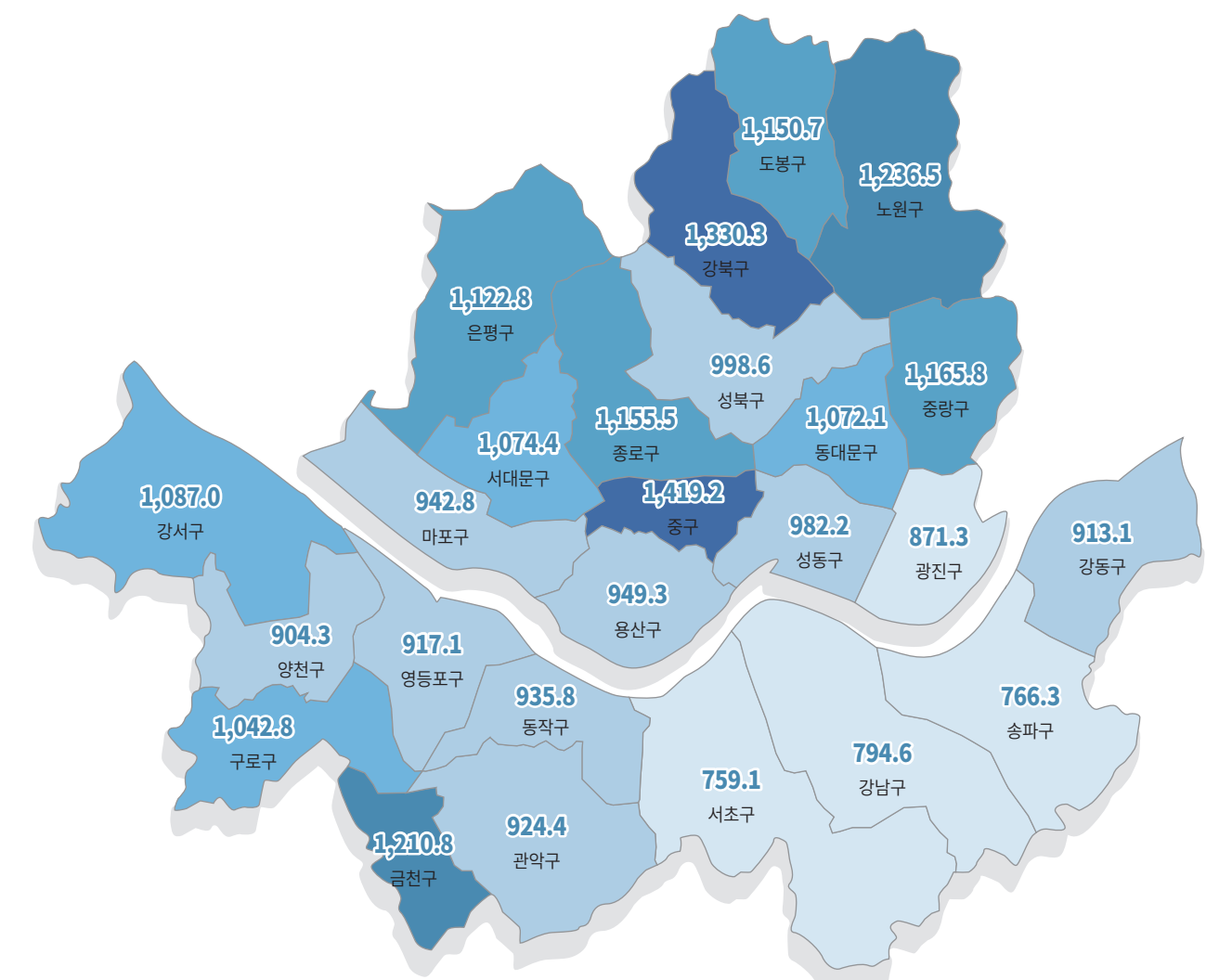
- 서울시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1년 기준 1,000.6천원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은 중구 1,419.2천원, 강북구 1,330.3천원, 노원구 1,236.5천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5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 추이(2017~2021) (단위: 천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시	666.0	754.5	816.9	918.9	1,000.6
종로구	778.8	861.5	893.8	1,053.4	1,155.5
중구	905.0	1,018.0	1,198.8	1,341.4	1,419.2
용산구	620.3	739.9	751.0	863.2	949.3
성동구	620.7	700.2	775.6	883.4	982.2
광진구	544.8	619.7	692.0	787.0	871.3
동대문구	754.6	862.7	873.0	1,006.0	1,072.1
중랑구	730.8	815.0	927.1	1,056.7	1,165.8
성북구	695.6	781.4	836.9	923.0	998.6
강북구	839.2	963.5	1,081.1	1,210.1	1,330.3
도봉구	716.9	827.1	923.1	1,051.6	1,150.7
노원구	791.0	917.9	1,021.1	1,127.7	1,236.5
은평구	761.7	833.1	913.4	1,035.4	1,122.8
서대문구	666.4	726.3	831.9	941.7	1,074.4
마포구	668.8	735.5	793.7	887.0	942.8
양천구	601.6	706.4	740.9	818.7	904.3
강서구	716.9	805.0	916.5	1,017.5	1,087.0
구로구	702.8	805.1	868.5	949.4	1,042.8
금천구	870.1	900.6	995.2	1,155.8	1,210.8
영등포구	676.3	732.4	757.3	844.7	917.1
동작구	632.3	731.5	765.7	886.7	935.8
관악구	621.7	675.2	762.4	875.0	924.4
서초구	487.8	570.2	578.1	694.8	759.1
강남구	537.6	654.7	657.3	738.1	794.6
송파구	481.2	557.9	607.9	698.5	766.3
강동구	666.6	758.6	779.5	789.6	913.1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그림. 8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액 현황(2021) (단위: 천 원)



다. 보건예산

- ▶ 서울시 인구 1인당 보건 예산액은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 감소한 후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1년 기준 46.8천원으로 나타남.
- ▶ 2021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보건 예산액은 중구 83.9천원, 서대문구 68.9천원, 종로구 64.1천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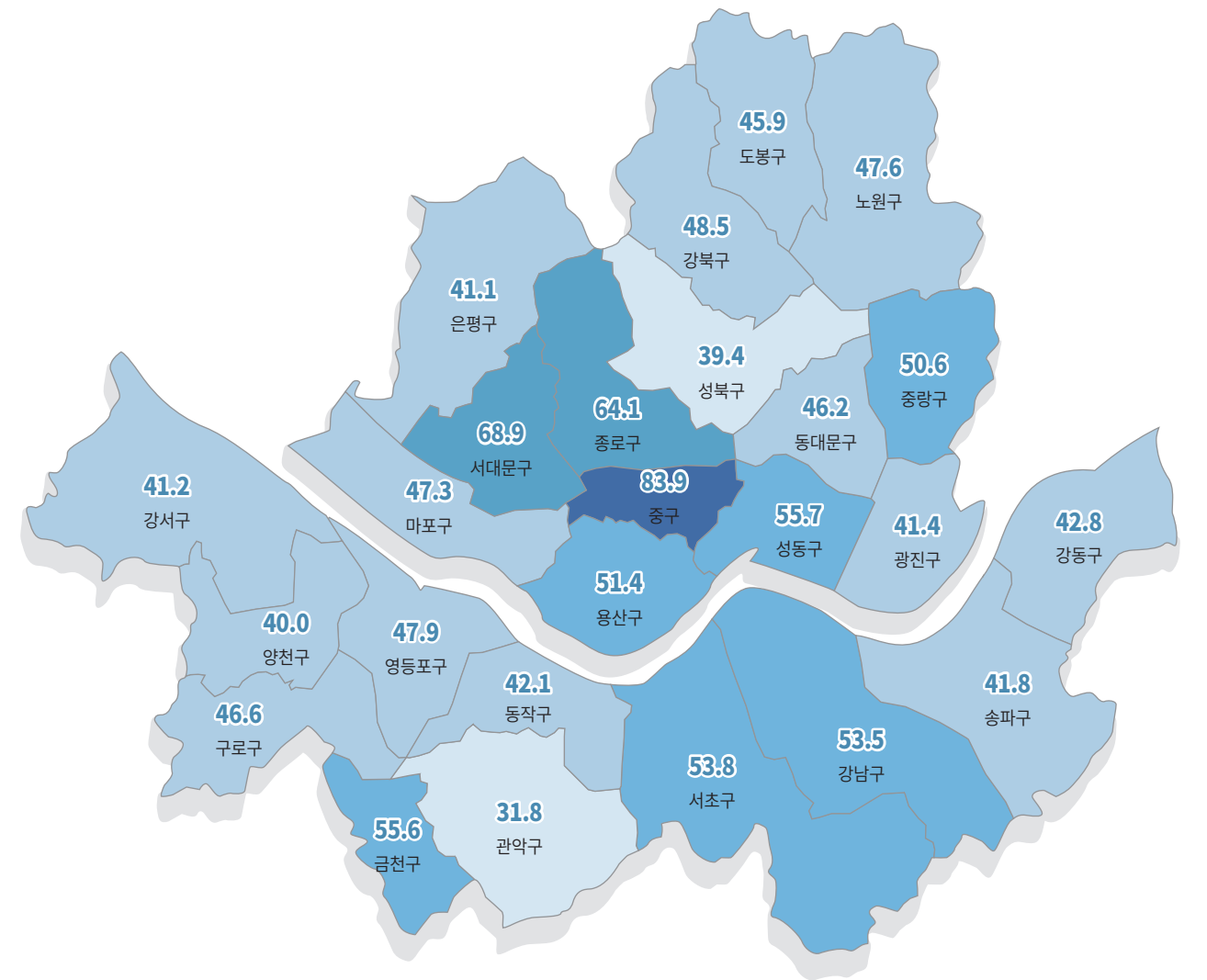
표. 16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보건 예산액 추이(2017~2021) (단위: 천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시	41.1	43.5	37.2	39.6	46.8
종로구	51.5	58.6	51.2	58.4	64.1
중구	70.9	79.7	59.1	69.9	83.9
용산구	42.8	45.1	31.2	40.5	51.4
성동구	47.3	46.9	46.1	43.6	55.7
광진구	41.5	39.5	32.4	37.5	41.4
동대문구	40.0	42.7	35.1	40.1	46.2
중랑구	39.4	41.8	37.0	40.2	50.6
성북구	42.5	51.1	35.6	36.6	39.4
강북구	48.3	52.8	47.9	45.1	48.5
도봉구	39.6	35.6	35.9	39.0	45.9
노원구	39.7	48.0	39.1	42.6	47.6
은평구	41.3	43.4	30.9	34.6	41.1
서대문구	42.4	45.9	47.9	43.8	68.9
마포구	43.3	44.8	38.8	40.9	47.3
양천구	33.1	33.5	30.0	35.4	40.0
강서구	37.2	36.9	37.2	38.3	41.2
구로구	48.0	49.9	46.7	38.6	46.6
금천구	49.9	48.9	40.3	49.9	55.6
영등포구	41.8	44.7	37.1	39.6	47.9
동작구	38.6	37.9	31.5	34.5	42.1
관악구	32.9	33.2	28.8	27.3	31.8
서초구	41.3	47.1	37.3	44.7	53.8
강남구	39.5	38.4	33.6	42.4	53.5
송파구	35.2	39.4	36.0	35.9	41.8
강동구	43.5	48.9	36.9	36.9	42.8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그림. 9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보건 예산액 현황(2021)

(단위: 천 원)



0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1. 정신건강지표 한눈에 보기
2. 정신건강자원
3.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4. 정신건강문제
5. 정신질환치료
6. 정신건강서비스



정신건강지표 한눈에 보기

정신건강 자원	예산	01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8,854 원 2022년
		0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연간 지출	11.7 % 2022년
	기관	03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	0.41 병상 2022년
		04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	17.1 명 2022년
		05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6.7 명 2022년
	인력	06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23.0 명 2022년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		07	서울시민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63.1 % 2021년
		08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61.7 % 2021년
		09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율	63.2 % 2021년

정신건강 문제	우울	10	우울감 경험률	7.3 % 2022년
	스트레스	11	스트레스 인지율	24.0 % 2022년
	중독	12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13.7 % 2022년
	자살	13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21.4 명 2022년
정신질환 치료	의료적 서비스	14	비자의 입원율	27.8 % 2022년
		15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	17.7 % 2020년
정신건강 서비스	서비스 제공	16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5.8 % 2022년
		17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33.1 명 2021년
	서비스 결과	18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	3.6 % 2022년
		19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90.9 % 2022년
		20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취업률	4.8 % 2022년

정신건강자원

Indicator 01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8,854 원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대비 서울시 정신건강 예산



측정산식

- 분자: 서울시 2022년 정신건강 예산
- 분모: 서울시 주민등록인구(2022.12.31.)



산식설명

- 2022년 연간 서울시 정신건강 예산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수(2022.12.31.)로 나눈 수치
- 서울시 정신건강 예산은 서울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광역·기초),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운영 예산 등을 포함하고 있음



지표현황

- 2022년 서울시 정신건강 예산은 83,483백만원으로 2021년 66,679백만원에서 약 32.7% 증가함
- 2022년 서울시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8,854원으로 2021년 대비 1,842원(26.3%) 증가함
-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1,866원, 2015년 4,716원, 2022년 8,854원으로 매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은 증가하고 있음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예산서(2022)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2.12.31.)

그림. 10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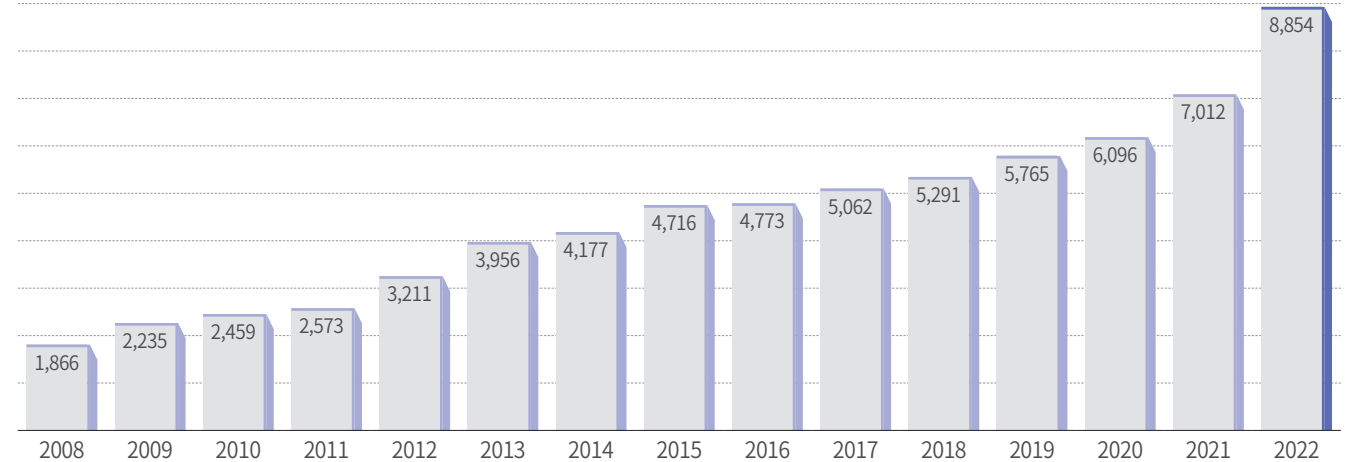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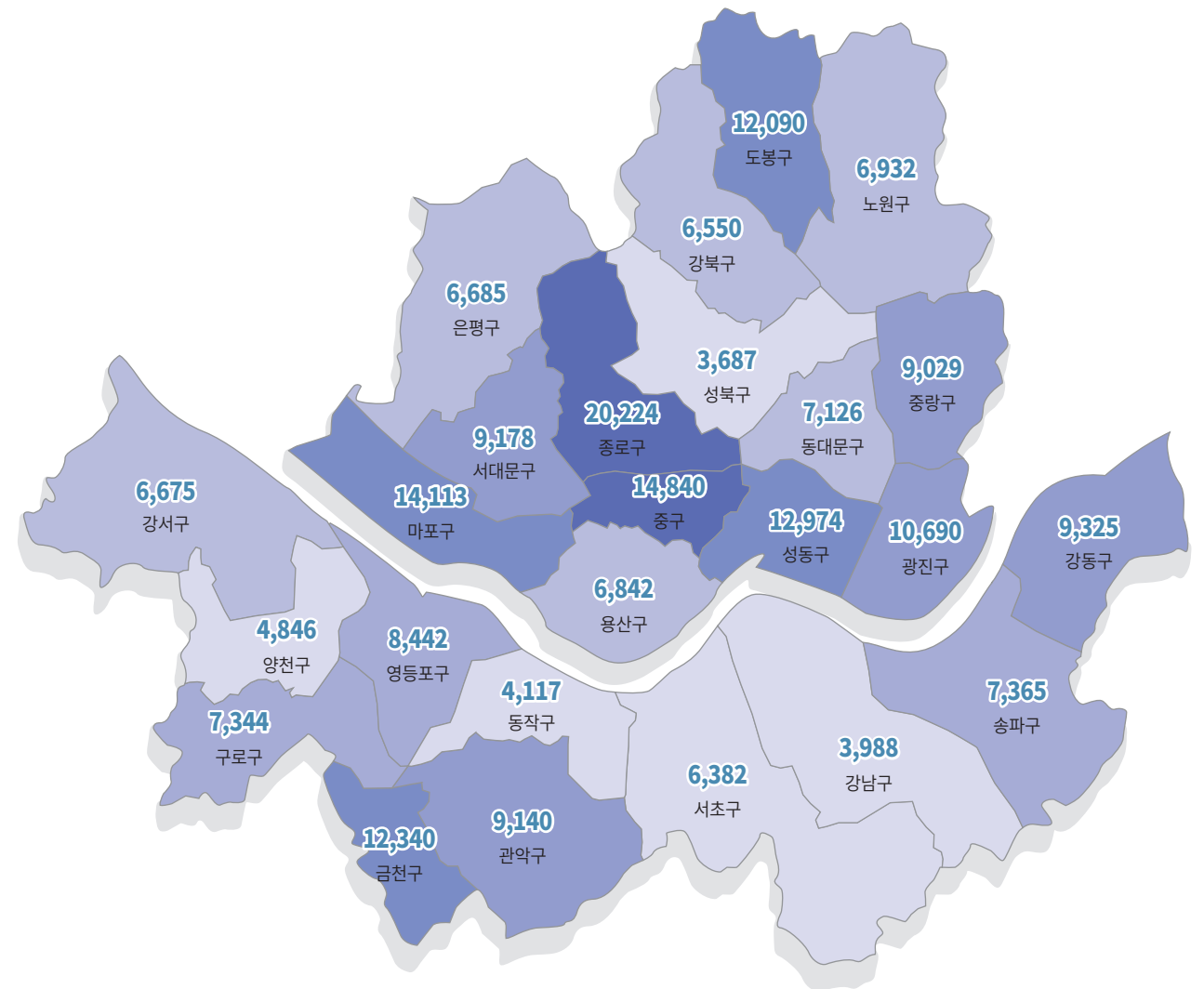


그림. 11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예산(2022)

(단위: 원)



Indicator 0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연간 지출



11.7 %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의료급여 지출액 중 정신질환(F코드)에 대한 지출액 비중



측정산식

- 분자: 서울시 정신질환(F코드) 의료급여 지출액(2022.12.31.) × 100
- 분모: 서울시 전체 의료급여 지출액(2022.12.31.)



산식설명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전체 의료급여 지출액 중 정신질환(F코드)으로 지출된 의료급여 비중



지표현황

- 2022년 서울시 의료급여 지출 중 정신질환(F코드)이 차지하는 비중은 11.7%이며 2021년 대비 0.3%p 증가함
- 2022년 서울시 의료급여 지출액은 1,594,537백만원으로 2021년 1,508,806백만원 대비 5.7% 증가했으며,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출액은 186,585백만원으로 2021년 172,418백만원 대비 8.2% 증가함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시 의료급여 지출액(2022.12.31.)

그림.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연간 지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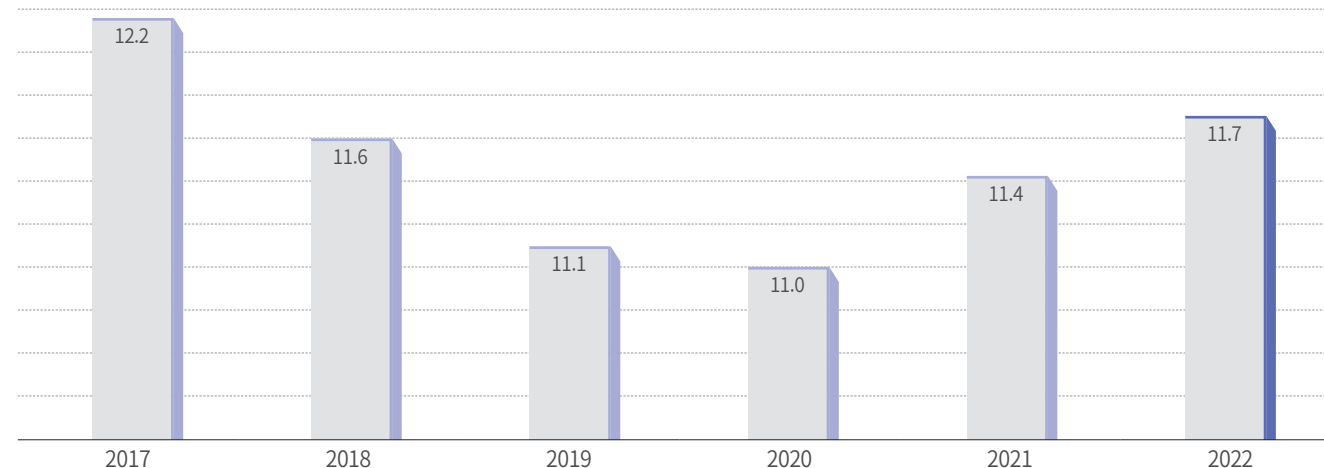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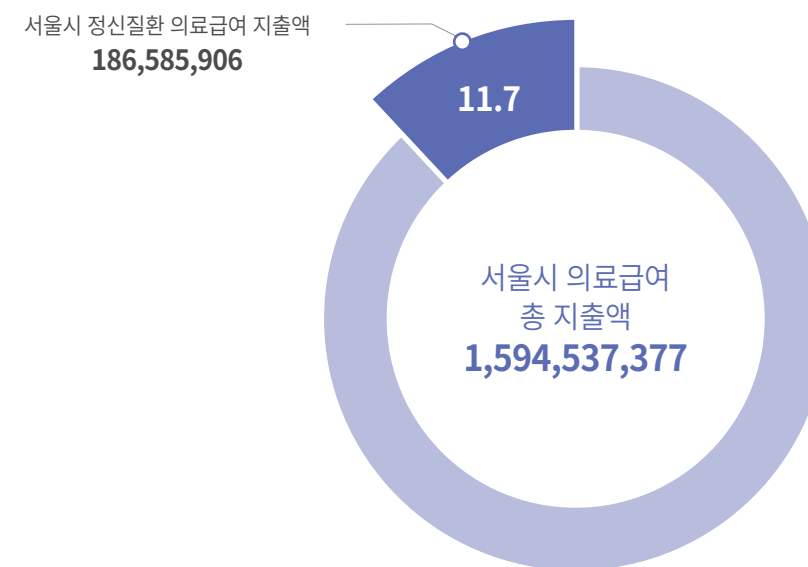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시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출액 비중(2022)

(단위: 천원, %)



Indicator 03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



0.41 병상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서울시 인구 1,000명당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내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



측정산식

- 분자: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상수(2022.12.31.) × 1,000
- 분모: 서울시 주민등록인구(2022.12.31.)



산식설명

-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내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를 해당연도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2022.12.31.) 수로 나눈 수치
- 정신병상은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가능한 총 병상이 아닌 정신과 입원병상을 의미하며, 개방병상과 폐쇄병상으로 구분됨



지표현황

- 2022년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상수는 3,854병상으로 2021년 4,571병상 대비 15.7% 감소함
- 2022년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는 0.41병상으로 2021년 0.49병상 대비 0.08병상 감소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2022.12.31.) 데이터 분석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2.12.31.)

그림. 14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

(단위: 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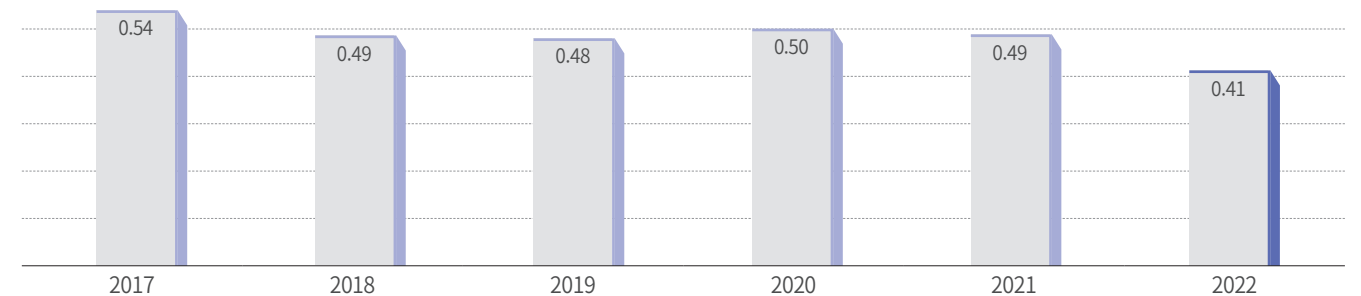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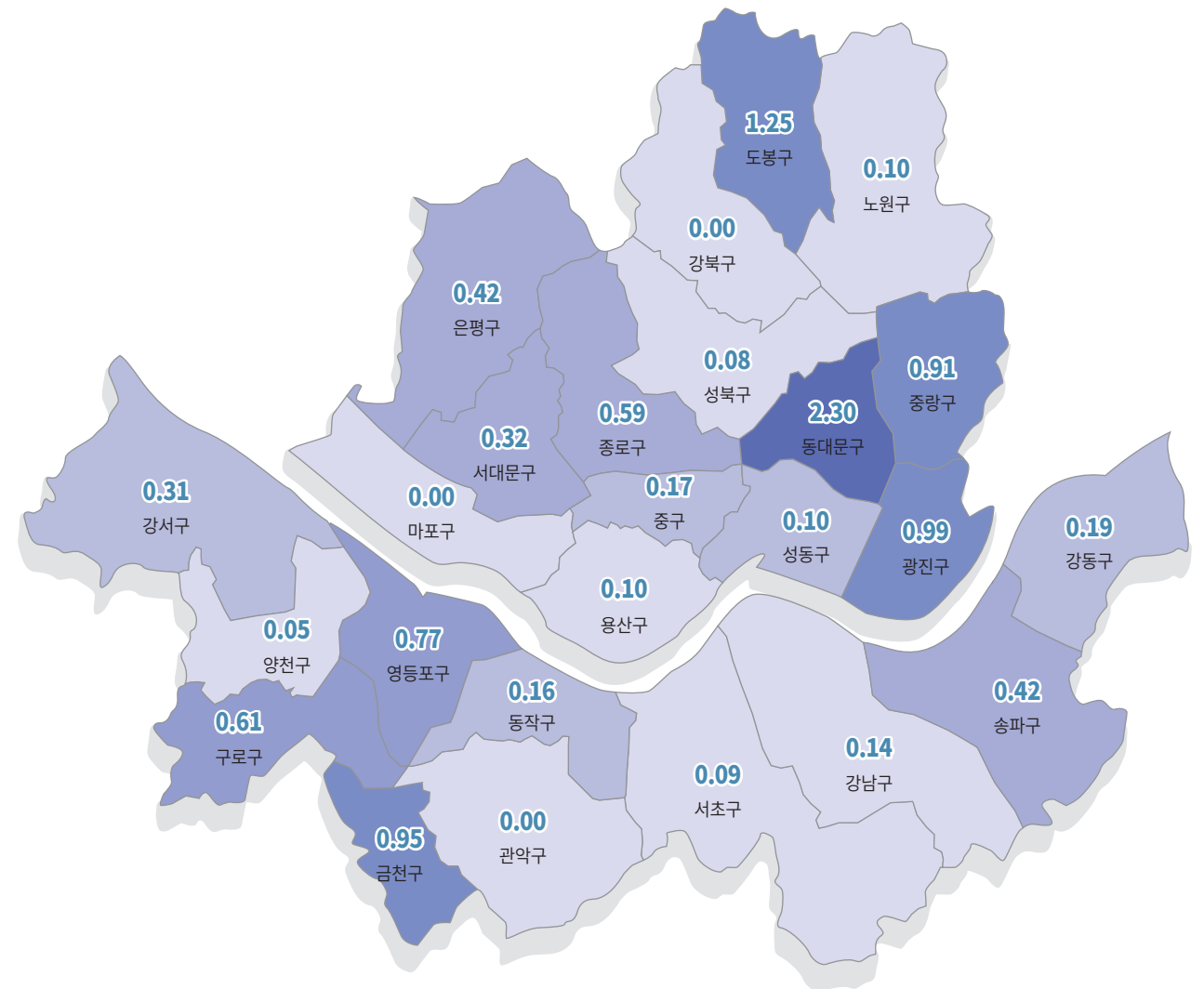


그림. 15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00명당 이용가능한 정신병상수(2022)

(단위: 병상)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



17.1명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민의 수



측정산식

- 분자: 서울시 재활서비스 정원(2022.12.31.) × 100,000
- 분모: 서울시 주민등록인구(2022.12.31.)



산식설명

- 서울시 정신질환자 대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원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2022.12.31.) 수로 나눈 수치
- 재활서비스 정원은 정신재활시설 중 기관유형이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종합시설'인 기관 정원에 해당함



지표현황

-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은 17.1명으로 2021년 17.0명 대비 0.1명 증가함
- 2022년 서울시 정신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43개소이며 서비스 정원은 1,613명으로 2021년 대비 제공 기관수는 1개소 증가하였으며, 정원은 동일함
- 서울시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43개소는 주간재활시설 25개소(58.1%), 직업재활시설 7개소(16.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8개소(18.6%), 종합시설은 3개소(7.0%)로 분류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2022.12.31.)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2.12.31.)

그림. 16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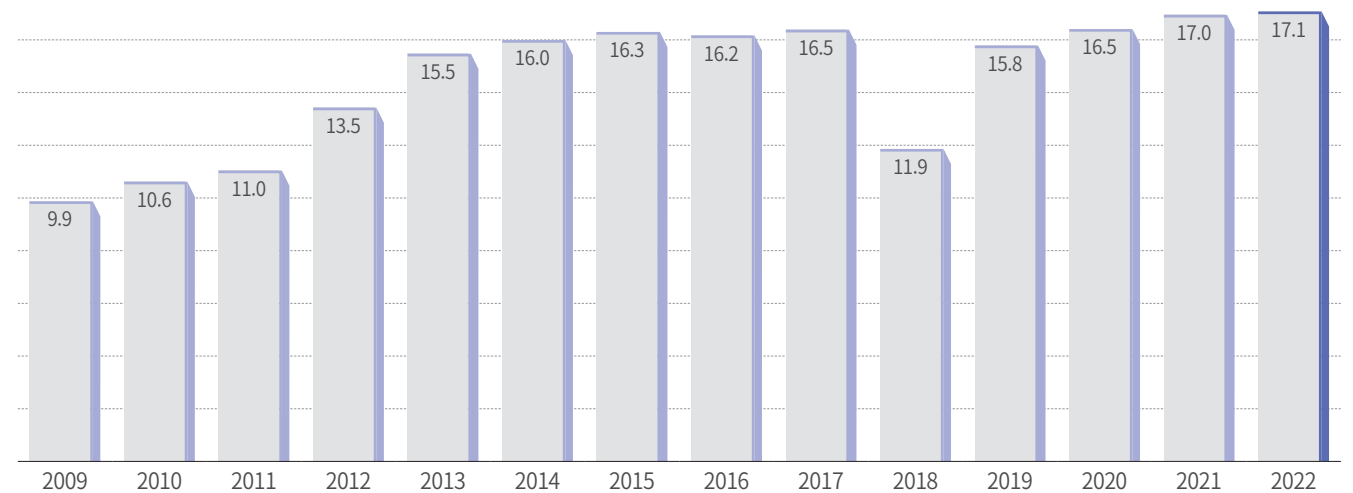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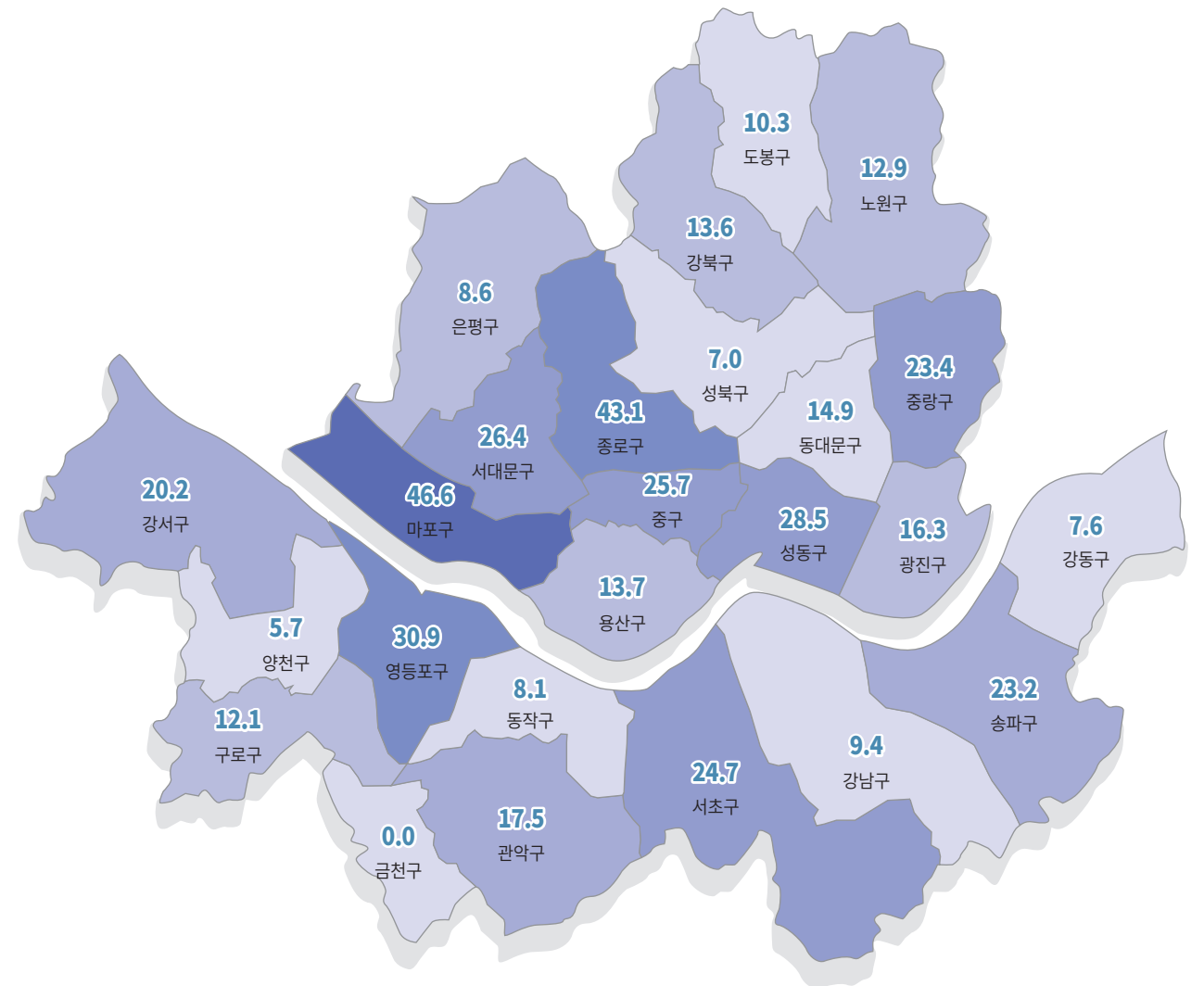


그림. 17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재활서비스 정원(2022)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6.7명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민의 수



측정산식

- 분자: 서울시 거주서비스 정원(2022.12.31.) × 100,000
- 분모: 서울시 주민등록인구(2022.12.31.)



산식설명

- 서울시 정신질환자 대상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원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2022.12.31.) 수로 나눈 수치
- 거주서비스 정원은 정신재활시설 중 기관유형이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인 기관 및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정원에 해당함



지표현황

-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은 6.7명으로 2021년 6.4명 대비 0.3명 증가함
- 2022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거주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70개소이며 서비스 정원은 634명으로 2021년부터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기관유형이 포함됨
- 서울시 거주서비스 제공기관 70개소는 공동생활가정 52개소(74.3%), 지역사회전환시설 4개소(5.7%), 중독자 재활시설 2개소(2.9%), 자립생활주택 6개소(8.6%), 지원주택 6개소(8.6%)로 분류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2022.12.31.)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2.12.31.)

그림. 18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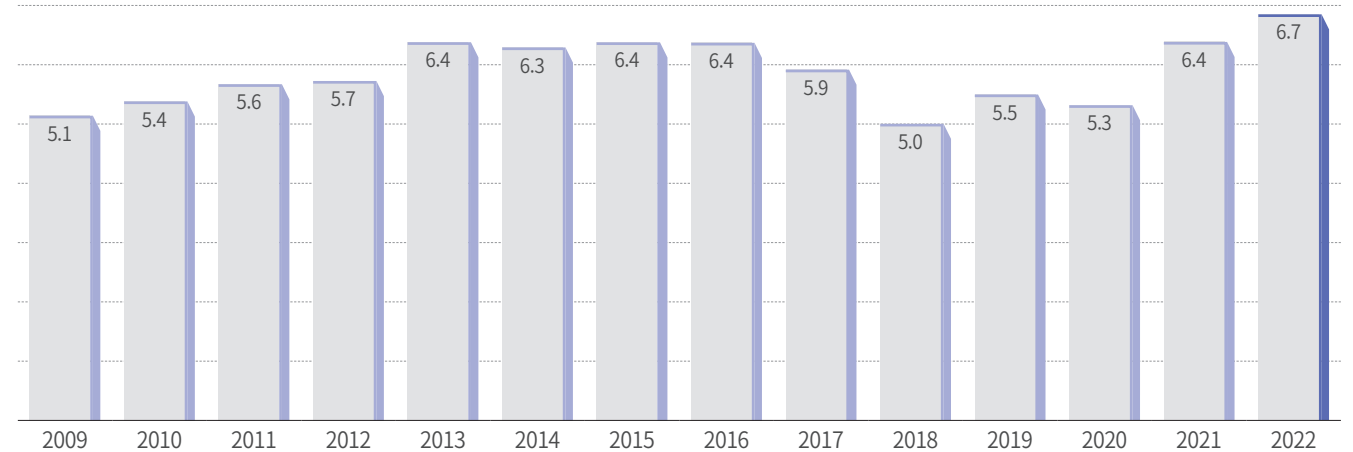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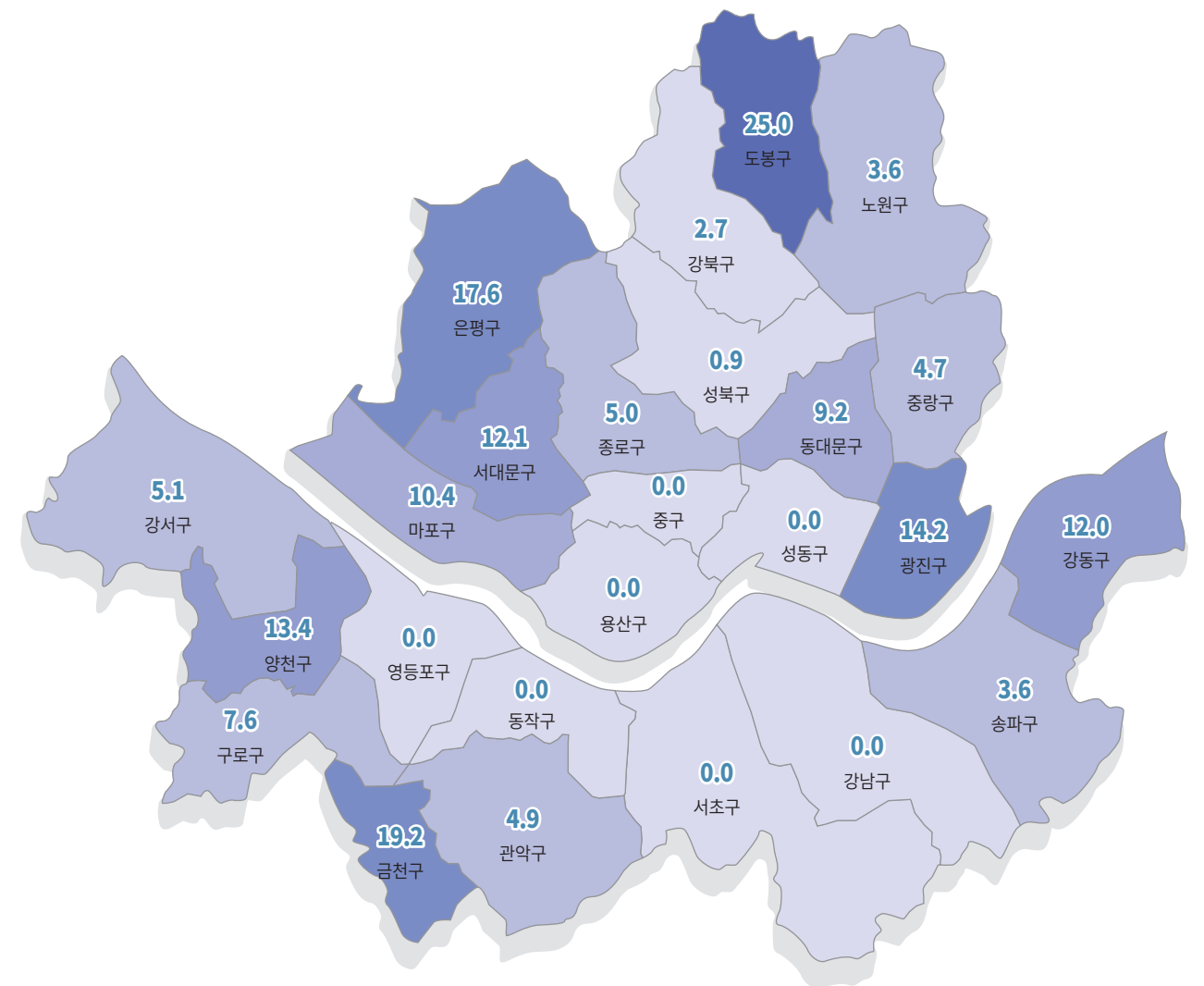


그림. 19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거주서비스 정원(2022)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23.0 명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정신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인력 수



측정산식

- 분자: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인력(2022.12.31.) × 100,000
- 분모: 서울시 주민등록인구(2022.12.31.)



산식설명

-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인력 수를 해당연도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수로 나눈 수치
-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함
- 정신건강전문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을 포함함



지표현황

-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수는 23.0명으로 2021년 22.2명 대비 0.8명 증가함
- 2022년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인력은 총 2,172명이며 정신과 전문의 1,014명(46.7%), 정신건강간호사 377명(17.4%), 정신건강사회복지사 584명(26.9%),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89명(8.7%), 정신건강작업치료사 8명(0.4%)임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2022.12.31.)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2022.12.31.) 데이터 분석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2.12.31.)

그림. 20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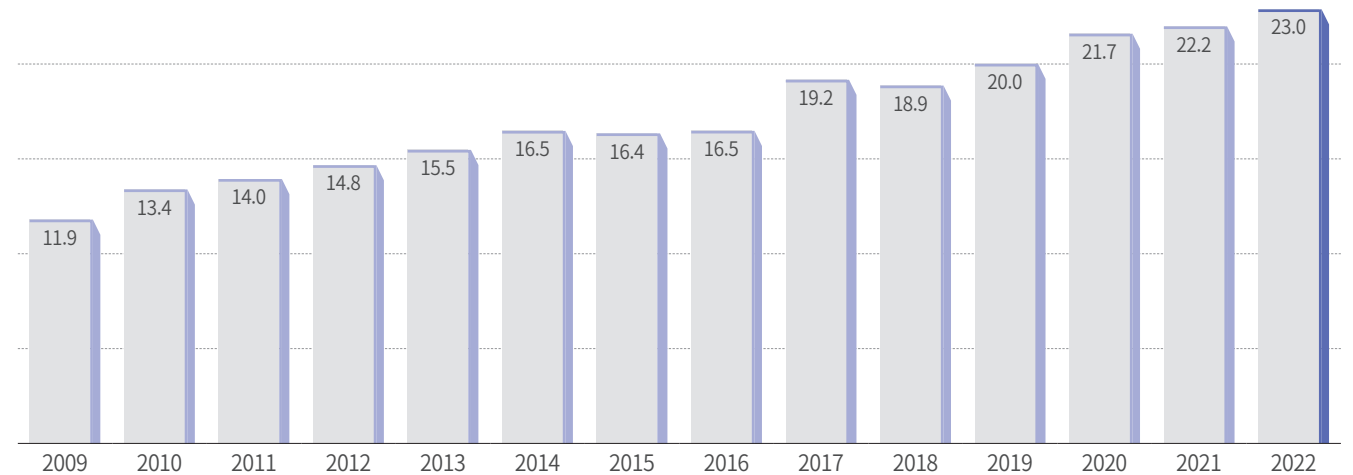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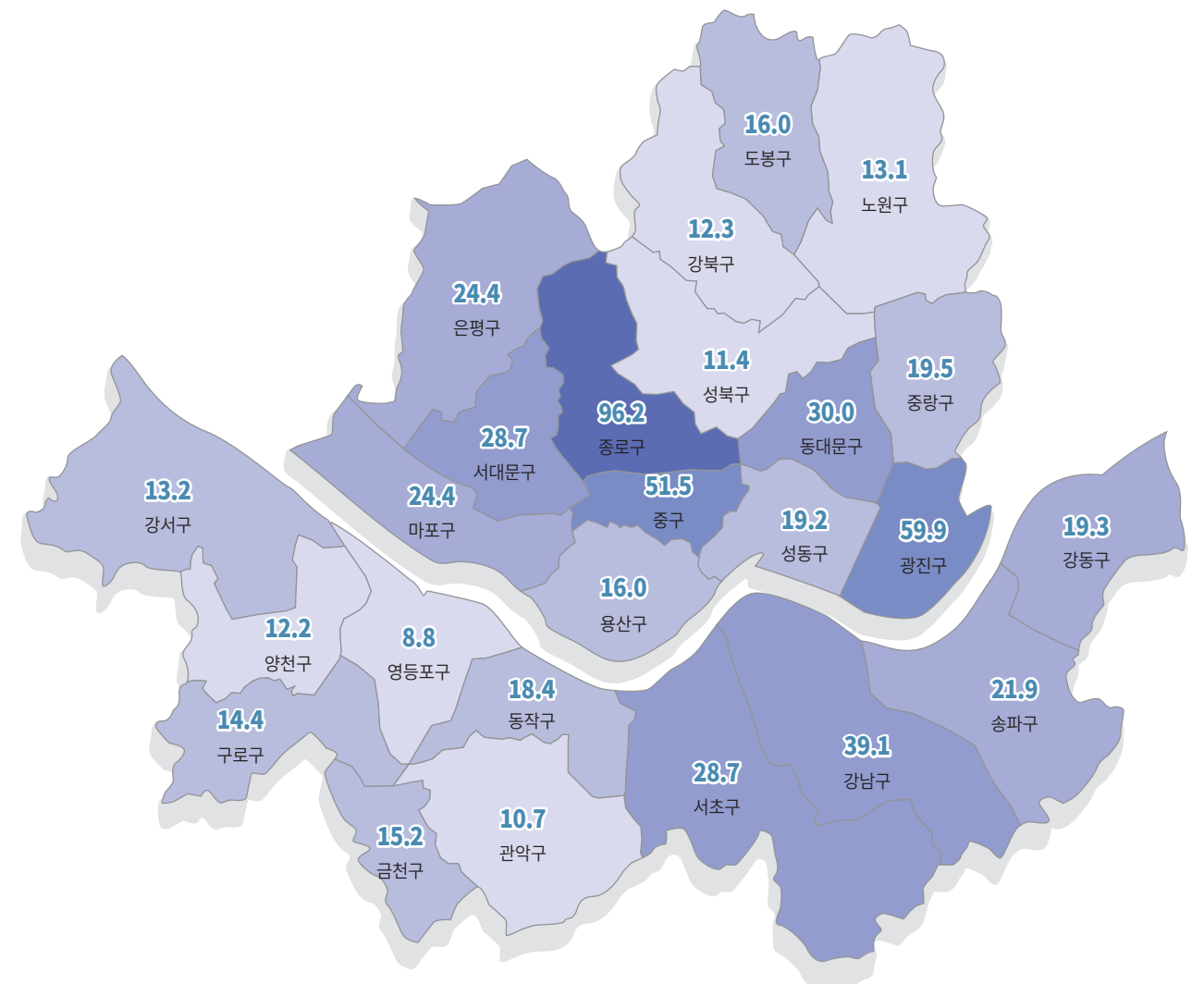


그림. 21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2022)

(단위: 명)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Indicator 07

서울시민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63.1 %

지표분류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자원	<input checked="" type="radio"/>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input type="radio"/> 정신건강문제	<input type="radio"/> 정신질환치료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input checked="" type="radio"/> 상향	<input type="radio"/> 하향			
지표속성	<input type="radio"/> 투입지표	<input type="radio"/> 과정지표	<input type="radio"/> 산출지표	<input checked="" type="radio"/> 결과지표	



지표정의

-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서울시민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사람 수 × 100
- 분모 : 2021년 9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남녀 1,000명



산식설명

- 2021년 9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 본인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매우 좋다+대체로 좋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



지표현황

- 2021년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결과 본인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으로 응답(매우 좋다+대체로 좋은 편이다)한 비율은 63.1%로 2019년 대비 2.7%p 감소함
- 2021년 본인의 정신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매우 나쁘다+대체로 나쁜 편이다)한 비율은 10.6%로 2019년 대비 3.1%p 증가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2021)

그림. 22 서울시민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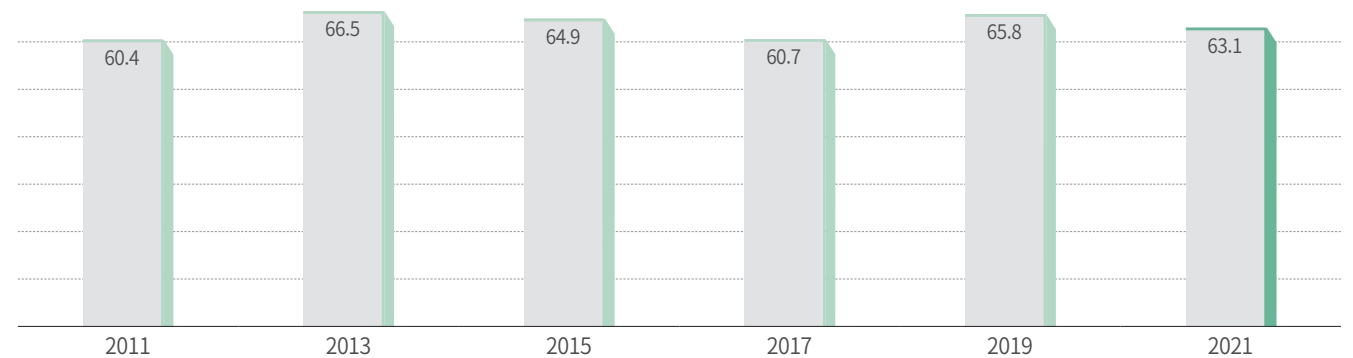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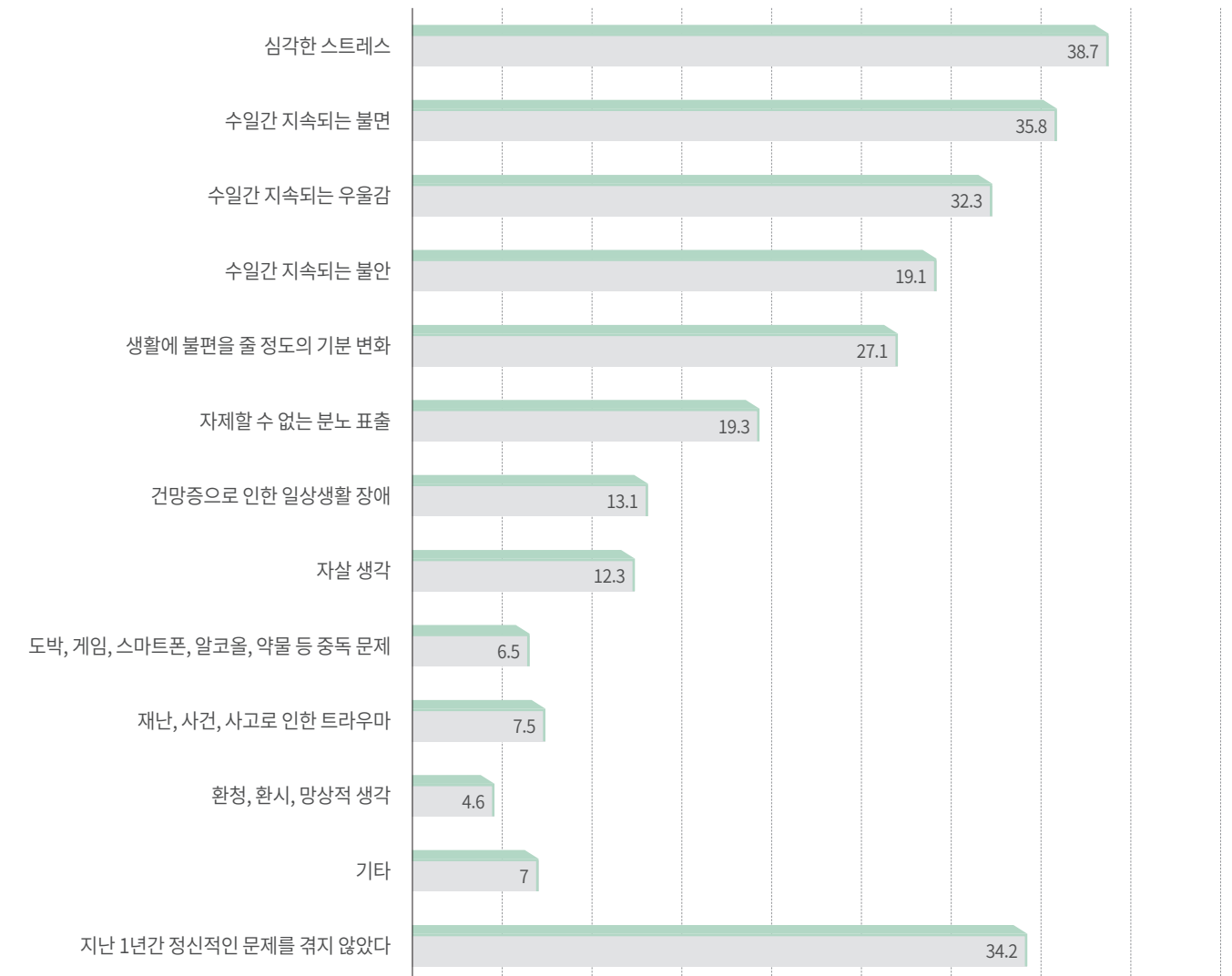


그림. 23 지난 1년간 경험한 정신건강 문제(2021)

(단위: %)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61.7 %

지표분류	○ 정신건강자원	☑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 정신건강문제	○ 정신질환치료	○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 상향	○ 하향			
지표속성	○ 투입지표	○ 과정지표	○ 산출지표	☑ 결과지표	



지표정의

- 정신질환자 이용시설 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서울시민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긍정 응답한 사람 수 × 100
- 분모: 2021년 9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남녀 1,000명



산식설명

- 2021년 9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해 ‘그렇다’(정말 그렇다+대체로 그런 편이다)라고 긍정 응답한 사람의 비율



지표현황

- 2021년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결과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정말 그렇다+대체로 그런 편이다)한 비율은 61.7%로 2019년 대비 4.4%p 증가함
- 2021년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한 비율은 38.3%로 2019년 대비 4.3%p 감소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2021)

그림. 24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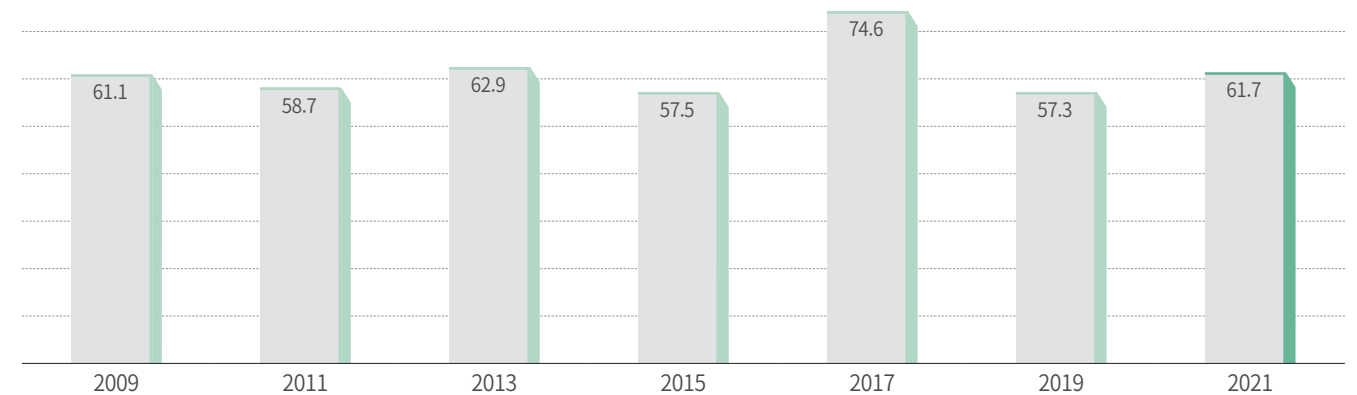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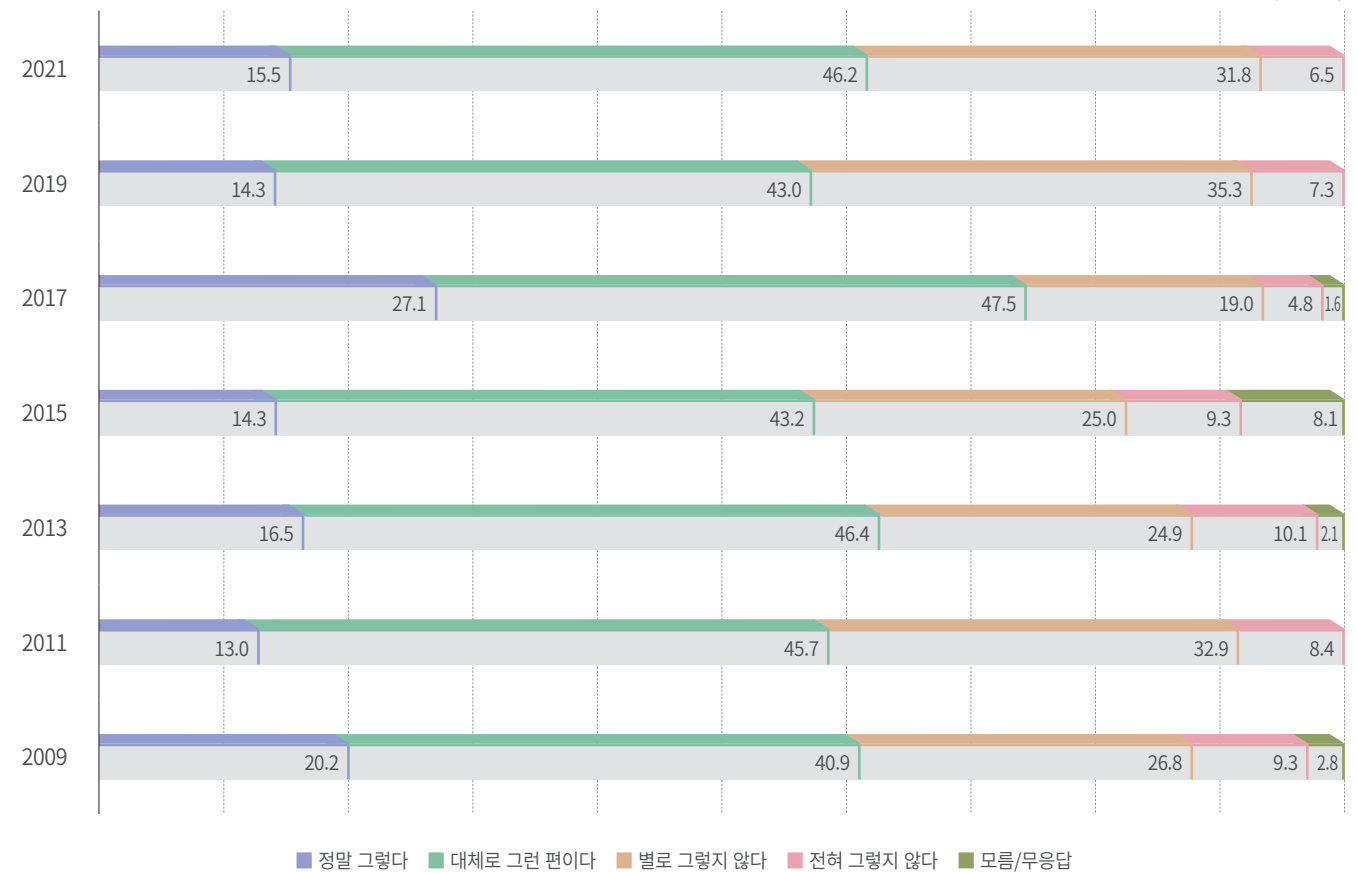


그림. 25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 현황

(단위: %)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63.2 %

지표분류	○ 정신건강자원	☑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 정신건강문제	○ 정신질환치료	○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 상향	○ 하향			
지표속성	○ 투입지표	○ 과정지표	○ 산출지표	☑ 결과지표	



지표정의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인지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분율



측정산식

- 분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인지' 한다고 응답한 사람 수 × 100
- 분모: 2021년 9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남녀 1,000명



산식설명

- 2021년 9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함
-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인지'(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이름은 들어본 적 있다)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지표현황

- 2021년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3.2%로 2019년 대비 3.3%p 증가함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2021)

그림. 26 서울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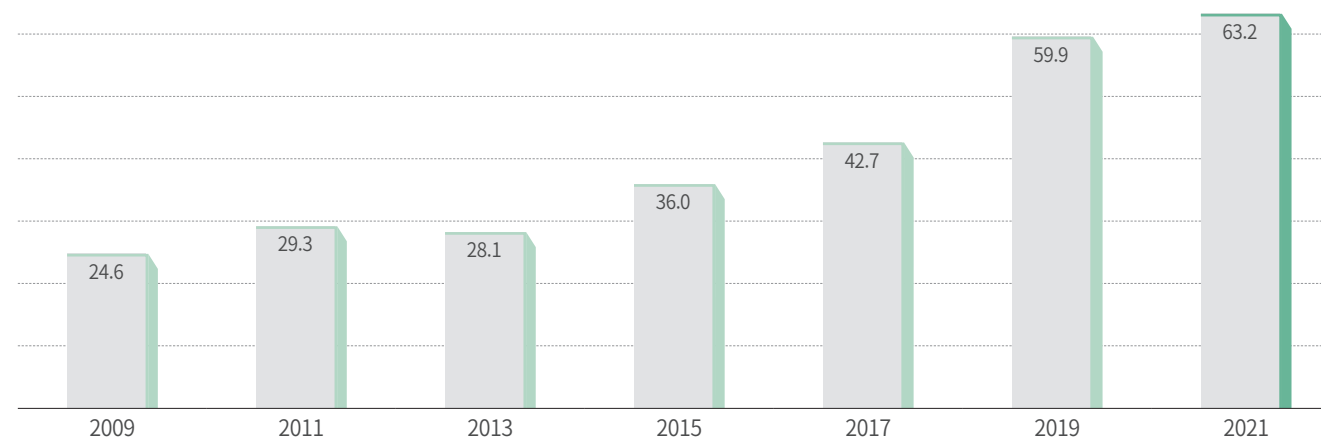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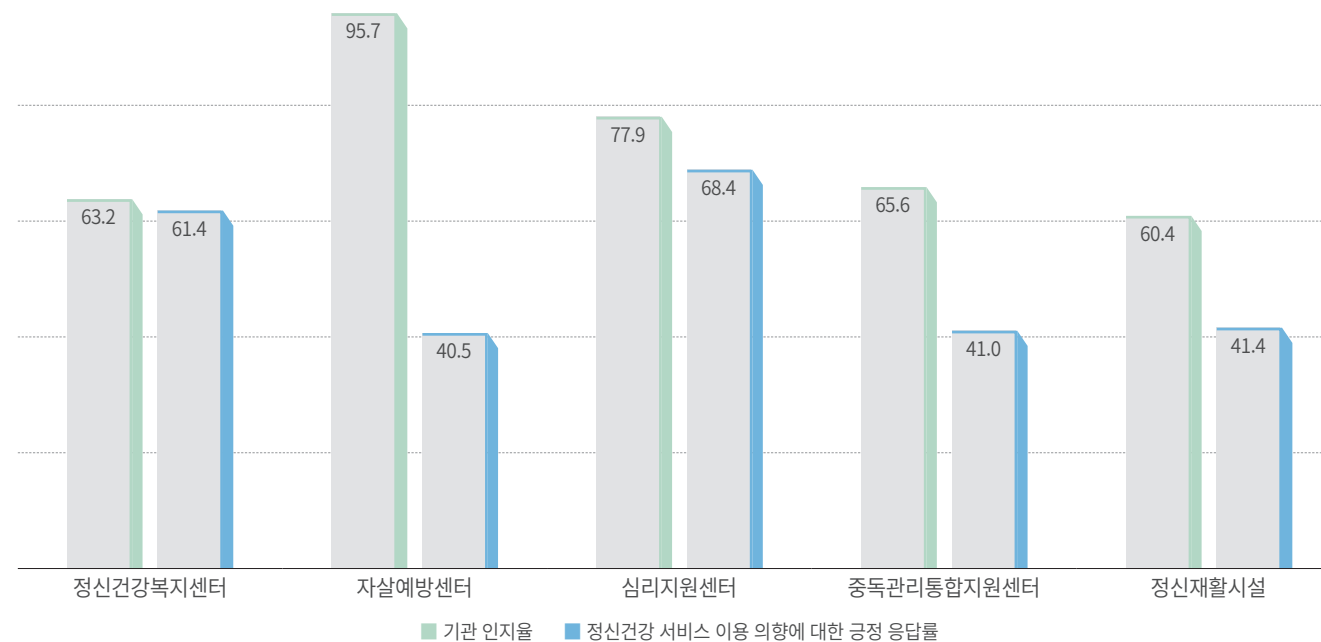


그림. 27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및 이용 의향(2021)

(단위: %)



정신건강문제

Indicator 10

우울감 경험률



7.3%

지표분류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자원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input checked="" type="radio"/> 정신건강문제	<input type="radio"/> 정신질환치료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input type="radio"/> 상향	<input checked="" type="radio"/> 하향			
지표속성	<input type="radio"/> 투입지표	<input type="radio"/> 과정지표	<input type="radio"/> 산출지표	<input checked="" type="radio"/> 결과지표	



지표정의

•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 수 × 100
• 분모: 2022년 7월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산식설명

•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의 우울감 경험 여부에 '예'로 응답한 사람의 비율



지표현황

• 2022년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은 전체 7.3%로 2021년 7.0% 대비 0.3%p 증가하였음
• 2022년 전국 우울감 경험률은 시·군·구 중앙값이 7.3%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우울감 경험률과 동일하게 나타남
• 2022년 서울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금천구가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포구 10.3%, 서대문구 10.2%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22)

그림. 28 우울감 경험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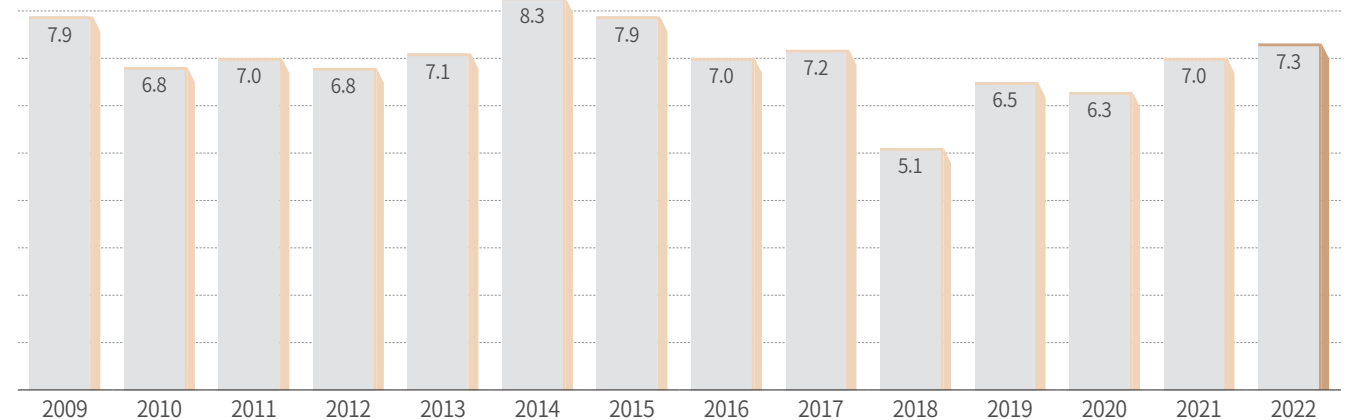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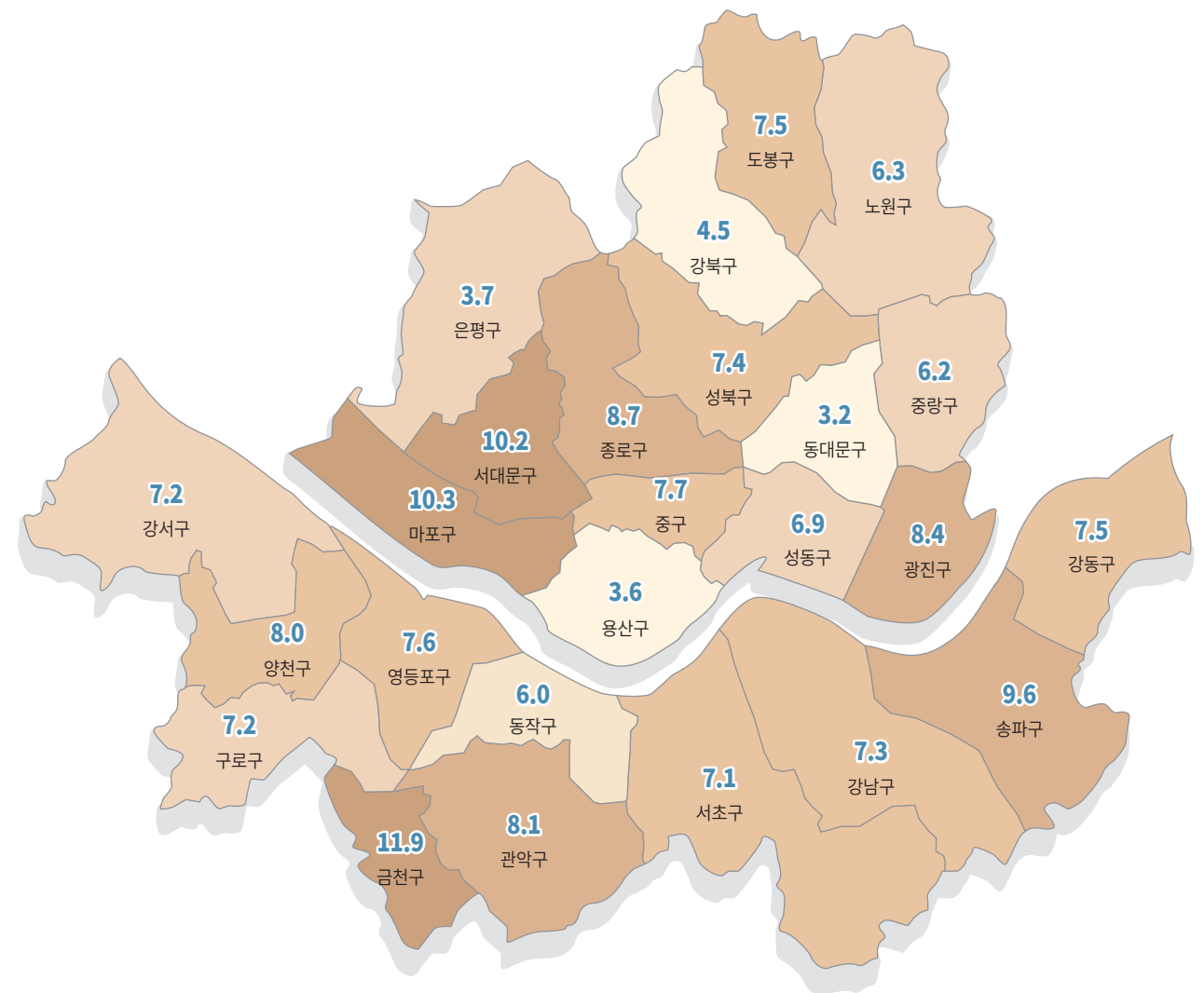


그림. 29 서울시 자치구별 우울감 경험률(2022)

(단위: %)



Indicator 11

스트레스 인지율

24.0 %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평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

측정산식

- 분자: 평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 수 × 100
- 분모: 2022년 7월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산식설명

- 서울시민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수준 파악
- 평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지표현황

- 2022년 서울시민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체 24.0%로 2021년 26.3% 대비 2.3%p 감소하였음
- 2022년 전국 스트레스 인지율은 시·군·구 중앙값이 22.7%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국 대비 1.3%p 높게 나타남
- 2022년 서울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관악구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랑구 28.5%, 종로구 2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22)

그림. 30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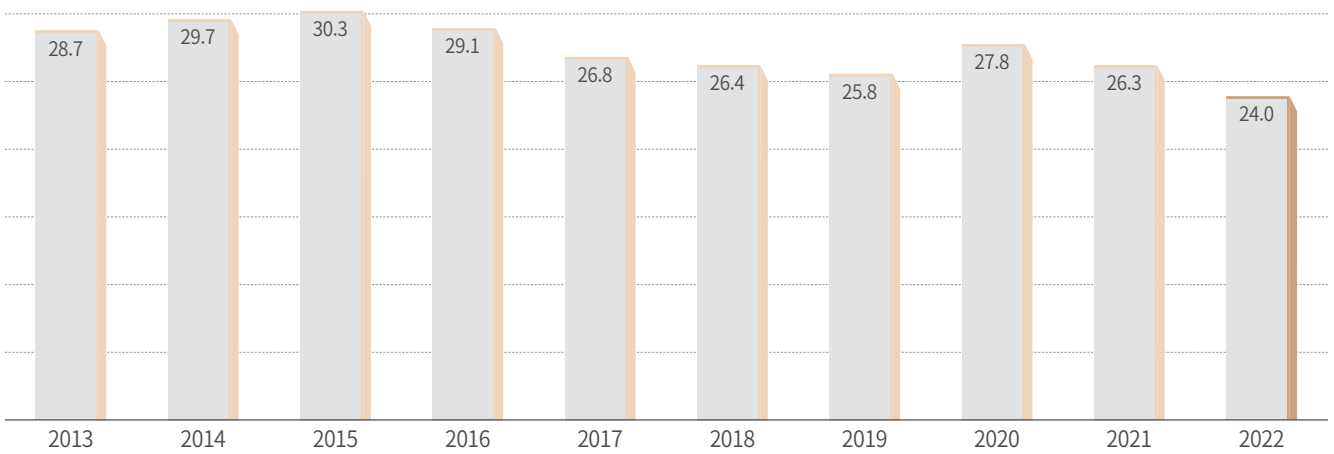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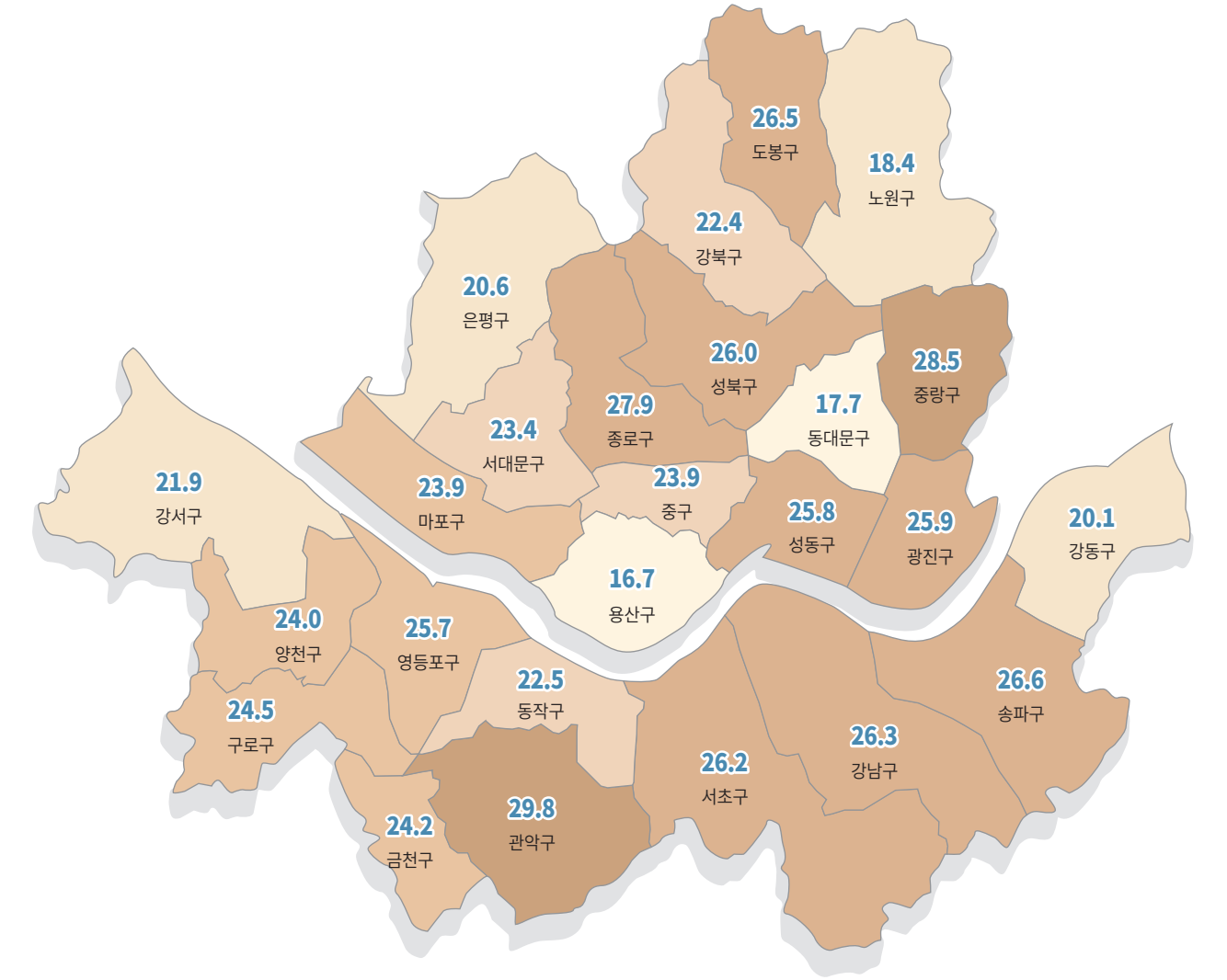


그림. 31 서울시 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율(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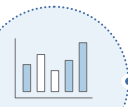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13.7 %

지표분류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자원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input checked="" type="radio"/> 정신건강문제	<input type="radio"/> 정신질환치료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input type="radio"/> 상향	<input checked="" type="radio"/> 하향			
지표속성	<input type="radio"/> 투입지표	<input type="radio"/> 과정지표	<input type="radio"/> 산출지표	<input checked="" type="radio"/> 결과지표	

지표정의



•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성은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최근 1년 동안 고위험 수준으로 음주한 사람 수 $\times 100$
- 분모: 2022년 7월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수

산식설명



- 최근 1년간 서울시민 연간 음주자에 대한 고위험 음주율 정도 파악
-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 중 주 2회 이상, 평균적으로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성은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 마시는 사람 비율

지표현황



- 2022년 서울시민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전체 13.7%로 2021년 12.5% 대비 1.2%p 증가하였음
- 2022년 전국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시·군·구 중앙값이 17.4%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은 전국 대비 3.7%p 낮게 나타남
- 2022년 서울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북구가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천구 18.2%, 강서구 17.3%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2022)

그림. 32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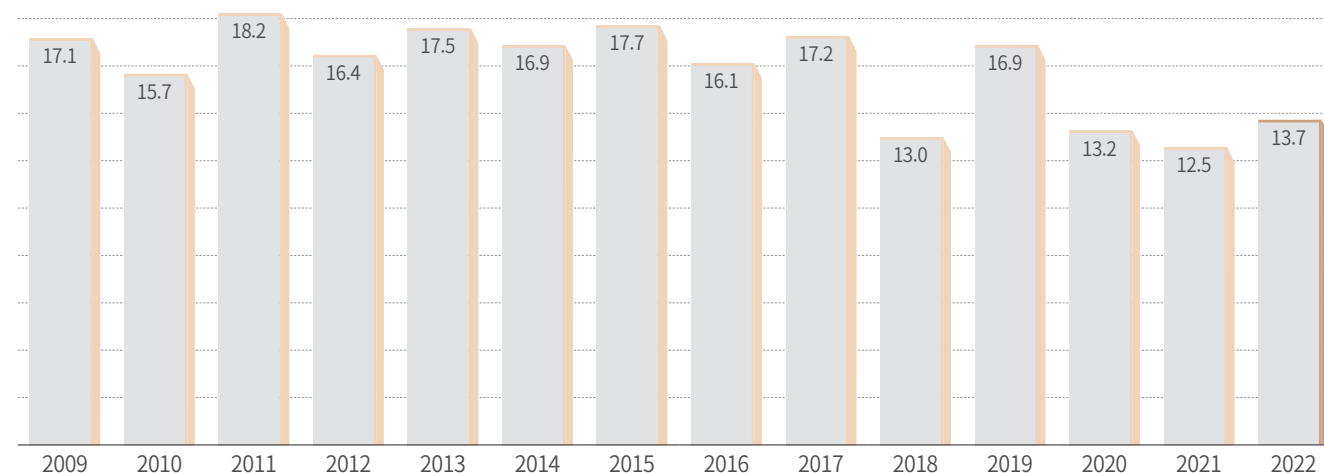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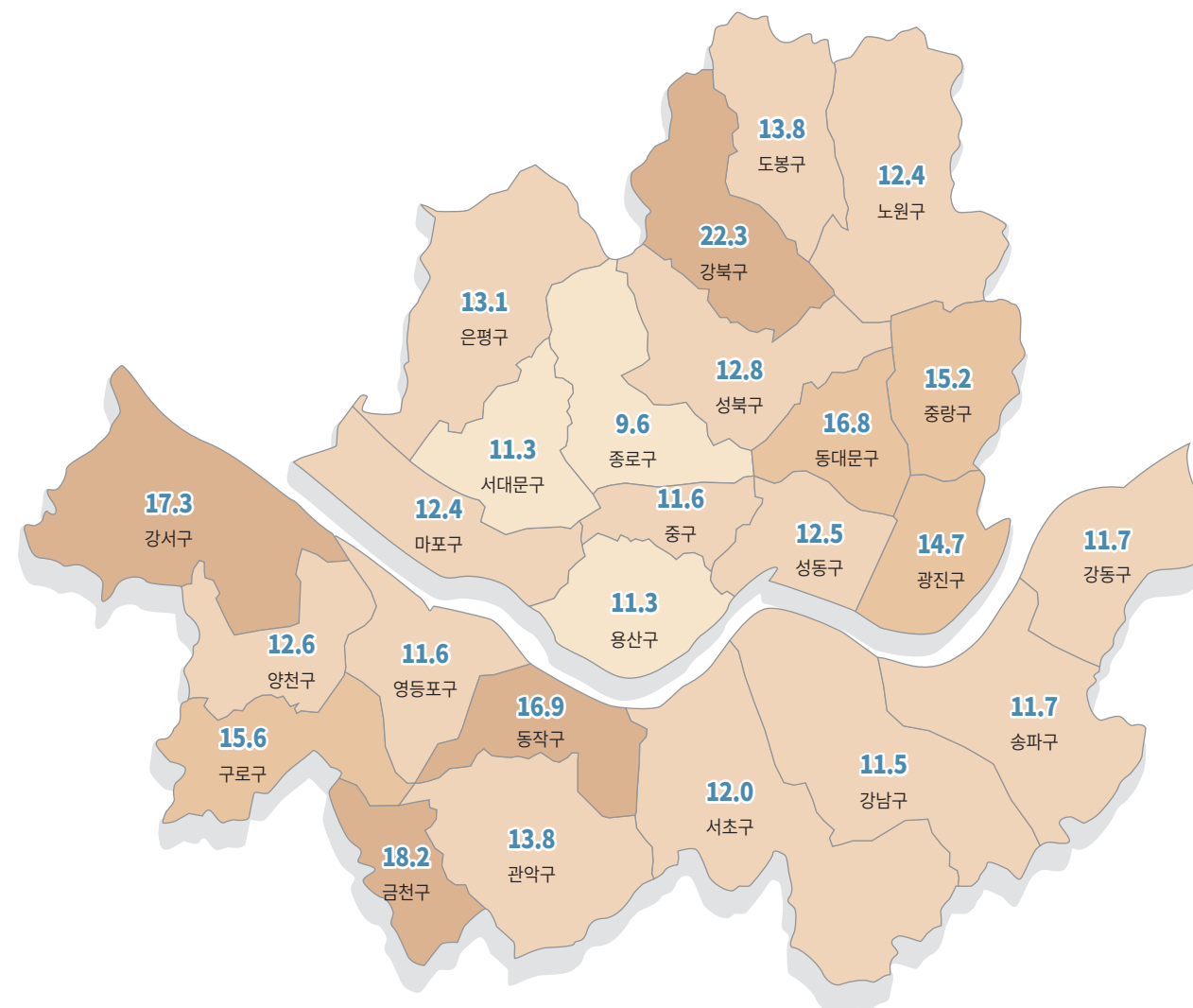


그림. 33 서울시 자치구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2022)

(단위: %)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21.4명

지표분류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자원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input checked="" type="radio"/> 정신건강문제	<input type="radio"/> 정신질환치료	<input type="radio"/>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input type="radio"/> 상향	<input checked="" type="radio"/> 하향			
지표속성	<input type="radio"/> 투입지표	<input type="radio"/> 과정지표	<input type="radio"/> 산출지표	<input checked="" type="radio"/> 결과지표	

지표정의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

측정산식

- 분자: 서울시 자살 사망자 수 $\times 100,000$
- 분모: 2022년 서울시 주민등록연앙인구

산식설명

- 2022년에 발생한 사망 사건에 대하여 당해연도 1월부터 익년 4월까지(16개월간) 신고된 자료를 집계한 결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사망한 사람 수 파악
- 자살로 사망한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

*연앙인구: 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 1일 기준 인구

지표현황

- 2022년 대한민국 전체 사망자 수 372,939명 중 자살사망자 수는 12,906명으로 3.5%임
- 2022년 서울시 자살사망자 수는 2,009명으로 전체 자살사망자 수의 약 15.6%에 해당하며, 2021년 16.0% 대비 0.4%p 감소함
- 2022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전국 25.2명, 서울시 21.4명으로 나타남

자료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022)

그림. 34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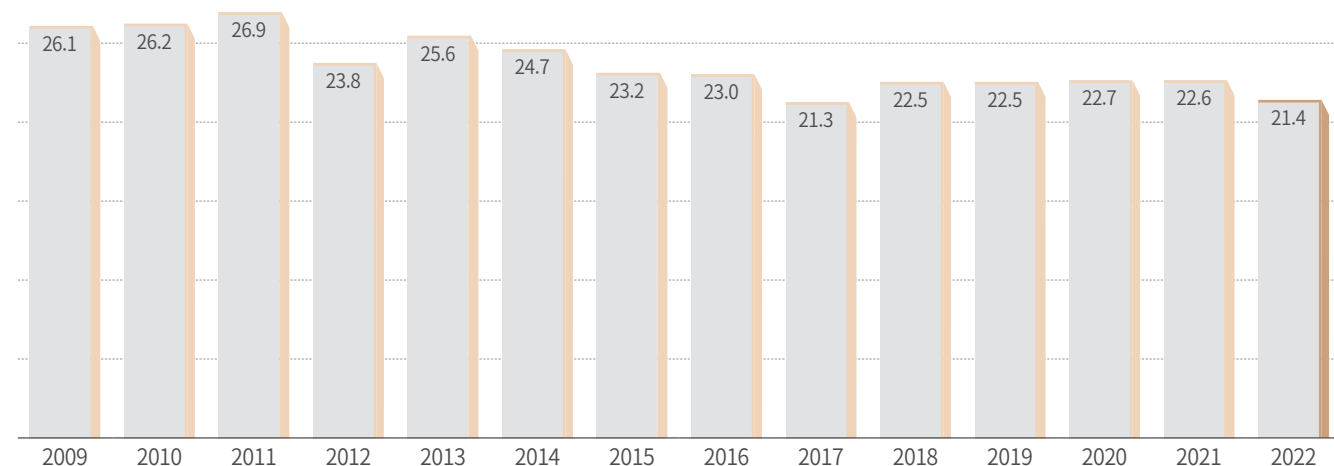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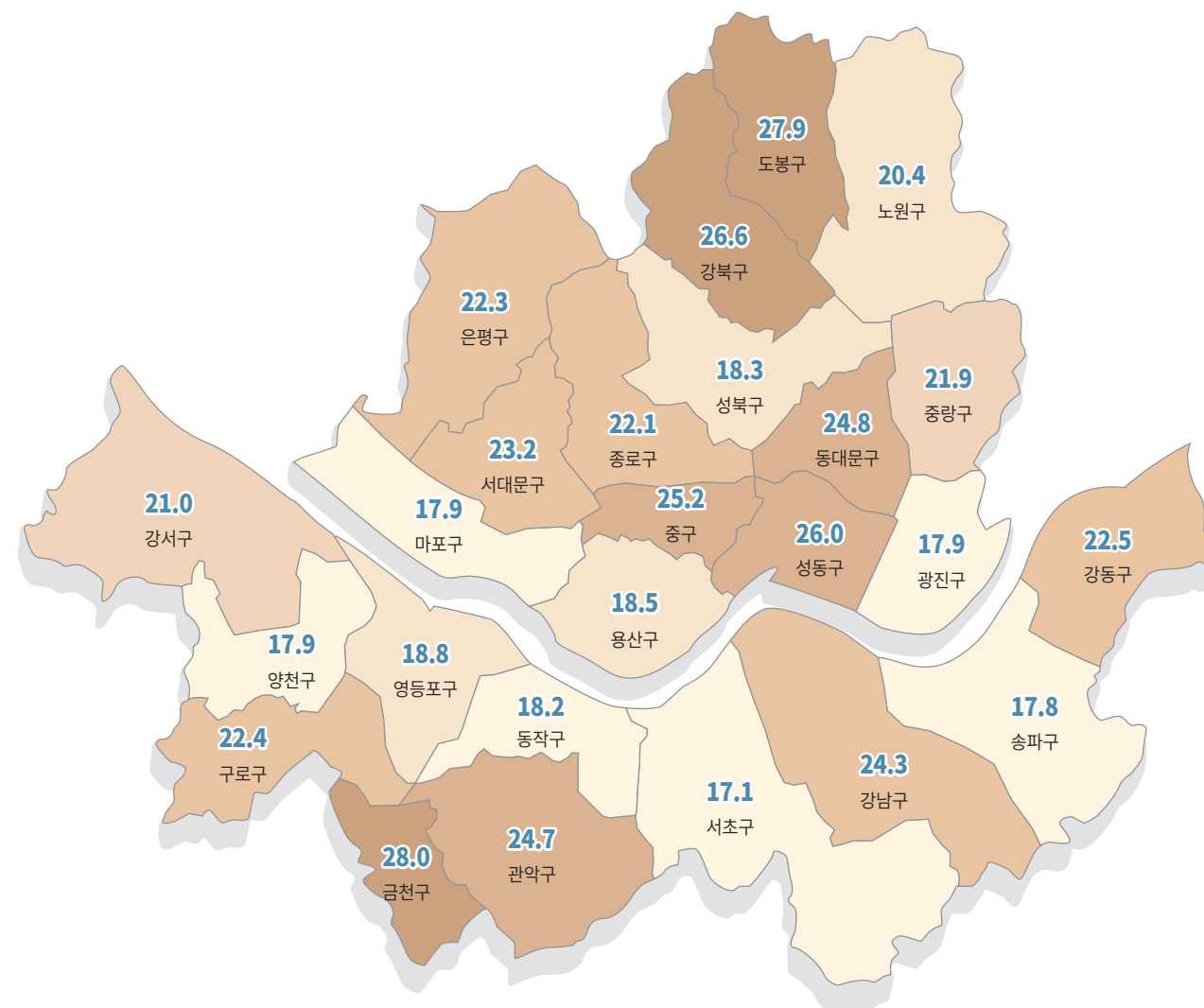


그림. 35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2022)

(단위: 명)



정신질환치료

Indicator 14

비자의 입원율



27.8 %

지표분류	○ 정신건강자원	○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 정신건강문제	✓ 정신질환치료	○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 상향	✓ 하향			
지표속성	○ 투입지표	○ 과정지표	✓ 산출지표	○ 결과지표	



지표정의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비자의 입원의 형태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 비자의적 입원환자 수(2022.12.31.) × 100
- 분모 : 자의적·비자의적 입원환자 수(2022.12.31.)



산식설명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자의·비자의 입원환자 중 비자의적 입원 형태로 입원한 대상자의 비율을 의미함
- 비자의적 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4조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의미하며,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기타(치료감호소, 법원의 명령) 입원은 포함하지 않음



지표현황

- 2022년 비자의 입원율은 27.8%로 2021년 24.3% 대비 3.5%p 증가함
- 2022년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입원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입원환자 수는 2,671명으로 자의적 입원(1,922명, 72.0%)으로 입원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비자의적 입원(740명, 27.7%), 응급입원(9명, 0.6%) 순으로 나타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2022.12.31.) 데이터 분석

그림. 36 비자의 입원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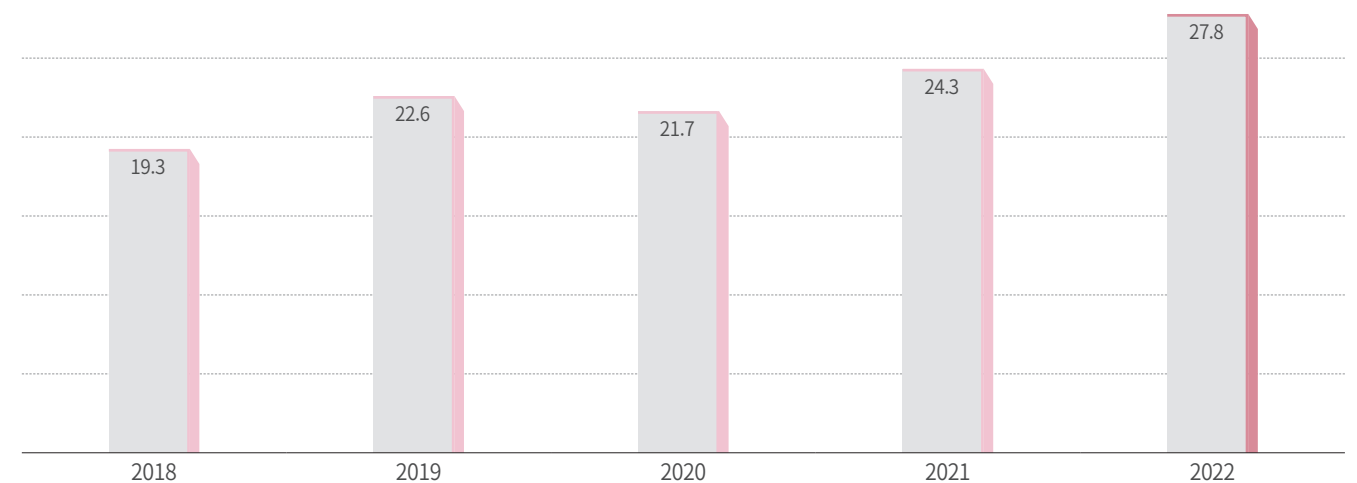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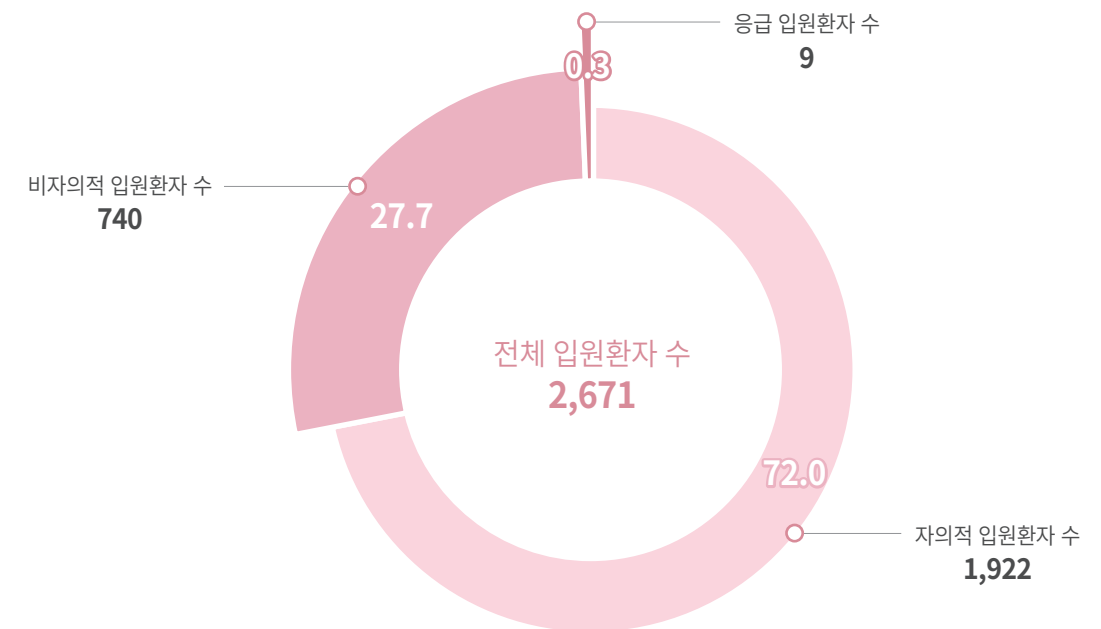


그림. 37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 현황(2022)

(단위: 명, %)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



17.7 %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중증정신질환으로 퇴원한 환자 중 1개월(30일) 이내 동일병원에 재입원한 환자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2020년 연간 중증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중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에 재입원한 환자 수 × 100
- 분모: 2020년 연간 중증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수



산식설명

- 입원환자별 해당연도 첫 번째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 비율을 산출함
- 중증정신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의 진단코드 F20-F29, F30, F31, F32.3, F33에 해당함



지표현황

- 2020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17.7%로 2019년 15.9% 대비 1.8%p 증가함
- 2020년 전국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은 18.7%로 서울시 17.7%보다 1.0%p 높은 수치임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14-2021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그림. 38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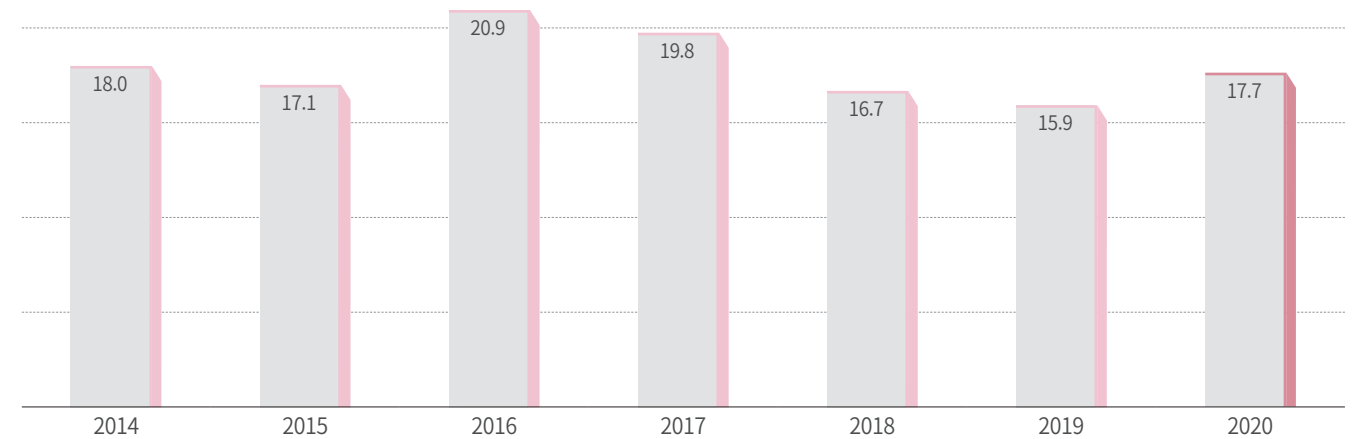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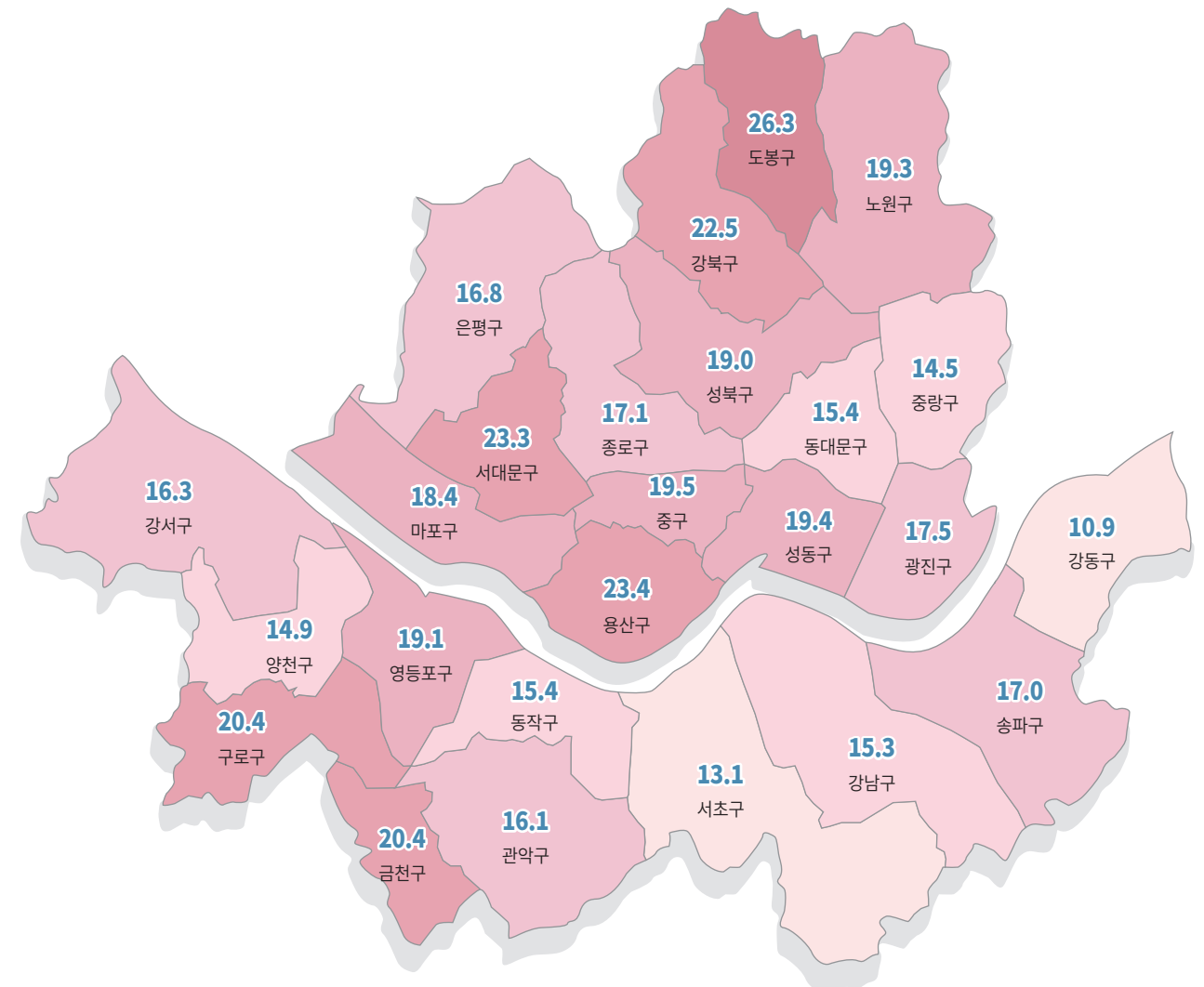


그림. 39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율(2020)

(단위: %)



정신건강서비스

Indicator 16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5.8%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의 분율



측정산식

• 분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2022.12.31.) × 100
 • 분모 : 서울시 추계 중증정신질환자 수(2022.12.31.)



산식설명

• 중증정신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의 진단코드 F20-F29, F30-F30.9, F31-F31.9, F32.1-F32.3, F33.1-F33.3에 해당함
 • 추계중증정신질환자 수(서울시 주민등록 인구의 1%로 산정) 대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회원 중 중증정신질환자 수의 분율을 의미함



지표현황

• 2022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은 5.8%로 2021년 5.9% 대비 0.1%p 감소함
 •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등록회원 수는 9,782명이며 그 중 중증정신질환자 등록회원 수는 5,477명으로 56.0%에 해당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2022.12.31.)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2.12.31.)

그림. 40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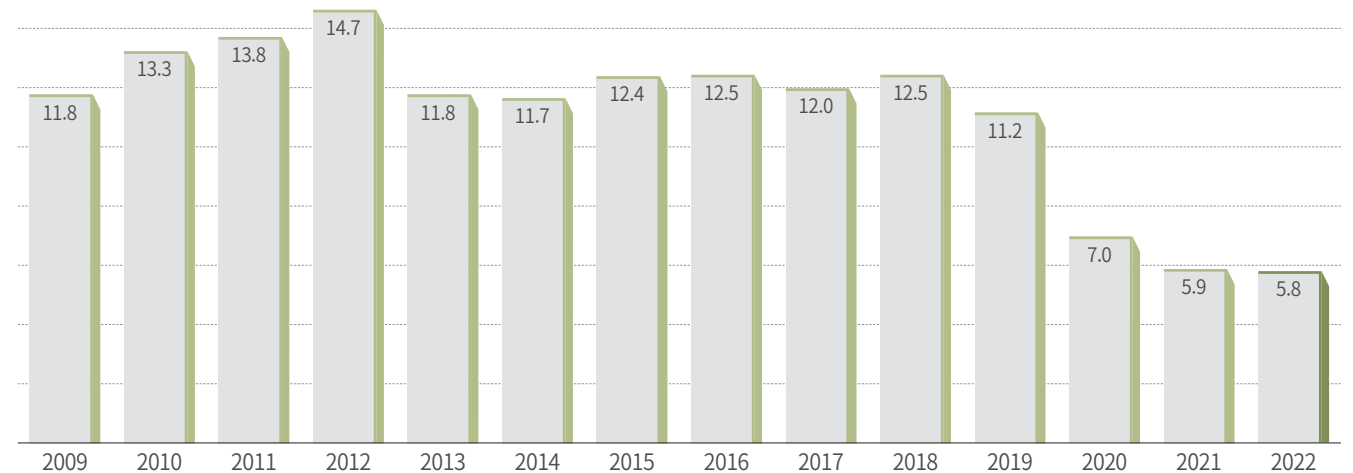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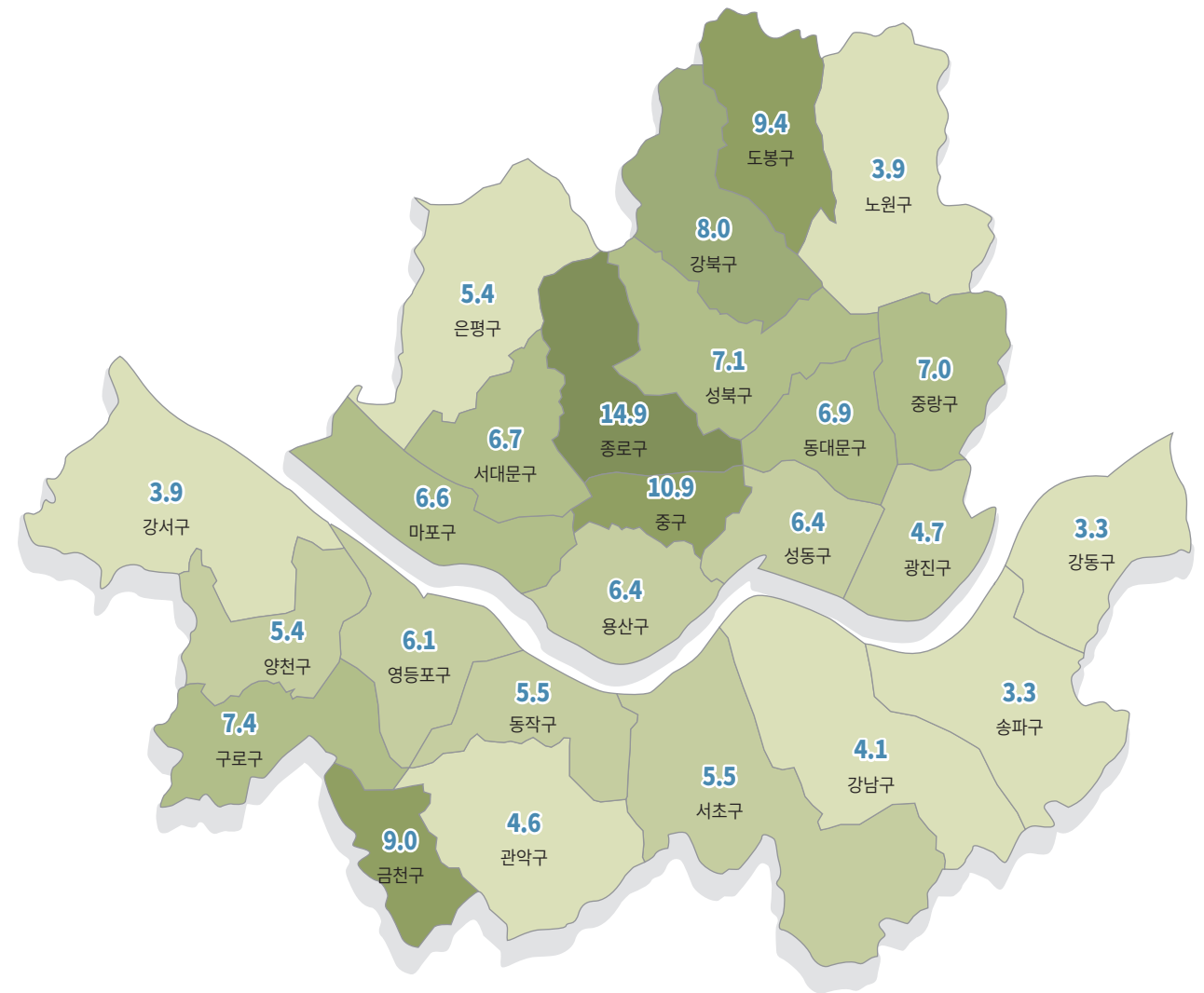


그림. 41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2022)

(단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

3.6 %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 등록 대상자 중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입원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2년(2021~2022) 이내 6개월 이상 입원한 이력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 × 100
- 분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2022.12.31.)



산식설명

- 장기재원은 한 번 입원했을 때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함
- 중증정신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의 진단코드 F20-F29, F30-F30.9, F31-F31.9, F32.1-F32.3, F33.1-F33.3에 해당함



지표현황

-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재원 경험률은 3.6%로 2021년 3.6%와 동일한 수치임
- 2022년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장기재원 경험률은 관악구(1.3%), 용산구(1.4%), 광진구(1.9%) 순으로 낮게 나타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2022.12.31.)

그림. 43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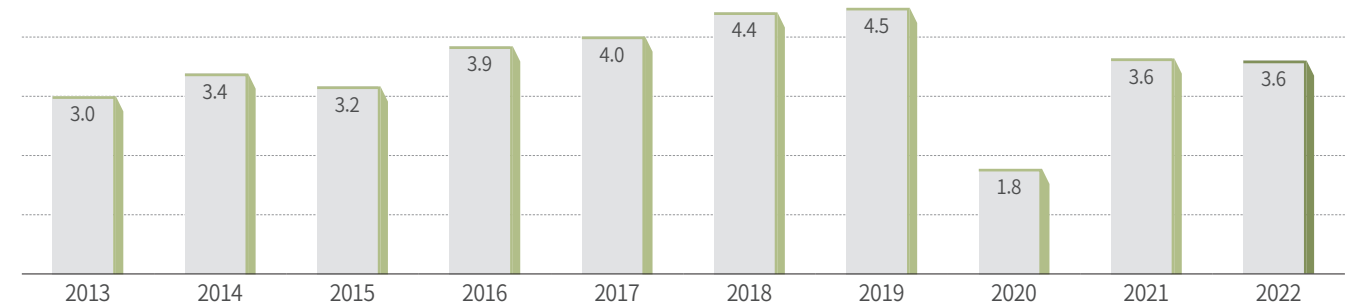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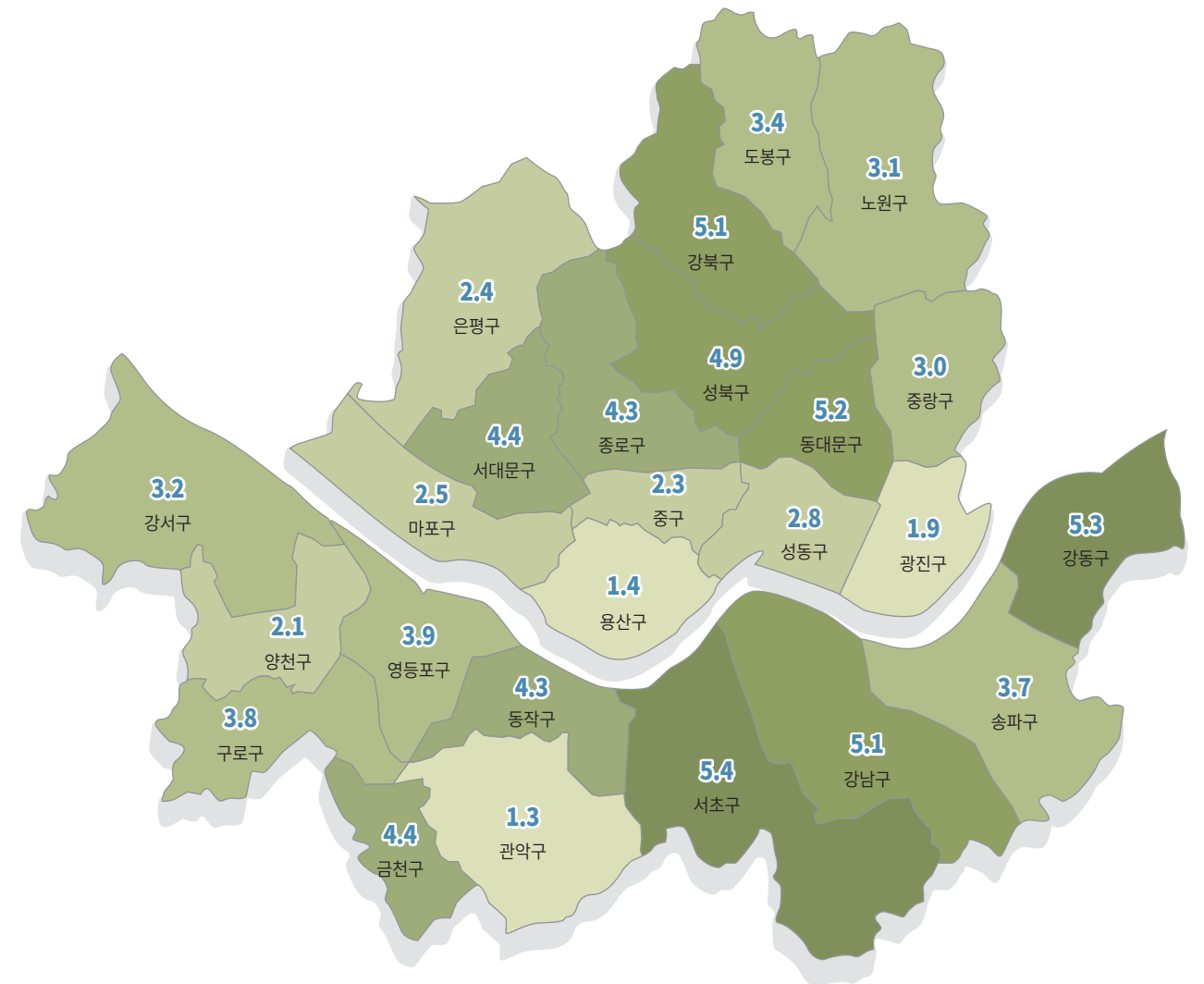


그림. 44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장기재원 경험률(2022)

(단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90.9 %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 대상자 중 해당연도에 입원한 이력이 없는 대상자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2022년 연간 입원한 이력이 없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2022.12.31.) × 100
- 분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2022.12.31.)



산식설명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는 2022.12.31.기준 등록자에 연간 퇴록자 수 포함
- 등록 대상자 중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대상자가 입원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정도 파악
- 중증정신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의 진단코드 F20-F29, F30-F30.9, F31-F31.9, F32.1-F32.3, F33.1-F33.3에 해당함



지표현황

-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생활 유지율은 90.9%로 2021년 92.2%보다 1.3%p 감소함
- 2022년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생활 유지율은 용산구(98.6%), 관악구(96.9%), 양천구(95.8%)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2022.12.31.)

그림. 45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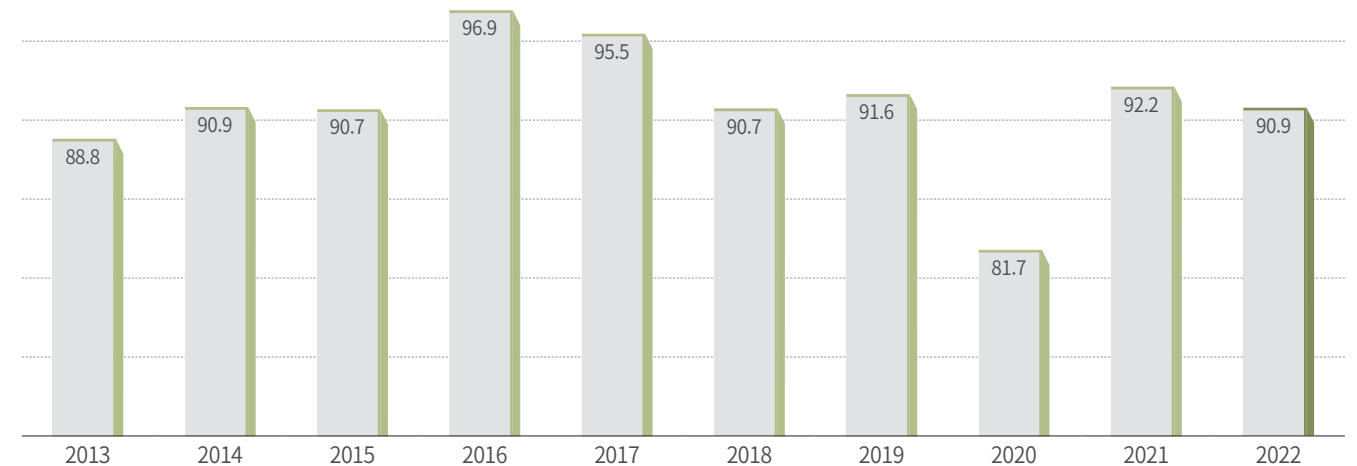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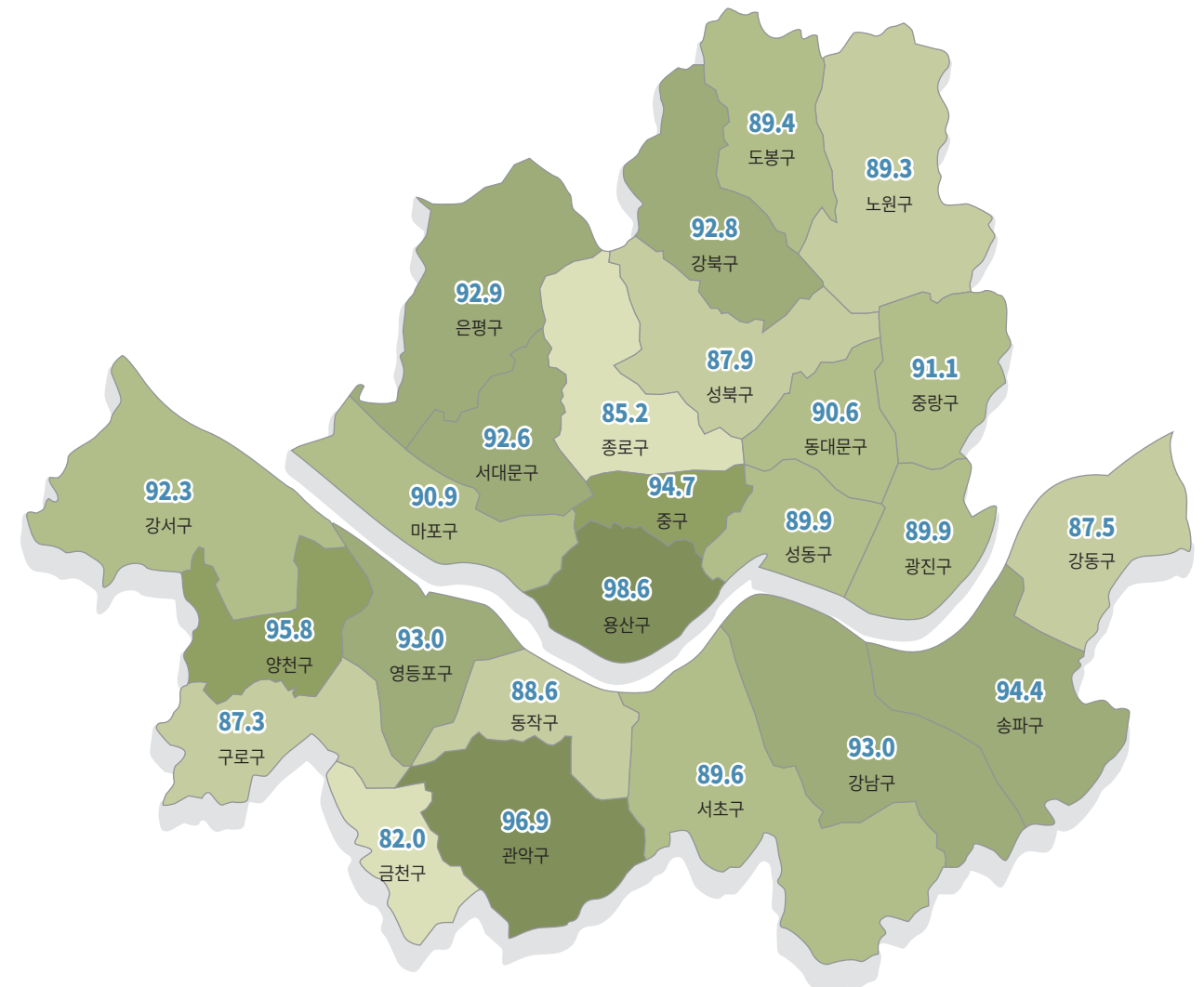


그림. 46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2022)

(단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취업률



4.8 %

지표분류	정신건강자원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정신건강문제	정신질환치료	정신건강서비스
지표목표	상향	하향			
지표속성	투입지표	과정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지표정의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중 해당연도에 일주일 이상 취업한 대상자의 비율



측정산식

- 분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중 일주일 이상 취업한 대상자 수 × 100
- 분모: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수(2022.12.31.)



산식설명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는 2022.12.31.기준 등록 대상자에 연간 퇴록자 수 포함
- 해당연도에 일주일 이상 취업한 대상자 수를 전체 등록 대상자 수로 나눈 비율의 의미함



지표현황

-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취업률은 4.8%로 2021년 3.4% 대비 1.4%p 증가함
-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중인 등록회원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13.1%(8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2%(74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5%(64명), 제조업 10.3%(63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6%(46명) 순으로 나타남



자료출처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2022.12.31.)

그림. 47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취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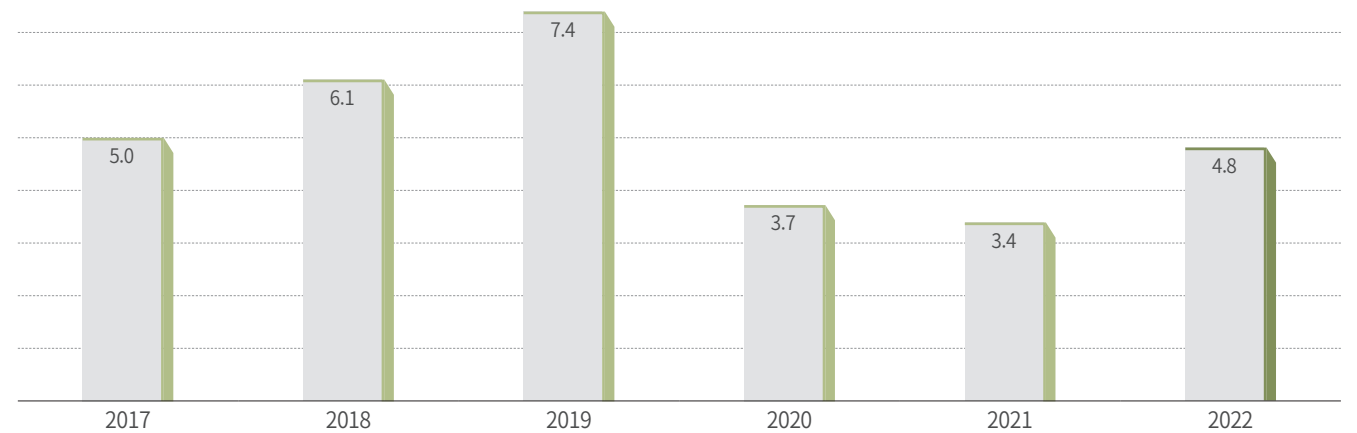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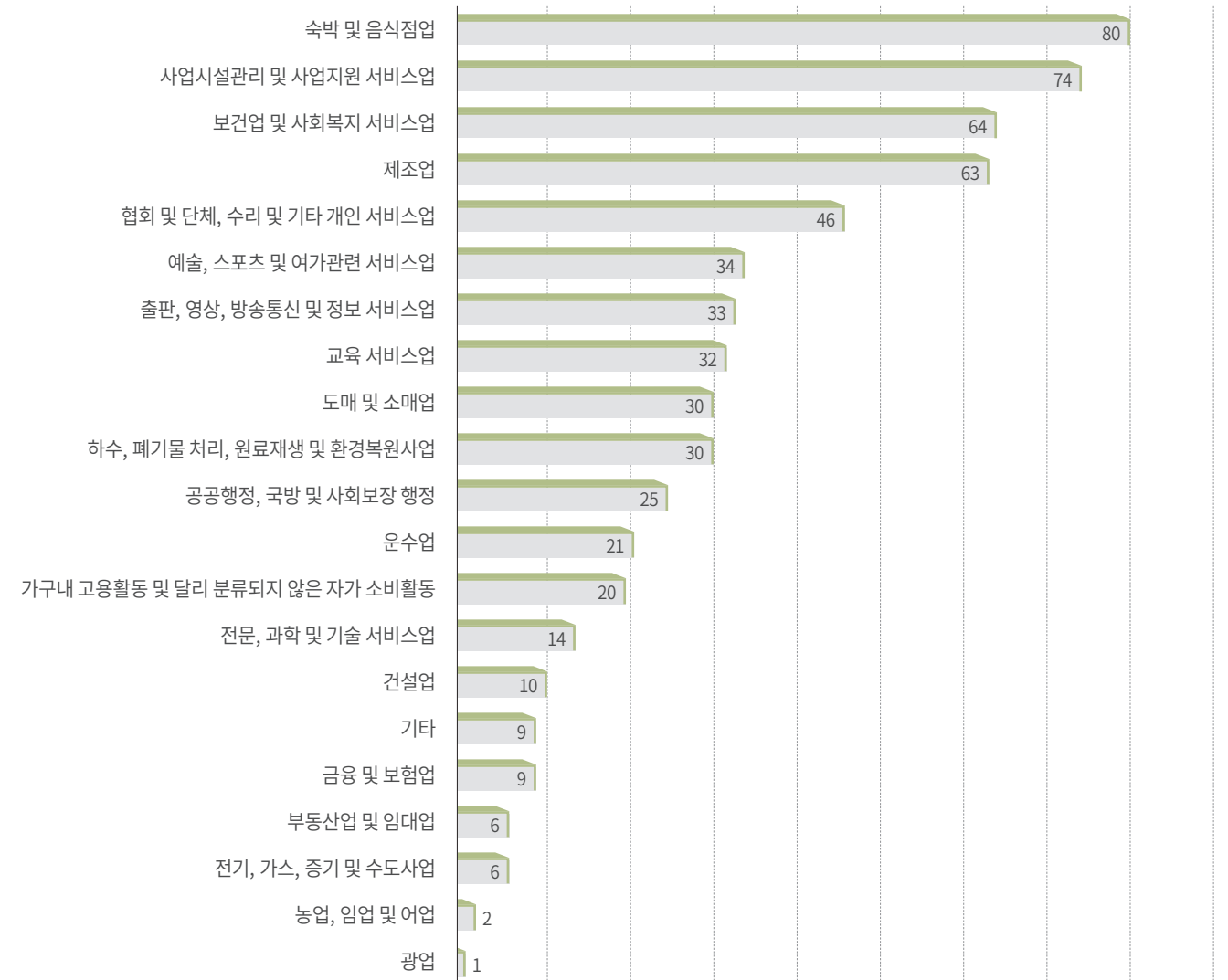


그림. 48 정신건강복지센터 취업 등록회원 직업군 현황(2022)

(단위: 명)



04

정신건강 관련 현황

1. 정신건강자원
2.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3. 정신건강문제
4. 정신질환치료
5. 정신건강서비스



정신건강자원

가. 서울시

1) 예산

- ▶ 서울시 예산 및 보건 예산은 2019년 감소한 이후 증가, 정신건강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2년 기준 서울시 예산은 44,219,049백만원, 보건 예산은 693,965백만원, 정신건강 예산 83,483백만원으로 나타남.
- ▶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 점유비를 살펴보면, 2018년 11.4%에서 2021년 13.3%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 12.0%로 감소하였음.

표. 18 서울시 정신건강 예산 추이(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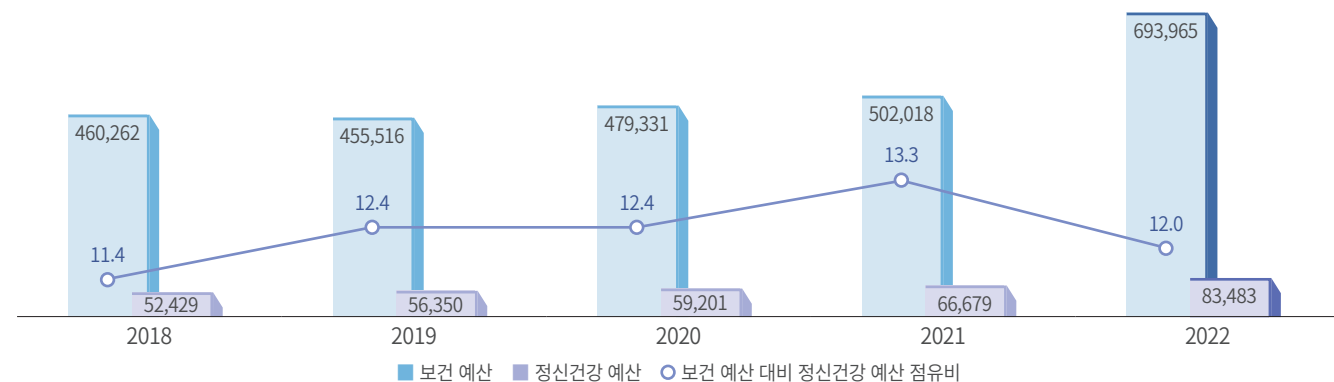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시 예산	35,781,692	35,741,608	39,535,913	40,156,242	44,219,049
보건 예산	460,262	455,516	479,331	502,018	693,965
정신건강 예산	52,429	56,350	59,201	66,679	83,48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064	3,082	3,467	4,161	5,012
자살예방센터 운영	2,376	2,367	3,159	3,127	5,214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9,125	9,891	11,282	12,205	13,957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615	623	635	442	446
정신재활시설 운영	25,699	26,540	26,544	29,512	30,845
정신요양시설 운영	6,895	7,073	7,259	8,314	15,004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운영	-	1,727	1,258	1,512	1,779
기타 정신건강증진 사업	4,655	5,047	5,597	7,408	11,225
보건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 점유비	11.4	12.4	12.4	13.3	12.0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예산서

그림. 49 서울시 정신건강 예산 추이(2018~2022)

(단위: 백만 원, %)



2)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 ▶ 서울시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0,345원으로 나타남.
- ▶ 2022년 기준,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을 살펴보면 종로구 20,224원, 중구 14,840원, 마포구 14,113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9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추이(2017~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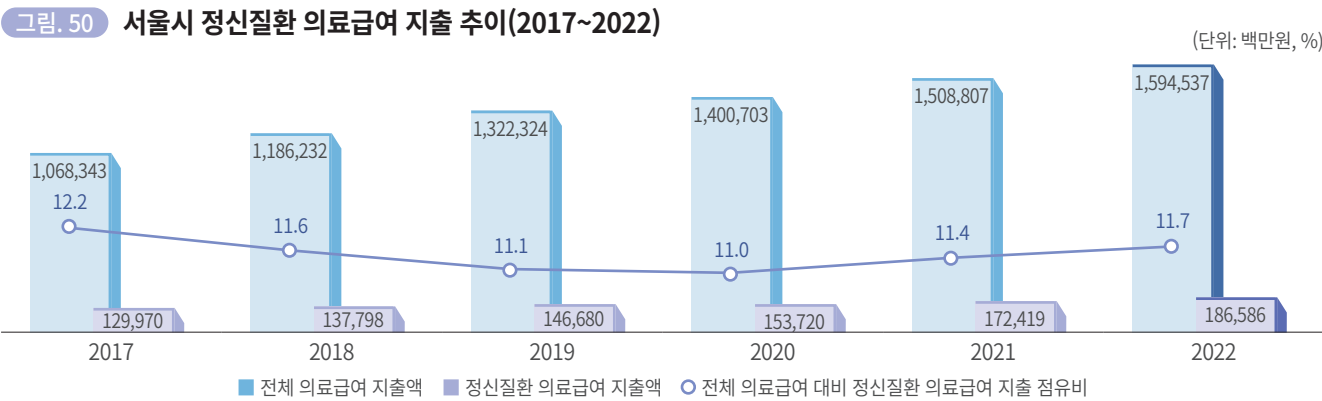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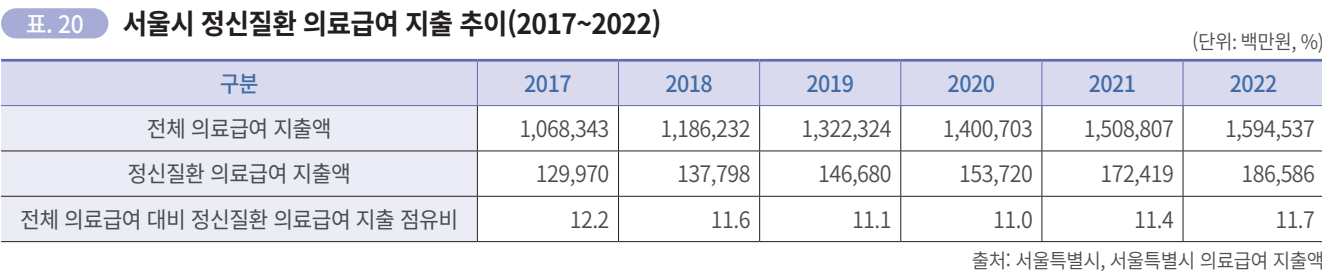
(단위: 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시	4,550	5,221	6,203	6,400	9,418	10,345
종로구	10,578	11,493	12,677	20,239	16,341	20,224
중구	9,675	15,401	9,944	12,056	12,468	14,840
용산구	3,705	4,526	4,031	6,201	4,425	6,842
성동구	4,402	6,128	9,298	10,176	11,598	12,974
광진구	6,268	7,519	11,127	8,523	9,143	10,690
동대문구	5,435	8,523	8,579	6,919	6,302	7,126
종랑구	3,713	4,429	7,260	6,383	8,090	9,029
성북구	2,536	4,406	4,353	3,167	3,174	3,687
강북구	5,597	2,970	7,650	7,137	7,887	6,550
도봉구	7,912	10,065	8,545	8,657	9,916	12,090
노원구	5,000	5,737	5,176	5,530	5,922	6,932
은평구	4,586	4,941	4,305	5,133	7,467	6,685
서대문구	6,175	7,487	7,517	7,923	8,048	9,178
마포구	8,095	3,348	12,005	13,446	12,787	14,113
양천구	3,957	6,013	6,753	6,208	4,622	4,846
강서구	4,993	5,117	6,013	5,425	6,031	6,675
구로구	4,307	4,281	5,205	5,893	5,806	7,344
금천구	4,165	8,446	10,476	6,302	11,705	12,340
영등포구	3,555	4,060	6,490	7,232	10,322	8,442
동작구	2,971	2,798	2,926	3,307	4,098	4,117
관악구	3,578	2,590	4,496	6,985	5,594	9,140
서초구	4,044	6,795	5,146	5,676	8,322	6,382
강남구	2,457	2,846	2,950	2,923	4,970	3,988
송파구	2,602	2,342	3,035	3,578	4,655	7,365
강동구	3,952	4,818	4,577	4,724	5,462	9,325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3)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출액

- 서울시 의료급여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의료급여 지출액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지출액 모두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지출액은 1,594,537백만원,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지출액은 186,586백만원으로 전체 의료급여 대비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지출 점유비는 11.7%로 나타남.
- 전체 의료급여 대비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급여 지출 점유비는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021년부터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4)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기관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2020년 3개소로 감소, 정신재활시설 기관 유형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기관수는 131개소이며 은평구가 12개소로 가장 많은 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도봉구 9개소, 서대문구와 강서구 8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2022) (단위: 개소)

구분	합계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예방 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정신재활시설						
						주간 재활시설	공동생활 가정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직업 재활시설	종합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서울시	131	1	25	1	3	25	52	8	4	7	3	2
종로구	5	1	1	0	0	0	1	1	0	1	0	0
중구	3	0	1	1	0	0	0	1	0	0	0	0
용산구	2	0	1	0	0	0	0	0	0	1	0	0
성동구	3	0	1	0	0	1	0	0	0	1	0	0
광진구	5	0	1	0	0	1	2	0	1	0	0	0
동대문구	5	0	1	0	0	1	2	0	0	1	0	0
종랑구	7	0	1	0	0	1	4	1	0	0	0	0
성북구	3	0	1	0	0	1	1	0	0	0	0	0
강북구	4	0	1	0	1	1	1	0	0	0	0	0
도봉구	9	0	1	0	1	1	4	0	1	0	1	0
노원구	6	0	1	0	1	2	2	0	0	0	0	0
은평구	12	0	1	0	0	1	9	0	1	0	0	0
서대문구	8	0	1	0	0	1	5	1	0	0	0	0
마포구	5	0	1	0	0	2	0	0	0	0	2	0
양천구	7	0	1	0	0	1	5	0	0	0	0	0
강서구	8	0	1	0	0	1	4	0	0	1	0	1
구로구	6	0	1	0	0	1	3	0	0	1	0	0
금천구	3	0	1	0	0	0	2	0	0	0	0	0
영등포구	5	0	1	0	0	2	0	1	0	1	0	0
동작구	2	0	1	0	0	0	0	1	0	0	0	0
관악구	7	0	1	0	0	2	4	0	0	0	0	0
서초구	4	0	1	0	0	2	0	1	0	0	0	0
강남구	2	0	1	0	0	1	0	0	0	0	0	0
송파구	5	0	1	0	0	1	1	1	0	0	0	1
강동구	5	0	1	0	0	1	2	0	1	0	0	0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5) 지역사회 정신재활서비스

- 서울시 정신재활시설을 거주형(공동생활가정, 중독자재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과 재활형(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종합시설,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2022년 기준 거주형 정신재활시설 기관수는 58개소로 정원 506명, 인구 10만 명당 정원은 5.4명으로 나타났고, 재활형 정신재활시설 기관수는 43개소로 정원 1,613명, 인구 10만 명당 정원은 17.1명으로 나타남.
- 거주형 정신재활시설 정원은 도봉구에서 7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평구 76명, 광진구 4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재활형 정신재활시설 정원은 마포구에서 17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송파구 153명, 영등포구 11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3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재활시설 정원(2022) (단위: 개소, 명)

구분	정신재활시설(거주형)			정신재활시설(재활형)		
	기관수	정원	인구 10만 명당 정원	기관수	정원	인구 10만 명당 정원
서울시	58	506	5.4	43	1,613	17.1
종로구	1	7	5.0	2	61	43.1
중구	0	0	0.0	1	31	25.7
용산구	0	0	0.0	1	30	13.7
성동구	0	0	0.0	2	80	28.5
광진구	3	48	14.2	1	55	16.3
동대문구	2	15	4.5	2	50	14.9
중랑구	4	18	4.7	2	90	23.4
성북구	1	4	0.9	1	30	7.0
강북구	1	8	2.7	1	40	13.6
도봉구	5	78	25.0	2	32	10.3
노원구	2	12	2.4	2	65	12.9
은평구	10	76	16.3	1	40	8.6
서대문구	5	37	12.1	2	81	26.4
마포구	0	38	10.4	4	170	46.6
양천구	5	35	7.9	1	25	5.7
강서구	5	29	5.1	2	115	20.2
구로구	3	20	5.1	2	48	12.1
금천구	2	14	6.1	0	0	0.0
영등포구	0	0	0.0	4	116	30.9
동작구	0	0	0.0	1	31	8.1
관악구	4	24	4.9	2	85	17.5
서초구	0	0	0.0	3	100	24.7
강남구	0	0	0.0	1	50	9.4
송파구	2	5	0.8	2	153	23.2
강동구	3	38	8.3	1	35	7.6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6) 정신의료기관 및 병상

- 2022년 기준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정신의료기관은 총 620개소 3,854병상으로 나타남. 그 중 국공립병원은 2개소 345병상, 사립정신병원은 11개소 2,451병상, 종합병원 정신과는 42개소 720병상, 병원 정신과는 3개소 0병상, 정신과의원은 562개소 338병상으로 나타남.
-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수를 살펴보면, 기관수는 강남구가 101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초구 59개소, 송파구 48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남. 병상수는 동대문구가 774병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봉구 389병상, 중랑구 349병상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강북구, 마포구, 관악구의 정신의료기관수는 각각 11개소, 37개소, 25개소이나 병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현황(2022) (단위: 개소, 병상)

구분	합계		국공립병원		사립정신병원		종합병원 정신과		병원 정신과		정신과의원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서울시	620	3,854	2	345	11	2,451	42	720	3	0	562	338
종로구	23	83	0	0	0	0	3	83	0	0	20	0
중구	18	20	0	0	0	0	2	20	0	0	16	0
용산구	8	21	0	0	0	0	1	21	0	0	7	0
성동구	16	28	0	0	0	0	1	28	0	0	15	0
광진구	23	335	1	150	0	0	1	21	0	0	21	164
동대문구	20	774	0	0	3	745	4	29	0	0	13	0
중랑구	17	349	0	0	1	268	2	32	1	0	13	49
성북구	13	34	0	0	0	0	1	34	0	0	12	0
강북구	11	0	0	0	0	0	0	0	1	0	10	0
도봉구	9	389	0	0	2	389	1	0	0	0	6	0
노원구	21	50	0	0	0	0	3	50	0	0	18	0
은평구	13	195	1	195	0	0	1	0	0	0	11	0
서대문구	11	97	0	0	0	0	1	55	0	0	10	42
마포구	37	0	0	0	0	0	0	0	0	0	37	0
양천구	18	20	0	0	0	0	3	20	0	0	15	0
강서구	30	177	0	0	1	177	1	0	0	0	28	0
구로구	14	243	0	0	1	213	1	30	0	0	12	0
금천구	8	219	0	0	1	219	0	0	0	0	7	0
영등포구	28	288	0	0	1	239	4	0	0	0	23	49
동작구	19	60	0	0	0	0	2	60	0	0	17	0
관악구	25	0	0	0	0	0	1	0	0	0	24	0
서초구	59	35	0	0	0	0	1	35	1	0	57	0
강남구	101	72	0	0	0	0	3	72	0	0	98	0
송파구	48	279	0	0	1	201	2	44	0	0	45	34
강동구	30	86	0	0	0	0	3	86	0	0	27	0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데이터 분석

7) 정신건강전문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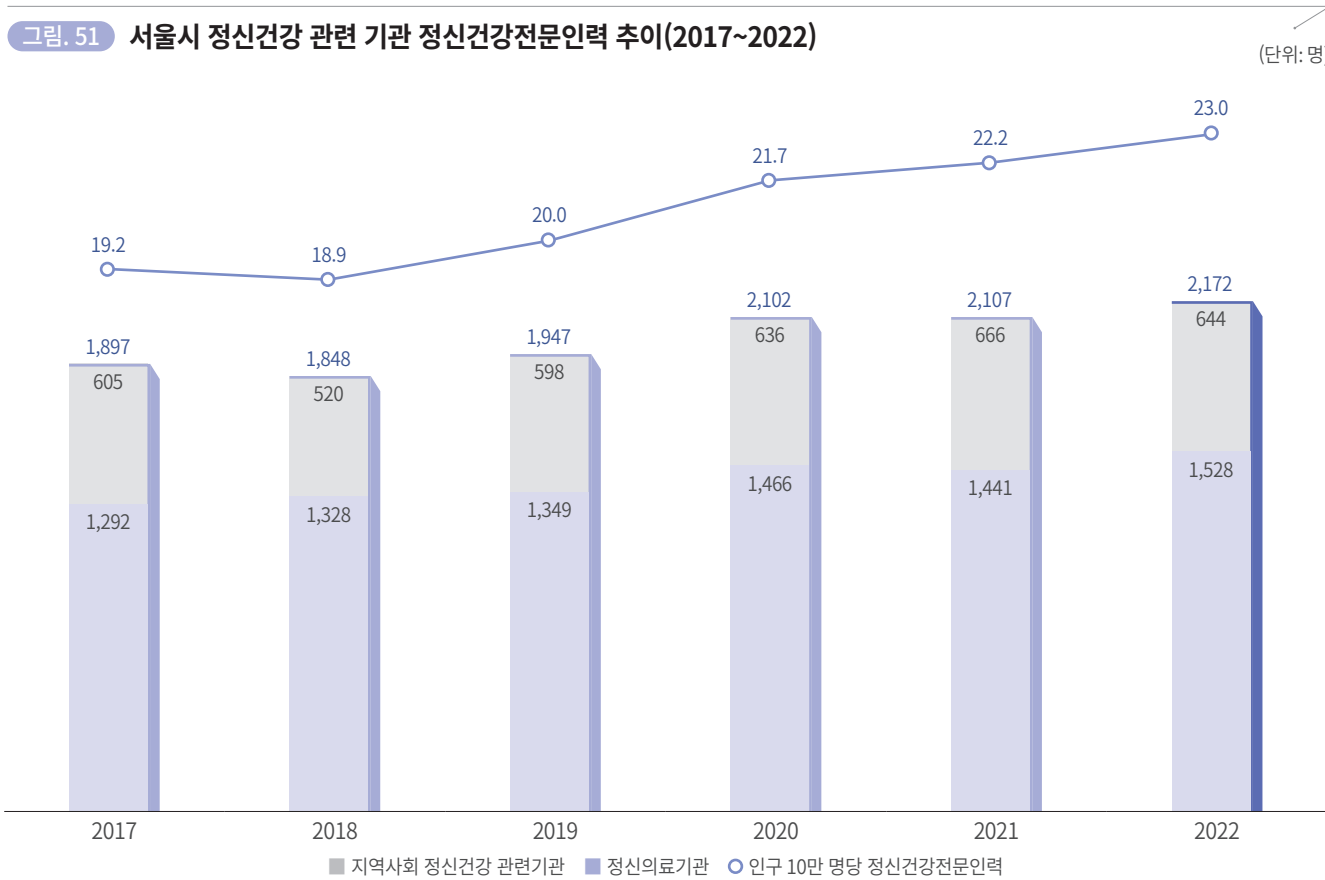
- ▶ 서울시 정신건강전문인력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2년 2,172명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고,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은 23.0명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의 정신건강전문인력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22년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전문인력은 18.3% 증가했으나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인력은 6.4% 증가함.
- ▶ 정신건강전문인력 중 지역사회 정신건강전문인력의 비중은 2017년 31.9%에서 2022년 29.7%로 감소함.

표. 25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전문인력 추이(2017~2022)

(단위: 명)

구분	합계	정신의료기관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인력
2017	1,897	1,292	605	19.2
2018	1,848	1,328	520	18.9
2019	1,947	1,349	598	20.0
2020	2,102	1,466	636	21.7
2021	2,107	1,441	666	22.2
2022	2,172	1,528	644	23.0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데이터 분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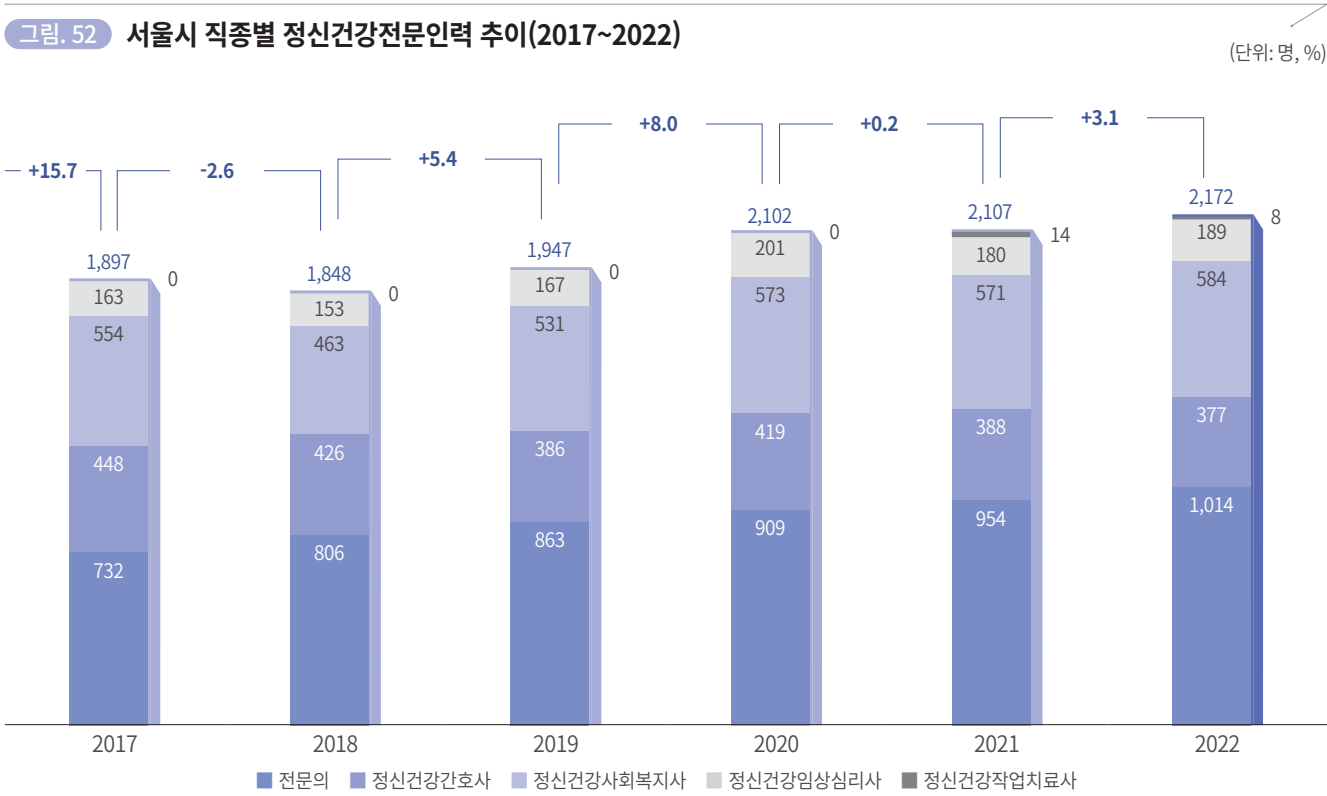
- ▶ 2022년 기준, 직종별 정신건강전문인력 수를 살펴보면 전문의가 1,01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사회복지사 584명, 정신건강간호사 377명,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89명, 정신건강작업치료사 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6 서울시 직종별 정신건강전문인력 추이(2017~2022)

(단위: 명, %)

구분	합계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전문인력 전년 대비 증감률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2017	1,897	732	448	554	163	0	+15.7
2018	1,848	806	426	463	153	0	-2.6
2019	1,947	863	386	531	167	0	+5.4
2020	2,102	909	419	573	201	0	+8.0
2021	2,107	954	388	571	180	14	+0.2
2022	2,172	1,014	377	584	189	8	+3.1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데이터 분석



- 2022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건강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가 20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진구 202명, 종로구 192명, 송파구 144명, 서초구 11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서울시 기관유형별 정신건강전문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1,52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72명, 주간재활시설 132명,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5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7

서울시 자치구별 기관유형별 정신건강전문인력 현황(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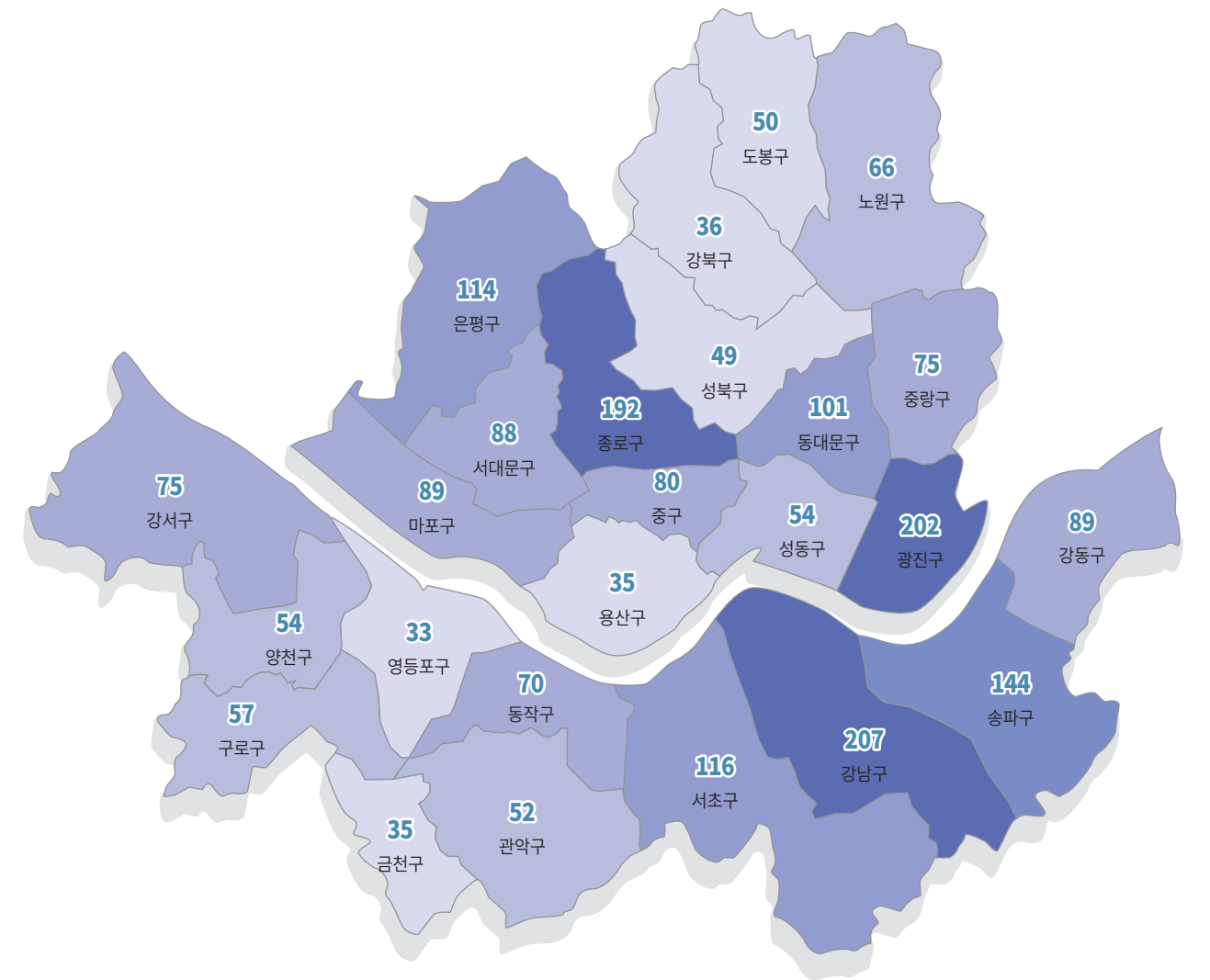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합계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자살 예방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 요양시설	정신 의료기관
						주간 재활시설	공동생활 가정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시설	지역사회 전환시설	직업 재활시설	종합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서울시	2,172	56	272	18	11	132	53	28	21	16	17	11	9	1,528
종로구	192	56	12	0	0	0	1	2	0	2	0	0	0	119
중구	80	0	15	18	0	0	0	3	0	0	0	0	0	44
용산구	35	0	5	0	0	0	0	0	0	3	0	0	0	27
성동구	54	0	14	0	0	6	0	0	0	4	0	0	0	30
광진구	202	0	17	0	0	6	4	0	4	0	0	0	0	171
동대문구	101	0	9	0	0	3	2	0	0	2	0	0	0	85
중랑구	75	0	16	0	0	8	4	3	0	0	0	0	0	44
성북구	49	0	11	0	0	5	1	0	0	0	0	0	0	32
강북구	36	0	13	0	5	4	0	0	0	0	0	0	0	14
도봉구	50	0	6	0	2	3	5	0	6	0	0	3	0	25
노원구	66	0	11	0	4	10	1	0	0	0	0	0	0	40
은평구	114	0	5	0	0	7	9	0	6	0	0	0	0	87
서대문구	88	0	7	0	0	4	5	4	0	0	0	0	0	68
마포구	89	0	10	0	0	18	0	0	0	0	0	8	0	53
양천구	54	0	16	0	0	4	6	0	0	0	0	0	0	28
강서구	75	0	12	0	0	4	3	0	0	1	6	0	0	49
구로구	57	0	11	0	0	1	3	0	0	3	0	0	0	39
금천구	35	0	15	0	0	0	2	0	0	0	0	0	0	18
영등포구	33	0	10	0	0	7	0	4	0	1	0	0	0	11
동작구	70	0	13	0	0	0	0	5	0	0	0	0	0	52
관악구	52	0	3	0	0	11	4	0	0	0	0	0	0	34
서초구	116	0	3	0	0	11	0	2	0	0	0	0	0	100
강남구	207	0	10	0	0	7	0	0	0	0	0	0	0	190
송파구	144	0	10	0	0	8	1	5	0	0	11	0	0	109
강동구	89	0	18	0	0	5	2	0	5	0	0	0	0	59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그림. 53 서울시 자치구별 기관유형별 정신건강전문인력 현황(2022)

(단위: 명)



1.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개요

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4. 정신건강 관련 현황

5. 부록: 참고자료

나. 국내

1) 예산

- ▶ 시도별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서울, 광주, 세종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강원, 충남, 제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021년에는 전체 시도별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전국 정신건강 예산은 2019년 12.7% 증가, 2020년 8.0% 증가, 2021년 22.7% 증가하여 2021년 정신건강 예산이 369,411,443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2019년 0.7% 감소, 2020년 4.6% 증가, 2021년 9.9% 증가하여 2021년 정신건강 예산은 58,981,416천원으로 나타남. 이에 전국 정신건강 예산 대비 서울시 정신건강 예산 점유비는 2018년 20.9%에서 2019년 18.4%, 2020년 17.8%, 2021년 16.0%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2021년 기준, 시도별 정신건강 예산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84,485,22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58,981,416천원, 부산 24,205,167천원, 충남 22,915,551천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8 시도별 정신건강 예산 추이(2018~2021) (단위: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국	247,231,720	278,672,839	301,087,723	369,411,443
서울	51,682,760	51,300,286	53,647,039	58,981,416
부산	13,164,210	15,159,383	21,308,849	24,205,167
대구	9,278,691	9,581,590	10,602,255	12,256,595
인천	9,260,057	9,923,885	12,662,483	17,599,138
광주	11,939,960	11,630,978	12,369,203	13,794,092
대전	10,193,937	10,936,233	12,740,140	14,142,584
울산	4,429,126	4,807,473	5,321,698	6,497,177
세종	1,066,573	963,287	1,237,214	1,512,042
경기	57,030,907	70,323,347	71,020,437	84,485,223
강원	10,868,877	12,209,343	11,770,854	15,121,734
충북	9,796,335	11,414,098	12,552,301	14,572,199
충남	12,880,011	16,218,788	15,871,633	22,915,551
전북	13,748,886	15,985,544	17,222,524	21,594,236
전남	7,709,398	9,074,488	10,633,527	14,935,002
경북	11,020,461	14,406,343	16,325,614	22,220,924
경남	9,255,094	10,501,653	11,739,401	18,978,244
제주	3,906,437	4,236,120	4,062,551	5,600,120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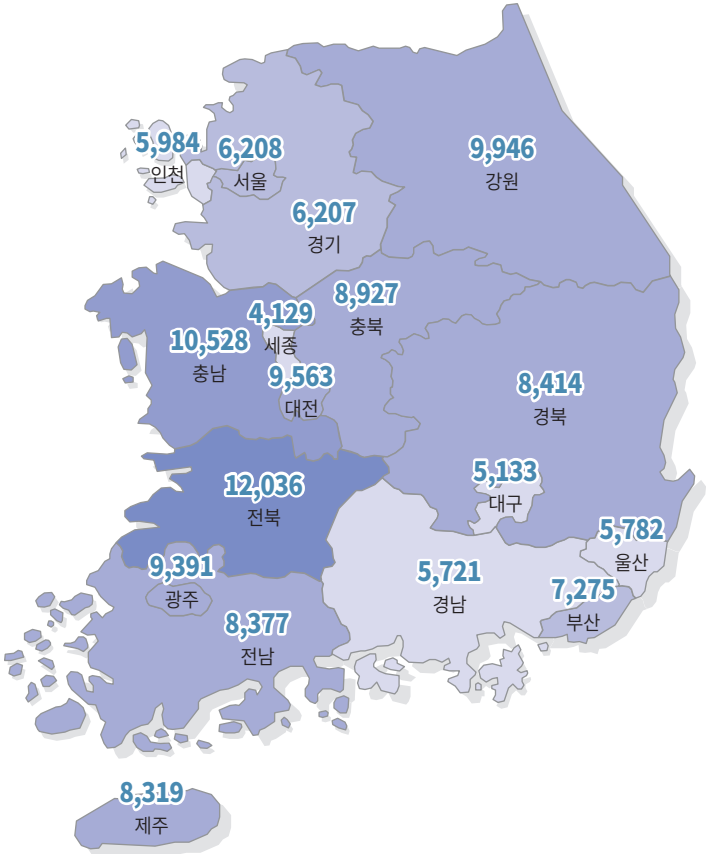
- ▶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1년 기준 전국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은 7,139원으로 나타남.
- ▶ 2021년 기준 전국 대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이 적은 지역은 서울, 대구,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경남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이 가장 많은 전북 지역은 12,036원이며 충남 10,528원, 강원 9,946원, 대전 9,563원, 광주 9,391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29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추이(2018~2021) (단위: 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국	4,791	5,389	5,815	7,139	경기	4,376	5,312	5,298	6,207
서울	5,326	5,309	5,587	6,208	강원	7,147	8,050	7,769	9,946
부산	3,872	4,495	6,373	7,275	충북	6,051	7,021	7,693	8,927
대구	3,788	3,939	4,382	5,133	충남	5,909	7,413	7,200	10,528
인천	3,151	3,371	4,291	5,984	전북	7,554	8,865	9,609	12,036
광주	7,995	7,787	8,314	9,391	전남	4,306	5,118	6,027	8,377
대전	6,716	7,249	8,492	9,563	경북	4,121	5,406	6,148	8,414
울산	3,836	4,193	4,669	5,782	경남	2,758	3,135	3,504	5,721
세종	3,513	2,909	3,546	4,129	제주	5,985	6,423	6,062	8,319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그림. 54 인구 1인당 정신건강 관련 기관 예산 현황(2021) (단위: 원)



3)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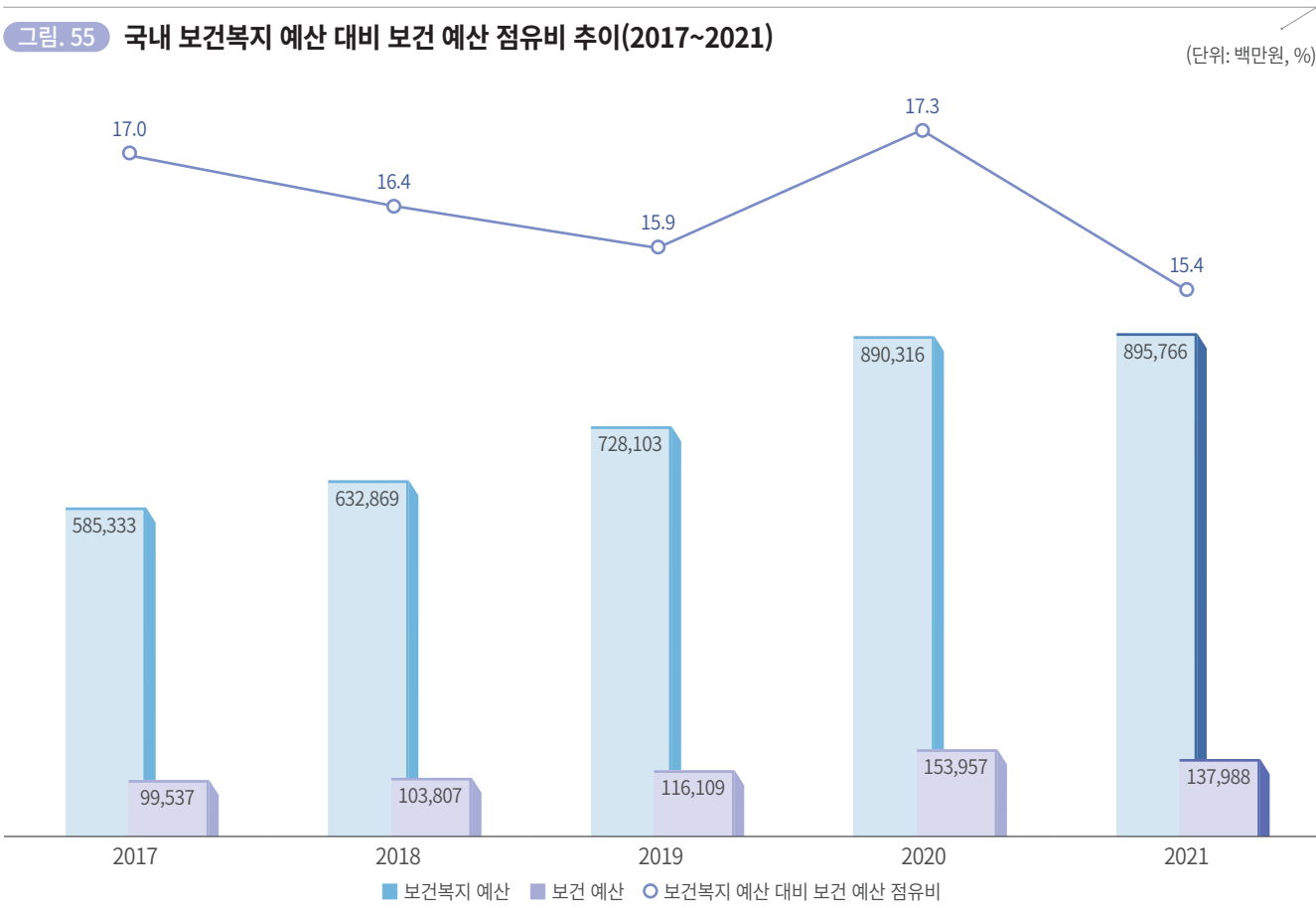
- ▶ 보건복지부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보건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보건 예산은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감소하였음.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는 2019년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 증가, 2021년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2021년 기준, 보건복지 예산은 895,76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으며, 보건 예산은 137,98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는 2021년 15.4%로 전년 대비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0 국내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추이(2017~2021)

(단위: 백만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보건복지 예산	585,333	632,869	728,103	890,316	895,766
보건 예산	99,537	103,807	116,109	153,957	137,988
보건복지 예산 대비 보건 예산 점유비	17.0	16.4	15.9	17.3	15.4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4) 정신건강 관련 기관

- ▶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요양시설 개소 수는 변동이 없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의료기관의 개소 수는 증가하는 추이를, 독립형 자살예방센터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증가 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 국내 정신건강 관련 기관 추이(2018~2021)

(단위: 개소)

구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센터(독립)	정신 재활시설	정신 요양시설	정신 의료기관
2019	16	241	49	7	349	59	1,839
2020	16	244	50	6	350	59	1,936
2021	16	244	50	6	346	59	2,038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 ▶ 2021년 기준 전국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16개소로 모든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4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50개소, 독립형 자살예방센터 6개소, 정신재활시설 346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정신의료기관 2,038개소로 나타남.

표. 32 시도별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현황(2021)

(단위: 개소)

구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센터(독립)	정신 재활시설	정신 요양시설	정신 의료기관
전국	16	244	50	6	346	59	2,038
서울	1	25	3	2	103	3	589
부산	1	16	3	0	20	3	168
대구	1	8	2	0	17	3	102
인천	1	11	5	1	12	2	90
광주	1	5	5	0	12	4	62
대전	1	5	3	0	29	4	84
울산	1	5	2	0	2	1	29
세종	0	1	0	0	2	1	11
경기	1	37	8	3	57	6	435
강원	1	18	3	0	4	0	46
충북	1	14	1	0	10	4	48
충남	1	16	2	0	21	10	60
전북	1	14	2	0	24	4	70
전남	1	22	2	0	3	4	54
경북	1	25	2	0	19	5	69
경남	1	20	5	0	5	4	95
제주	1	2	2	0	6	1	26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5)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이용자 정원

2021년 기준 전국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기관수 229개소, 정원 2,327명,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기관수 134개소, 정원 4,727명,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기관수 59개소, 정원 12,923명으로 나타남.

표. 33

시도별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원 현황(2021)

(단위: 개소, 명)

구분	정신재활시설(입소시설)		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		정신요양시설	
	기관수	정원	기관수	정원	기관수	정원
전국	229	2,327	134	4,727	59	12,923
서울	62	480	42	1,613	3	730
부산	8	62	13	435	3	720
대구	8	110	10	338	3	667
인천	7	43	4	125	2	289
광주	5	42	7	163	4	628
대전	23	215	7	258	4	734
울산	0	0	2	70	1	150
세종	2	25	0	0	1	155
경기	44	335	14	611	6	1,848
강원	3	38	1	29	0	0
충북	7	135	4	170	4	957
충남	20	290	2	60	10	1,624
전북	19	218	12	404	4	871
전남	3	48	1	26	4	1,006
경북	14	231	6	184	5	1,331
경남	3	49	4	90	4	963
제주	1	6	5	151	1	250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6) 정신의료기관 및 병상

국내 정신의료기관 기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병상수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2021년 기준 국내 정신의료기관수는 2,038개소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으며, 병상수는 75,474병상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

국내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추이(2017~2021)

(단위: 개소, 병상)

구분	기관수	병상수
2017	1,554	81,734
2018	1,670	79,257
2019	1,839	78,739
2020	1,936	79,432
2021	2,038	75,474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년 기준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수를 살펴보면, 기관수는 서울지역이 589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435개소, 부산 168개소, 대구 102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남. 병상수는 경기지역이 15,307병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 9,423병상, 경북 7,917개소, 부산 6,136병상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5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기관 및 병상 현황(2021)

(단위: 개소, 병상)

구분	기관수	병상수
전국	2,038	75,474
서울	589	4,686
부산	168	6,136
대구	102	4,427
인천	90	3,784
광주	62	2,173
대전	84	1,677
울산	29	1,405
세종	11	118
경기	435	15,307
강원	46	2,082
충북	48	3,617
충남	60	5,041
전북	70	2,956
전남	54	4,333
경북	69	7,917
경남	95	9,423
제주	26	392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7) 정신건강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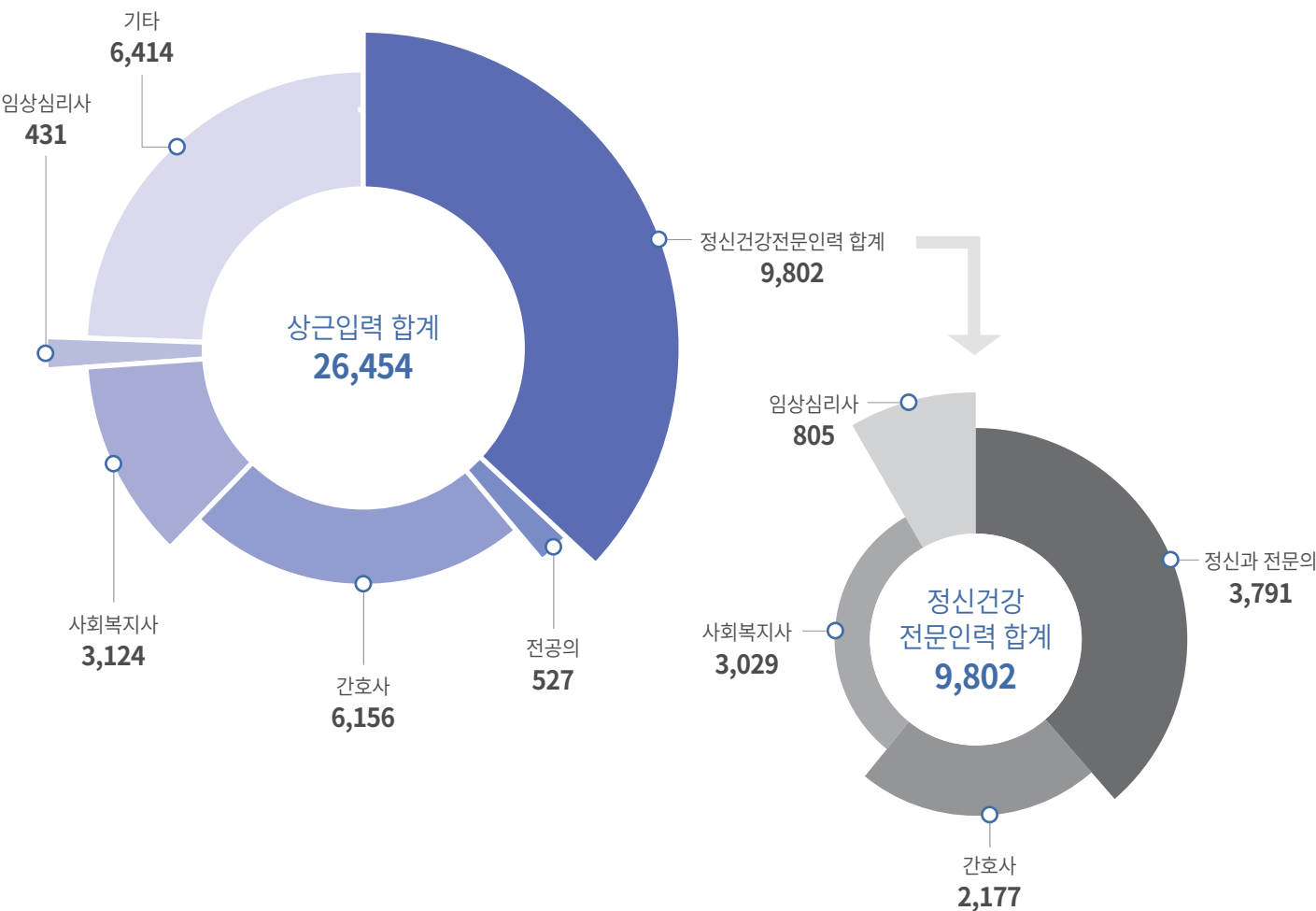
국내 정신건강인력 추이를 살펴보면, 상근인력과 전문인력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상근인력 수는 26,454명, 그 중 정신건강전문인력(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은 9,802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37.1%로 나타남.

표. 36 국내 정신건강인력 추이(2018~2021) (단위: 명)

구분	상근 인력 합계	정신건강전문인력 합계						전공의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기타
		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소계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 심리사						
2018	22,125	8,470	3,273	5,197	2,057	2,511	629	530	5,007	2,296	244	5,578
2019	23,348	9,096	3,511	5,585	2,257	2,633	695	541	5,157	2,361	285	5,908
2020	25,561	9,578	3,649	5,929	2,241	2,904	784	512	6,077	2,720	316	6,358
2021	26,454	9,802	3,791	6,011	2,177	3,029	805	527	6,156	3,124	431	6,414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그림. 56 국내 정신건강인력 현황(2021) (단위: 명)



- 2021년 기준 시도별 정신건강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서울, 부산 지역 순으로 상근인력 및 정신건강전문인력 수가 높게 나타남. 상근인력 대비 정신건강전문인력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 41.5%, 전북 39.0%, 경기 38.7%, 대전 3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기관유형별 정신건강전문인력 수를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37 시도별 정신건강인력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상근 인력 합계	정신건강전문인력 합계							
			정신 의료기관	정신 요양시설	정신 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 센터	자살 예방센터
						광역	기초		
전국	26,454	9,802	6,589	183	739	307	1,776	149	59
서울	4,879	2,125	1,485	9	274	44	265	12	36
부산	1,939	737	471	10	55	19	173	9	0
대구	1,267	467	336	1	45	14	68	3	0
인천	1,329	443	311	4	20	10	84	9	5
광주	964	400	222	33	23	22	72	28	0
대전	828	319	187	13	42	25	46	6	0
울산	426	148	90	4	5	7	41	1	0
세종	121	42	29	2	1	0	10	0	0
경기	5,638	2,180	1,359	22	103	62	573	43	18
강원	797	271	189	0	6	8	63	5	0
충북	872	244	161	9	19	10	43	2	0
충남	1,476	473	370	22	29	9	39	4	0
전북	1,099	429	238	23	62	20	79	7	0
전남	1,146	396	302	12	9	17	54	2	0
경북	1,478	452	315	11	23	11	90	2	0
경남	1,908	566	459	6	13	13	64	11	0
제주	287	110	65	2	10	16	12	5	0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다. 국외

1) 보건 지출

- OECD 국가별 인구 1인당 보건 지출을 살펴보면, 미국이 10,92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위스 9,666.3\$, 노르웨이 8,007.3\$, 아이슬란드 6,275.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 1인당 보건 지출은 2,624.5\$로 나타남.

표. 38 OECD 국가별 인구 1인당 보건 지출 현황(2019)

(단위: USD)

구분	보건 지출	구분	보건 지출
미국	10,921.0	이스라엘	3,456.4
스위스	9,666.3	이탈리아	2,905.5
노르웨이	8,007.4	스페인	2,711.2
아이슬란드	6,275.0	대한민국	2,624.5
룩셈부르크	6,220.7	포르투갈	2,221.4
덴마크	6,003.3	슬로베니아	2,219.1
스웨덴	5,671.4	체코	1,844.2
독일	5,440.3	에스토니아	1,598.8
아일랜드	5,428.6	그리스	1,500.6
오스트레일리아	5,427.5	칠레	1,375.8
네덜란드	5,335.3	리투아니아	1,370.0
오스트리아	5,242.2	슬로바키아	1,342.1
캐나다	5,048.4	라트비아	1,166.8
벨기에	4,960.4	헝가리	1,062.4
프랑스	4,491.7	폴란드	1,014.0
핀란드	4,450.3	코스타리카	921.6
일본	4,360.5	멕시코	540.4
영국	4,312.9	콜롬비아	495.3
뉴질랜드	4,211.0	튀르키예	396.5

출처: The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2) 정신건강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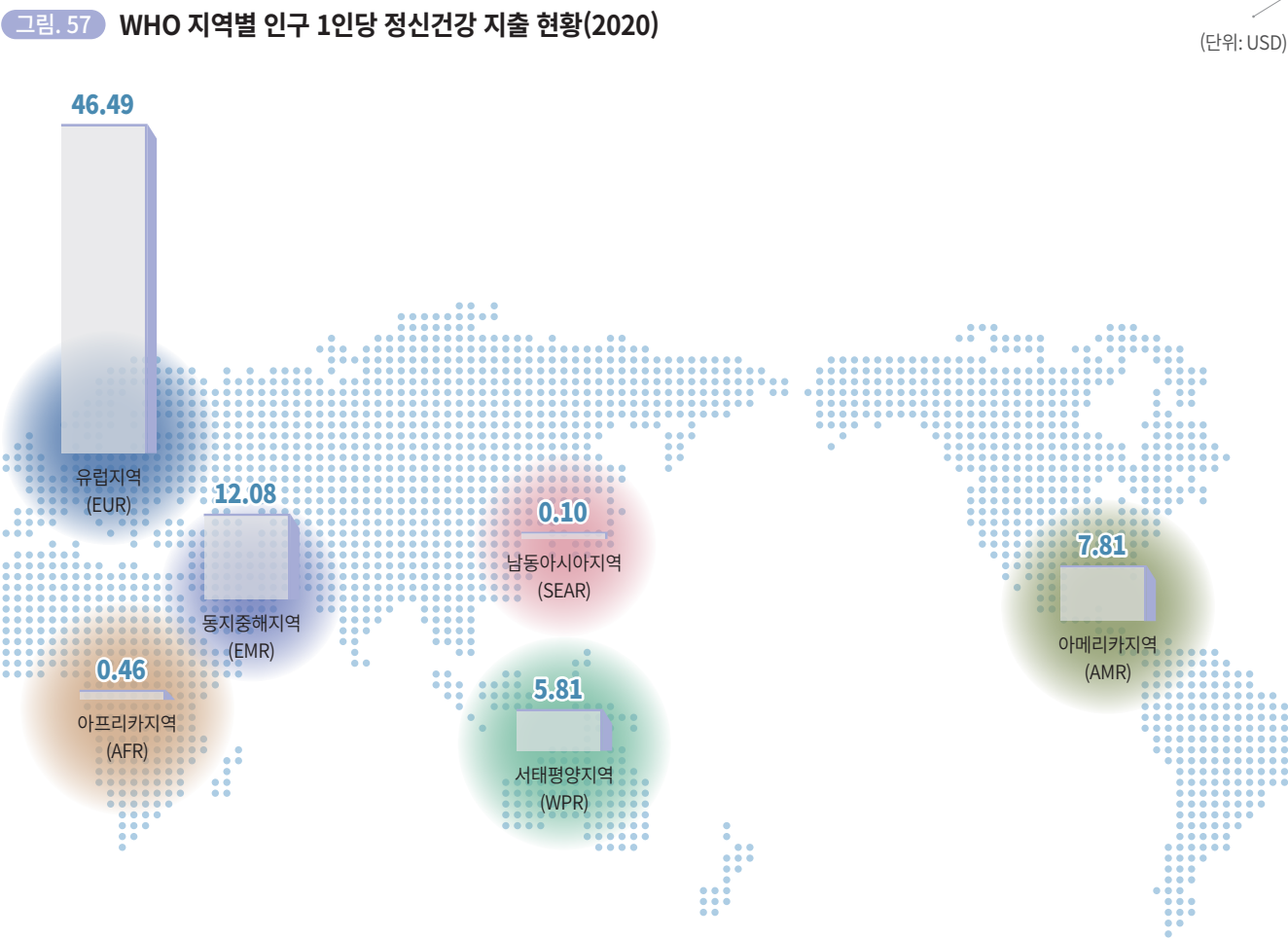
- WHO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지출은 67개국 평균 7.49\$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WHO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지역이 4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지중해지역 12.08\$, 아메리카지역 7.81\$, 서태평양지역 5.81\$, 아프리카지역 0.46\$, 남동아시아지역 0.1\$ 순으로 나타남.

표. 39 WHO 지역별 인구 1인당 정신건강 지출 현황(2020)

(단위: 개, USD)

구분	Global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동지중해지역 (EMR)	유럽지역 (EU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서태평양지역 (WPR)
국가 수	67	8	14	4	22	7	12
1인당 정신건강 지출	7.49	0.46	7.81	12.08	46.49	0.10	5.81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3) 정신건강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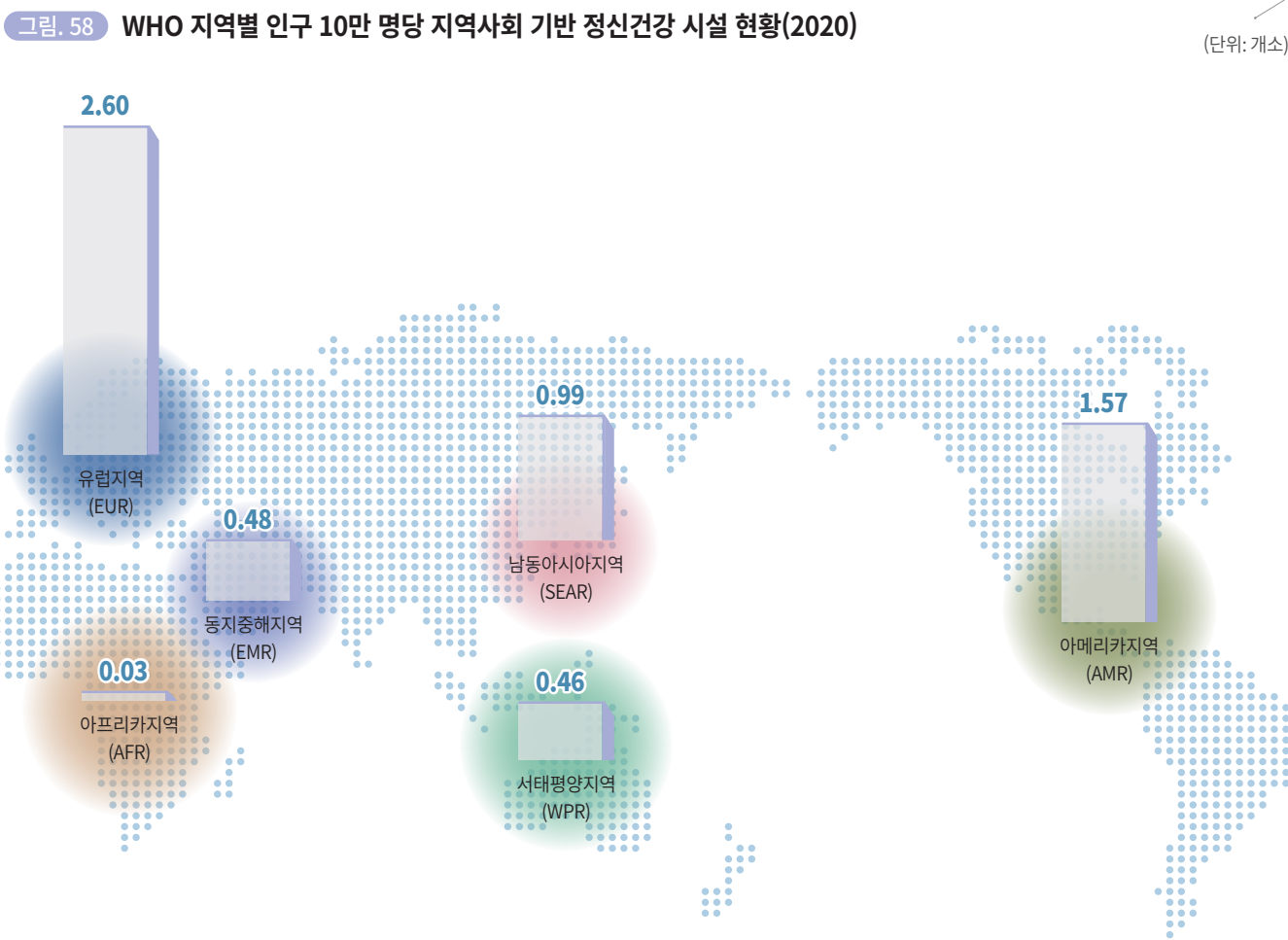
2020년 기준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시설 수는 평균 0.64개소로, 유럽지역이 2.60개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메리카지역 1.57개소, 남동아시아지역 0.99개소, 동지중해지역 0.48개소, 서태평양지역 0.46개소, 아프리카지역 0.03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0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시설 현황(2020)

(단위: 개소)

구분	Global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동지중해지역 (EMR)	유럽지역 (EU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서태평양지역 (WPR)
시설 수	0.64	0.03	1.57	0.48	2.60	0.99	0.46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4) 정신의료기관 및 병상

WHO 지역 평균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원 기관수는 0.05개소, 병상수는 10.8병상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과 병동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수는 0.17개소, 병상수는 2.5병상으로 나타남.

2020년 기준 WHO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원 및 정신과 병동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서태평양지역으로 각각 0.56개소, 0.48개소로 나타남.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원 및 정신과 병동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병상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유럽지역으로 각각 35.0병상, 12.3병상으로 나타남.

표. 41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의료기관 현황(2020)

(단위: 개소, 병상)

구분	정신병원		정신과 병동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병상수
Global	0.05	10.8	0.17	2.5
아프리카지역(AFR)	0.16	3.7	0.05	0.7
아메리카지역(AMR)	0.04	6.7	0.18	1.4
동지중해지역(EMR)	0.02	4.4	0.05	1.2
유럽지역(EUR)	0.14	35.0	0.32	12.3
남동아시아지역(SEAR)	0.01	3.6	0.13	1.3
서태평양지역(WPR)	0.56	11.2	0.48	4.6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OECD 평균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상수는 153.7병상으로, 일본이 245.3병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한민국 45.4병상, 뉴질랜드 44.0병상, 싱가포르 41.9병상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2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상 현황(2020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단위: 병상)

구분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상수	구분	인구 10만 명당 정신병상수
일본	245.3	베트남	8.7
OECD 평균	153.7	태국	7.9
대한민국	45.4	필리핀	6.7
뉴질랜드	44.0	인도네시아	6.3
싱가포르	41.9	브루나이	6.0
호주	37.6	미얀마	3.3
중국	35.3	솔로몬제도	3.0
몽골	20.2	네팔	1.8
피지	13.2	파푸아뉴기니	1.0
스리랑카	12.2	방글라데시	0.5
말레이시아	11.2		

출처: OECD,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5) 정신건강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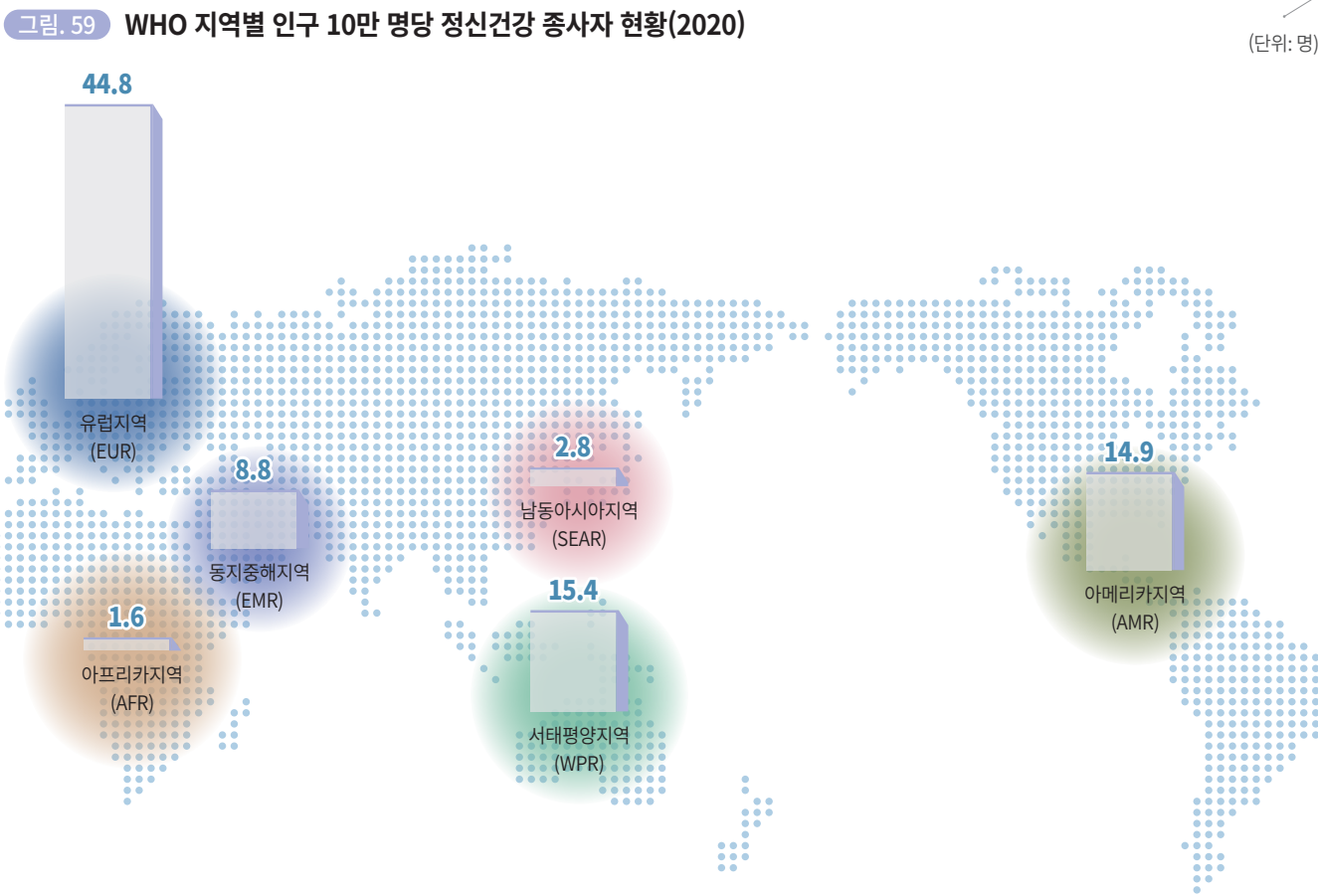
- WHO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종사자 수는 13.0명으로 유럽지역이 44.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태평양지역 15.4명, 아메리카지역 14.9명, 동지중해지역 8.8명, 남동아시아지역 2.8명, 아프리카지역 1.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WHO 지역별 평균 직종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정신과 의사 1.7명, 정신건강간호사 3.8명, 심리학자 1.4명, 사회복지사 0.7명, 기타 전문 정신건강종사자 0.5명으로 나타남.

표. 43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인력 현황(2020)

(단위: 개, 명)

구분	Global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동지중해지역 (EMR)	유럽지역 (EU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서태평양지역 (WPR)
국가 수	158	35	32	19	41	8	24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종사자	13.0	1.6	14.9	8.8	44.8	2.8	15.4
정신과 의사	1.7	0.1	1.9	1	9.7	0.4	1
정신건강 간호사	3.8	0.9	3.6	3	25.2	0.9	5.3
심리학자	1.4	0.1	4.6	1	5.4	0.3	0.7
사회복지사	0.7	0.1	1.5	0.4	2	0.1	0.7
기타 전문 정신건강종사자	0.5	0.1	0.9	0.7	3.2	0.4	0.2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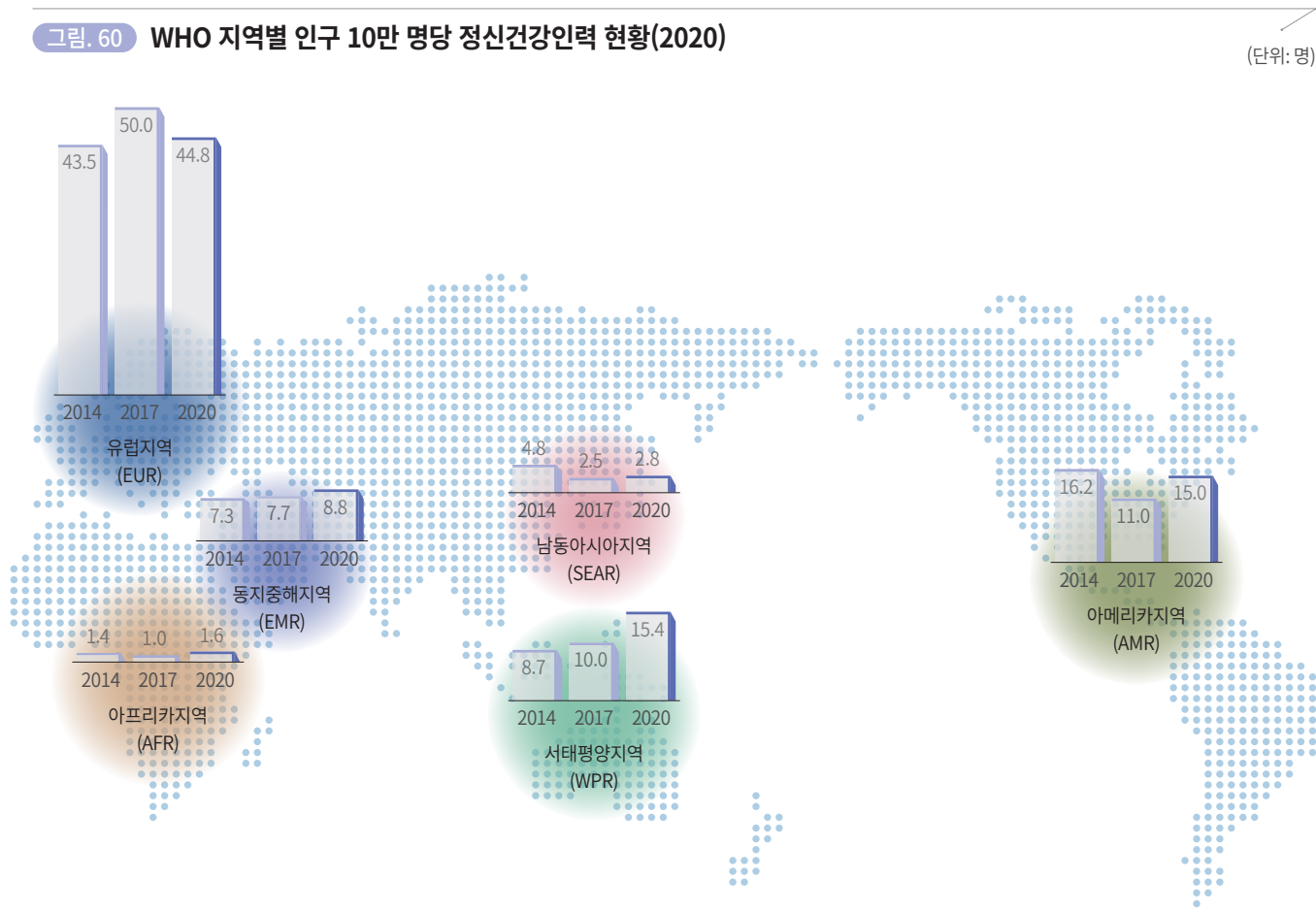
-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종사자 수는 대부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아메리카지역과 남동아시아지역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표. 44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인력 추이(2014~2020)

(단위: 명)

구분	Global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동지중해지역 (EMR)	유럽지역 (EU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서태평양지역 (WPR)
2014	9.0	1.4	16.2	7.3	43.5	4.8	8.7
2017	9.0	1.0	11.0	7.7	50.0	2.5	10.0
2020	13.0	1.6	15.0	8.8	44.8	2.8	15.4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정신건강예방 및 증진

가. 서울시

1)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추이를 살펴보면,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기준 63.1%로 2019년 대비 2.7%p 감소하였으며,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기준 10.6%로 2019년 대비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5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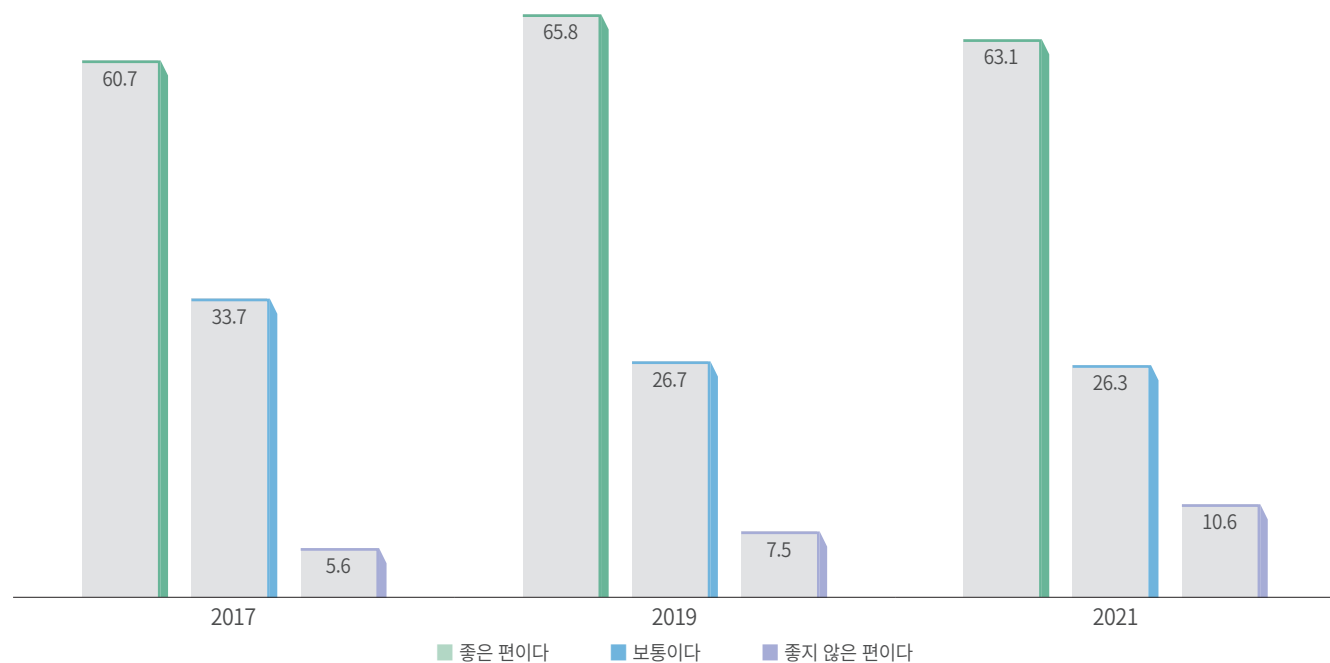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좋지 않은 편이다
2017	60.7	33.7	5.6
2019	65.8	26.7	7.5
2021	63.1	26.3	10.6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

그림. 61 서울시민의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7~2021)

(단위: %)



2)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 서울시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63.2%로 2017년 42.7%, 2019년 60.0% 대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6 서울시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추이(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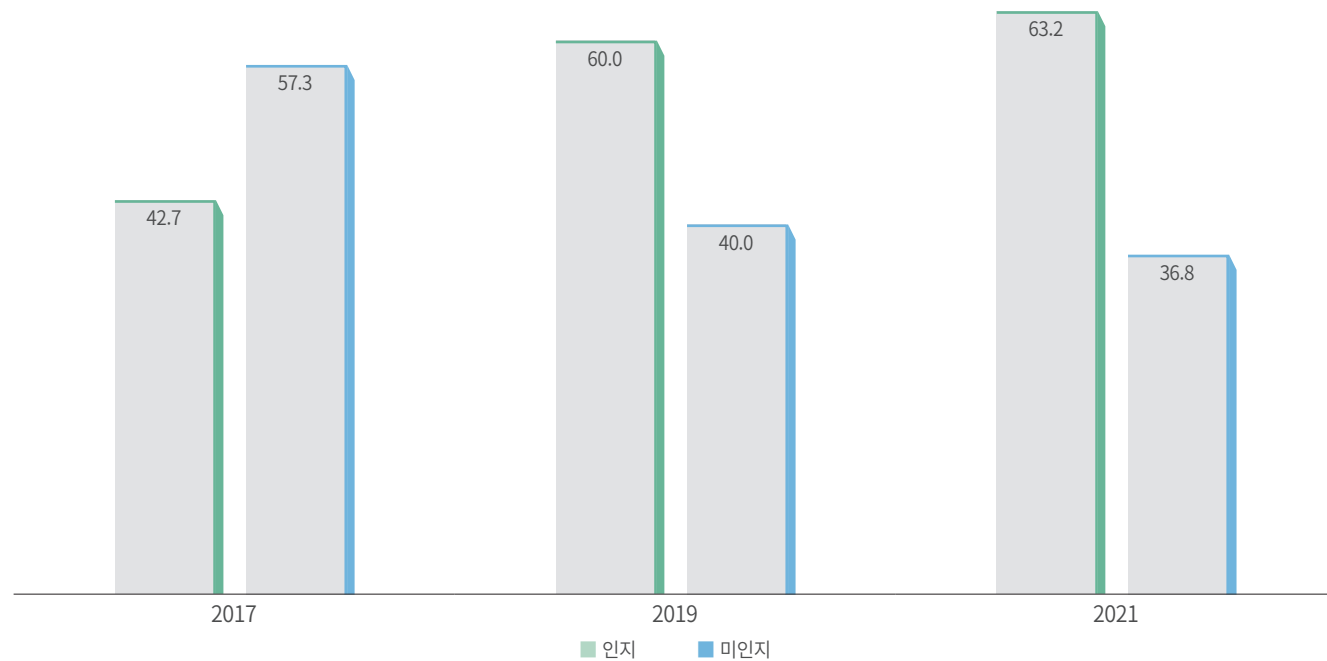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인지	미인지
2017	42.7	57.3
2019	60.0	40.0
2021	63.2	36.8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

그림. 62 서울시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추이(2017~2021)

(단위: %)



3)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이용 의향

- ▶ 정신건강 관련 기관 유형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긍정응답(꼭 이용하고싶다+이용할 것 같다)한 비율을 연도별로 제시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외 기관 유형은 2021년부터 조사 진행됨.
- ▶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의향 긍정응답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였고, 2021년 기준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의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61.4%, 자살예방센터 40.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8.4%, 정신재활시설 41.3%, 심리지원센터 41.4%로 나타남.

표. 47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이용 의향 긍정응답률 추이(2011~2021)

(단위: %)

구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심리지원센터
2011	66.9	-	-	-	-
2013	67.5	-	-	-	-
2015	71.8	-	-	-	-
2017	73.9	-	-	-	-
2019	73.7	-	-	-	-
2021	61.4	40.5	68.4	41.3	41.4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

4)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

- ▶ 2021년 기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각 문항에 대한 응답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48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 현황(2021)

(단위: %)

구분	정말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정신질환은 보통 질병과 마찬가지로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하나의 질병이다	48.1	44.6	6.1	1.2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	22.7	62.2	13.7	1.4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15.5	46.2	31.8	6.5
정신질환자의 관리와 치료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이 쓰여야 한다	34.5	53.5	10.3	1.7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

5)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

- ▶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기준 ‘심각한 스트레스’ 38.7%,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35.8%,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32.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49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 추이(2017~2021)

(단위: %)

구분	2017	2019	2021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15.4	25.2	32.3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감정 기복	12.8	24.7	27.1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	10.1	17.8	19.3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11.0	24.9	29.1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14.7	30.4	35.8
심각한 스트레스	24.6	36.2	38.7
자살생각	2.8	9.2	12.3
건강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7.0	16.0	13.1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0.6	3.2	4.6
중독문제(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약물 등)	1.6	5.9	6.5
재난, 사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	4.7	7.5
기타	-	0.2	7.0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

6) 정신건강 문제 대처 방법

- ▶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 추이를 살펴보면,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 53.9%, ‘가족·친구·지인에게 이야기함’ 47.9%,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음’ 20.3%, ‘종교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음’ 6.9%, ‘기타’ 2.8%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50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처 방법 추이(2017~2021)

(단위: %)

구분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함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함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음	종교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음	기타
2017	47.9	27.3	31.5	10.3	2.7
2019	52.1	33.0	21.3	8.8	1.1
2021	47.9	53.9	20.3	6.9	2.8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

나. 국내

1) 정신건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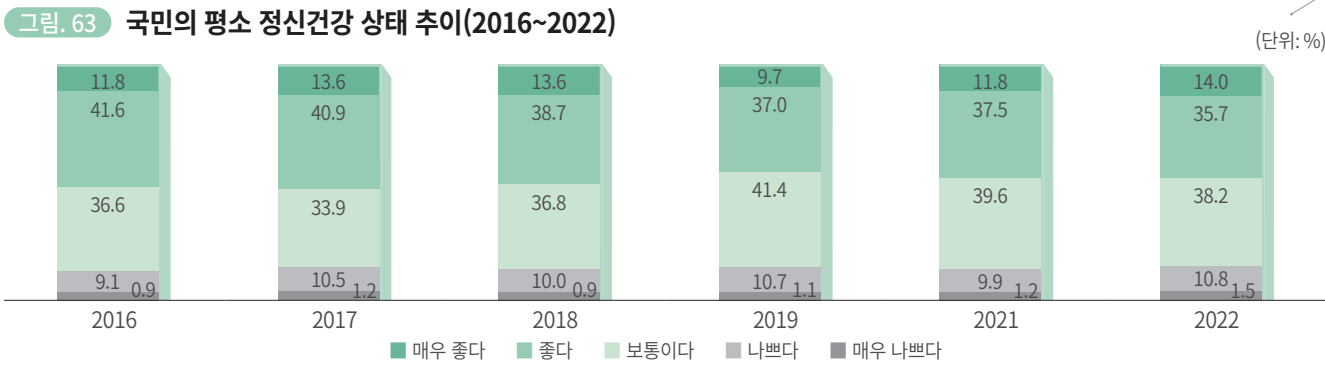
- 2022년 기준 평소 정신건강 상태 추이를 살펴보면, 정신건강 상태를 ‘매우 좋다’고 평가한 비율은 14.0%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좋다’고 평가한 비율은 35.7%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평소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나쁘다’ 혹은 ‘매우 나쁘다’라고 평가한 비율은 각각 10.8%, 1.5%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51 국민의 평소 정신건강 상태 추이(2016~2022)

(단위: %)

구분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2016	11.8	41.6	36.6	9.1	0.9
2017	13.6	40.9	33.9	10.5	1.2
2018	13.6	38.7	36.8	10.0	0.9
2019	9.7	37.0	41.4	10.7	1.1
2021	11.8	37.5	39.6	9.9	1.2
2022	14.0	35.7	38.2	10.8	1.5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 2022년 기준 지역별 평소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면, ‘좋다(매우 좋다+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강원/제주에서 6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상권 53.3%, 서울 52.9%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22년 기준 지역별 평소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나쁘다(나쁘다+매우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인천/경기에서 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권 13.4%, 경상권 11.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52 지역별 평소 정신건강 상태(2022)

(단위: %)

구분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서울	16.4	36.5	36.2	9.8	1.1
인천/경기	11.4	33.5	40.9	11.8	2.3
충청권	12.1	34.6	42.1	10.7	0.5
경상권	14.4	38.9	35.4	10.3	1.0
전라권	17.6	30.5	38.5	12.3	1.1
강원/제주	16.5	44.7	30.6	5.9	2.4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2)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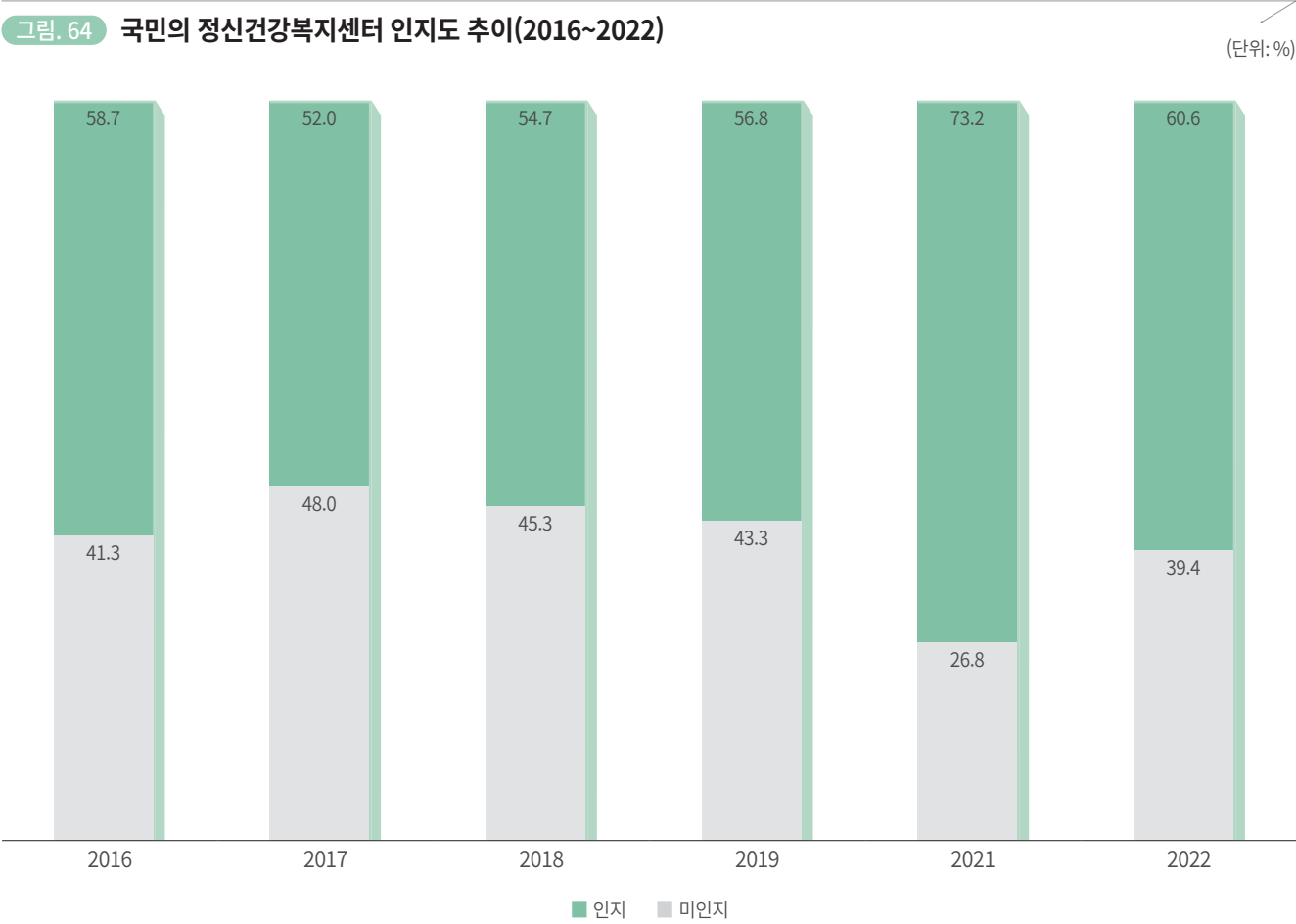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추이를 살펴보면,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2022년 기준 60.6%로 전년 대비 12.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53 국민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 추이(2016~2022)

(단위: %)

구분	인지	미인지
2016	58.7	41.3
2017	52.0	48.0
2018	54.7	45.3
2019	56.8	43.3
2021	73.2	26.8
2022	60.6	39.4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2022년 기준 시도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를 살펴보면, 광주지역에서 7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 72.4%, 강원 6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지역은 세종지역에서 43.8%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제주 46.2%, 충남 53.8% 순으로 낮게 나타남.

표. 54 시도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지도(2022)

(단위: %)

구분	인지	미인지
서울	55.8	44.2
부산	57.8	42.2
대구	60.4	39.6
인천	72.4	27.6
광주	75.0	25.0
대전	62.1	37.9
울산	60.5	39.5
세종	43.8	56.3
경기	58.2	41.8
강원	69.5	30.5
충북	68.3	31.7
충남	53.8	46.3
전북	65.2	34.8
전남	63.1	36.9
경북	62.9	37.1
경남	66.1	33.9
제주	46.2	53.8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3)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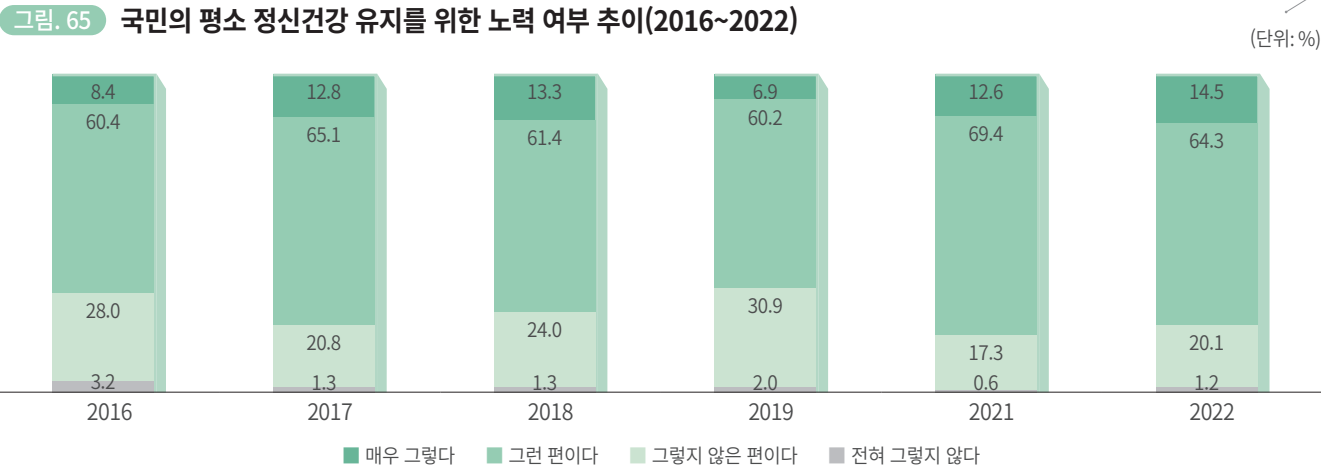
평소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 여부 추이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기준 14.5%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4.3%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로 전년 대비 증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55 국민의 평소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 여부 추이(2016~2022)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16	8.4	60.4	28.0	3.2
2017	12.8	65.1	20.8	1.3
2018	13.3	61.4	24.0	1.3
2019	6.9	60.2	30.9	2.0
2021	12.6	69.4	17.3	0.6
2022	14.5	64.3	20.1	1.2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지역별 평소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 여부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강원/제주에서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라권에서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충청권에서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에서 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56 지역별 평소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 여부(2022)

(단위: %)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서울	14.8	65.6	17.2	2.4
인천/경기	13.2	65.1	20.8	0.9
충청권	12.1	58.9	28.5	0.5
경상권	15.0	64.4	20.0	0.6
전라권	17.1	65.8	15.0	2.1
강원/제주	18.8	62.4	18.8	0.0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4)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

2022년 기준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여부는 다음과 같음.

표. 57

국민의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2022)

(단위: %)

구분		동의함	보통	동의안함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정신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면 호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83.8	13.8	2.4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입원하지 않더라도 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77.4	18.0	4.7
	음주는 정신질환 증상을 악화시킨다	81.0	15.5	3.6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	83.2	13.7	3.2
	정신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	73.5	22.4	4.1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80.9	16.5	2.7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하다	74.2	21.8	4.0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64.0	28.3	7.8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	25.6	36.9	37.6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대화하면 나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38.4	39.5	22.1
	한번이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면 평생 문제가 있을 것이다	24.9	34.8	40.3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39.4	38.4	22.2
	정신질환에 걸린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할 것이다	43.9	34.9	21.3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	64.0	26.9	9.1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다	61.5	26.6	12.0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본인이 나약하기 때문이다	23.9	28.4	47.8
정신질환에 대한 수용도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 기능 이상일 것이다	49.3	33.0	17.8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친구로 지내며 친목 모임을 가질 수 있다	37.6	44.8	17.6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	33.1	48.2	18.8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	36.0	43.8	20.2
	나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고 있다	27.9	42.5	29.7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5)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

- 2022년 기준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이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경험률 30.3%,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불편감’ 29.7%,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27.6%,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26.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 추이를 살펴보면,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 ‘심각한 스트레스’,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항목의 경우 전년 대비 경험률이 증가하였으며, 이 외의 항목은 모두 감소하였음.

표. 58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 추이(2016~2022)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28.6	31.8	29.1	30.3	30.6	30.3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감정 기복	30.9	31.0	29.1	30.2	25.0	23.6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	12.4	13.3	11.7	13.7	11.9	12.6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24.1	26.5	25.0	27.9	28.0	27.6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24.4	27.7	24.1	24.9	27.1	26.8
심각한 스트레스	37.6	39.9	38.6	37.6	35.2	36.0
자살생각	9.7	9.0	9.0	9.5	9.1	8.8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19.6	21.3	19.5	22.5	17.7	19.9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9.2	5.3	6.4	7.1	6.3	6.1
알코올 문제	7.4	6.1	5.8	8.9	9.0	8.9
약물중독 문제	-	-	-	2.4	3.0	2.8
도박중독 문제	3.6	3.2	3.8	1.9	3.1	2.9
기타 중독문제	14.8	14.0	12.4	7.0	6.5	6.4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불편감	-	-	-	-	30.8	29.7
조절되지 않는 강박사고 및 강박행동	-	-	-	-	14.6	11.3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2022년 지역별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심각한 스트레스’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약물중독 문제’ 및 ‘도박중독 문제’ 경험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59 지역별 정신건강 문제 유형별 경험률(2022)

(단위: %)

구분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제주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31.0	28.6	27.6	30.7	33.7	30.6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의 감정 기복	22.8	23.1	28.0	22.8	25.7	18.8
자제할 수 없는 분노 표출	12.4	12.8	11.7	12.6	13.9	10.6
수일간 지속되는 불안	26.5	29.5	26.2	27.4	26.2	24.7
수일간 지속되는 불면	30.7	27.1	23.4	26.7	22.5	24.7
심각한 스트레스	34.9	36.5	37.9	35.6	34.2	37.6
자살생각	9.8	7.4	7.0	9.9	11.2	7.1
건망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장애	20.1	19.5	15.0	22.8	19.8	16.5
환청, 환시, 망상적 생각	7.9	5.4	6.5	4.9	6.4	7.1
알코올 문제	7.7	7.7	11.7	10.3	6.4	12.9
약물중독 문제	3.4	2.6	3.7	2.1	2.7	2.4
도박중독 문제	4.0	2.8	3.7	2.1	3.2	1.2
기타 중독문제	5.8	6.5	7.0	7.4	4.3	5.9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불편감	34.7	28.6	29.0	30.7	25.1	21.2
조절되지 않는 강박사고 및 강박행동	11.6	10.0	13.1	12.6	10.7	9.4

출처: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다. 국외

1) 삶의 만족도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핀란드가 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슬란드 7.6점, 덴마크·네덜란드·스위스 7.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대한민국은 5.8점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편에 속함.

표. 60 OECD 국가별 삶의 만족도 현황(2021)

(단위: 점)

구분	삶의 만족도	구분	삶의 만족도
핀란드	7.9	영국	6.8
아이슬란드	7.6	프랑스	6.7
덴마크	7.5	에스토니아	6.5
네덜란드	7.5	이탈리아	6.5
스위스	7.5	슬로바키아	6.5
룩셈부르크	7.4	슬로베니아	6.5
독일	7.3	스페인	6.5
노르웨이	7.3	리투아니아	6.4
스웨덴	7.3	칠레	6.2
뉴질랜드	7.3	라트비아	6.2
이스라엘	7.2	일본	6.1
오스트리아	7.2	폴란드	6.1
오스트레일리아	7.1	멕시코	6.0
캐나다	7.0	헝가리	6.0
미국	7.0	대한민국	5.8
아일랜드	7.0	그리스	5.8
체코	6.9	포르투갈	5.8
벨기에	6.8	콜롬비아	5.7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정신건강문제

가. 서울시

1) 우울감 경험률

2022년 기준 서울시 우울감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체 7.3%로 나타났으며, 남성 5.3%, 여성 9.1%로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감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치구별 우울감 경험률을 살펴보면, 금천구가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포구 10.3%, 서대문구 10.2%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동대문구 3.2%, 용산구 3.6%, 은평구 3.7% 순으로 낮게 나타남.

표. 61 서울시 자치구별 우울감 경험률(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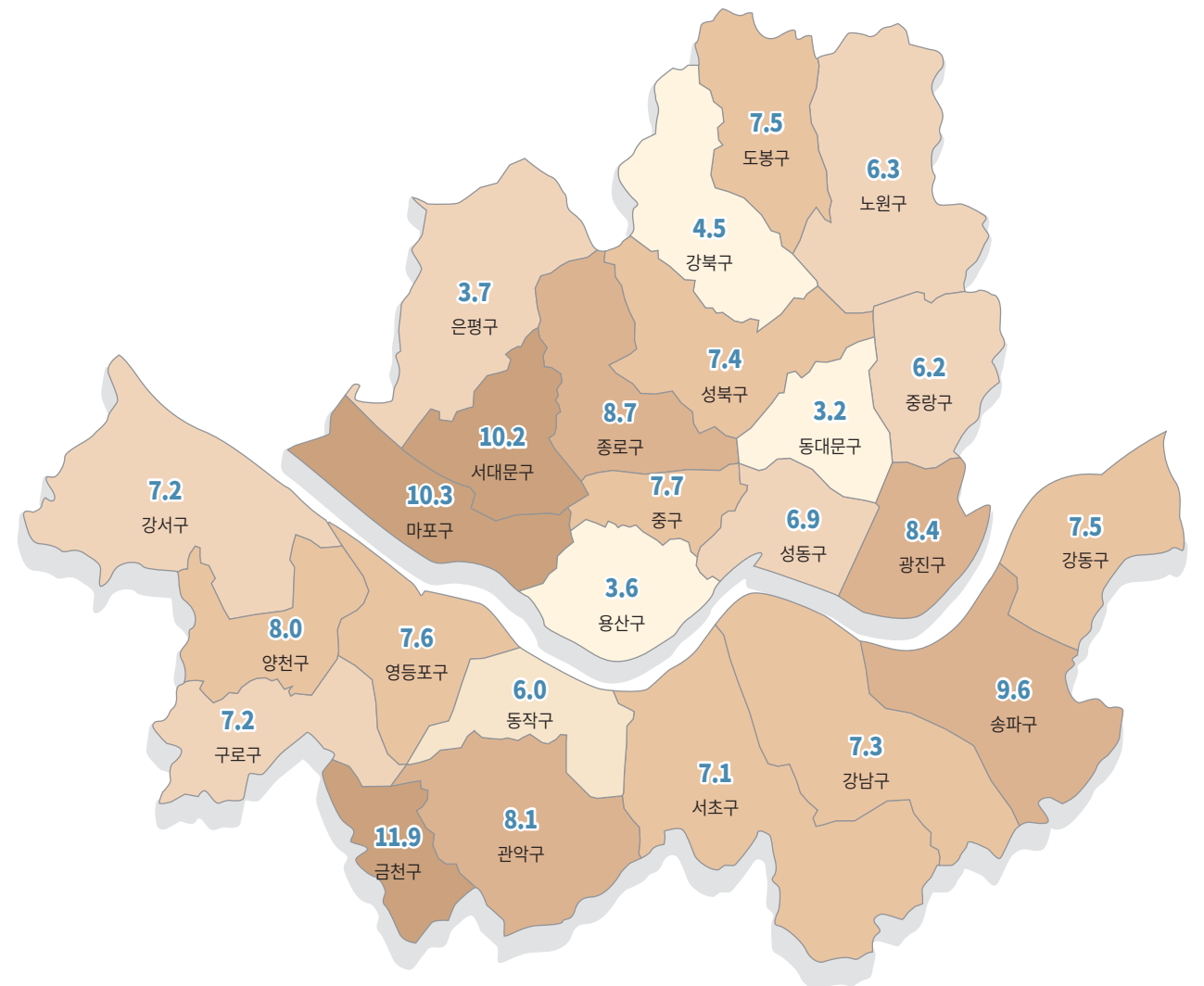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서울시	7.3	5.3	9.1
종로구	8.7	8.7	8.8
중구	7.7	5.2	10.1
용산구	3.6	3.4	3.8
성동구	6.9	4.4	9.2
광진구	8.4	6.3	10.3
동대문구	3.2	2.2	4.1
종량구	6.2	6.1	6.3
성북구	7.4	5.2	9.5
강북구	4.5	3.0	6.0
도봉구	7.5	6.5	8.4
노원구	6.3	3.0	9.2
은평구	3.7	2.0	5.3
서대문구	10.2	8.6	11.7
마포구	10.3	7.9	12.4
양천구	8.0	5.8	10.0
강서구	7.2	3.8	10.4
구로구	7.2	4.5	9.9
금천구	11.9	10.6	13.2
영등포구	7.6	6.2	8.9
동작구	6.0	4.4	7.6
관악구	8.1	4.5	11.7
서초구	7.1	5.3	8.3
강남구	7.3	4.3	10.0
송파구	9.6	8.3	10.7
강동구	7.5	5.3	9.5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66 서울시 자치구별 우울감 경험률(2022)

(단위: %)



2) 스트레스 인지율

2022년 기준 서울시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체 24.0%로 나타났으며 남성 22.7%, 여성 25.2%로 여성이 남성보다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관악구에서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랑구 28.5%, 종로구 2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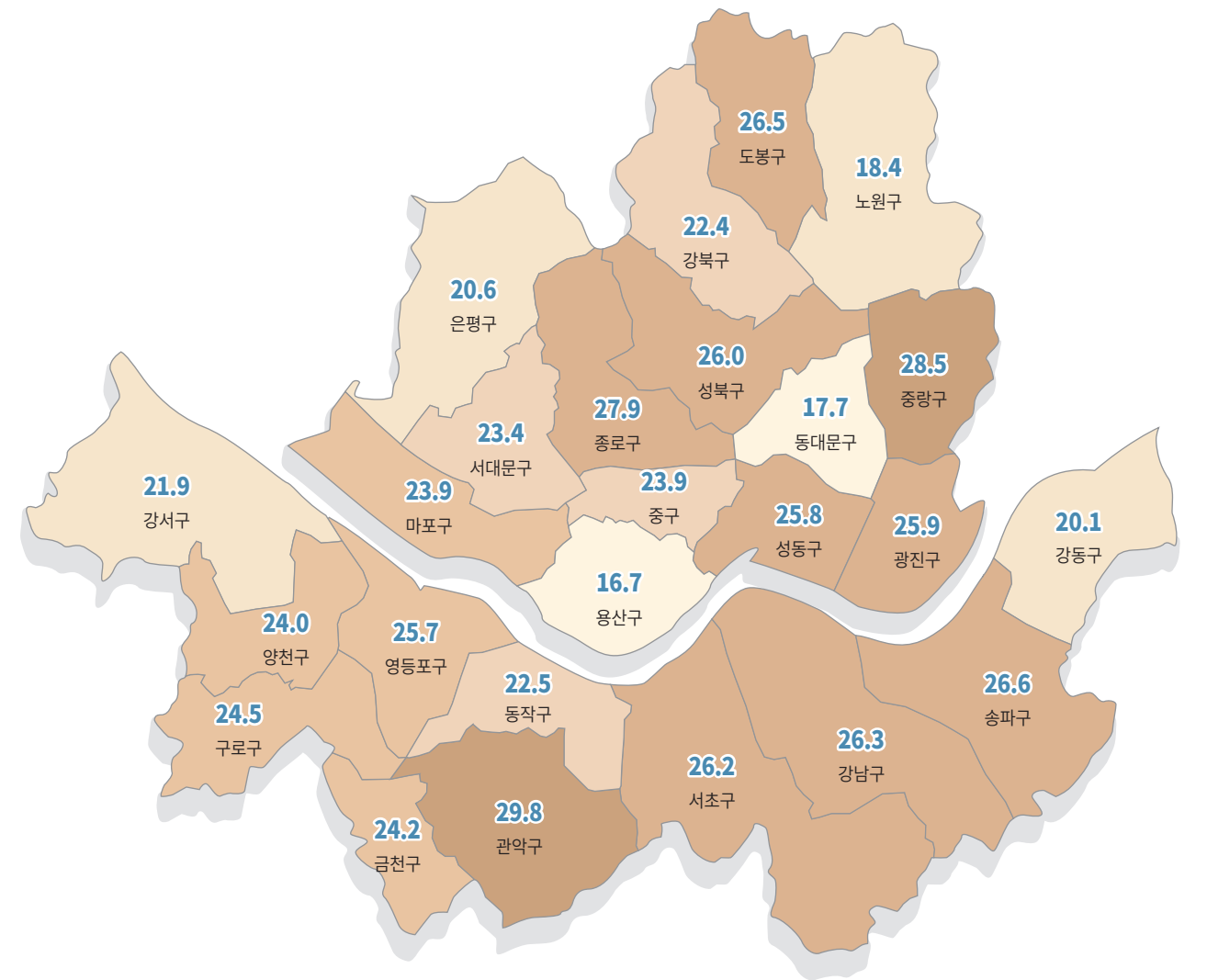
표. 62 서울시 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율(2022)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서울시	24.0	22.7	25.2
종로구	27.9	24.9	30.8
중구	23.9	23.0	24.8
용산구	16.7	15.1	18.1
성동구	25.8	24.4	27.1
광진구	25.9	25.4	26.4
동대문구	17.7	15.2	20.1
중랑구	28.5	26.8	30.1
성북구	26.0	23.6	28.1
강북구	22.4	18.3	26.2
도봉구	26.5	26.1	26.8
노원구	18.4	16.4	20.1
은평구	20.6	19.0	22.1
서대문구	23.4	21.5	25.1
마포구	23.9	23.5	24.2
양천구	24.0	22.4	25.5
강서구	21.9	22.4	21.5
구로구	24.5	22.5	26.4
금천구	24.2	25.5	22.9
영등포구	25.7	21.6	29.7
동작구	22.5	21.7	23.4
관악구	29.8	25.9	33.8
서초구	26.2	26.3	26.0
강남구	26.3	25.1	27.3
송파구	26.6	27.1	26.1
강동구	20.1	21.0	19.2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67 서울시 자치구별 스트레스 인지율(2022)

(단위: %)



3)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2022년 기준 서울시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을 살펴보면, 전체 13.7%이며 남성 19.0% 여성 7.4%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자치구별 연간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을 살펴보면 모든 자치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음주율을 보였으며, 강북구 22.3%, 금천구 18.2%, 강서구 17.3%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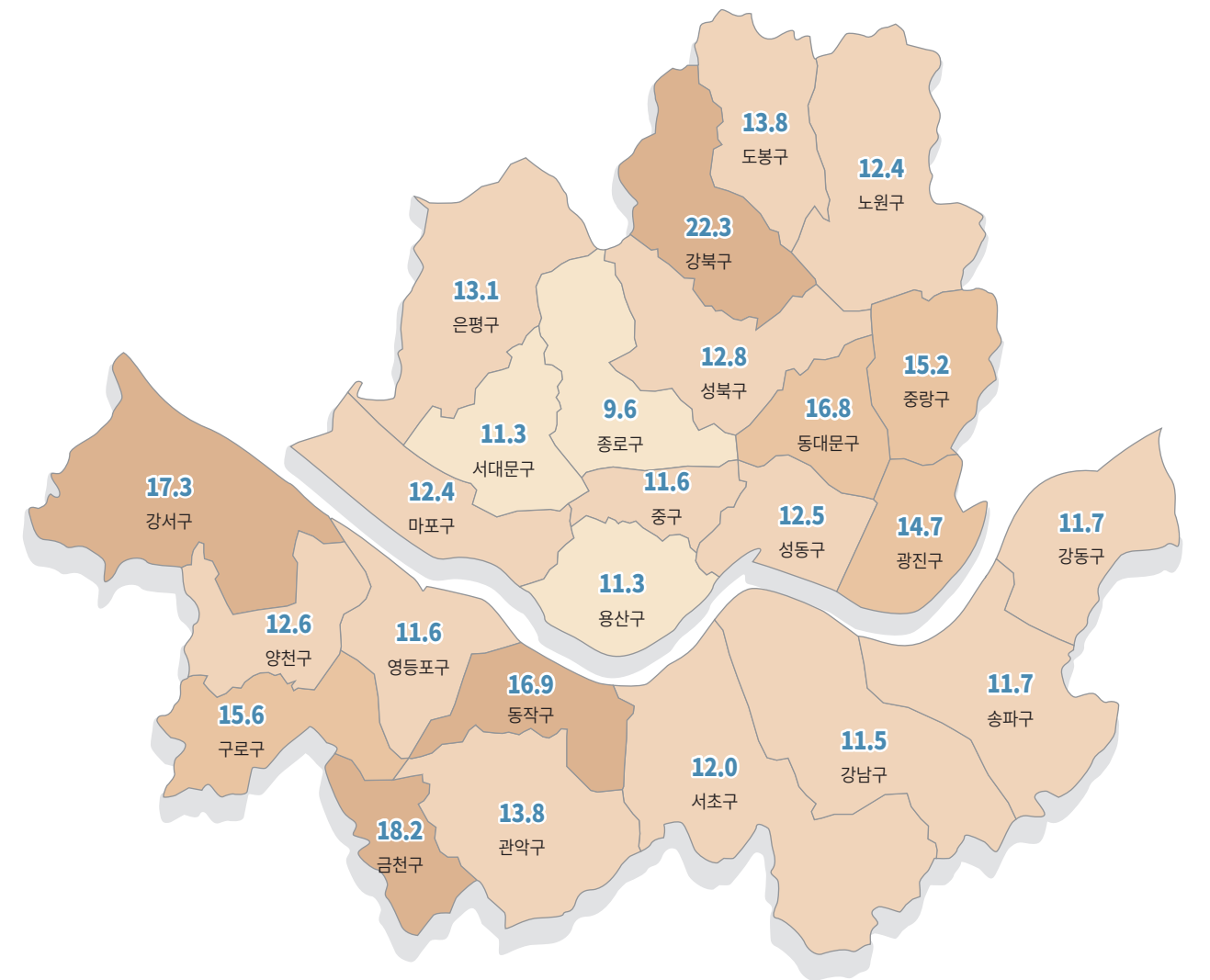
표. 63 서울시 자치구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2022)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서울시	13.7	19.0	7.4
종로구	9.6	13.6	4.7
중구	11.6	13.6	9.1
용산구	11.3	16.2	5.7
성동구	12.5	15.2	9.2
광진구	14.7	22.0	6.9
동대문구	16.8	22.1	9.7
중랑구	15.2	20.6	8.5
성북구	12.8	17.7	7.5
강북구	22.3	30.6	11.6
도봉구	13.8	21.6	4.5
노원구	12.4	19.1	4.8
은평구	13.1	18.9	6.3
서대문구	11.3	15.9	5.9
마포구	12.4	17.2	7.2
양천구	12.6	17.5	6.5
강서구	17.3	23.5	9.6
구로구	15.6	21.6	8.3
금천구	18.2	25.9	7.8
영등포구	11.6	15.1	7.4
동작구	16.9	20.6	12.4
관악구	13.8	18.8	7.4
서초구	12.0	16.2	7.1
강남구	11.5	16.6	6.3
송파구	11.7	15.6	7.3
강동구	11.7	16.5	5.7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68 서울시 자치구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2022)

(단위: %)



4)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를 살펴보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가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원구 1.12%, 도봉구와 중랑구 각각 1.07%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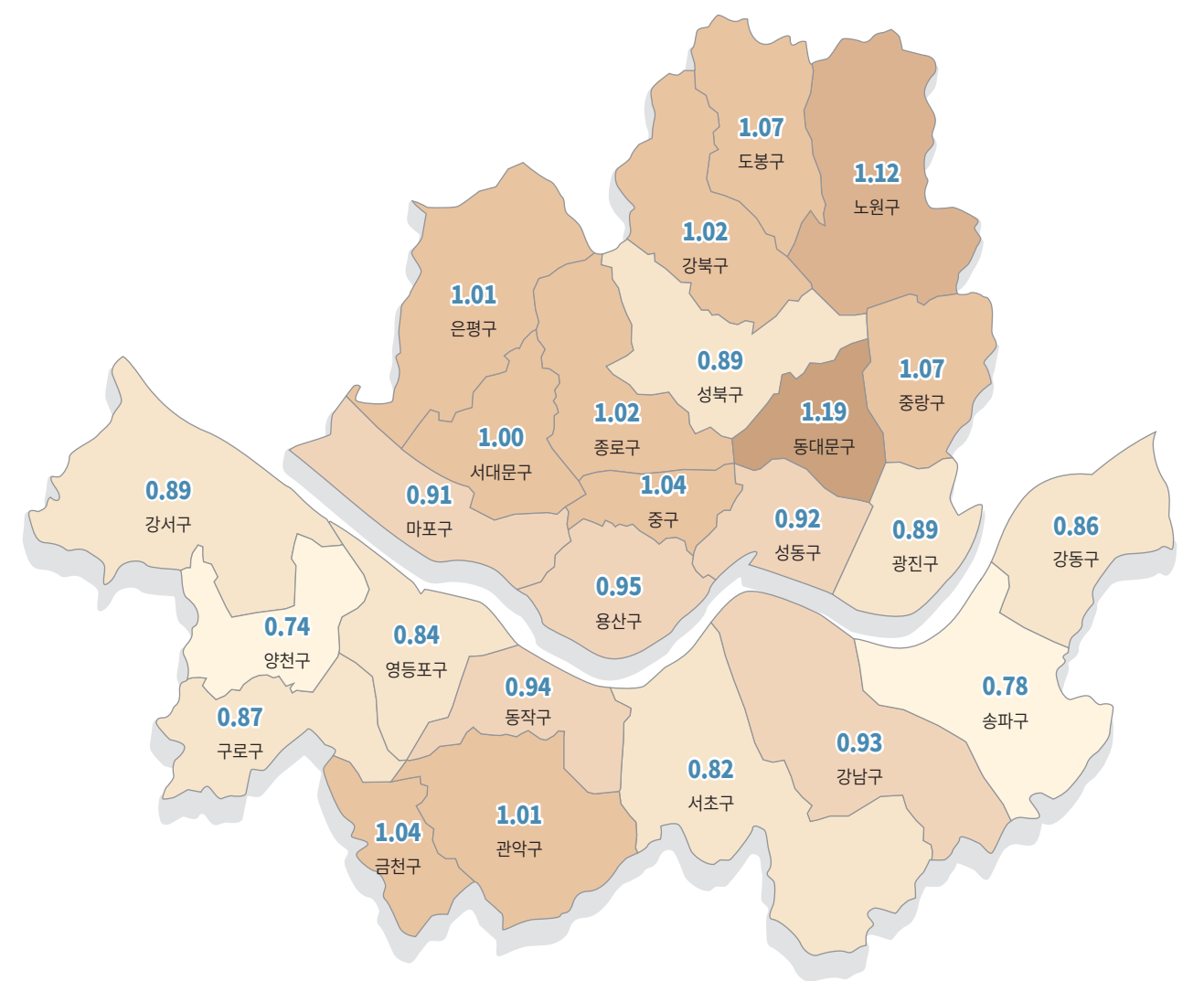
표. 64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2014~2021)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서울시	0.72	0.73	0.76	0.79	0.83	0.87	0.90	0.94
종로구	0.82	0.84	0.86	0.87	0.96	0.98	1.04	1.02
중구	0.83	0.86	0.91	0.90	0.92	0.90	0.99	1.04
용산구	0.73	0.74	0.77	0.81	0.85	0.89	0.89	0.95
성동구	0.69	0.69	0.71	0.74	0.81	0.87	0.87	0.92
광진구	0.62	0.64	0.65	0.69	0.75	0.80	0.83	0.89
동대문구	0.81	0.83	0.84	0.89	1.01	1.12	1.18	1.19
중랑구	0.80	0.82	0.84	0.89	0.94	1.02	1.05	1.07
성북구	0.72	0.73	0.73	0.76	0.82	0.85	0.88	0.89
강북구	0.78	0.82	0.83	0.88	0.94	0.96	1.02	1.02
도봉구	0.77	0.80	0.85	0.90	0.96	0.99	1.02	1.07
노원구	0.79	0.82	0.85	0.89	0.95	1.00	1.04	1.12
은평구	0.81	0.82	0.85	0.89	0.90	0.93	0.96	1.01
서대문구	0.80	0.82	0.83	0.87	0.90	0.94	0.97	1.00
마포구	0.68	0.67	0.73	0.75	0.79	0.86	0.88	0.91
양천구	0.61	0.61	0.63	0.64	0.67	0.71	0.71	0.74
강서구	0.75	0.78	0.79	0.81	0.84	0.88	0.87	0.89
구로구	0.63	0.67	0.69	0.73	0.76	0.77	0.82	0.87
금천구	0.80	0.83	0.84	0.89	0.98	0.97	1.01	1.04
영등포구	0.66	0.68	0.73	0.71	0.75	0.79	0.78	0.84
동작구	0.75	0.77	0.78	0.80	0.80	0.85	0.88	0.94
관악구	0.74	0.74	0.76	0.79	0.83	0.86	0.92	1.01
서초구	0.60	0.60	0.62	0.65	0.71	0.73	0.77	0.82
강남구	0.71	0.72	0.76	0.78	0.83	0.82	0.88	0.93
송파구	0.61	0.62	0.65	0.69	0.71	0.74	0.78	0.78
강동구	0.67	0.68	0.72	0.71	0.75	0.78	0.80	0.86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그림. 69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 유병률(2021)

(단위: %)



5) 중증정신질환 분포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성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비율은 감소,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2021년 기준 남성은 40.6%, 여성은 59.4%로 나타남.

표. 65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성별 분포 추이(2014~2021)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남성	42.3	42.5	42.5	42.2	41.8	41.7	41.2	40.6
여성	57.7	57.5	57.5	57.8	58.2	58.3	58.8	59.4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연령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50세 이상 59세 이하 연령이 19.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세 이상 49세 이하 17.00%, 20세 이상 29세 이하 16.35%, 60세 이상 69세 이하 15.89%, 30세 이상 39세 이하 15.72%, 70세 이상 79세 이하 7.86%, 80세 이상 4.98%, 10세 이상 19세 이하 2.61%, 9세 이하 0.07% 순으로 나타남.

표. 66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연령별 분포 추이(2014~2021)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세 이하	0.04	0.03	0.03	0.03	0.05	0.07	0.05	0.07
10세 이상 19세 이하	2.47	2.31	2.32	2.32	2.65	2.72	2.44	2.61
20세 이상 29세 이하	10.94	11.03	11.71	12.21	12.96	14.10	15.47	16.35
30세 이상 39세 이하	16.73	16.17	15.66	15.35	15.06	14.99	15.25	15.72
40세 이상 49세 이하	22.91	22.29	21.70	20.82	19.57	18.52	17.74	17.00
50세 이상 59세 이하	22.11	22.02	21.55	21.28	21.09	20.53	19.98	19.52
60세 이상 69세 이하	12.94	13.80	14.14	14.58	14.92	15.20	15.57	15.89
70세 이상 79세 이하	8.17	8.33	8.40	8.64	8.83	8.76	8.36	7.86
80세 이상	3.70	4.01	4.49	4.77	4.88	5.11	5.14	4.98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6) 자살 사망률

- 서울시 자살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거나 자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2022년 기준 전체 사망자 수 55,296명, 자살 사망자 수 2,009명,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21.4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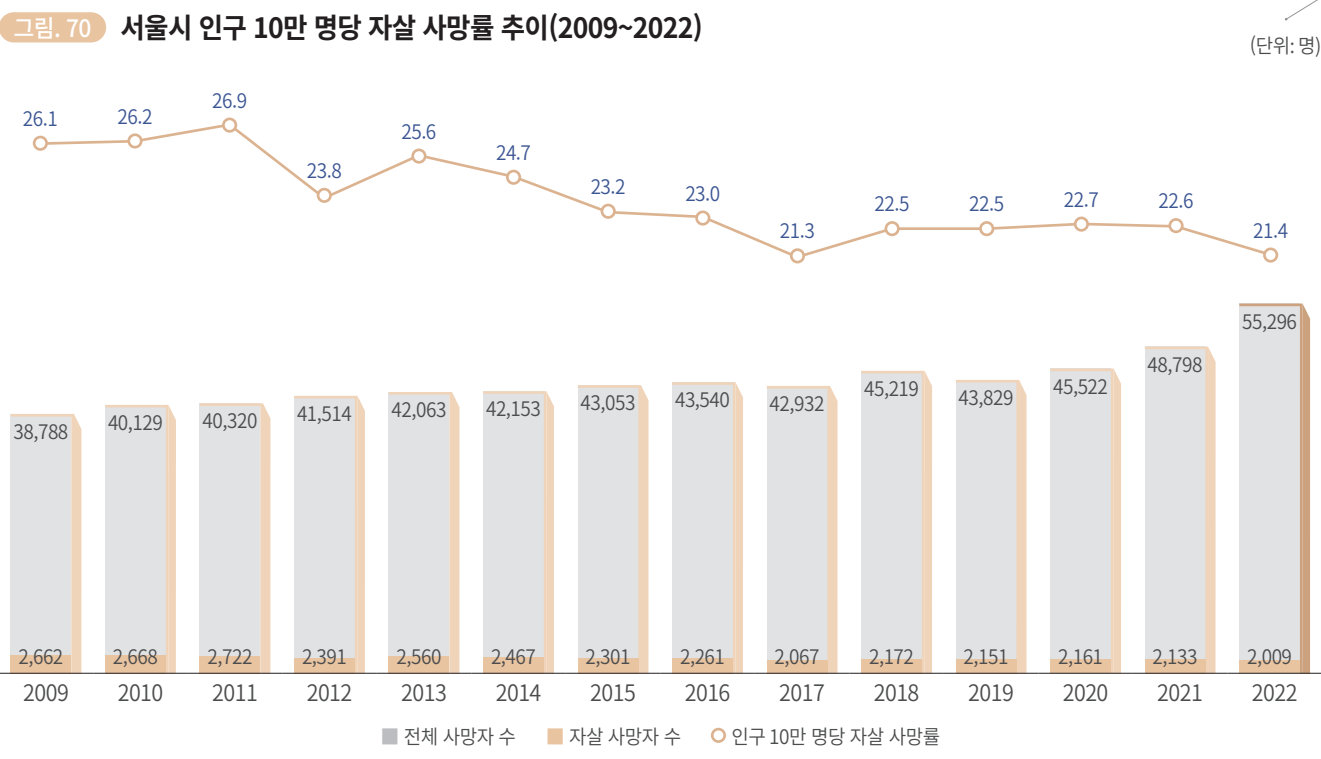
표. 67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추이(2009~2022)

(단위: 명)

구분	전체 사망자 수	자살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2009	38,788	2,662	26.1
2010	40,129	2,668	26.2
2011	40,320	2,722	26.9
2012	41,514	2,391	23.8
2013	42,063	2,560	25.6
2014	42,153	2,467	24.7
2015	43,053	2,301	23.2
2016	43,540	2,261	23.0
2017	42,932	2,067	21.3
2018	45,219	2,172	22.5
2019	43,829	2,151	22.5
2020	45,522	2,161	22.7
2021	48,798	2,133	22.6
2022	55,296	2,009	21.4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2022년 기준 서울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 수 55,296명, 자살 사망자 수 2,00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1.4명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을 살펴보면, 금천구에서 28.0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봉구 27.9명, 강북구 26.6명, 성동구 26.0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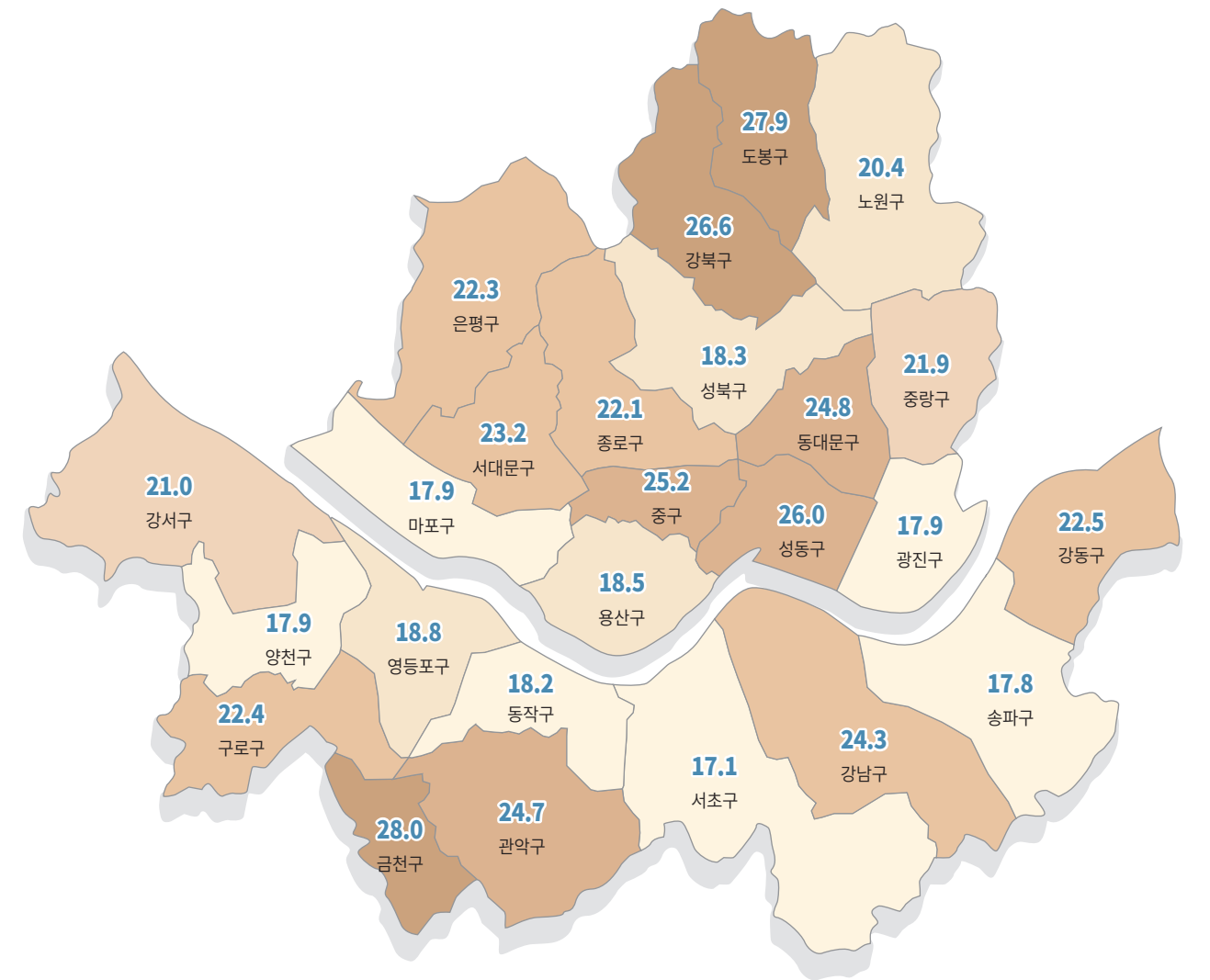
표. 68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2022) (단위: 명)

지역	전체 사망자 수	자살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서울시	55,296	2,009	21.4
종로구	1,006	31	22.1
중구	851	30	25.2
용산구	1,361	40	18.5
성동구	1,676	73	26.0
광진구	1,719	60	17.9
동대문구	2,293	83	24.8
종량구	2,704	84	21.9
성북구	2,622	78	18.3
강북구	2,368	78	26.6
도봉구	2,260	87	27.9
노원구	3,245	103	20.4
은평구	3,156	104	22.3
서대문구	2,051	70	23.2
마포구	1,936	65	17.9
양천구	2,302	79	17.9
강서구	3,285	119	21.0
구로구	2,440	88	22.4
금천구	1,494	64	28.0
영등포구	2,115	70	18.8
동작구	2,165	69	18.2
관악구	2,723	119	24.7
서초구	1,797	69	17.1
강남구	2,232	127	24.3
송파구	3,014	116	17.8
강동구	2,481	103	22.5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71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2022)

(단위: 명)



1.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개요

2. 서울시 지역사회 현황

3. 서울시 정신건강지표

4. 정신건강 관련 현황

5. 부록: 참고자료

나. 국내

1) 우울감 경험률

- 2022년 기준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을 살펴보면, 전북지역에서 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과 인천 8.3%, 충북과 충남 8.2%, 울산 8.1%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감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남.

표. 69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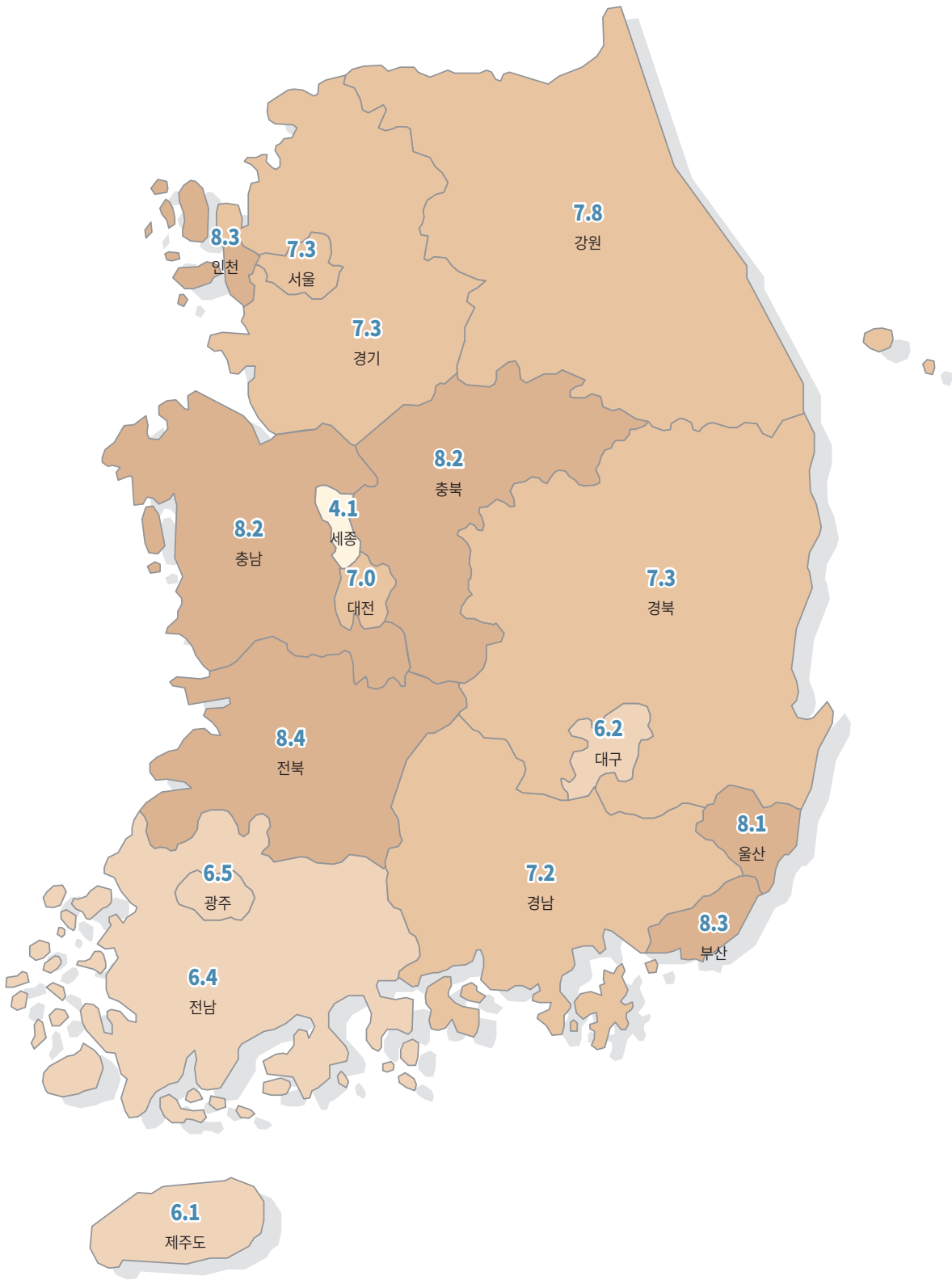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서울	7.3	5.3	9.1
부산	8.3	6.3	10.0
대구	6.2	5.0	7.3
인천	8.3	6.2	10.5
광주	6.5	4.9	8.0
대전	7.0	5.6	8.4
울산	8.1	6.2	10.0
세종	4.1	2.3	5.8
경기	7.3	5.6	9.0
강원	7.8	5.4	10.0
충북	8.2	6.7	9.7
충남	8.2	6.1	10.3
전북	8.4	5.9	11.0
전남	6.4	4.5	8.4
경북	7.3	5.0	9.7
경남	7.2	5.4	9.0
제주	6.1	4.7	7.5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72 시도별 우울감 경험률(2022)

(단위: %)



2) 스트레스 인지율

- 2022년 기준 시도별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광주지역에서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 24.2%, 서울 24.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게 나타남.

표. 70 시도별 스트레스 인지율(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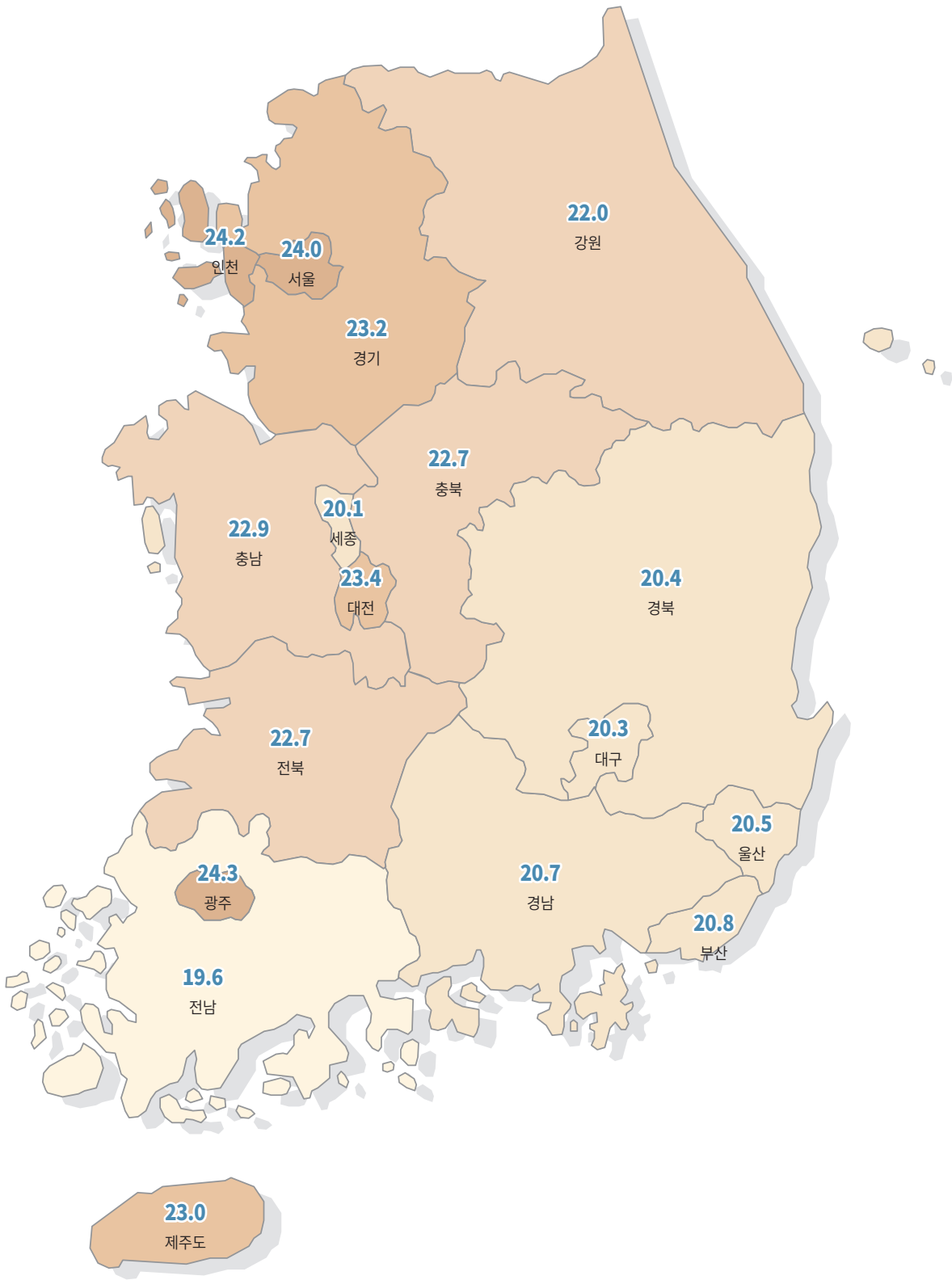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서울	24.0	22.7	25.2
부산	20.8	19.8	21.6
대구	20.3	19.6	20.9
인천	24.2	22.0	26.3
광주	24.3	23.8	24.7
대전	23.4	23.4	23.4
울산	20.5	19.2	21.9
세종	20.1	19.4	20.8
경기	23.2	22.8	23.6
강원	22.0	20.7	23.4
충북	22.7	21.5	23.9
충남	22.9	21.2	24.6
전북	22.7	21.1	24.2
전남	19.6	18.2	21.1
경북	20.4	18.4	22.5
경남	20.7	19.6	21.8
제주	23.0	21.8	24.2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73 시도별 스트레스 인지율(2022)

(단위: %)



3)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

- 2022년 기준 시도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을 살펴보면, 강원지역이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과 제주 19.5%, 충남 19.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성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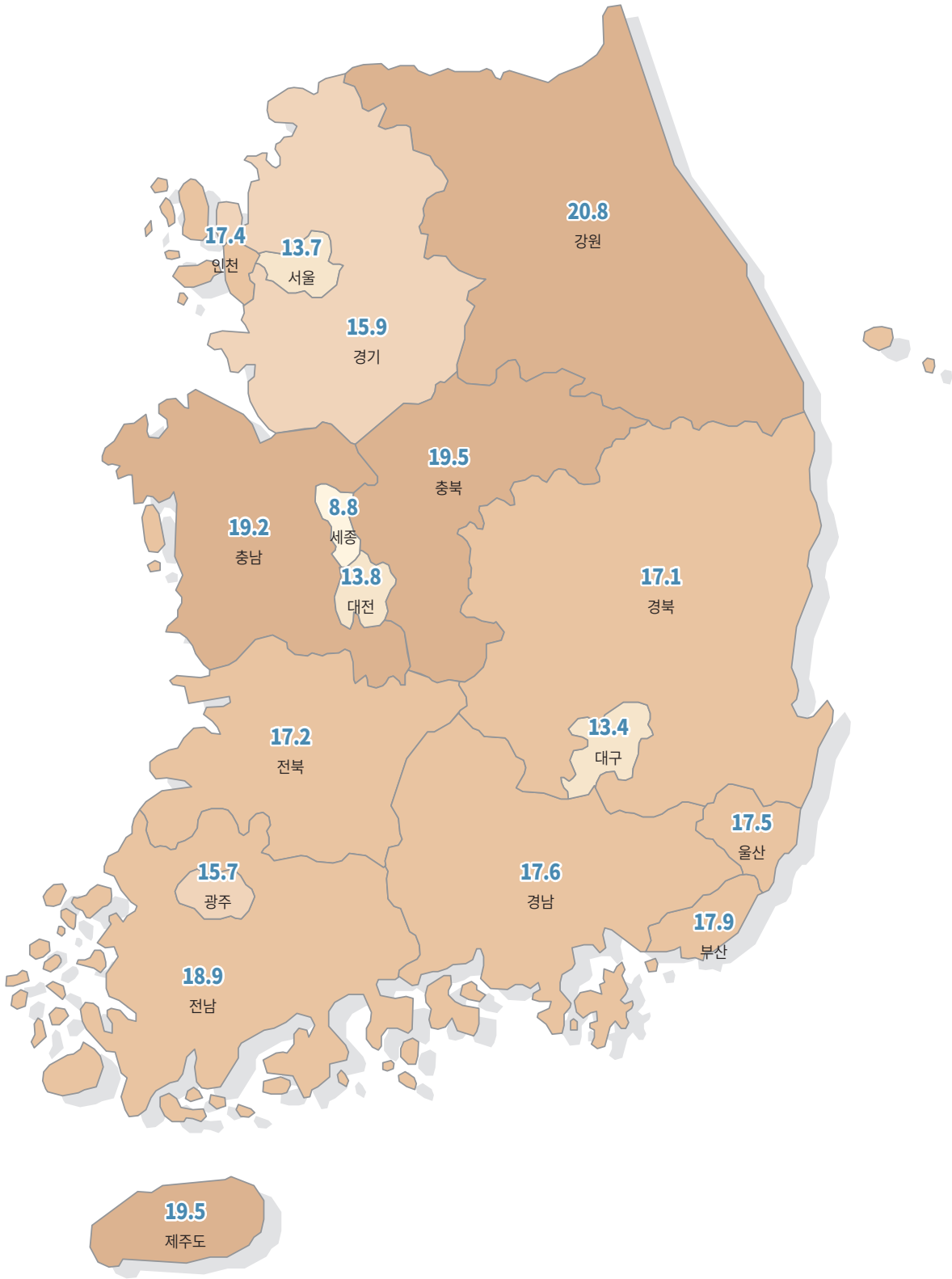
표. 71 시도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2022)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서울	13.7	19.0	7.4
부산	17.9	25.1	9.1
대구	13.4	19.2	6.4
인천	17.4	24.6	7.9
광주	15.7	22.0	7.9
대전	13.8	19.2	6.9
울산	17.5	25.2	7.5
세종	8.8	12.6	4.2
경기	15.9	21.9	8.2
강원	20.8	28.7	10.2
충북	19.5	26.9	9.6
충남	19.2	25.7	10.0
전북	17.2	23.9	7.8
전남	18.9	25.7	9.2
경북	17.1	24.1	7.5
경남	17.6	25.1	7.7
제주	19.5	27.2	9.0

출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림. 74 시도별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 음주율(2022)

(단위: %)



4)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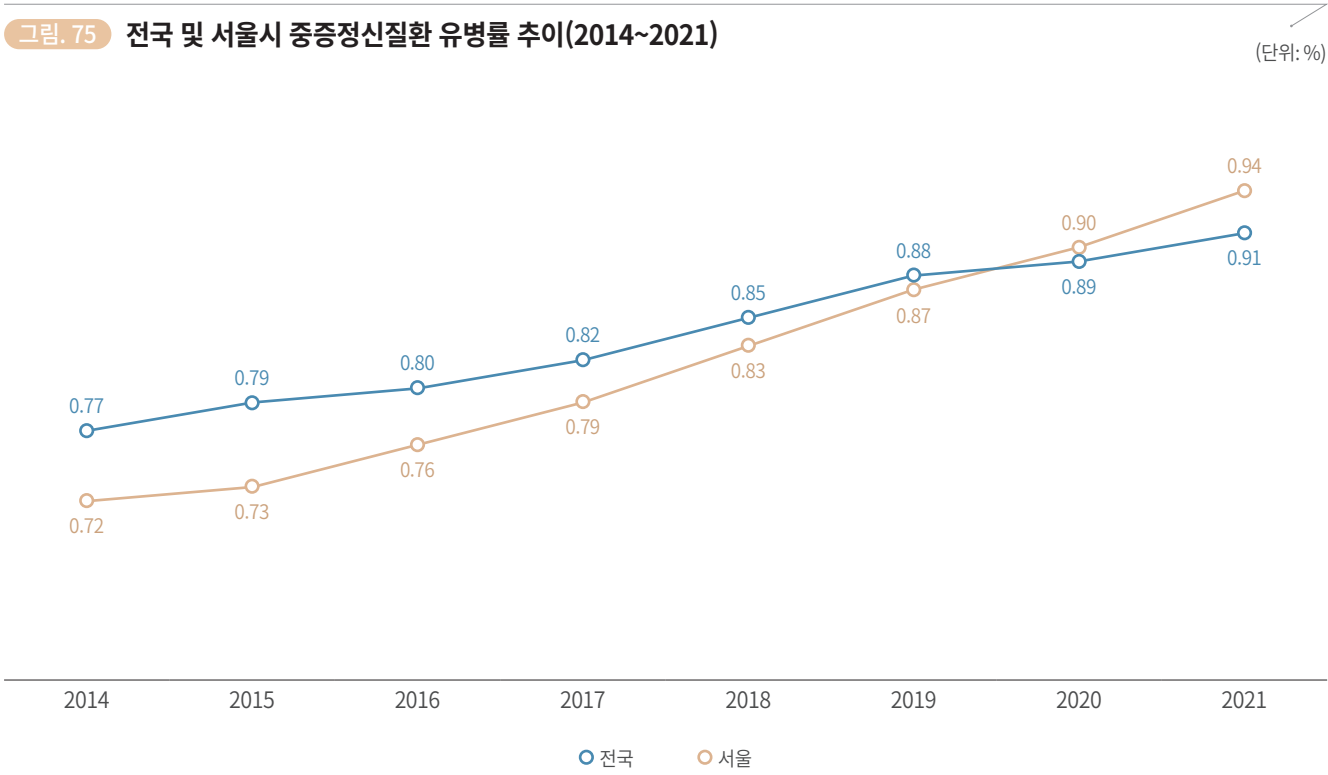
▶ 전국 및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과 서울시 모두 중증정신질환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1년 기준 전국은 0.91%, 서울시는 0.94%로 나타남.

표. 72 전국 및 서울시 중증정신질환 유병률 추이(2014~2021)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국	0.77	0.79	0.80	0.82	0.85	0.88	0.89	0.91
서울시	0.72	0.73	0.76	0.79	0.83	0.87	0.90	0.94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5) 중증정신질환 분포

▶ 국내 중증정신질환 성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남성 41.8%, 여성 58.2%로 나타남.

표. 73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성별 분포 추이(2014~2021)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남성	43.0	43.1	43.1	42.8	42.7	42.5	42.2	41.8
여성	57.0	56.9	56.9	57.2	57.3	57.5	57.8	58.2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연령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50세 이상 59세 이하’ 연령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2021년 기준 50세 이상 59세 이하 22.02%, 60세 이상 69세 이하 18.31%, 40세 이상 49세 이하 17.24%, 30세 이상 39세 이하 12.88%, 20세 이상 29세 이하 12.31%, 70세 이상 79세 이하 8.85%, 80세 이상 5.79%, 10세 이상 19세 이하 2.53%, 9세 이하 0.07%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74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연령별 분포 추이(2014~2021)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9세 이하	0.04	0.03	0.04	0.05	0.05	0.05	0.05	0.07
10세 이상 19세 이하	2.17	2.05	2.10	2.10	2.38	2.48	2.33	2.53
20세 이상 29세 이하	8.79	8.86	9.25	9.72	10.38	10.98	11.71	12.31
30세 이상 39세 이하	14.52	13.95	13.52	13.18	13.02	12.82	12.75	12.88
40세 이상 49세 이하	23.52	22.64	21.82	20.99	19.67	18.77	18.05	17.24
50세 이상 59세 이하	23.85	23.71	23.55	23.34	23.28	22.96	22.45	22.02
60세 이상 69세 이하	13.63	14.64	15.28	15.76	16.22	16.90	17.70	18.31
70세 이상 79세 이하	9.50	9.59	9.50	9.54	9.54	9.39	9.19	8.85
80세 이상	3.98	4.53	4.94	5.32	5.47	5.65	5.78	5.79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6) 정신장애 유병률

- ▶ 2021년 기준 정신장애 진단별 평생 유병률을 살펴보면, 알코올 사용장애가 1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니코틴 사용장애 9.5%, 불안장애 9.3%, 우울장애 7.7% 순으로 나타남. 성별 평생 유병률을 살펴보면,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높게 나타남.
- ▶ 2021년 기준 정신장애 진단별 1년 유병률을 살펴보면, 불안장애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니코틴 사용장애 2.7%, 알코올 사용장애 2.6%, 우울장애 1.7% 순으로 나타남. 성별 1년 유병률을 살펴보면, 평생 유병률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사용장애와 니코틴 사용장애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고,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임.

표. 75 국내 정신장애 진단별 유병률 현황(2021)

(단위: %)

구분	평생 유병률			1년 유병률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알코올 사용장애	11.6	17.6	5.4	2.6	3.4	1.8
알코올의존	6.2	9.5	3.0	1.5	2.0	1.0
알코올남용	5.3	8.2	2.4	1.1	1.4	0.8
니코틴 사용장애	9.5	17.7	1.1	2.7	4.9	0.5
니코틴의존	8.1	15.0	1.1	2.4	4.2	0.5
니코틴금단	4.7	8.9	0.5	1.0	1.7	0.1
우울장애	7.7	5.7	9.8	1.7	1.1	2.4
주요우울장애	7.7	5.7	9.8	1.7	1.1	2.4
기분부전장애	0.5	0.3	0.6	0.2	0.1	0.2
불안장애	9.3	5.4	13.4	3.1	1.6	4.7
강박장애	0.2	0.1	0.4	0.1	0.0	0.3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1.5	1.3	1.6	0.3	0.2	0.3
공황장애	0.4	0.5	0.4	0.1	0.2	0.0
광장공포증	0.3	0.2	0.4	0.2	0.1	0.3
사회공포증	0.6	0.2	1.0	0.2	0.1	0.4
범불안장애	1.7	1.2	2.1	0.4	0.4	0.4
특정공포증	6.3	2.6	10.0	2.1	0.7	3.6

출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 ▶ 2021년 기준 우울장애 유병률 사회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유병률은 1.7%이며 남성 1.1%, 여성 2.4%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 79세 미만’에서, 결혼상태로 살펴보면 ‘이혼/별거/사별’에서, 교육수준으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에서, 취업상태로 살펴보면 ‘무직/학생/주부’에서, 거주지역으로 살펴보면 ‘동’에서, 소득수준으로 살펴보면 ‘기존중위소득 미만’에서 높게 나타남.
- ▶ 2021년 기준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 사회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유병률은 2.6%이며 남성 3.4%, 여성 1.8%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18세 이상 29세 미만’에서, 결혼상태로 살펴보면 ‘미혼’에서, 교육수준으로 살펴보면 ‘고졸, 대졸 이상’에서, 취업상태로 살펴보면 ‘정규직’에서, 거주지역으로 살펴보면 ‘동’에서, 소득수준으로 살펴보면 ‘기존중위소득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표. 76 국내 정신장애 유병률 사회인구학적 분포 현황(2021)

(단위: %)

구분	우울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1.7	1.1	2.4	2.6	3.4	1.8
연령군(만)						
18~29세	1.4	1.3	1.6	4.5	5.4	3.4
30~39세	1.5	0.5	2.5	2.9	2.7	3.2
40~49세	1.5	0.7	2.3	2.7	3.3	2.1
50~59세	1.8	1.3	2.4	2.6	4.1	1.0
60~69세	1.8	2.1	1.6	1.5	2.7	0.3
70~79세	3.1	0.3	5.4	0.3	-	0.5
결혼상태						
기혼/사실혼/동거	1.6	1.0	2.3	2.2	3.0	1.4
이혼/별거/사별	3.5	1.9	4.4	1.7	4.4	0.3
미혼	1.3	1.1	1.6	4.0	4.0	3.9
교육						
중졸 이하	2.1	0.9	2.8	1.0	2.5	-
고졸	2.0	1.5	2.4	2.9	3.5	2.3
대졸 이상	1.4	0.8	2.2	2.9	3.5	2.1
취업상태						
정규직	0.6	0.5	0.9	2.8	3.4	1.7
비정규직	2.0	1.3	2.7	2.0	2.6	1.4
무직/학생/주부	3.5	3.0	3.8	2.7	4.1	2.1
거주지역						
동	1.9	1.0	2.8	2.6	3.4	1.9
읍면	1.2	1.5	0.9	2.5	3.6	1.4
소득수준						
기존중위소득 미만	2.0	1.5	2.6	1.9	2.7	1.2
기존중위소득 이상	1.5	0.8	2.2	3.1	4.0	2.1

출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7) 자살 사망률

- 2022년 기준 전국 자살 사망률을 살펴보면 전체 사망자 수는 372,939명이며 자살 사망자 수는 12,90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은 25.2명으로 나타남.
- 2022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이 33.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 33.1명, 충북 29.0명, 부산 27.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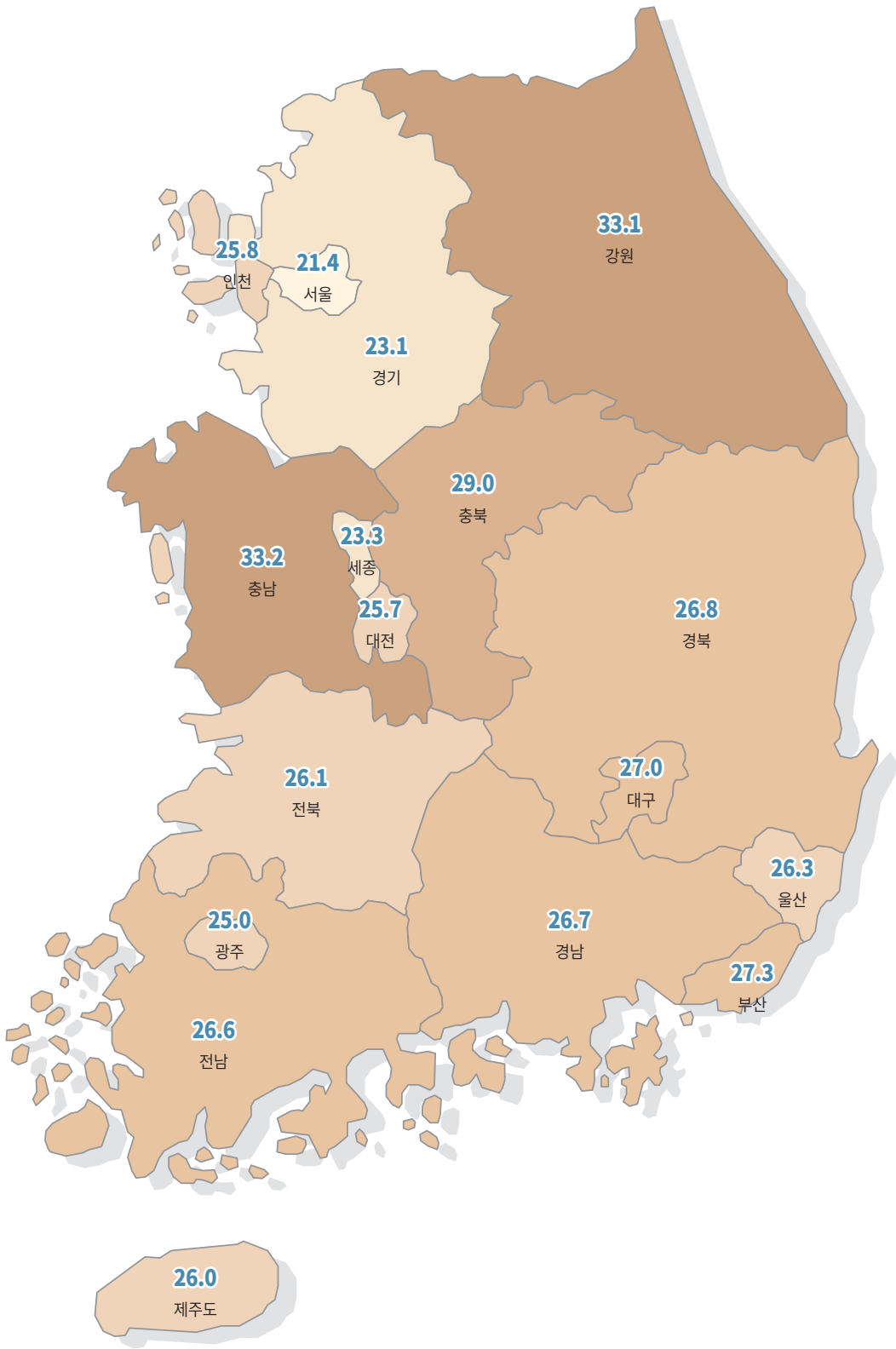
표. 77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현황(2022) (단위: 명)

구분	전체 사망자 수	자살 사망자 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전국	372,939	12,906	25.2
서울	55,296	2,009	21.4
부산	27,713	906	27.3
대구	17,592	638	27.0
인천	18,957	758	25.8
광주	9,350	358	25.0
대전	9,302	371	25.7
울산	6,369	293	26.3
세종	1,678	88	23.3
경기	79,010	3,117	23.1
강원	15,086	507	33.1
충북	14,108	461	29.0
충남	19,719	701	33.2
전북	17,852	462	26.1
전남	20,876	485	26.6
경북	27,840	699	26.8
경남	27,385	878	26.7
제주	4,806	175	26.0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그림. 76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률 현황(2022)

(단위: 명)



8) 자살 관련 행동

- 2021년 기준 자살 관련 행동 비율을 살펴보면, 평생 자살사고율은 10.7%이며 평생 자살계획률 2.5%, 평생 자살시도율 1.7%로 나타났고 1년 자살사고율 1.3%, 1년 자살계획률 0.5%, 1년 자살시도율 0.1%로 나타났으며 1개월 자살사고율 0.5%, 1개월 자살계획률 0.3%, 1개월 자살시도율 0.0%로 나타남.
- 자살 관련 행동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평생/1년/1개월 자살사고율/자살계획률/자살시도율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78

국내 자살 관련 행동 현황(2021)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평생			
자살사고	10.7	9.4	12.0
자살계획	2.5	2.1	2.8
자살시도	1.7	1.6	1.9
1년			
자살사고	1.3	1.0	1.7
자살계획	0.5	0.3	0.7
자살시도	0.1	0.1	0.1
1개월			
자살사고	0.5	0.2	0.9
자살계획	0.3	0.1	0.5
자살시도	0.0	0.0	-

출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다. 국외

1) 우울증 유병률

- 2019년 기준 국가별 우울증 유병률을 살펴보면, 그리스에서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페인 6.0%, 포르투갈 5.9% 순으로 높게 나타남. 우울증 유병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로 2.4%로 나타났으며 콜롬비아 2.5%, 대한민국 2.6% 순으로 나타남.

표. 79

국가별 우울증 유병률 현황(2019)

(단위: %)

구분	유병률	구분	유병률
싱가포르	2.4	헝가리	3.9
콜롬비아	2.5	룩셈부르크	4.0
대한민국	2.6	말레이시아	4.0
인도네시아	2.6	아프가니스탄	4.0
아르헨티나	2.7	뉴질랜드	4.1
일본	2.7	크로아티아	4.1
필리핀	2.7	독일	4.3
베트남	2.8	브라질	4.3
캄보디아	2.9	네덜란드	4.4
폴란드	3.0	덴마크	4.4
우즈베키스탄	3.1	벨기에	4.4
몰디브	3.2	이스라엘	4.5
파키스탄	3.2	아랍에미리트	4.6
우루과이	3.3	이탈리아	4.6
자메이카	3.4	튀르키예	4.6
대만	3.6	스위스	4.7
가나	3.7	프랑스	4.7
인도	3.7	카타르	4.9
중국	3.7	스웨덴	5.0
카자흐스탄	3.7	아일랜드	5.0
캐나다	3.7	영국	5.0
태국	3.7	핀란드	5.0
체코	3.8	호주	5.1
노르웨이	3.9	우크라이나	5.2
멕시코	3.9	포르투갈	5.9
오스트리아	3.9	스페인	6.0
이집트	3.9	그리스	6.5

출처: IMHE, Global Burden of Disease(GBD)

2) 불안장애 유병률

2019년 기준 국가별 불안장애 유병률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에서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폴란드 3.9%, 아일랜드 3.6%, 뉴질랜드 및 영국 3.5% 순으로 높게 나타남. 대한민국은 3.1%로 나타남.

표. 80 국가별 불안장애 유병률 현황(2019)

(단위: %)

구분	유병률	구분	유병률
카자흐스탄	4.0	우루과이	1.9
폴란드	3.9	노르웨이	1.8
아일랜드	3.6	그리스	1.7
뉴질랜드	3.5	스페인	1.7
영국	3.5	이탈리아	1.6
덴마크	3.4	베트남	1.5
브라질	3.3	중국	1.5
포르투갈	3.3	멕시코	1.4
대한민국	3.1	태국	1.4
오스트리아	3.0	인도	1.2
우크라이나	3.0	자메이카	1.2
룩셈부르크	2.8	파키스탄	1.2
체코	2.8	몰디브	0.9
헝가리	2.8	이스라엘	0.9
스위스	2.7	싱가포르	0.8
크로아티아	2.7	아랍에미리트	0.8
벨기에	2.6	카타르	0.8
스웨덴	2.5	캄보디아	0.8
핀란드	2.5	필리핀	0.8
독일	2.4	대만	0.7
아르헨티나	2.4	일본	0.7
콜롬비아	2.4	말레이시아	0.6
프랑스	2.3	튀르키예	0.6
호주	2.2	가나	0.5
우즈베키스탄	2.1	인도네시아	0.5
캐나다	2.0	아프가니스탄	0.4
네덜란드	1.9	이집트	0.4

출처: IMHE, Global Burden of Disease(GBD)

3) 알코올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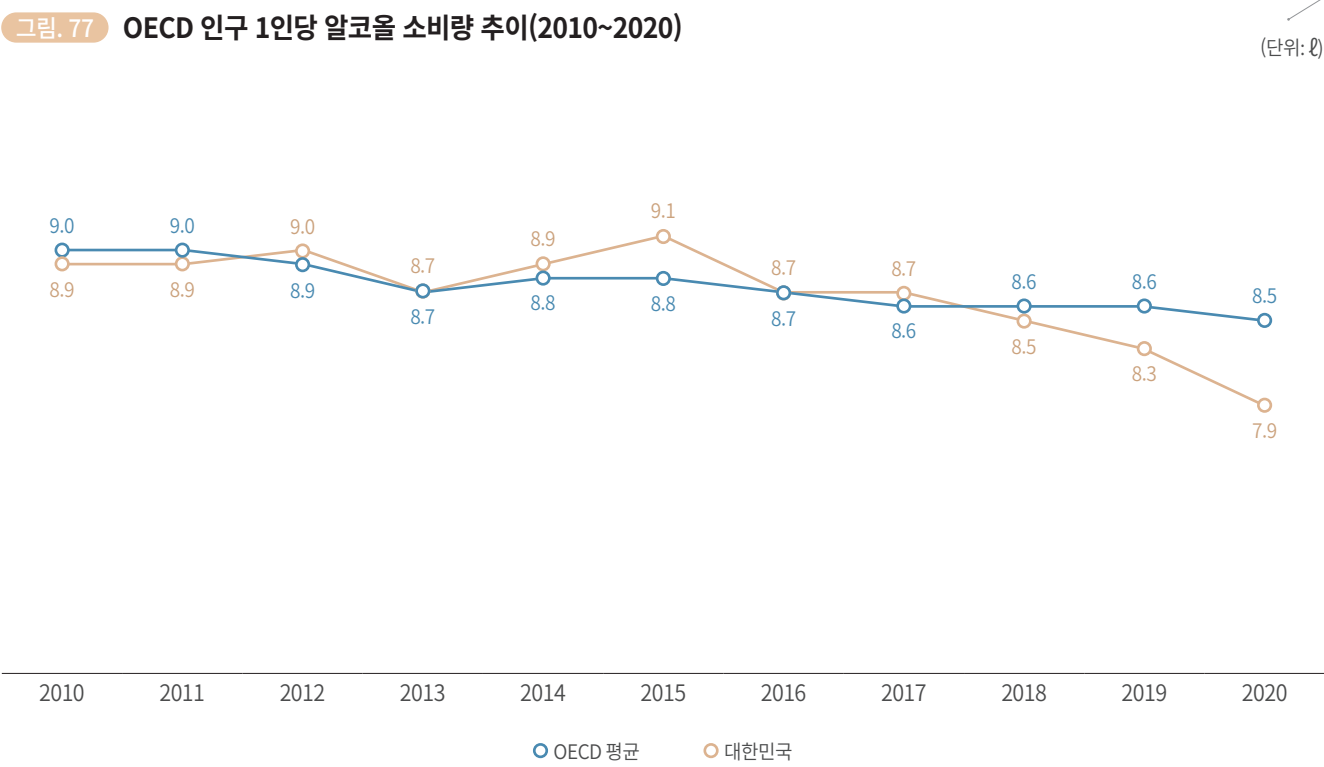
OECD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OECD 평균 8.5ℓ이고 대한민국은 7.9ℓ로 나타남. OECD 평균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대한민국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표. 81 OECD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추이(2010~2020)

(단위: ℓ)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OECD 평균	9.0	9.0	8.9	8.7	8.8	8.8	8.7	8.6	8.6	8.6	8.5
대한민국	8.9	8.9	9.0	8.7	8.9	9.1	8.7	8.7	8.5	8.3	7.9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 OECD 국가별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을 살펴보면, 라트비아 12.1ℓ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체코 11.6ℓ, 리투아니아 11.4ℓ, 오스트리아 11.3ℓ, 룩셈부르크 및 폴란드 11.0ℓ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한민국의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7.9ℓ로 OECD 평균 8.4ℓ보다 낮은 수치를 보임.

표. 82

OECD 국가별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현황(2020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단위: ℓ)

구분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구분	인구 1인당 알코올 소비량
호주	9.5	대한민국	7.9
오스트리아	11.3	라트비아	12.1
벨기에	9.2	리투아니아	11.4
캐나다	8.1	룩셈부르크	11.0
칠레	7.1	멕시코	3.9
콜롬비아	4.1	네덜란드	7.2
코스타리카	3.2	뉴질랜드	8.7
체코	11.6	노르웨이	7.2
덴마크	9.7	폴란드	11.0
에스토니아	10.5	포르투갈	10.4
핀란드	8.2	슬로바키아	9.9
프랑스	10.4	슬로베니아	9.8
독일	10.6	스페인	7.8
그리스	6.3	스웨덴	7.5
헝가리	10.4	스위스	8.9
아이슬란드	7.4	튀르키예	1.2
아일랜드	10.1	영국	9.7
이스라엘	3.1	미국	9.3
이탈리아	7.7	OECD 평균	8.4
일본	6.7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4) 정신장애 유병률

- WHO 지역별 정신장애 유병률을 살펴보면, 아메리카지역이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지중해지역 14.7%, 유럽지역 14.2%, 남동아시아지역 13.2%, 서태평양지역 11.7%, 아프리카지역 10.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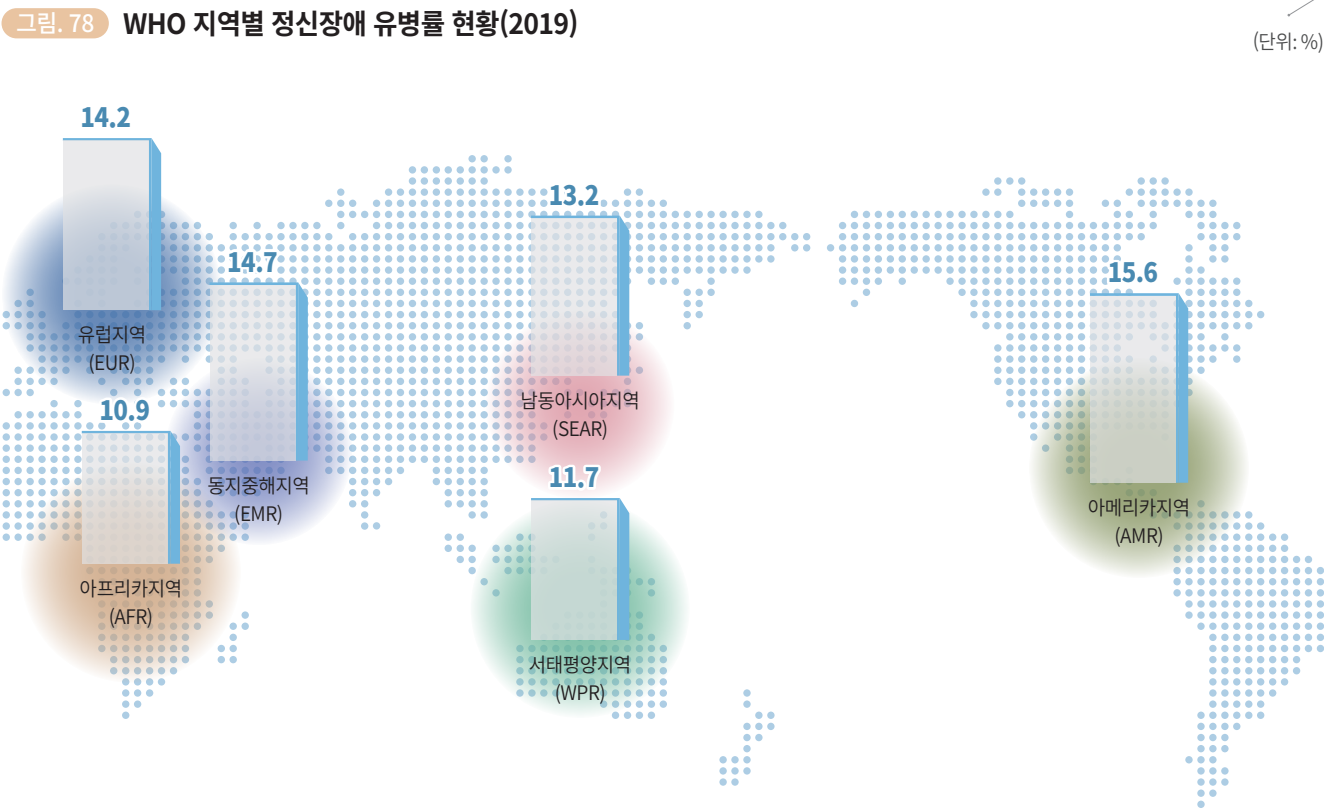
표. 83

WHO 지역별 정신장애 유병률 현황(2019)

(단위: %)

구분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동지중해지역 (EMR)	유럽지역 (EU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서태평양지역 (WPR)
정신장애 유병률	10.9	15.6	14.7	14.2	13.2	11.7

출처: WHO, Mental Health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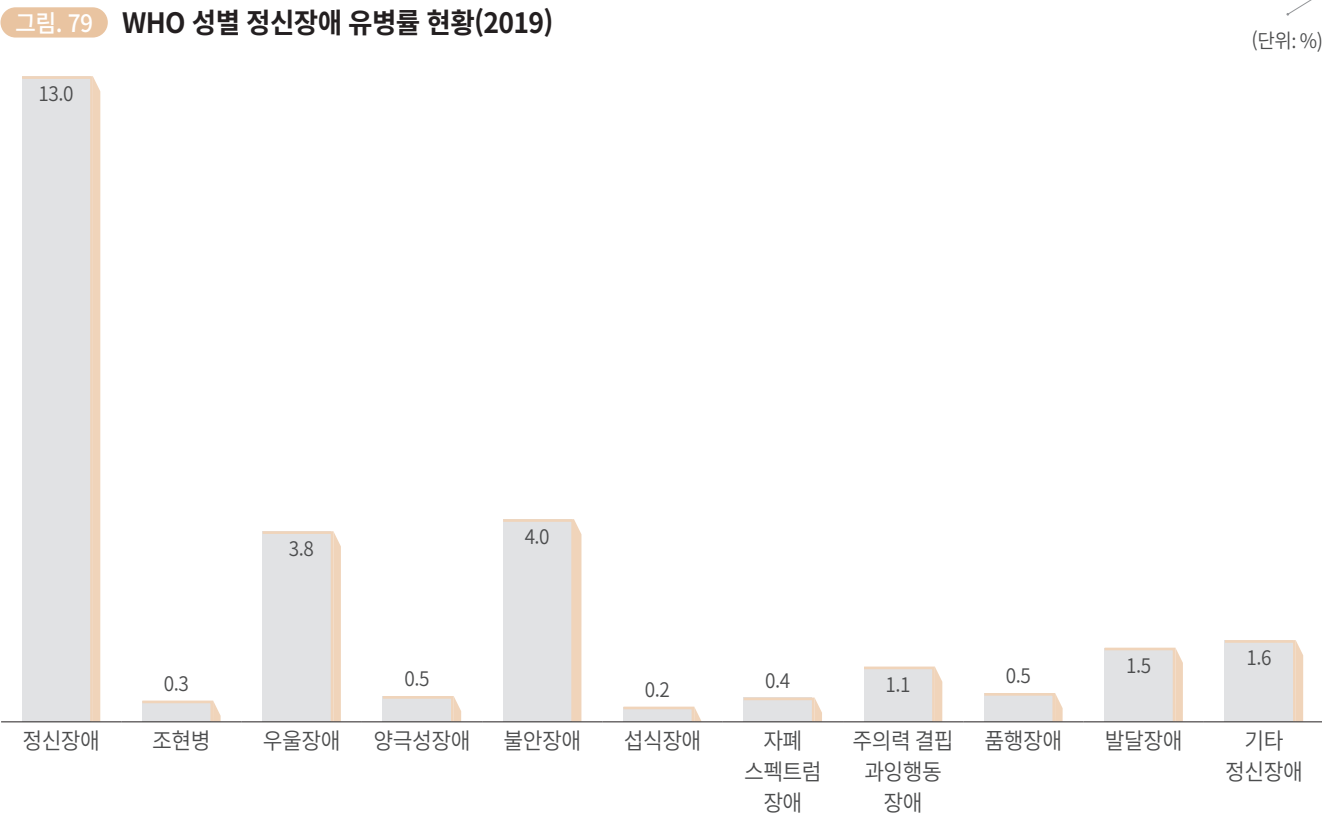
- WHO 성별 정신장애 유병률을 살펴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발달장애, 기타 정신장애 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신장애,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높게 나타남.
- 정신장애 유형별 유병률을 살펴보면, 정신장애 유형이 1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장애 4.0%, 우울장애 3.8%, 기타 정신장애 1.6%, 발달장애 1.5% 순으로 나타남.

표. 84 WHO 성별 정신장애 유병률 현황(2019)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정신장애	13.0	12.5	13.5
조현병	0.3	0.3	0.3
우울장애	3.8	3.0	4.5
양극성장애	0.5	0.5	0.6
불안장애	4.0	3.0	5.0
섭식장애	0.2	0.1	0.2
자폐 스펙트럼 장애	0.4	0.6	0.2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1.1	1.7	0.6
품행장애	0.5	0.7	0.4
발달장애	1.5	1.5	1.4
기타 정신장애	1.6	1.9	1.3

출처: WHO, Mental Health Report



5) 정신장애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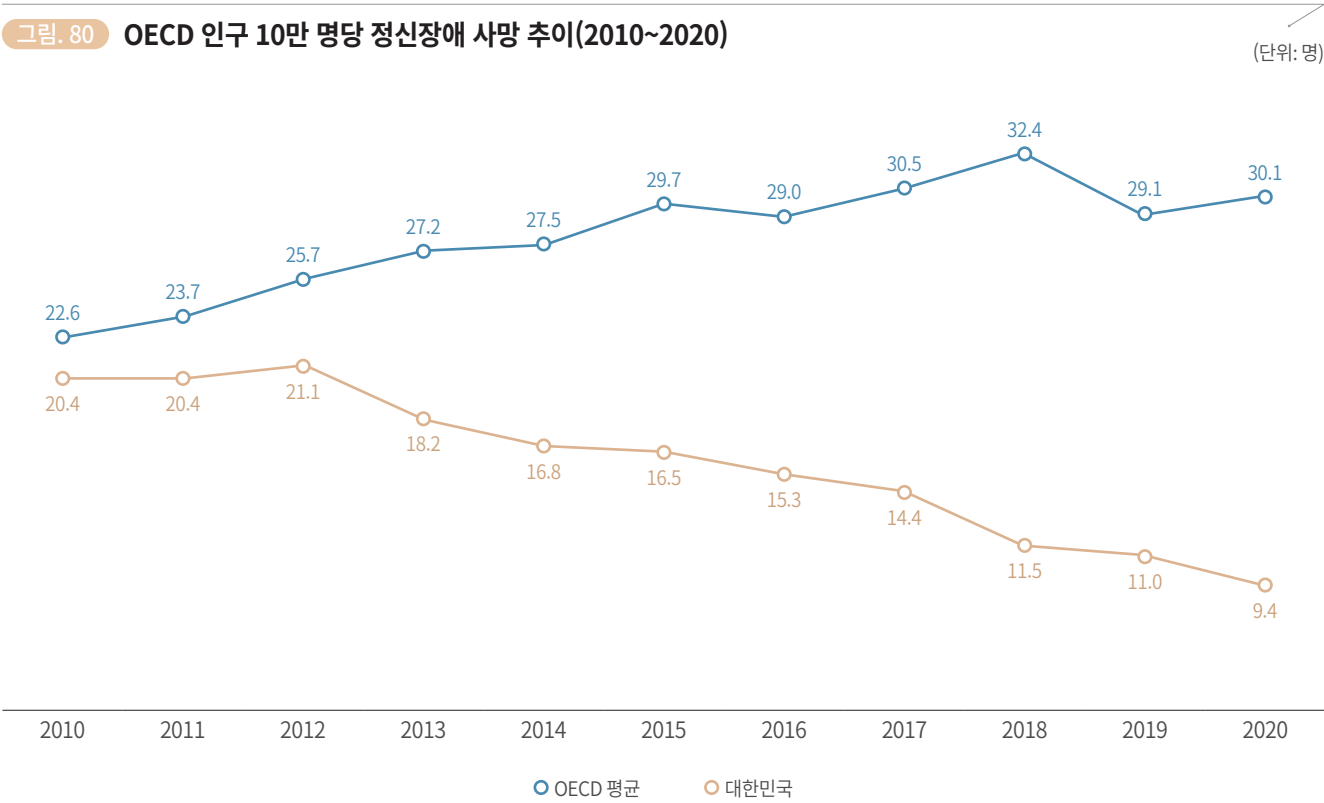
- OECD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OECD 평균보다 대한민국은 더 낮은 수치를 보이며 OECD 평균 수치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대한민국 수치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2020년 기준, OECD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자 수는 30.1명이며 대한민국은 9.4명으로 나타남.

표. 85 OECD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 추이(2010~2020)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OECD 평균	22.6	23.7	25.7	27.2	27.5	29.7	29.0	30.5	32.4	29.1	30.1
대한민국	20.4	20.4	21.1	18.2	16.8	16.5	15.3	14.4	11.5	11.0	9.4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영국이 66.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캐나다 62.2명, 덴마크 59.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튀르키예로 1.5명이며 콜롬비아 3.8명, 멕시코 7.3명, 일본 8.8명, 대한민국 9.4명 순으로 나타남.

표. 86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 현황(2020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단위: 명)

구분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자 수	구분	인구 10만 명당 정신장애 사망자 수
호주	40.8	대한민국	9.4
오스트리아	29.2	라트비아	29.0
벨기에	37.7	리투아니아	10.7
캐나다	62.2	룩셈부르크	43.2
칠레	18.0	멕시코	7.3
콜롬비아	3.8	네덜란드	57.3
코스타리카	19.7	뉴질랜드	43.2
체코	18.3	노르웨이	51.4
덴마크	59.9	폴란드	9.3
에스토니아	11.3	포르투갈	33.1
핀란드	38.0	슬로바키아	17.1
프랑스	28.7	슬로베니아	17.0
독일	49.5	스페인	30.9
그리스	14.0	스웨덴	54.6
헝가리	42.9	스위스	54.5
아이슬란드	33.3	튀르키예	1.5
아일랜드	56.3	영국	66.7
이스라엘	36.2	미국	45.9
이탈리아	25.2	OECD 평균	30.1
일본	8.8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6) 양극성 장애 환자의 초과 사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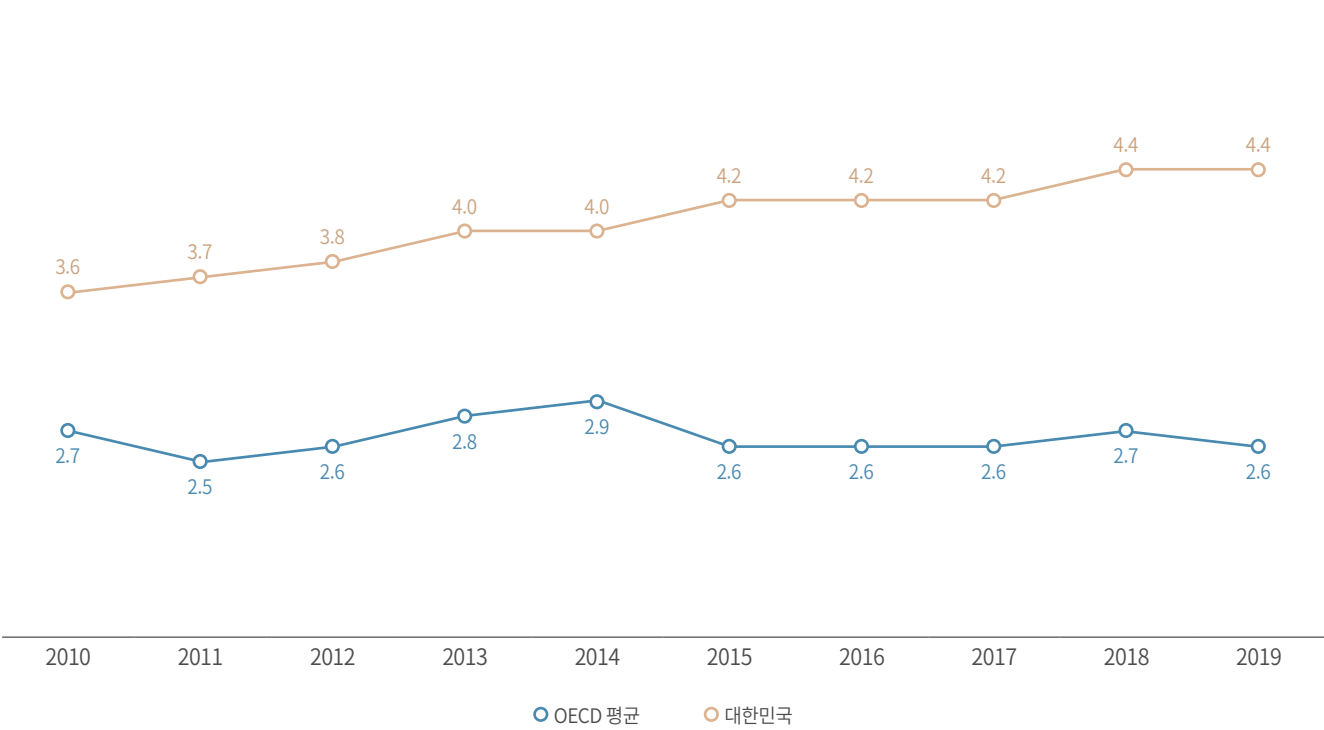
OECD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를 살펴보면, OECD 평균은 증감을 반복하며 비교적 일관된 수치를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은 증가하는 추이로 2019년 기준 OECD 평균 2.6, 대한민국 4.4로 나타남.

표. 87 OECD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19) (단위: 비, ratio)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OECD 평균	2.7	2.5	2.6	2.8	2.9	2.6	2.6	2.6	2.7	2.6
대한민국	3.6	3.7	3.8	4.0	4.0	4.2	4.2	4.2	4.4	4.4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그림. 81 OECD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19) (단위: 비, ratio)



7) 조현병 환자의 초과 사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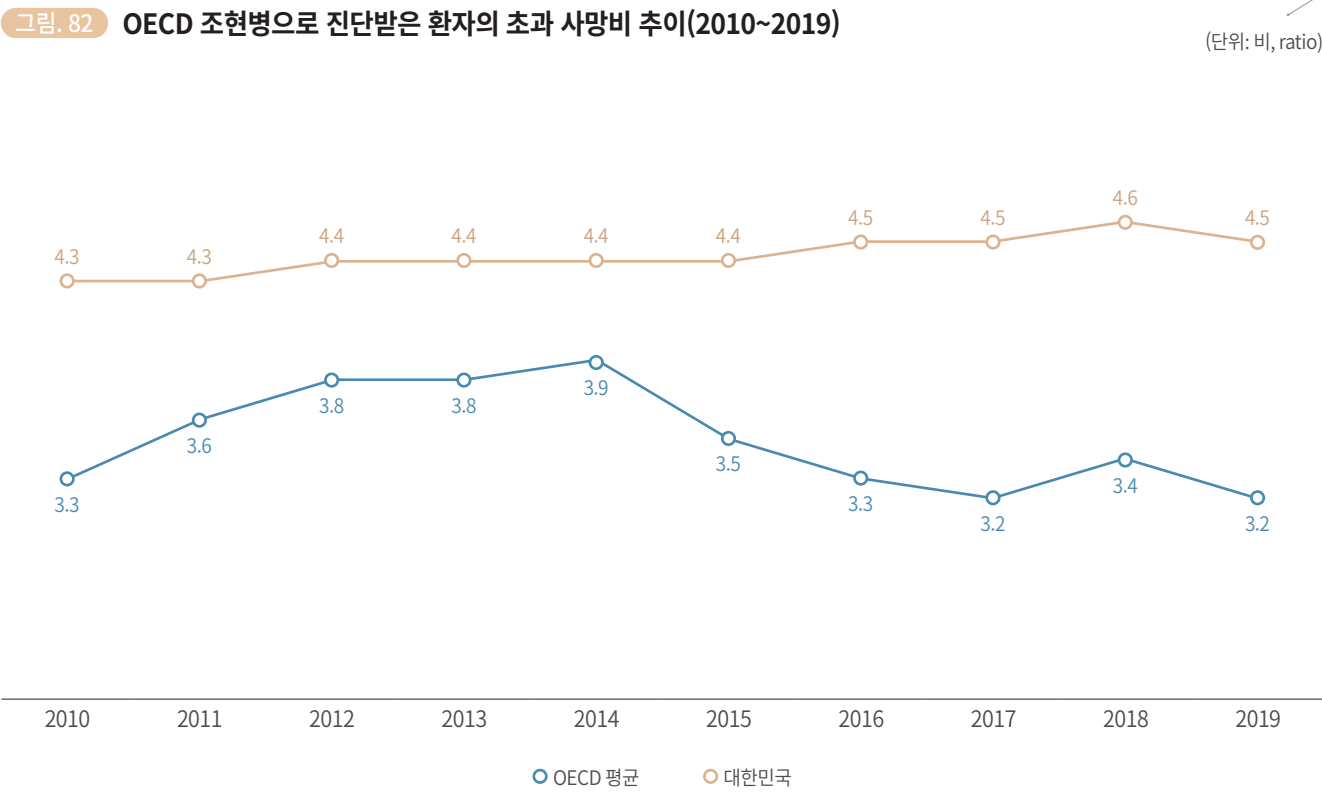
OECD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OECD 평균 3.2, 대한민국 4.5로 OECD 평균 및 대한민국 수치 모두 큰 변화는 없으나 대한민국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표. 88 OECD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초과 사망비 추이(2010~2019)

(단위: 비, ratio)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OECD 평균	3.3	3.6	3.8	3.8	3.9	3.5	3.3	3.2	3.4	3.2
대한민국	4.3	4.3	4.4	4.4	4.4	4.4	4.5	4.5	4.6	4.5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8)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 추이를 살펴보면 아메리카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자살 사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9년 기준 전체 지역 자살 사망은 9.0명이며 아프리카지역이 11.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지역 10.5명, 남동아시아지역 10.2명, 아메리카지역 9.1명, 서태평양지역 7.2명, 동지중해지역 6.4명 순으로 나타남.

표. 89 WHO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 추이(2013~2019)

(단위: 명)

구분	Global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동지중해지역 (EMR)	유럽지역 (EU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서태평양지역 (WPR)
2013	10.0	12.8	8.2	6.8	13.3	11.3	8.4
2019	9.0	11.2	9.1	6.4	10.5	10.2	7.2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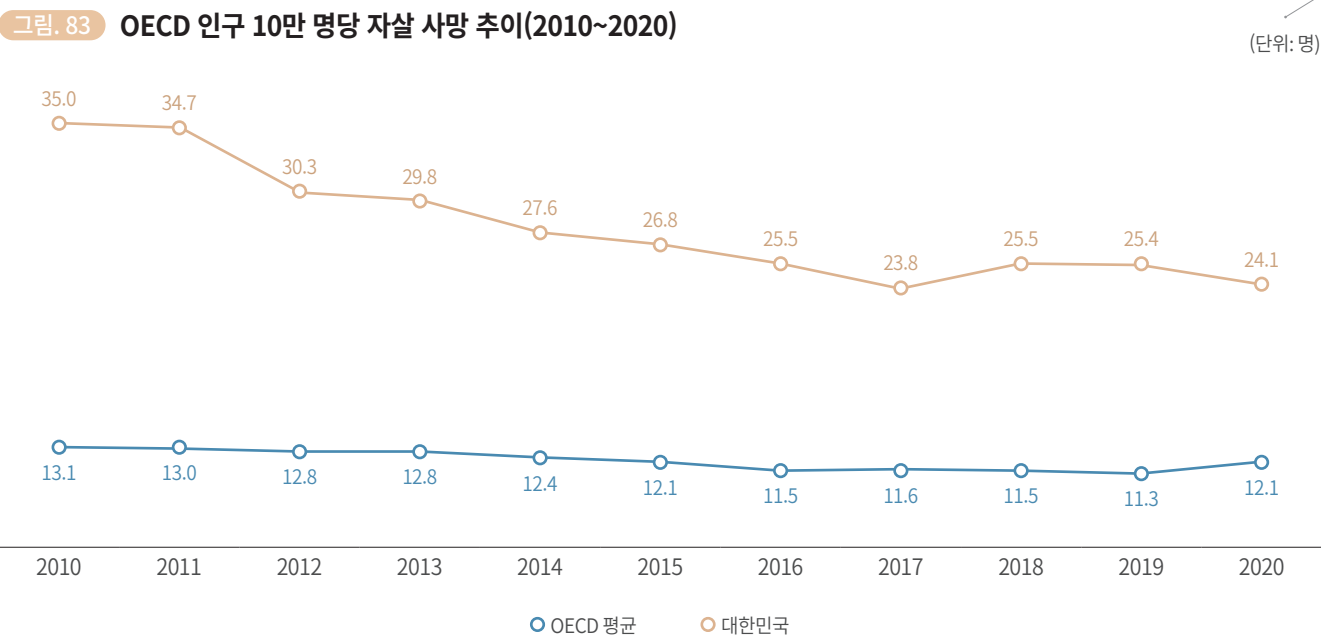
OECD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OECD 평균 12.1명, 대한민국 24.1명으로 OECD 평균 및 대한민국 자살 사망 추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90 OECD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 추이(2010~2020)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OECD 평균	13.1	13.0	12.8	12.8	12.4	12.1	11.5	11.6	11.5	11.3	12.1
대한민국	35.0	34.7	30.3	29.8	27.6	26.8	25.5	23.8	25.5	25.4	24.1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OECD 평균 12.1명이며 대한민국이 24.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리투아니아 20.3명, 슬로베니아 15.7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91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현황(2020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단위: 명)

구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	구분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
호주	12.4	대한민국	24.1
오스트리아	10.8	라트비아	14.9
벨기에	15.2	리투아니아	20.3
캐나다	10.5	룩셈부르크	10.9
칠레	10.0	멕시코	6.3
콜롬비아	5.9	네덜란드	10.0
코스타리카	7.0	뉴질랜드	12.1
체코	10.9	노르웨이	11.8
덴마크	9.7	폴란드	11.6
에스토니아	15.2	포르투갈	8.5
핀란드	13.4	슬로바키아	6.6
프랑스	12.3	슬로베니아	15.7
독일	9.7	스페인	7.5
그리스	4.6	스웨덴	12.4
헝가리	14.8	스위스	11.1
아이슬란드	12.7	튀르키예	4.4
아일랜드	9.4	영국	8.4
이스라엘	5.7	미국	14.1
이탈리아	5.8	OECD 평균	12.1
일본	14.6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정신질환치료

가. 서울시

1) 정신질환 진료

- 2022년 기준, 서울시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조울증, 조현병) 진료 실인원 수는 731,78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0년까지 70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21년부터 20~29세 연령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개년 추이로 살펴보면 20~29세의 경우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92 서울시 정신질환 진료 연령별 비율 추이(2018~2022) (단위: %)

구분	합계	9세 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8	100.0	0.1	3.5	14.2	14.4	15.0	16.9	16.5	19.4
2019	100.0	0.1	3.7	15.9	15.0	14.7	16.1	15.8	18.7
2020	100.0	0.1	3.5	17.9	15.5	14.4	15.1	15.4	18.2
2021	100.0	0.2	3.7	19.0	16.4	14.4	14.2	15.1	17.0
2022	100.0	0.2	4.1	19.3	17.4	14.6	13.8	14.4	16.3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별 정신질환 진료 현황

2)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진료 수진자

- 서울시 진단별 정신질환 진료 수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진자 및 중증정신질환 수진자 수 모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인구 10만 명당 ‘주요 우울 장애’ 수진자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전체 수진자 수는 567,052명이며 중증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157,161명으로 나타남. 인구 10만 명당 진료받은 수진자 수를 살펴보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544.7명, 제1형 및 제2형 양극성 장애 458.8명, 주요 우울 장애 2,562.8명으로 나타남.

표. 93 서울시 진단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진료 수진자 추이(2019~2021) (단위: 명)

구분	전체 수진자 수	중증정신질환 수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진료 수진자 수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제1형 및 제2형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 장애
2019	478,079	146,357	547.0	382.8	2,176.2
2020	493,960	145,858	523.0	387.2	2,099.3
2021	567,052	157,161	544.7	458.8	2,562.8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3)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 2021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실인원 738,091명, 내원일수 10,185,433일, 급여일수 125,948,593일, 진료비 881,101,371천원, 급여비 696,755,634천원으로 나타남.
- 각 항목별 자치구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실인원은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원일수는 강서구, 송파구, 노원구 순으로, 급여일수는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진료비는 송파구, 강서구, 강남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급여비는 강서구, 송파구, 노원구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94

서울시 자치구별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현황(2021)

(단위: 명, 일, 천원)

구분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
서울시	738,091	10,185,433	125,948,593	881,101,371	696,755,634
종로구	12,464	172,901	2,168,143	15,622,228	12,204,183
중구	10,323	157,468	1,791,818	13,310,951	10,589,046
용산구	18,447	252,666	3,102,867	23,029,082	18,071,142
성동구	22,370	298,032	3,788,584	26,377,928	20,669,398
광진구	26,054	321,530	4,240,882	29,069,858	22,669,168
동대문구	26,344	394,122	4,613,890	33,412,361	26,729,398
중랑구	29,646	425,134	5,287,315	36,413,839	29,546,094
성북구	31,601	407,189	5,335,688	35,548,262	27,758,579
강북구	24,409	375,646	4,246,323	30,575,604	24,909,941
도봉구	25,271	360,310	4,639,157	31,110,057	24,924,951
노원구	38,402	593,509	7,185,963	50,310,897	40,922,171
은평구	37,646	565,314	6,536,870	46,861,793	37,564,009
서대문구	25,909	378,176	4,473,655	31,713,299	24,764,116
마포구	29,410	402,129	5,071,054	34,702,847	26,967,860
양천구	31,555	412,722	5,372,953	36,190,948	28,427,744
강서구	43,347	638,083	7,288,960	52,870,731	42,968,076
구로구	29,520	407,875	4,969,661	33,951,711	26,794,368
금천구	18,106	276,742	3,131,481	23,622,736	19,073,178
영등포구	28,541	404,152	4,837,602	36,167,994	28,373,197
동작구	29,974	379,708	5,120,317	33,638,232	26,135,193
관악구	39,667	521,688	6,526,445	44,399,931	35,090,569
서초구	32,558	401,169	5,447,846	36,987,008	28,200,391
강남구	45,016	574,213	7,565,384	52,041,965	40,740,989
송파구	47,064	613,568	7,756,771	55,031,381	42,556,692
강동구	34,447	451,387	5,448,964	38,139,730	30,105,18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4)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

- 서울시 입원형태별 현황 및 비자의 입원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입원환자 수는 2022년 기준 2,671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자의적 입원환자 수는 1,922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자의적 입원환자 수는 2022년 기준 740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응급 입원 및 기타 입원환자 수는 모두 감소하였음. 비자의 입원율은 2022년 기준 27.7%로 전년 대비 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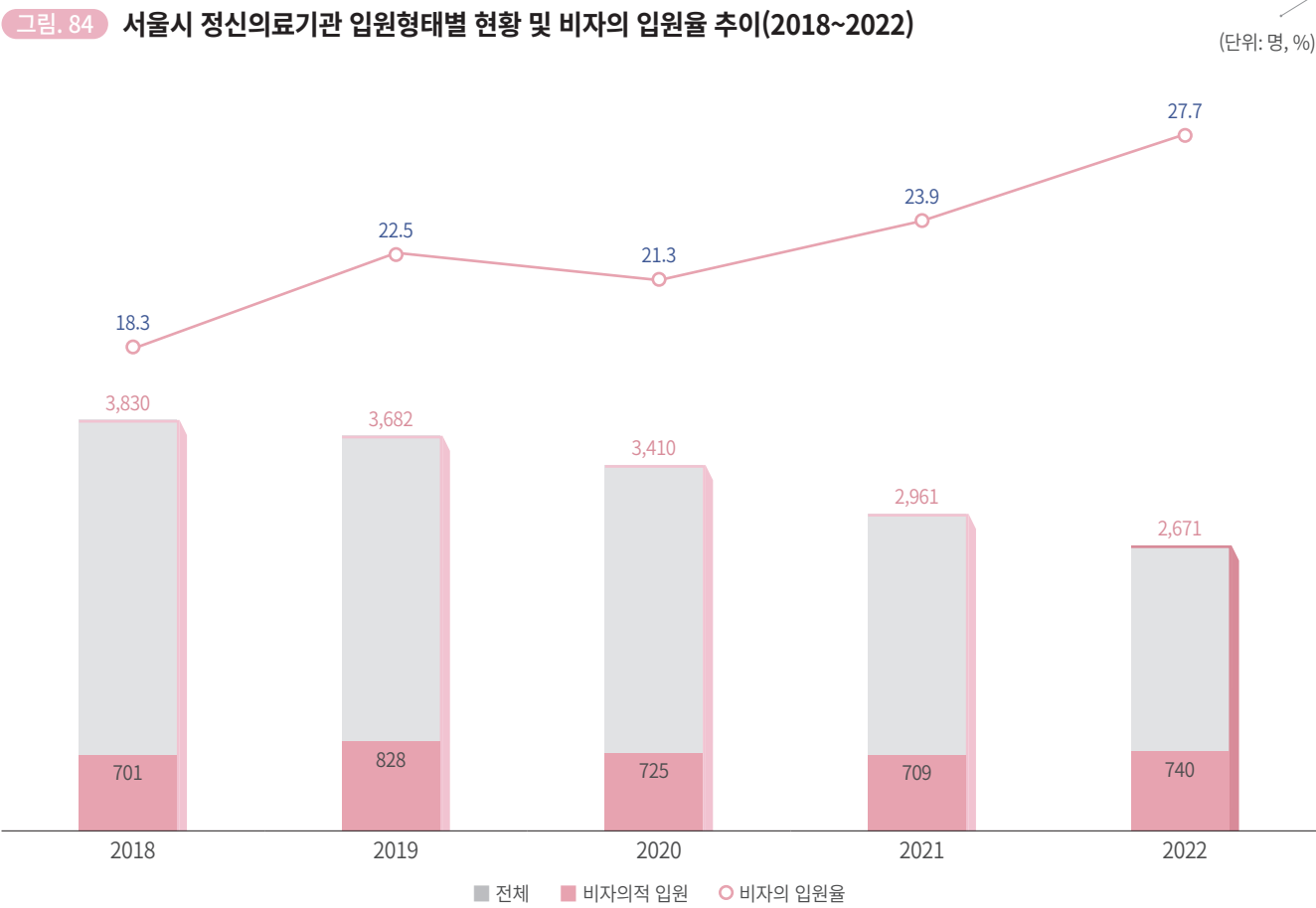
표. 95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별 현황 및 비자의 입원을 추이(2018~2022)

(단위: 명, %)

구분	전체	자의적 입원	비자의적 입원	응급 입원	기타 입원	비자의 입원율
2018	3,830	2,922	701	10	197	18.3
2019	3,682	2,831	828	10	13	22.5
2020	3,410	2,616	725	5	64	21.3
2021	2,961	2,210	709	16	26	23.9
2022	2,671	1,922	740	9	0	27.7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데이터 분석



5) 퇴원 후 외래 방문 및 재입원율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 방문 및 동일병원 재입원율 추이를 살펴보면, 퇴원 후 1개월 이내 정신과 외래 방문 환자 수는 2020년 기준 5,020명이나 환자 비율은 66.6%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 환자 수는 2020년 기준 1,332명, 환자 비율 17.7%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96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 방문 및 동일병원 재입원율 추이(2014~2020)

(단위: 명, %)

구분	퇴원 후 1개월 이내 정신과 외래 방문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	
	환자 수	비율	환자 수	비율
2014	6,742	70.6	1,723	18.0
2015	6,767	69.5	1,662	17.1
2016	6,723	69.1	2,036	20.9
2017	6,242	68.4	1,807	19.8
2018	6,143	69.3	1,482	16.7
2019	6,008	69.1	1,385	15.9
2020	5,020	66.6	1,332	17.7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6) 정신의료기관 재원 기간

서울시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1개월 미만 재원 환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의 재원기간 환자는 모두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2021년 기준 서울시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중앙값은 19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2일 감소하여 매년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표. 97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분포 추이(2010~2021)

(단위: 일, %)

연도	중간값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10	87	24.0	27.2	17.8	7.3	7.5	7.1	5.8	3.3
2011	117	20.7	23.4	19.4	8.1	11.0	7.6	6.8	3.0
2012	87	26.9	24.4	17.1	5.9	10.0	4.8	8.2	2.7
2013	87	23.4	27.0	19.6	8.2	6.1	3.4	9.0	3.2
2014	77	26.6	29.9	22.8	8.1	8.1	2.2	1.8	0.7
2015	70	28.0	32.4	21.7	7.8	7.5	1.4	0.9	0.3
2016	80	35.2	32.4	2.7	12.1	11.2	3.1	2.3	1.0
2017	30	23.4	28.7	17.7	15.3	10.3	2.8	1.2	0.6
2018	25	54.9	27.3	9.3	4.7	2.6	0.5	0.5	0.2
2019	23	57.4	27.1	8.6	4.0	2.4	0.3	0.1	0.0
2020	21	58.2	24.2	8.0	5.0	3.4	0.9	0.3	0.0
2021	19	64.6	21.9	6.8	4.8	1.6	0.2	0.1	0.0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나. 국내

1) 정신질환 진료

2022년 기준, 국내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조울증, 조현병) 진료 실인원 수는 3,108,808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연령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비율이 매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5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20~29세의 비율이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50~59세 비율이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98

국내 정신질환 진료 연령별 비율 추이(2018~2022)

(단위: %)

구분	합계	9세 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18	100.0	0.1	3.2	10.4	12.4	15.5	18.7	17.6	22.0
2019	100.0	0.1	3.4	11.5	12.7	15.3	18.1	17.3	21.5
2020	100.0	0.1	3.3	12.8	12.8	15.0	17.2	17.5	21.3
2021	100.0	0.2	3.7	13.7	13.2	15.0	16.4	17.6	20.2
2022	100.0	0.2	4.0	14.0	13.8	15.1	15.9	17.2	19.8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별 정신질환 진료 현황

2)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진료 수진자

국내 진단별 정신질환 진료 수진자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진자 및 중증정신질환 수진자 수 모두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인구 10만 명당 ‘주요 우울 장애’ 수진자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1년 기준 전체 수진자 수는 2,349,029명이며 중증정신질환 수진자 수는 651,813명으로 나타남. 인구 10만 명당 진료받은 수진자 수를 살펴보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505.6명, 제1형 및 제2형 양극성 장애 280.8명, 주요 우울 장애 1,911.6명으로 나타남.

표. 99

국내 진단별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 진료 수진자 추이(2018~2021)

(단위: 명)

구분	전체 수진자 수	중증정신질환 수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진료 수진자 수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 장애	제1형 및 제2형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 장애
2018	1,864,209	599,956	504.0	225.9	1,553.4
2019	2,044,992	627,656	511.0	251.5	1,694.9
2020	2,124,345	625,603	487.7	250.1	1,652.7
2021	2,349,029	651,813	505.6	280.8	1,911.6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3)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 2021년 기준 시도별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진료실인원 4,068,632명, 내원일수 81,382,050일, 급여일수 712,004,398일, 진료비 6,532,168,282천원, 급여비 5,269,804,548천원으로 나타남.
- 항목별 시도 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00

시도별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및 급여 현황(2021)

(단위: 명, 일, 천원)

구분	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	급여비
전국	4,068,632	81,382,050	712,004,398	6,532,168,282	5,269,804,548
서울	738,091	10,185,433	125,948,593	881,101,371	696,755,634
부산	304,081	9,093,103	58,163,367	690,320,457	565,049,479
대구	202,793	4,458,969	35,403,110	344,098,985	284,202,862
인천	209,566	3,488,539	36,012,136	277,779,393	225,519,243
광주	103,125	2,943,824	17,721,722	239,296,448	193,859,684
대전	119,846	2,095,794	20,553,839	158,333,737	128,033,459
울산	74,007	1,905,514	13,019,878	142,826,273	113,872,595
세종	24,953	395,804	3,987,854	31,975,042	25,191,799
경기	945,149	14,047,588	162,544,105	1,173,225,952	930,435,567
강원	129,316	2,004,306	22,494,138	156,035,758	126,809,955
충북	134,516	2,421,384	23,041,265	185,592,561	150,476,446
충남	187,924	3,756,703	33,207,805	299,400,367	239,804,550
전북	172,562	4,512,513	30,421,604	360,362,689	293,576,476
전남	171,941	5,201,576	30,246,625	434,781,536	352,961,563
경북	232,194	6,503,051	42,203,067	507,743,217	416,002,629
경남	264,370	7,686,254	47,359,885	593,027,988	482,265,738
제주	54,198	681,695	9,675,405	56,266,507	44,986,868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4)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

- 국내 입원형태별 입원환자 현황 및 비자의 입원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입원환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자의적 입원환자 수 또한 감소하고 있고, 비자의적 입원환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응급 입원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기타 입원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음.
- 비자의 입원율은 2021년 34.2%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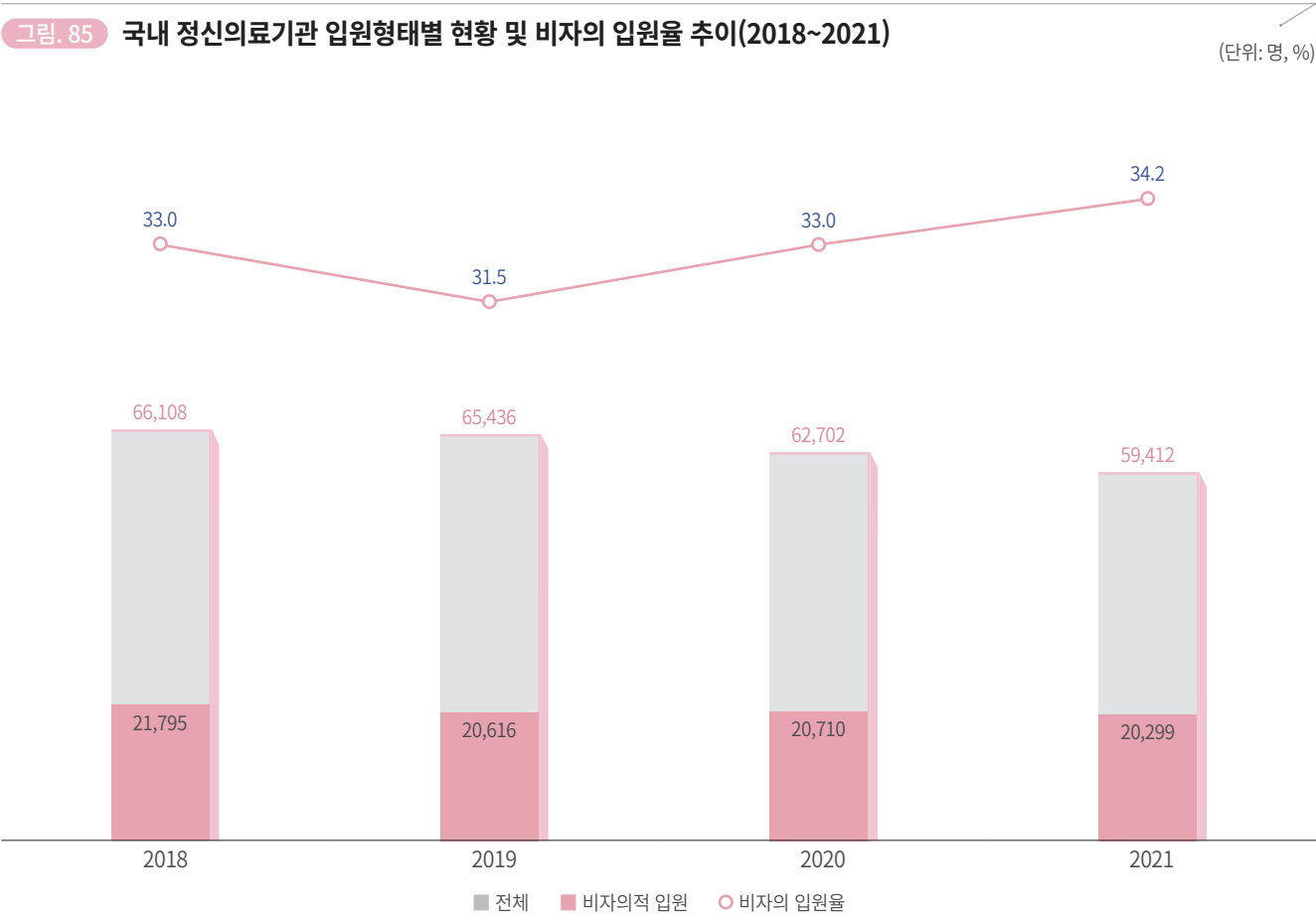
표. 101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형태별 현황 및 비자의 입원을 추이(2018~2021)

(단위: 명, %)

구분	전체	자의적 입원	비자의적 입원	응급 입원	기타 입원	비자의 입원율
2018	66,108	43,170	21,795	65	1,078	33.0
2019	65,436	43,665	20,616	107	1,048	31.5
2020	62,702	40,873	20,710	25	1,094	33.0
2021	59,412	38,115	20,299	66	932	34.2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5) 퇴원 후 외래 방문 및 재입원을

▶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환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퇴원 후 1개월 이내 정신과 외래 방문 환자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고, 퇴원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 환자 수 또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02 국내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후 1개월 이내 외래 방문 및 동일병원 재입원을 추이(2018~2021) (단위: 명, %)

구분	중증정신질환자 퇴원 환자 수	퇴원 후 1개월 이내 정신과 외래 방문		퇴원 후 1개월 이내 동일병원 재입원	
		환자 수	비율	환자 수	비율
2018	52,710	33,738	64.0	9,128	16.8
2019	49,819	32,708	65.7	8,648	16.8
2020	40,685	8,561	21.0	6,627	15.8
2021	39,927	25,289	63.3	7,099	17.8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6) 정신의료기관 재원 기간

▶ 국내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입원 중간값은 2021년 기준 28일로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1개월 미만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환자 수는 증가, 3개월 이상 환자 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2021년 기준 1개월 미만 환자 비율은 46.5%,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25.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2.1%, 6개월 이상 1년 미만 7.6%, 1년 이상 3년 미만 5.6%, 3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10년 미만 1.1%, 10년 이상 0.3%로 나타남.

표. 103 국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재원기간 분포 추이(2010~2021) (단위: 일, %)

연도	중간값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10	248	12.6	17.1	15.5	12.7	18.2	7.5	7.1	9.4
2011	251	12.7	17.1	15.2	12.6	18.3	7.8	7.2	9.1
2012	247	12.8	17.5	15.0	12.7	18.4	7.5	7.2	8.9
2013	262	11.9	16.6	15.6	13.0	18.6	7.6	7.9	8.8
2014	197	13.8	18.5	16.4	14.1	21.1	7.6	6.1	2.5
2015	207	13.8	18.0	15.9	14.5	21.2	7.6	6.5	2.4
2016	226	13.0	17.3	15.8	15.2	21.6	7.9	6.8	2.5
2017	199	12.0	17.4	14.1	19.7	21.2	7.6	5.9	2.2
2018	32	42.2	26.2	12.7	8.5	7.6	1.7	1.0	0.2
2019	31	43.8	25.7	12.9	7.9	7.1	1.6	0.8	0.2
2020	31	42.9	25.0	12.4	8.9	7.7	2.0	0.9	0.2
2021	28	46.5	25.2	12.1	7.6	5.6	1.7	1.1	0.3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다. 국외

1) 정신의료기관 재원 기간

▶ WHO 지역별 정신병원 재원 기간 중간값 비율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의 입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동아시아지역으로 나타났으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입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동지중해지역, 5년 이상의 입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아메리카지역으로 나타남.

표. 104 WHO 지역별 정신병원 재원 기간 중간값 현황(2020) (단위: 개, %)

구분	Global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동지중해지역 (EMR)	유럽지역 (EU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서태평양지역 (WPR)
국가 수	85	13	21	12	26	4	9
1년 미만	87	94	59	71	88	97	91
1년 이상 5년 이하	5	2	5	12	6	2	9
5년 이상	5	6	28	17	2	0.5	3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진단별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을 살펴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 23.4일,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16.8일,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46.8일, 기분장애 24.4일로 나타남.
- 진단별로 살펴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대한민국이 80.8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페인 54.3일, 멕시코 39.2일 순으로 높게 나타남.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단의 경우 대한민국 99.4일, 헝가리 35.3일, 체코 33.3일 순으로 높게 나타남.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진단의 경우 대한민국 194.7일, 스페인 81.0일, 체코 75.7일 순으로 높게 나타남. ‘기분장애’ 진단의 경우 대한민국 48.2일, 폴란드 41.5일, 영국 37.9일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05 OECD 국가별 진단별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 현황(2021) (단위: 일)

구분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호주	-	-	-	-
오스트리아	23.9	18.2	36.6	25.2
벨기에	7.4	6	10.3	16.3
캐나다	14.4	7	35.9	16.1
칠레	19.9	12.1	59.1	15.8
코스타리카	18.1	7.2	15.3	12.5
체코	34.8	33.3	75.7	34.2
덴마크	-	-	-	-
핀란드	14.2	5.5	41.5	15.8
프랑스	20.4	10.8	41.5	26.5
독일	25.2	15.3	35.9	36
그리스	-	-	-	-
헝가리	17.5	35.3	39	27.5
아이슬란드	-	-	-	-
아일랜드	12.3	6.3	21	14.6
이스라엘	20.6	5.1	58	27.6
이탈리아	12.8	12.7	15.3	15.2
대한민국	80.8	99.4	194.7	48.2
라트비아	27.8	4.2	49.1	23.1
리투아니아	16.3	9.1	32.5	18.1
룩셈부르크	-	-	-	-
멕시코	39.2	4	58.1	12.7
네덜란드	8.9	4.1	27.8	28.3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13.7	16.2	22.5	17.7
폴란드	36	24.3	59.5	41.5
포르투갈	15.7	14	25.3	19.1
슬로바키아	25.4	27.1	37.1	26.4

슬로베니아	16.8	18	37	27.9
스페인	54.3	28.8	81	28.2
스웨덴	12.4	3.9	49.2	15.1
스위스	23.4	18.7	36	32.1
튀르키예	-	-	-	-
영국	20.4	6.2	68.2	37.9
미국	-	-	-	-
OECD 평균	23.4	16.8	46.8	24.4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 인구 10만 명당 진단별 퇴원 환자 수

-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진단별 퇴원 환자 수를 살펴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 603.2명,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102.0명,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117.4명, 기분장애 124.7명으로 나타남.
- 진단별로 살펴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 퇴원 환자 수는 독일이 1,416.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르웨이 1,334.9명, 스위스 1,199.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단의 경우 독일 280.7명, 룩셈부르크 270.7명, 핀란드 231.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진단의 경우 라트비아 324.3명, 덴마크 246.8명, 노르웨이 240.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기분장애’ 진단의 경우 독일 400.1명, 스위스 345.1명, 미국 317.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06 OECD 국가별 인구 10만 명당 진단별 퇴원 환자 현황(2020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연도) (단위: 명)

구분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기분장애
호주	1,024.9	117.2	187.3	244.4
오스트리아	976.4	148.7	122.6	260.9
벨기에	228.1	72.7	13.1	29.0
캐나다	662.1	82.3	141.5	136.1
칠레	135.2	10.1	23.9	40.9
콜롬비아	-	-	-	-
코스타리카	73.5	2.8	14.7	15.0
체코	575.1	116.7	90.3	45.4
덴마크	889.0	176.8	246.8	145.6
에스토니아	834.3	-	-	-
핀란드	1,128.2	231.9	240.0	234.9
프랑스	993.3	173.8	192.6	262.2
독일	1,416.3	280.7	142.2	400.1
그리스	317.4	12.7	120.1	76.0
헝가리	636.7	66.5	143.5	127.3
아이슬란드	824.3	92.4	105.4	196.4
아일랜드	166.8	65.2	7.5	8.7
이스라엘	302.1	7.6	149.1	47.4
이탈리아	213.5	10.6	53.6	61.5
일본	296.1	26.9	100.5	71.0
대한민국	395.6	68.6	77.1	58.8
라트비아	1,041.9	220.6	324.3	66.1
리투아니아	910.6	178.4	238.8	157.3
룩셈부르크	1,099.0	270.7	133.3	236.0
멕시코	26.4	2.9	4.5	6.9
네덜란드	39.4	6.3	1.9	2.1

뉴질랜드	497.3	57.8	126.0	100.2
노르웨이	1,334.9	207.3	240.4	237.3
폴란드	498.7	172.1	96.7	54.1
포르투갈	143.0	11.2	43.6	45.0
슬로바키아	690.8	169.1	134.6	96.9
슬로베니아	464.6	76.2	118.5	66.4
스페인	219.9	13.8	68.9	46.0
스웨덴	908.4	162.1	127.4	156.9
스위스	1,199.9	191.7	179.3	345.1
튀르키예	189.1	7.1	63.5	57.0
영국	285.8	69.7	42.7	38.1
미국	678.6	90.2	110.3	317.4
OECD 평균	603.2	102.0	117.4	124.7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3) 정신장애 진단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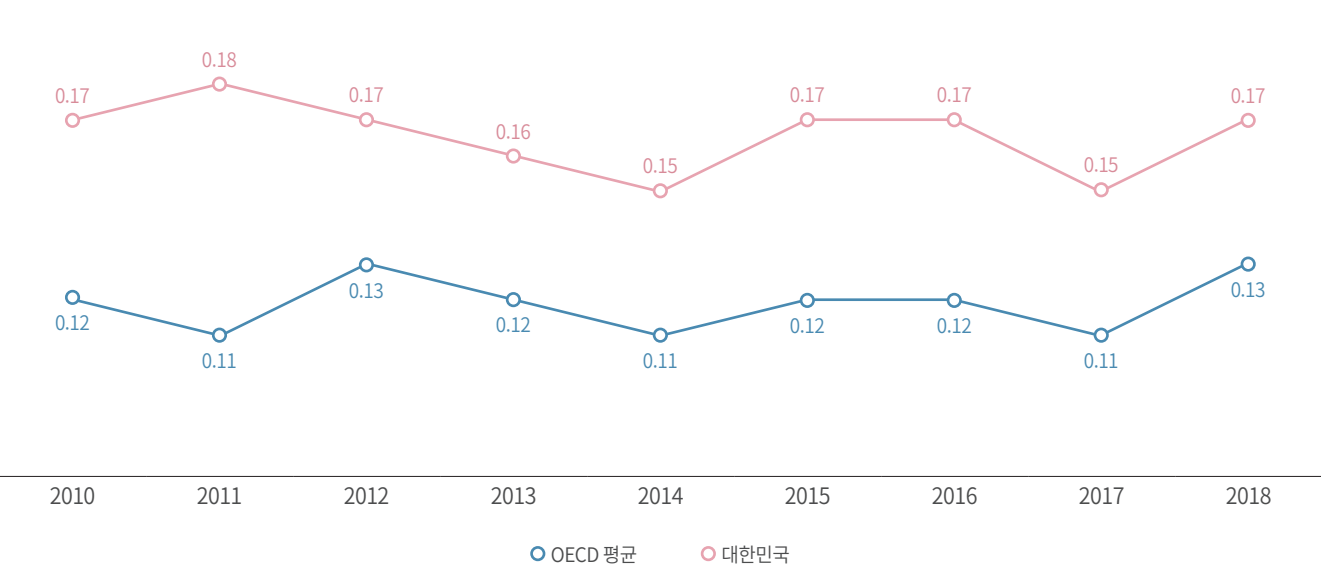
- OECD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매년 OECD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 OECD 평균은 0.13%, 대한민국은 0.17%로 나타남.

표. 107 OECD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18)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OECD 평균	0.12	0.11	0.13	0.12	0.11	0.12	0.12	0.11	0.13
대한민국	0.17	0.18	0.17	0.16	0.15	0.17	0.17	0.15	0.17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그림. 86 OECD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18)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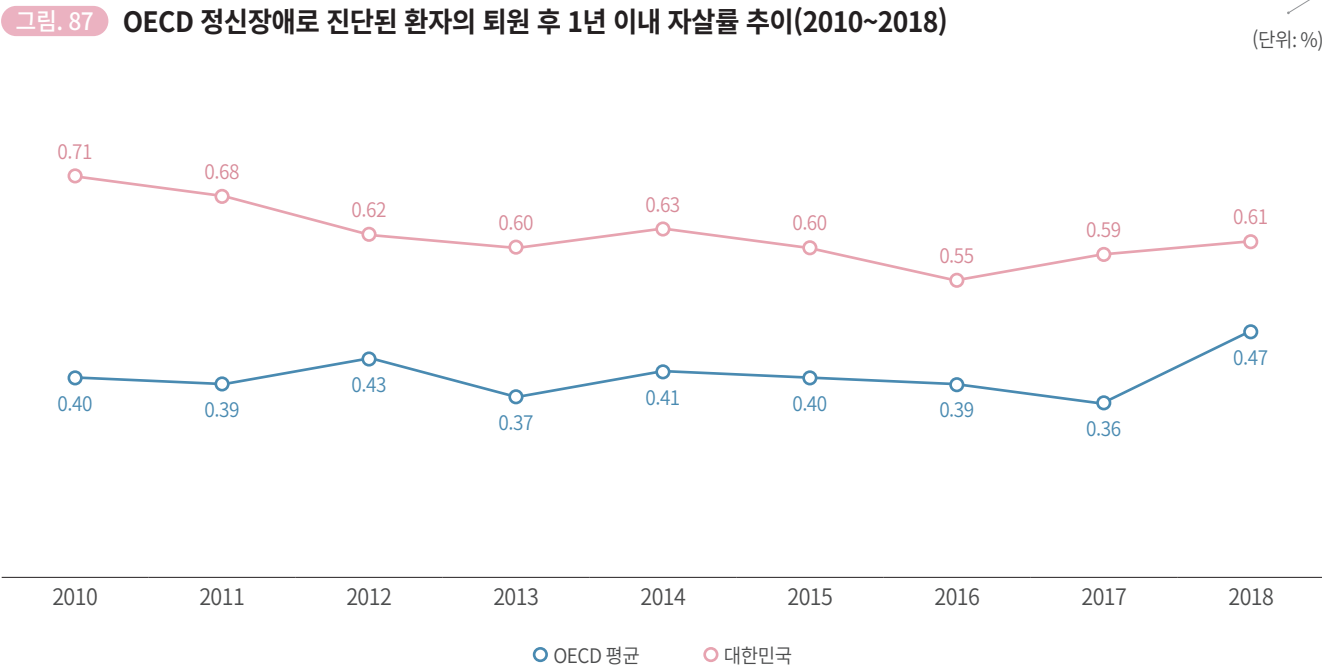
4) 정신장애 진단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OECD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매년 OECD 평균보다 높은 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 OECD 평균은 0.47%, 대한민국은 0.61%로 나타남.

표. 108 OECD 정신장애로 진단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추이(2010~2018)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OECD 평균	0.40	0.39	0.43	0.37	0.41	0.40	0.39	0.36	0.47
대한민국	0.71	0.68	0.62	0.60	0.63	0.60	0.55	0.59	0.61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05

정신건강서비스

가. 서울시

1)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록자

-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록자 추이를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감소하고 있으나,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2022년 기준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록자 수는 11,951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9,782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46명, 정신재활시설 1,823명으로 나타남.

표. 109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유형별 등록자 추이(2010~2022) (단위: 명)

연도	합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2010	19,308	17,124	597	1,587
2011	20,746	18,038	965	1,743
2012	21,846	19,035	889	1,922
2013	20,058	17,358	602	2,098
2014	19,618	16,831	598	2,189
2015	19,431	16,494	660	2,277
2016	14,472	12,463	512	1,497
2017	17,331	13,687	771	2,873
2018	14,888	11,908	658	2,322
2019	14,240	11,065	447	2,728
2020	11,197	9,377	306	1,514
2021	11,903	9,932	345	1,626
2022	11,951	9,782	346	1,823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2)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 2022년 기준 서울시 추계중증정신질환자 수는 94,284명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는 5,477명으로 추계중증정신질환자 수 대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은 5.8%로 나타남.
-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을 살펴보면 종로구에서 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구 10.9%, 도봉구 9.4%, 금천구 9.0%, 강북구 8.0%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0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현황(2022)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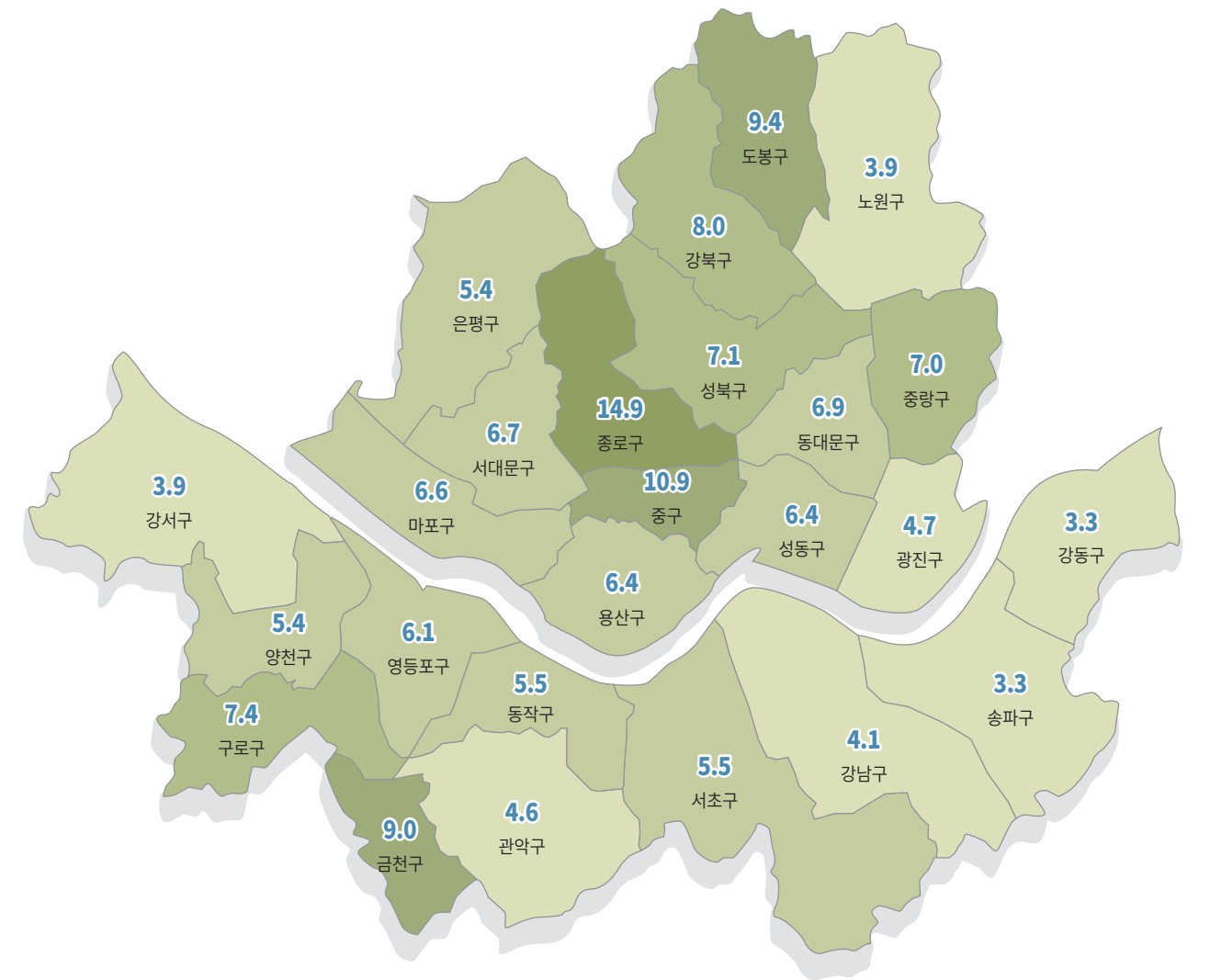
구분	추계중증정신질환자 ³⁾ 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수	추계중증정신질환자 수 대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율
서울시	94,284	5,477	5.8
종로구	1,414	210	14.9
중구	1,204	131	10.9
용산구	2,187	140	6.4
성동구	2,810	179	6.4
광진구	3,374	159	4.7
동대문구	3,366	233	6.9
중랑구	3,853	270	7.0
성북구	4,304	307	7.1
강북구	2,937	236	8.0
도봉구	3,117	293	9.4
노원구	5,037	196	3.9
은평구	4,667	253	5.4
서대문구	3,063	204	6.7
마포구	3,646	242	6.6
양천구	4,409	238	5.4
강서구	5,692	222	3.9
구로구	3,953	291	7.4
금천구	2,296	206	9.0
영등포구	3,757	230	6.1
동작구	3,806	210	5.5
관악구	4,868	223	4.6
서초구	4,043	222	5.5
강남구	5,291	215	4.1
송파구	6,588	215	3.3
강동구	4,601	152	3.3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3) 해당연도 말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1%로 산정

그림. 88 서울시 자치구별 중증정신질환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율 현황(2022)

(단위: %)



3) 정신건강 관련 기관 상담

2022년 기준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령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건수는 413,315건으로 20세 이상 29세 이하의 연령에서 69,745건(1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68,835명(16.7%), 50세 이상 59세 이하 68,528명(16.6%), 30세 이상 39세 이하 67,635명(16.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1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령별 상담 현황(2022)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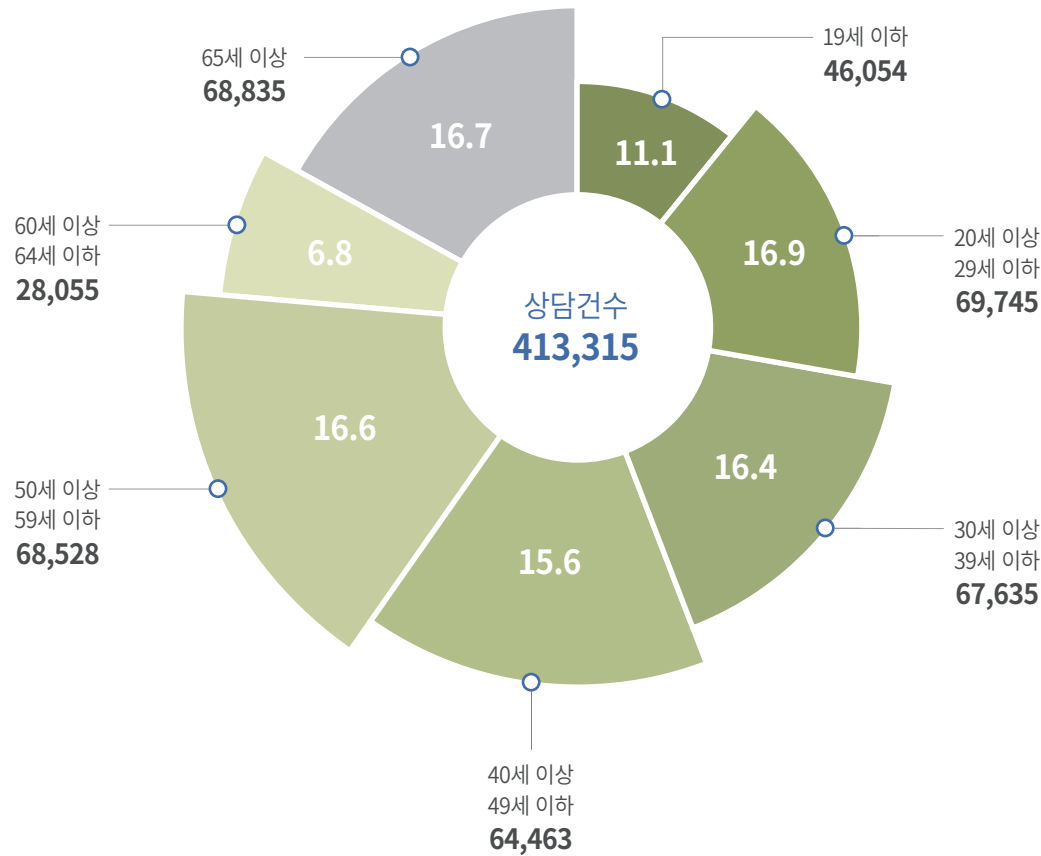
구분	합계	19세 이하	20세 이상 29세 이하	30세 이상 39세 이하	40세 이상 49세 이하	50세 이상 59세 이하	60세 이상 64세 이하	65세 이상
상담건수	413,315	46,054	69,745	67,635	64,463	68,528	28,055	68,835
비율	100.0	11.1	16.9	16.4	15.6	16.6	6.8	16.7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그림. 89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령별 상담 현황(2022)

(단위: 건, %)



2022년 기준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문제 종류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건수는 413,315건으로 우울증이 158,256건(3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로 상담받은 건수가 69,432건(16.8%), 아동 42,860명(10.4%), 불안장애 40,642명(9.8%)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2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문제 종류별 상담 현황(2022)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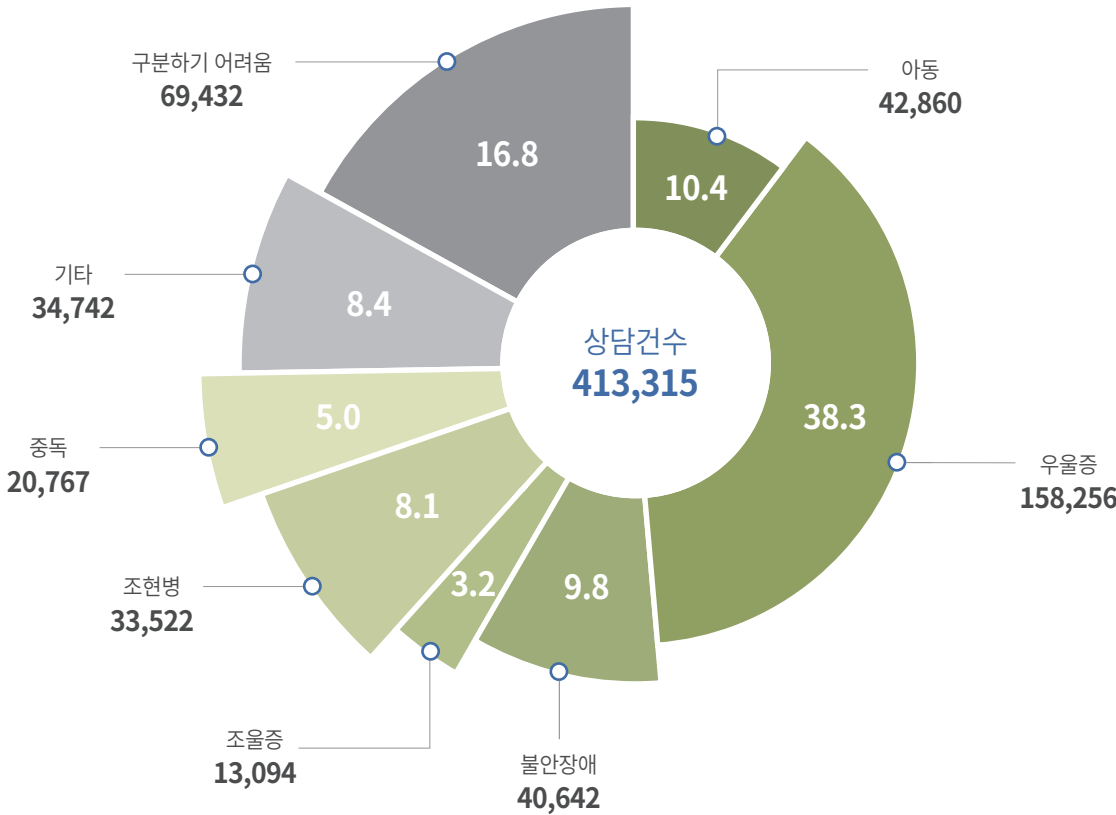
구분	합계	아동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조현병	중독	기타	구분하기 어려움
상담건수	413,315	42,860	158,256	40,642	13,094	33,522	20,767	34,742	69,432
비율	100.0	10.4	38.3	9.8	3.2	8.1	5.0	8.4	16.8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그림. 90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문제 종류별 상담 현황(2022)

(단위: 건, %)



4)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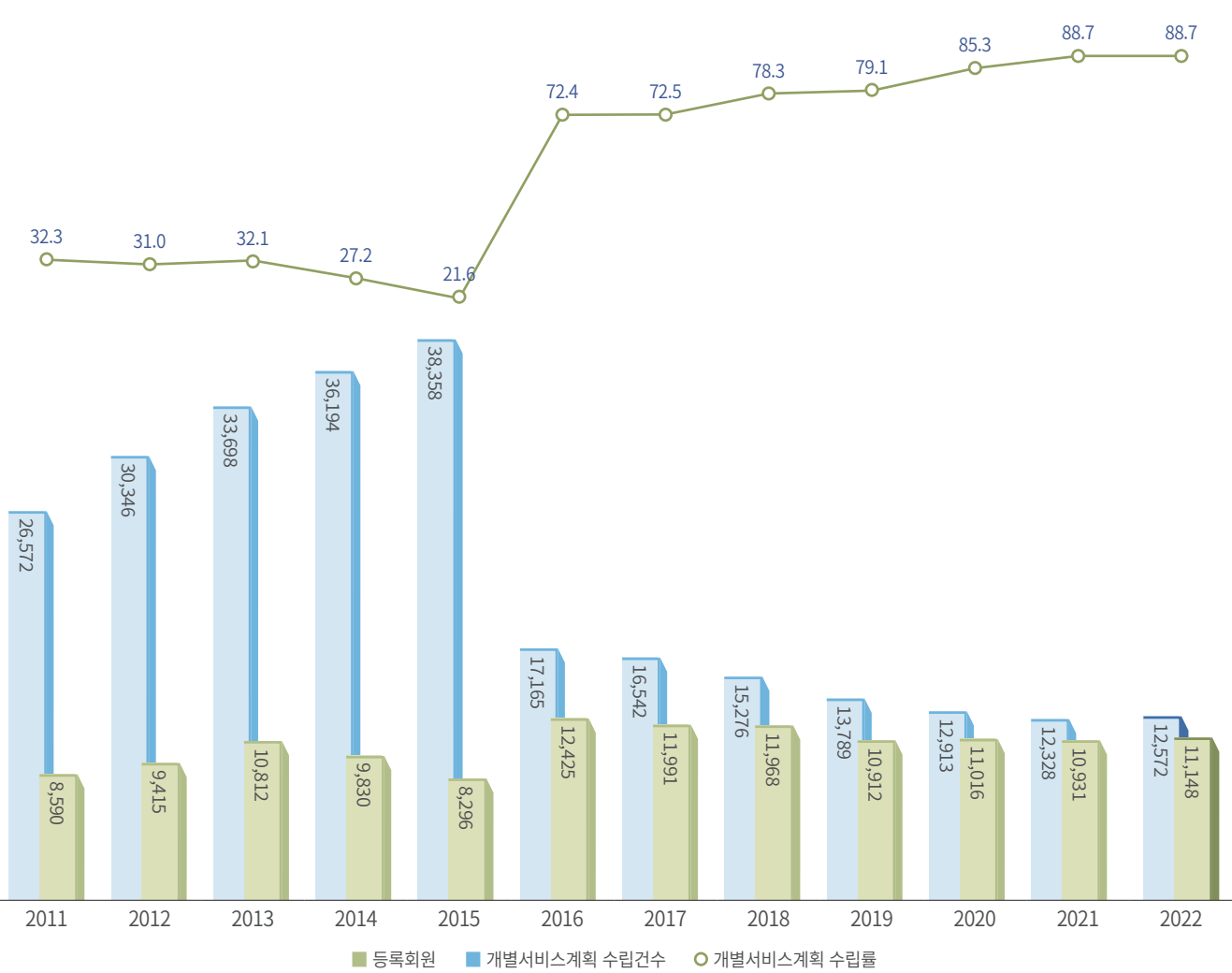
- ▶ 개별서비스계획(Individual Service Plan)이란 등록회원에 대한 사례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걸 의미하며 등록 후 1개월 이내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1회 수립 후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은 등록회원 중 해당연도 1회 이상 개별서비스계획이 수립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 ▶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 추이를 살펴보면, 등록회원 대비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2022년 기준 등록회원 중 1년에 1회 이상 개별서비스계획 수립건수는 11,148건으로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은 88.7%로 나타남.

표. 113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 추이(2011~2022) (단위: 명, 건, %)

연도	주민등록인구	등록회원	개별서비스계획 수립건수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
2011	10,249,679	26,572	8,590	32.3
2012	10,195,318	30,346	9,415	31.0
2013	10,143,645	33,698	10,812	32.1
2014	10,103,233	36,194	9,830	27.2
2015	10,022,181	38,358	8,296	21.6
2016	9,930,616	17,165	12,425	72.4
2017	9,857,426	16,542	11,991	72.5
2018	9,765,623	15,276	11,968	78.3
2019	9,729,107	13,789	10,912	79.1
2020	9,668,465	12,913	11,016	85.3
2021	9,509,458	12,328	10,931	88.7
2022	9,428,372	12,572	11,148	88.7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그림. 91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개별서비스계획 수립률 추이(2011~2022) (단위: 명, 건, %)



5)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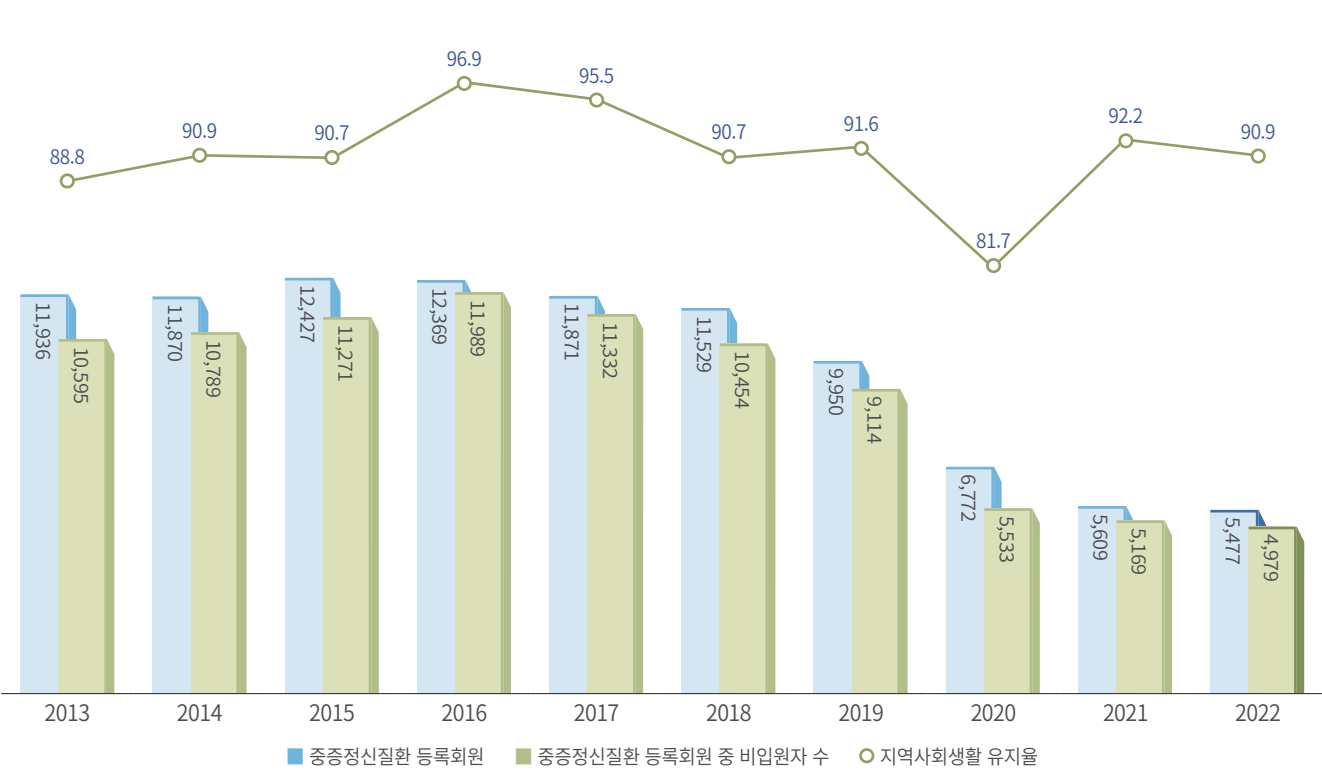
- 지역사회생활 유지율은 등록회원 중 해당연도에 입원한 이력이 없는 등록회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함.
-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및 비입원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지역사회생활 유지율은 90.9%로 전년 대비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4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추이(2013~2022) (단위: 명, %)

연도	주민등록인구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중 비입원자 수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2013	10,143,645	11,936	10,595	88.8
2014	10,103,233	11,870	10,789	90.9
2015	10,022,181	12,427	11,271	90.7
2016	9,930,616	12,369	11,989	96.9
2017	9,857,426	11,871	11,332	95.5
2018	9,765,623	11,529	10,454	90.7
2019	9,729,107	9,950	9,114	91.6
2020	9,668,465	6,772	5,533	81.7
2021	9,509,458	5,609	5,169	92.2
2022	9,428,372	5,477	4,979	90.9

출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그림. 92 서울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증정신질환 등록회원 지역사회생활 유지율 추이(2013~2022) (단위: 명, %)



나. 국내

1)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 2021년 기준 정신장애 진단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평생 정신장애 진단자 4.4%, 1년 정신장애 진단자 7.2%로 나타났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방문 비율을 살펴보면 평생 정신장애 진단자 4.0%, 1년 해당 정신장애 진단자 7.0%로 나타남.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은 우울장애 진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방문 비율은 평생 정신장애 진단자의 경우 불안장애, 우울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1년 정신장애 진단자의 경우 우울장애,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5 국내 정신장애 진단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현황(2021) (단위: %)

구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방문 비율	
	평생 해당 정신장애 진단자	1년 해당 정신장애 진단자	평생 해당 정신장애 진단자	1년 해당 정신장애 진단자
전체	4.4	7.2	4.0	7.0
알코올 사용장애	3.4	2.6	3.2	2.6
니코틴 사용장애	2.0	1.1	2.0	1.1
우울장애	12.5	28.2	11.9	27.4
불안장애	6.2	9.1	53.5	9.1

출처: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보고서

2) 정신건강 관련 상담 경험률

- 2021년 기준 정신건강 관련 상담 경험률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상담 경험률은 4.8%이며 평생 정신장애 진단 대상자 상담 경험률은 13.0%로 나타남.
- 각 항목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상담받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기타 정신건강전문가’, ‘종교인’, ‘한의사/한약사/침술사’ 순으로 나타남.

표. 116 국내 정신건강 관련 상담 경험률 현황(2021) (단위: %)

구분	전체 응답자 상담 경험률	평생 정신장애 진단 대상자 상담 경험률
전체	4.8	13.0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3.7	10.1
기타 정신건강전문가	0.3	0.7
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0.5	1.3
한의사, 한약사, 침술사	0.1	0.4
종교인	0.2	0.4
약사	0.0	0.1

출처: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조사 보고서

3) 정신건강 관련 기관 등록·이용·입소자

- 2021년 기준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이용·입소자 수는, 전체 93,522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79,446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7,636명, 정신재활시설 6,440명으로 나타남.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경기지역이 21,52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9,927명, 경남 5,674명, 충북 5,52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경기지역이 1,79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 1,264명, 인천 863명, 경남 512명 순으로 나타남. 정신재활시설 이용·입소자의 경우 서울지역이 1,93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909명, 전북 660명, 부산 46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7 시도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이용·입소자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전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전국	93,522	79,446	7,636	6,440
서울	12,192	9,927	326	1,939
부산	5,171	4,333	375	463
대구	3,053	2,384	231	438
인천	5,721	4,709	863	149
광주	3,375	1,920	1,264	191
대전	1,874	1,116	323	435
울산	1,450	1,198	196	56
세종	315	295	-	20
경기	24,233	21,529	1,795	909
강원	5,536	5,042	432	62
충북	5,888	5,524	110	254
충남	5,000	4,635	127	238
전북	3,047	2,184	203	660
전남	3,839	3,477	293	69
경북	4,683	4,103	270	310
경남	6,311	5,674	512	125
제주	1,834	1,396	316	122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4) 정신재활프로그램 이용자

- 2021년 기준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6,391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8,031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780명, 정신재활시설 4,58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강원지역이 4,87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남 4,462명, 경기 4,155명, 부산 2,395명, 서울 2,08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광주지역이 72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713명, 경남 579명, 경북 25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서울지역이 1,55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 585명, 전북 453명, 부산 42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8 시도별 정신재활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현황(2021) (단위: 명)

구분	전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전국	36,391	28,031	3,780	4,580
서울	3,792	2,085	154	1,553
부산	2,999	2,395	181	423
대구	1,848	1,404	80	364
인천	1,279	908	251	120
광주	1,524	633	729	162
대전	1,189	757	193	239
울산	1,134	943	135	56
세종	62	62	0	0
경기	5,453	4,155	713	585
강원	5,000	4,878	92	30
충북	2,071	1,845	70	156
충남	539	436	72	31
전북	1,135	593	89	453
전남	1,585	1,471	88	26
경북	1,111	669	258	184
경남	5,124	4,462	579	83
제주	546	335	96	115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5)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 2021년 기준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부산지역에서 17.1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북 18.4명, 경북 19.8명, 울산 20.5명, 대구 22.4명, 세종 22.7명, 대전 23.2명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서울지역은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33.1명으로 전국 26.6명보다 6.5명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시도에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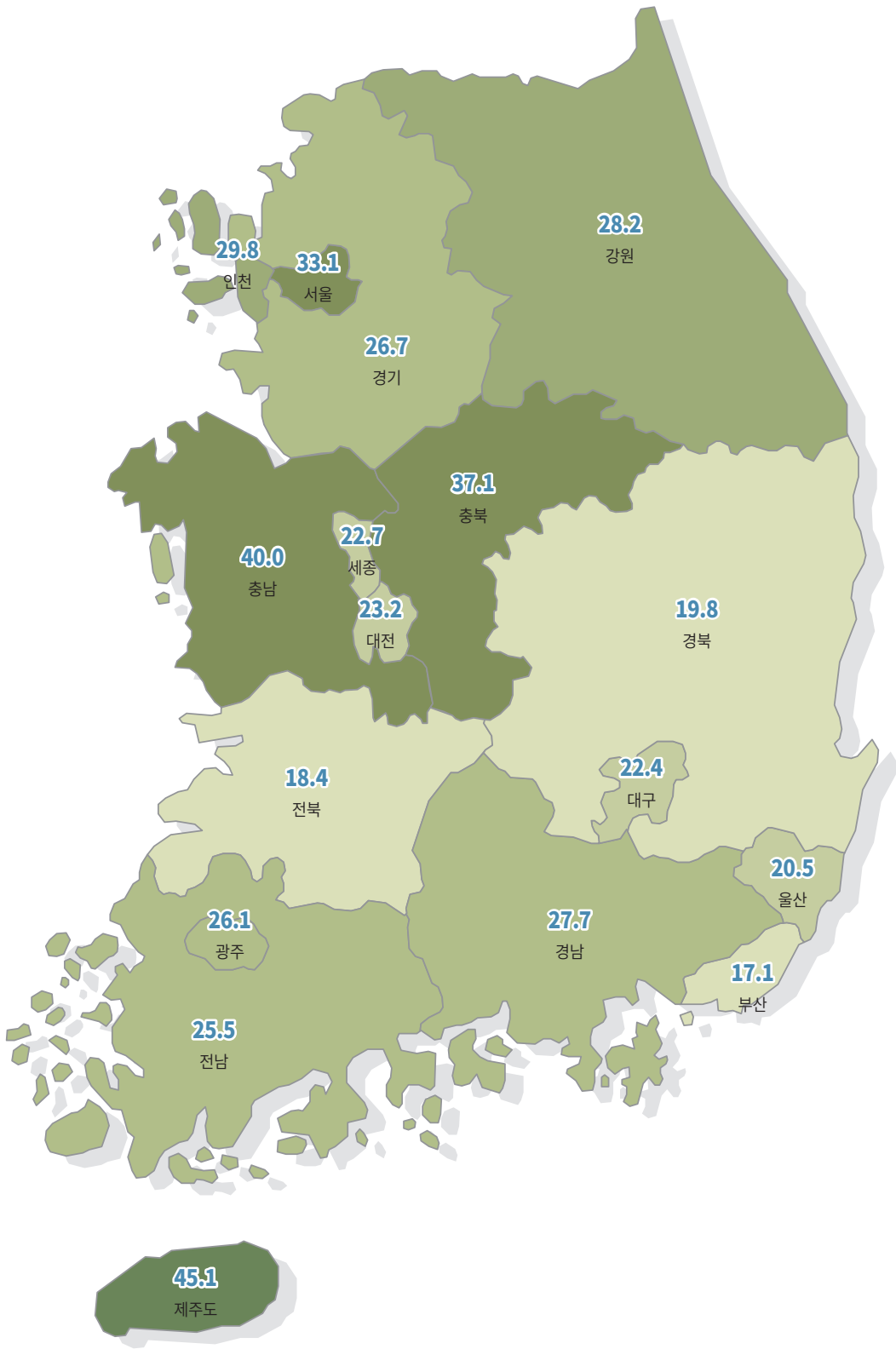
표. 119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2021) (단위: 명)

구분	사례관리자 수	등록 정신질환자 수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
전국	3,304	87,910	26.6
서울	316	10,457	33.1
부산	275	4,708	17.1
대구	117	2,615	22.4
인천	187	5,572	29.8
광주	122	3,184	26.1
대전	62	1,439	23.2
울산	68	1,394	20.5
세종	13	295	22.7
경기	919	23,948	26.7
강원	194	5,474	28.2
충북	152	5,634	37.1
충남	119	4,762	40.0
전북	130	2,387	18.4
전남	148	3,770	25.5
경북	221	4,373	19.8
경남	223	6,186	27.7
제주	38	1,712	45.1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그림. 93 시도별 사례관리자 1인당 등록 정신질환자 수(2021)

(단위: 명)



6)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2021년 기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정신질환 사업을 239개소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사업 238개소, 자살 예방 사업 232개소, 아동청소년 사업 222개소, 재난관리 사업 149개소, 기타 사업 77개소, 알코올/중독 사업 65개소,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 8개소, 노숙자 사업 2개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0 시도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수행사업 현황(2021) (단위: 개소)

구분	개소수	중증 정신질환	아동 청소년	자살 예방	정신건강 증진	알코올/ 중독	재난관리 사업	노숙자	공동모금회 지원	기타
전국	244	239	222	232	238	65	149	2	8	77
서울	25	25	25	22	25	16	18	0	1	6
부산	16	16	16	16	16	3	12	1	1	2
대구	8	8	8	8	8	0	3	0	0	3
인천	11	11	11	11	11	4	8	0	0	5
광주	5	5	5	5	5	0	2	0	1	3
대전	5	5	5	5	5	1	3	0	0	0
울산	5	5	5	5	5	0	4	0	0	1
세종	1	1	1	1	1	0	0	0	0	0
경기	37	33	32	30	32	8	30	0	2	34
강원	18	18	15	18	17	8	5	0	0	2
충북	14	14	14	14	14	1	6	0	0	3
충남	16	16	16	15	16	3	5	0	0	3
전북	14	14	12	13	14	4	6	0	0	2
전남	22	22	18	22	22	3	14	1	1	8
경북	25	24	23	25	25	3	19	0	1	2
경남	20	20	14	20	20	8	12	0	0	3
제주	2	2	2	2	2	0	2	0	1	0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다. 국외

1)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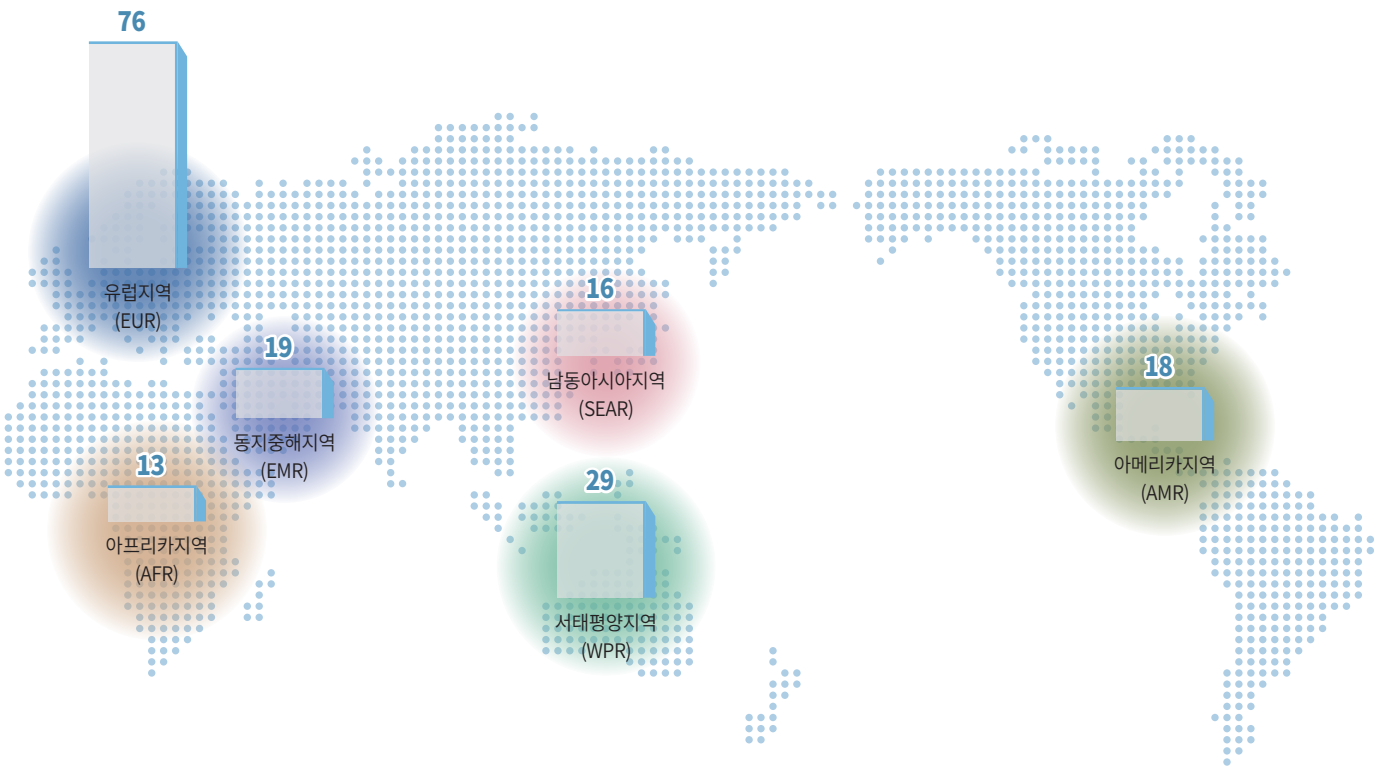
WHO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국가에서 29%의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서비스를 받고 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지역이 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서태평양지역 29%, 동지중해지역 19%, 아메리카지역 18%, 남동아시아지역 16%, 아프리카지역 13% 순으로 나타남.

표. 121 WHO 지역별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비율 현황(2020) (단위: %)

구분	Global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동지중해지역 (EMR)	유럽지역 (EU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서태평양지역 (WPR)
비율	29	13	18	19	76	16	29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그림. 94 WHO 지역별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는 정신질환자의 비율 현황(2020) (단위: %)



국가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12.1%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캐나다는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국 43.1%, 벨기에 39.5%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122 국가별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현황(2021) (단위: %)

구분	대한민국	캐나다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	스페인	호주	남아공	일본
비율	12.1	46.5	43.1	39.5	38.9	35.5	34.9	25.2	20.0

출처: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WHO 지역별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2개 이상 운영 비율은 전체 68%이며 유럽지역이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지중해지역 79%, 서태평양지역 77%, 남동아시아지역 71%, 아메리카지역 69%, 아프리카지역 41% 순으로 나타남.

표. 123 WHO 지역별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최소 2개 이상 운영 비율 현황(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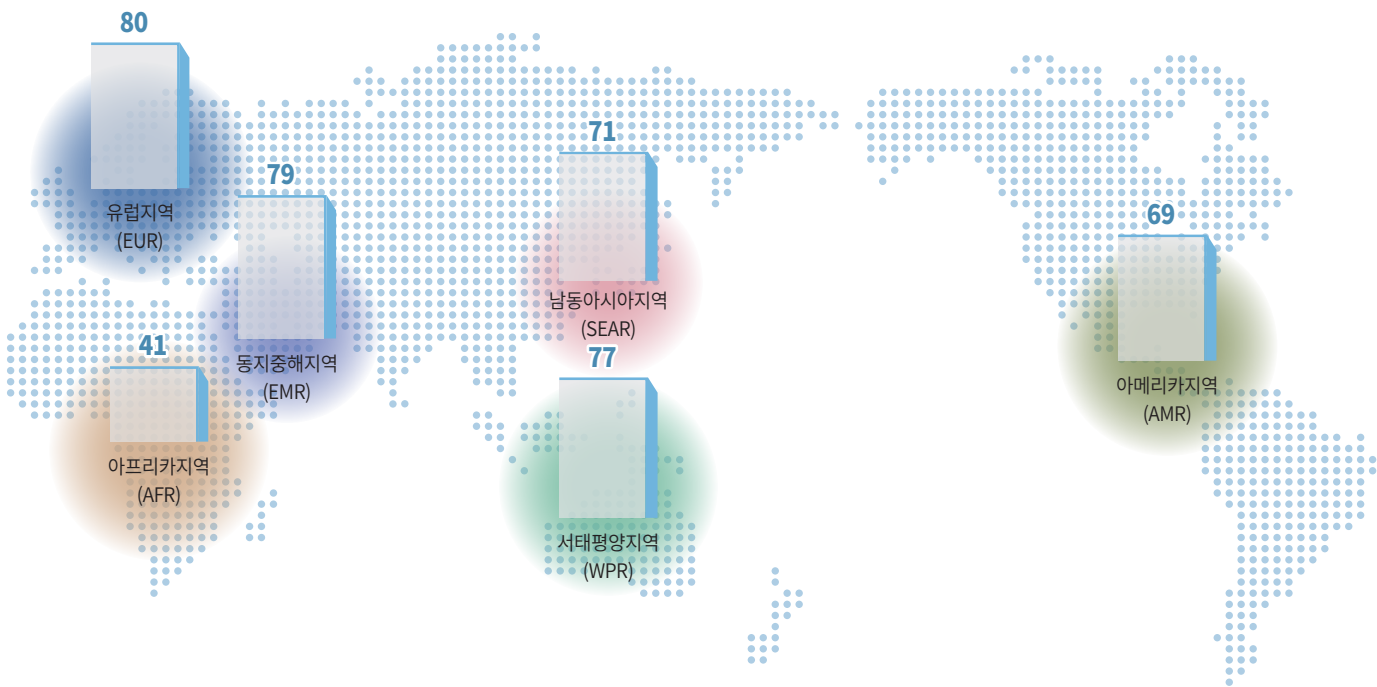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Global	아프리카지역 (AFR)	아메리카지역 (AMR)	동지중해지역 (EMR)	유럽지역 (EUR)	남동아시아지역 (SEAR)	서태평양지역 (WPR)
국가 수	101	13	20	15	31	5	17
비율	68	41	69	79	80	71	77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그림. 95 WHO 지역별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최소 2개 이상 운영 비율 현황(2020)

(단위: %)



WHO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유형을 살펴보면, ‘정신건강인식/낙인 방지’ 프로그램이 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기반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이 17%, ‘자살예방 및 유아발달’ 프로그램이 각각 15%, ‘재해 대비 또는 재해 위험 감소의 MHPSS(심리사회적 지원) 구성요소’ 프로그램이 13%, ‘업무 관련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이 12%, ‘부모/모성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이 10%로 나타남.

표. 124 WHO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 유형 현황(2020)

(단위: %)

구분	비율
정신건강인식/낙인 방지 (Mental health awareness/anti-stigma)	18
학교 기반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School-based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promotion)	17
자살예방 프로그램 (Suicide prevention programme)	15
유아 발달 (Early childhood development)	15
재해 대비 또는 재해 위험 감소의 MHPSS(심리사회적 지원) 구성요소 (MHPSS component of disaster preparedness and/or disaster risk reduction)	13
업무 관련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Work-related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promotion)	12
부모/모성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Parental/maternal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promotion)	10

출처: WHO, Mental Health Atlas

05

부록: 참고자료



참고자료

기관명	자료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시 정신의료기관 현황 데이터 분석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서비스 현황조사
	정신건강에 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보고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 데이터 분석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국민건강보험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기본통계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서울시 의료급여 지출액
	서울특별시 예산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별 정신질환 진료 현황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 정신건강 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보고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보건복지부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보건복지통계연보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	인구총조사
	사망원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WHO	Mental Health Atlas
	Mental Health Report
OECD	Health at a Glance: Asia/Pacific
	Health Statistics
The World Bank	World Bank Open Data
IMHE	Global Burden of Disease(GBD)

2022

서울시정신건강지표

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발 행 일 2023년 10월
발 행 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기 획 자 데이터정보운영팀
전 화 02-3444-9934
팩 스 02-3444-9961
홈페이지 <https://seoulmentalhealth.kr/>
제작업체 (주)디자인위드
도서목록번호 가2023-03
비 매 품

ISSN 3022-1471(Online-PDF)

본 제작물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소유이므로 사전 승인 없이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SEOUL MENTAL HEALTH INDICATOR



서울시 Seoul Mental Health Welfare Center
정신건강복지센터

